# 일러두기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력사학습참고서》는 력사상식을 높일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중학교 력사교과서에 준하여 편집하였다. 학습문제는 력사적순차에 따라 설정하였고 내용에서 교과서범위밖의 자료들을 첨부한것이 있다.

앞부분에서 조선력사의 주요사변과 인물자료를 부류별로 표화하여주고 기본문제안에서 다시 구체화함으로써 학습의 심도와 편리를 도모하려고 하였다.

기본문제는 1, 2, 3,…의 련번호로 주면서 내용을 몇가지 부호로 체계잡아주었다.

□ 부호안에 준 문제들은 기본문제와 구별하였지만 내용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련관이 있는것들이다.

[ ]부호안에 준 내용은 우의 문제들보다 작은 상식적인것들이다.

※ 부호는 인물, 용어, 개념 등을 정확히 알도록 보충적으로 준것이다.

차례에 찾아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문제의 체계와는 관계없이 중요한 내용들을 주었다.

세계력사편은 그 특성에 따라 조선력사와 다른 체계형식으로 하였다.

# 차　례

## 조선력사편

## 상식 및 용어해설

## 세계력사편

## 용어해설(세계력사)

# 조선력사편

## 1. 원시사회의 발전단계

원시사회는 두가지 징표에 의하여 세 단계(시기)로 나눈다.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살았는가에 따라(사회관계에 따라) 원시무리시기→모계씨족공동체사회→부계씨족공동체사회로,

로동도구의 발전단계에 따라 구석기시대→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로 구분한다.

매 시대의 특징들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사회관계에 의한 구분 | 로동도구의 발전에 의한 구분 | 원인-현대인으로의 발전 | 해당시기의 도구 생산활동 | 대표적인 유적과 유물 |
|---|---|---|---|---|
| 원시무리시기 | 구석기시대 (전기) (100만년전-30만년전) | 원인 | 타제석기(돌을 깨뜨려 만든 도구) 골각기(뼈,뿔로 만든 도구) 식물, 열매, 뿌리채집, 짐승사냥 | 황해북도 상원군 검은모루유적, 경기도 련천군 전곡리유적(동물화석, 석기발견) |
| | 구석기시대 (중기) (30만년전-5만년전) | 고인 | | 《력포사람》, 《화대사람》화석, 라선시 굴포리 서포항유적, 력포구역 대현동유적, 화대군 석성리유적 등 |
| 모계씨족공동체사회 | 구석기시대 (후기) (5만년전-9천년전) | 신인 | 마제석기(돌을 갈아 만든 도구), 질그릇을 사용, 농사, 집짐승기르기 시작 | 덕천시 승리산동굴유적, 상원군 룡곡리동굴유적,봉산군 지탑리유적, 온천군 궁산리유적, 삼석구역 남경유적과 표대유적, 봉산군 마산리유적 등 남부조선, 료동지방, 길림, 장춘지구, 남연해주 등지에 많다. |
| | 신석기시대 (B.C.7천년기—B.C. 4 천년기 전반기) | 조선 옛류형사람 | | |

| | | | | |
|---|---|---|---|---|
| 부계씨족공동체사회 | 청동기시대 (B.C.4천년기 후반기—B.C.30세기초) 평양지방에 존재 | 〃 (현대인은 국가시대부터 출현) | 청동기사용 농사, 집짐승기르기, 수공업, 교환의 발생 | 송림시 석탄리유적 등 각지에 분포<br>질그릇, 달도끼, 별도끼, 청동활촉, 기타 청동기들 |

○ 석기시대는 발전의 특성에 따라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 남부조선, 동부, 동북지방 등 여러 지역으로 갈라지며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눈다.

○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의 중간에는 1만 5천년전-지금으로부터 9천년 이전까지 중석기시대라는 하나의 시대가 있다. 그러나 크게는 중석기시대를 구석기시대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 신석기시대에도 타제석기와 골각기가 함께 쓰이였고 청동기시대에도 석기를 함께 썼다. 즉 락후한 도구를 다 없애고 새 도구를 쓴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함께 쓰이면서 점차 새것으로 바뀌였다.

○ 원시무리시기-인류가 발생한 첫 시기 무리를 지어 살던 시대

사람의 발생과 함께 원시무리생활로 인류사회력사가 시작되였다.

○ 모계씨족공동체-녀성이 씨족공동체의 중심이 되여 집단생활을 조직지휘하는 씨족공동체

씨족이란 한 조상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혈연적인 집단이다. 다시말하여 피줄을 같이하는 부모, 형제, 친척들이 함께 살아가는 집단이다.

구석기시대후기에 처음으로 모계씨족공동체가 발생하였다.

○ 부계씨족공동체-남자가 씨족공동체의 중심이 되여 집단생활을 조직지휘하는 씨족공동체

청동기가 나온 다음에도 마제석기는 많이 쓰이였다.

## 2. 력사년대와 세기, 간지

○ 년과 년대

옛날에 사람들이 생활에서 어느해인가를 가려보기 위해 어떤 일이 있었던 해를 1년으로 정하였다.

그 다음해는 2년, 또 다음해는 3년… 10년 하여 10년부터 19년까지는 10년대, 20년부터 29년까지는 20년대로 된다.

이런 식으로 100년, 1 000년 흘러서 지금은 2000년대에 이르렀다.

처음에 정한 1년부터 지금까지의 년대와 앞으로의 년대를 《A.D. ○○년》으로 쓴다. 그러나 A.D.는 흔히 쓰지 않는다.

A.D.1년이전의 년대는 《B.C. ○○년》이라고 쓴다. 그러므로 A.D.2005년을 기준하면 B.C.1년은 2005년전이며 B.C.100년은 2105년전이다.

◯ 세기

많고 오랜 년대(해수)를 그대로 쓰면 복잡하므로 100년을 단위로 하는 세기를 쓴다.

B.C.1200년대는 B.C.13세기이며

A.D.1200년대는 A.D.13세기로 된다.

그러므로 B.C.(기원전)1세기는 B.C.100년- B.C.1년까지,

B.C.2세기는 B.C.200년- B.C.101년까지이며,

A.D.(기원후) 1세기는 1년-100년까지,

2세기는 101년-200년까지,

20세기는 1901년-2000년까지,

B.C.20세기는 B.C.2000년- B.C.1901년까지이다.

◯ 간지

10간과 12지를 간단히 간지라고 한다.

10간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이며

12지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이다.

고대로부터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일부 나라들에서 년, 월, 일, 시간, 방향 등을 간지로 표시하였다.

10간과 12지를 순서대로 하나씩 맞추면 12지의 마지막 두 글자는 10간의 다음 돌기의 첫 두 글자에 맞추어진다. 그다음 12지의 두번째 돌기의 첫 글자는 10간의 두번째 돌기 세번째 글자와 맞추어진다.

이렇게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오,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해, 병자, 정축…》 같은 60개의 서로 다른 맞춤이 된 다음 61번째는 《갑자》부터 되풀이된다.

이 60개의 맞춤을 60갑자라고 한다.

사람들이 세는 나이 61살이 되면 60돐, 60나이라고 하는것은 60갑자를 다시 맞는 나이라는 뜻에서 나왔다. 동갑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

중학교 조선력사교재에는 간지로 년대를 쓴것이 많다.

임진조국전쟁(1592년), 병인양요(1866년), 신미양요(1871년), 임오군인폭동(1882년), 갑신정변(1884년), 갑오개혁(1894년), 《경신년대학살》(1920년) 등.

간지는 년대뿐아니라 날자, 시간, 방향을 가리키는데도 써왔다.

이때 날자는 갑자일, 병인일, 을축일 등으로 부르며 월은 1월부터 12지의 순서대로 표시하였다. 시간 역시 12지를 붙여 자시(밤 11시-1시), 오시(낮 11시-13시), 정오(낮 12시), 오전, 오후라는 말들은 모두 여기서 나왔다.

방향도 북-남방향을 자오선, 동-서방향을 묘유선과 같이 12지의 글자들로써 표시하였다.

## 3. 조선력사의 시기구분

인류사회력사의 시기는 원시,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눈다.

우리 나라에서 원시사회력사는 인류가 발생한 후부터 고조선국가가 발생하기 전까지, 고대력사는 고조선성립시기부터 노예사회가 멸망하고 봉건사회인 고구려가 성립되기 전시기까지이다.

중세력사는 19세기 중엽까지이고 그후부터 1920년대 전반기까지는 근대력사이다. 그다음의 조선현대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력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혁명력사로 된다.

## 조선력사 시기구분표

| 번호 | 시 기 | 년 대 | 나 라 |
|---|---|---|---|
| 1 | 원 시 | 100만년 이전－ -B.C.30세기초까지 | |
| 2 | 고 대 | B.C.30세기초－ －B.C.3세기초 | 고조선, 부여, 구려, 진국 |
| 3 | 중 세 | B.C.277년－ －19세기 중엽 | 고구려, 후부여, 백제, 신라, 가야, 발해, 고려, 리조(조선) |
| 4 | 근 대 | 19세기 중엽－ －1920년대 전반기 | 리조(19세기 중엽 이후) |
| 5 | 현 대 | 1920년대 후반기－현재 | 조선 |

## 4. 원시사회, 노예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의 차이

| 사회 | 정치제도 | 지배계급과 신분 | 피지배계급과 신분 | 생산수단의 소유 |
|---|---|---|---|---|
| 원시사회 | 원시공동체생활 | | | 토지를 비롯한 모든 재부가 공동소유 |
| 노예사회 | ・군주제<br>・신분제도 | ・노예주 | 노예, 평민 | 노예주계급이 독차지 |
| 봉건사회 | ・군주제<br>・신분제도 | ・봉건지주<br>・량반, 중인 | ・량인(농민, 수공업자, 상인 등)<br>・부곡민, 노비 | 봉건지주계급이 대부분 독차지<br>량인은 얼마간 소유 |
| 자본주의사회 | ・립헌군주제<br>・의회제<br>신분제도는 페지됨 | ・지주, 자본가 | 로동자, 농민 | 지주, 자본가가 모든 생산수단을 독차지 |

·군주제는 왕이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제마음대로 통치하는 제도이다. 왕은 선거되는것이 아니라 세습된다. 법에는 왕에 대해 규정한것이 없다.

·신분제도는 사람을《귀한 사람》과《천한 사람》으로 갈라놓고《천한》신분의 사람은 《귀한》신분의 지배계급에게 무조건 복종할것을 강요하는 제도이다. 신분제도는 부르죠아혁명에 의하여 청산된다.

·노비는 노예의 처지와 비슷하다. 다만 량반들이 마음대로 죽일수는 없다. 관청이나 량반집일을 하는 노비들은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을 못가지였다.

봉건사회에서 대다수 노비들은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받는 최하층 신분이였다.

그들은 국가나 상전인 량반지주에게 몸값(신공)이라 하여 매해 많은 곡식이나 천, 돈을 내야 하였다.

·립헌군주제는 부르죠아국가정치제도형식의 하나로서 군주를 그대로 두고 헌법을 가지며 실권을 국회가 행사하는 국가제도이다.

·의회제(공화제)는 지주, 자본가의원들이 참가하는 의회에서 헌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법을 만들고 대통령도 《선거》하여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제도이다.

## 5. 우리 나라 력사의 주요국가들과 존재시기

| 사 회 | 나라이름 | 존 재 시 기 |
|---|---|---|
| 노예사회 | 고조선 | B.C.30세기초—B.C.108년 |
| | 부 여 | B.C.15세기 중엽—B.C.219년 |
| | 구 려 | B.C.15세기 중엽—B.C.277년 |
| | 진 국 | B.C.12세기경—A.D.1세기초 중엽 |
| 봉건사회 | 고구려 | B.C.277년—668년 |
| | 후부여 | B.C.2세기초—494년 |
| | 백 제 | B.C.1세기 말엽—660년 |
| | 신 라 | A.D.1세기초 중엽—935년 |

| | | |
|---|---|---|
| | 가 야 | A.D.1세기 중엽－6세기 중엽 |
| | 발 해 | 698년－926년 |
| | 고 려 | 918년－1392년 |
| | 리조봉건국가（조선） | 1392년－1910년 |

※ 1910년 일제의《한일합병조약》의 날조로 리조봉건국가는 사실상 존재를 마침. 그러나 1905년 《을사5조약》을 날조해냄으로써 식민지통치를 개시하였다.

## 6. 주요 반침략전쟁

| 번호 | 전쟁 이름 | 시 기 | 대표적인 명장 | 주 요 내 용 |
|---|---|---|---|---|
| 1 | 고조선－한전쟁 | B.C.109년 - B.C.108년 | 성기 | B.C.109년 가을 한나라는 수군 5만명을 포함한 방대한 무력으로 고조선 침략.<br>고조선 우거왕이 태자와 관리들을 데리고 료하하류에 있던 부수도 왕검성의 전선지휘부에 나가 지휘. 왕검성에서 1년간 전투.<br>적들이 고조선 변절자들을 리용하여 우거왕을 살해하자 성기가 지휘, 적들은 성기까지 살해하고 왕검성 함락. |
| 2 | 고구려－수전쟁 | 598년-614년 (4차례침략) | 을지문덕 | 적괴수 양제. 1차로 598년 100만의 수군과 륙군으로 침입.<br>료하계선에서 격퇴.<br>2차로 612년 300만으로 침입. 료동성에서 100여일동안 고구려군민이 성을 고수, 살수（소자하）에서 30만 5 000명 적 소멸 |

| | | | | |
|---|---|---|---|---|
| 3 | 고구려－당전쟁 | 645년-648년 | 양만춘<br>연개소문 | 1차-수륙군 수십만 침입. 료동성에서 19일간 격전끝에 성을 고수. 안시성에서 10만의 고구려군민이 적의 공격을 88일간 견제. 양만춘이 고구려군 지휘. 당태종 고구려군의 화살에 한눈을 잃고 도주. 연개소문이 국가실권을 잡고 전쟁전반을 지휘. |
| 4 | 고려－거란전쟁 | 993년-1019년<br>(3차례침략) | 서희,<br>양규,<br>김숙홍,<br>강감찬 | 1차-993년에 침입. 전선에서의 승리와 서희의 강화담판으로 적들을 물리침.<br>2차-1010년 거란왕 성종이 40만으로 개경까지 침입했다가 도주. 강감찬이 청야수성전술로 적을 타승.<br>3차-1018년에 침입. 구주(구성부근)일대에서 대섬멸전(구주대첩) |
| 5 | 고려－봉건몽골전쟁 | 1231년-1273년 | 박서,<br>김윤후 | 1231년 9월 구주성전투<br>1232년 12월 처인성(경기도 룡인군)전투<br>김윤후는 적장 살례탑을 한대의 화살로 쏘아죽임. 충주성전투, 삼별초군의 항전 |
| 6 | 임진<br>조국전쟁 | 1592년-1598년(2차례침략) | 리순신,<br>곽재우,<br>서산대사,<br>김응서,<br>권률,<br>리정암 | 《한산대첩》 적선 73척중 59척 격파<br>《부산대첩》 100여척, 《명량대첩》30척 격파<br>《로량대첩》 200척과 2만명 소멸( 리순신과 거북선의 투쟁)<br>《진주대첩》, 평양성해방전투(1만명이상 소멸)<br>《행주대첩》에서 3만명 소멸<br>《연안대첩》에서 거의 3 000명 소멸 |
| 7 | 조선－후금(청)전쟁 | 1627년-1636년 | 정봉수,<br>리립 등 | 1616년 녀진족은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1627년에 의주, 평양, 평산까지 침입. 룡천, 정주, 선천에서 의병투쟁이 세차게 벌어짐.<br>1636년 청나라침략군 12만이 한성까지 침입.<br>남한산성(경기도 광주)에서 40여일간 싸움. 그후 《화의》체결. |

## 7. 주요 농민전쟁과 폭동

| 번호 | 전쟁이름 | 시 기 | 지 역 | 규 모 | 대표적인 지휘자 | 특징, 결과 |
|---|---|---|---|---|---|---|
| 1 | 9세기 말 농민전쟁 | 후기 신라시기 889년-896년 | 후기신라의 전지역과 평양일대 | 20여개의 농민군이 투쟁한 농민군은 5 000명이나 됨 | 원종 애노 궁예 견훤 량길 | 《붉은바지농민군》은 신라의 경주부근까지 진격함, 이 농민전쟁결과로 견훤이 후백제를, 궁예가 태봉국을 세움으로써 후기신라를 포함한 《후삼국》시기가 도래함 |
| 2 | 12세기 후반기 -13세기 초 농민전쟁 | 고려시기 1176년 -1204년 | 평양, 공주, 경주, 개경 등 전국적범위 | 전국적인 범위에서 5개의 큰 부대가 투쟁 | 조위총 망이 망소이 만적 김사미 효심 | 공주지방 망이농민폭동이 가장 대표적임 |
| 3 | 함길도 농민 전쟁 | 리조시기 1467년 5~8월 | 북청, 길주, 고원, 리원 등 함길도일대 | 농민군2만명 이상 참가 | 리시애 | 지방량반들에 대한 차별에 불만을 품고 일어났으나 농민대중이 참가함으로써 농민전쟁으로 됨 |
| 4 | 평안도 농민 전쟁 | 리조시기 1811년 12~1812년 4월 | 박천, 정주, 곽산, 선천, 태천, 철산, 룡천 등 청천강이북의 평안도 | 농민군 2 000명, 정부군 8 000명 | 홍경래 | 농민, 수공업자, 상인, 광산로동자, 기업주 등 자본주의적관계 발생시기의 각 계층이 참가 |

| | | | | | | |
|---|---|---|---|---|---|---|
| 5 | 1862년 전국 농민 폭동 | 리조시기 1862년 | 경상도 진주, 개령, 전라도 익산, 함평, 충청도 공주를 비롯한 삼남 각지와 함흥, 제주도 등 전국각지 | 삼남지방에서 전개, 각 고을에서 수천, 수만명이 투쟁, 함흥, 황주에서도 수백수천명이 들고 일어남 | 류계춘 리계렬 정한순 림치수 | 병마사, 목사, 군수 등 관료들을 굴복시키고 내쫓았으며 일부 관리들을 처단. 봉건정부가《리정청》을 설치하고 착취를 늦추기 위한 대책을 론의하게 함 |
| 6 | 1882(임오)년 군인 폭동 | 근대시기 1882년 | 서울(인천에서도 투쟁) | 서울의 군인들과 인민들 수천명이 참가 | 류춘만 김장손 | 일본침략자들 10여명과 병조판서, 경기감사 등 수많은 통치배 처단. (민비는 놓침), 고종은 정권을 대원군에게 넘김, 청나라 3 000명 무력간섭으로 실패 |
| 7 | 1894(갑오)년 농민 전쟁 | 근대시기 1894년 1월-1895년 12월 |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를 중심으로 강원도, 평안도, 황해도에서도 벌어짐 | 농민군 20여만명 참가 | 전봉준 | 아시아3대항전의 하나로서 근대 우리 나라 력사에서 가장 큰 반침략반봉건투쟁, 일제의 무력간섭으로 실패 |

## 8. 이름높은 애국명장, 무관들

| 번호 | 명장 이름 | 시 기 | 지휘한 전쟁 (투쟁) |
|---|---|---|---|
| 1 | 성기 | B.C.109년-B.C.108년 | 고조선-한전쟁시기 왕검성전투 지휘 |
| 2 | 명림답부 | 172년 | 한나라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좌원벌싸움 지휘 |

| | | | |
|---|---|---|---|
| 3 | 을지문덕 | 612년 | 고구려-수전쟁시기 침략군 300만이 쳐들어 왔을 때 고구려군민을 조직지휘<br>살수대승리 (《살수대첩》) 에 기여 |
| 4 | 연개소문 | ?-661년 | 고구려-당전쟁시기 고구려군민을 조직지휘 |
| 5 | 양만춘 | 645년 | 고구려-당전쟁시기 안시성전투지휘 |
| 6 | 계백 | 660년 | 라-당련합군의 침공을 반대한 백제군의 황산벌싸움 지휘 |
| 7 | 장문휴 | 732년-733년 | 발해-당전쟁시기 수군을 이끌고 당나라 등주기습타격전 지휘 |
| 8 | 서희<br>대도수 | 993년<br>993년 | 고려-거란1차전쟁시기 적장 소손녕과 담판에서 승리<br>고려-거란1차전쟁때 있은 안융진전투지휘 |
| 9 | 양 규<br>김숙흥 | 1011년 | 고려-거란전쟁시기 애전에서의 전투지휘 |
| 10 | 강감찬 | 1011년-1019년 | 고려-거란2차전쟁시기 고려군 지휘자<br>1019년 구주대첩 지휘 |
| 11 | 박서 | 1231년 | 고려-봉건몽골전쟁시기 구주성전투 지휘 |
| 12 | 김윤후 | 1232년<br>1253년 | 고려-몽골전쟁시기 처인성전투에서 적장 살례탑을 쏘아죽임, 충주성전투 지휘 |
| 13 | 리순신 | 1592년-1598년 | 임진조국전쟁시기<br>바다의 명장.《한산대승리》,《부산대승리》,《로량대승리》, 《명량대승리》에 기여 |
| 14 | 서산대사<br>김응서<br>곽재우<br>권률 | 1593년<br>1592년-1593년<br>1592년-1597년<br>1593년 | 평양성탈환전투지휘<br>・평양지방에서 싸움, 왜적장을 계월향과 련계하여 처단<br>・경상도 의령 솥나루전투지휘<br>・행주산성싸움 (《행주대첩》) 지휘 |
| 15 | 정봉수 | 1627년 | 리조-청 (후금) 전쟁시기<br>룡골산성에서 의병부대 지휘 |

## 9. 자랑스러운 학자, 기술자, 발명가들

| 번호 | 이 름 | 활동시기 | 창 조 물 |
|---|---|---|---|
| 1 | 담징 | 7세기 고구려 중. 기술자, 학자, 화가 | 일본법륭사 금당벽화를 그리고 물감, 종이, 먹 만드는 기술보급 |
| 2 | 덕래 | 5세기 명의사 | 일본에 의술을 보급 |
| 3 | 혜자 | 6세기 고구려의 학자,중 | 일본실권자 성덕태자의 스승으로 활동, 의술발전에 기여 |
| 4 | 아비지 | 7세기 백제의 기술자 | 황룡사 9층탑건설지도 |
| 5 | 구진천 | 7세기 신라 무기기술자 | 기계활 《천보노》제작 |
| 6 | 설총 | 7세기 신라 학자 | 우화작품 《할미꽃의 충고》창작 |
| 7 | 최치원 | 9세기 후기신라 학자 | 서정시 《강남녀》창작 |
| 8 | 최무선 | 14세기 고려명장,기술자 | 화약발명, 화약무기제조 |
| 9 | 문익점 | 14세기 고려 애국인물 | 목화보급 |
| 10 | 리천 | 15세기 리조 기술자, 발명가, 군사지휘관 | 동, 연으로 활자제조, 천문관측기구 혼천의와 자동물시계인 자격루, 해시계인 앙부일구, 옥류기륜 등 제작 |
| 11 | 장영실 | 15세기 리조 기술자, 발명가 | 대간의, 혼천의, 자격루, 활자 등의 제작에서 리천과 함께 활동 |
| 12 | 세종 | 리조 4대왕 15세기 | 성삼문, 최항, 박팽년, 리개, 정린지, 신숙주 등 학자들과 《훈민정음》창제 |
| 13 | 로중례 | 15세기 명의사 | 《향약집성방》 저술 |
| 14 | 서경덕 | 16세기 철학자 | 문집《화담집》저술 |
| 15 | 리장손 | 16세기 기술자 | 비격진천뢰 창안제작 |
| 16 | 허준 | 16세기 명의, 고려 의학자 | 《동의보감》저술 |

| | | | |
|---|---|---|---|
| 17 | 류형원 | 17세기 실학자 | 《반계수록》 저술 |
| 18 | 홍대용 | 18세기 실학자, 자연과학자 | 천문학, 수학연구, 여러 천문관측기구 제작, 지구는 둥글며 돈다고 주장<br>문집 《담헌서》 |
| 19 | 박지원 | 18세기 실학자, 작가 | 농학책 《과농소초》, 소설 《허생전》, 《량반전》, 려행기 《열하일기》, 문집 《연암집》 |
| 20 | 정약용 | 19세기 실학자 | 《경세유표》,《마과회통》 등 정치, 경제,과학도서저술, 한강다리와 수원성설계, 거중기 창안 제작 |
| 21 | 김정호 | 19세기 지리학자, 실학자 | 《대동여지도》, 《대동지지》등 지도와 지리책출판 |
| 22 | 리제마 | 19세기 의학자 | 4상의학설체계화<br>《동의수세보원》저술 |
| 23 | 주시경 | 19세기말-20세기초 언어학자, 교육자 | 《국어문전음학》, 《국어문법》, 《말의 소리》등 저술 |
| 24 | 신채호 | 20세기초 력사가, 작가 | 《짤막한 조선의 이야기》, 《조선상고사》, 《을지문덕전》 등 많은 책 저술 |
| 25 | 박은식 | 20세기초 력사학자 | 《한국통사》저술 |
| 26 | 지석영 | 20세기초 의학자 | 우두접종법 보급, 《우주신설》저술<br>서울의학학교 교장, 의사 양성 |

## 10. 이름떨친 작가들

| 번호 | 이 름 | 활동시기 | 대표적작품 저작들 |
|---|---|---|---|
| 1 | 혜 초 | 8세기 후기신라 대려행가 | 려행기《왕오천축국전》 |
| 2 | 양태사 | 8세기 발해의 시인 | 시《밤에 다듬이소리를 듣고》 |
| 3 | 왕효렴 | 9세기 발해 시인 | 시《달을 보고 고향을 생각하며》 |
| 4 | 정지상 | 12세기 고려 관료시인 | 시《평양》, 《대동강》 |
| 5 | 고조기 | 〃 | 시《싸움터의 님에게》 |
| 6 | 리규보 | 12~13세기 고려문인 | 장편력사시 《동명왕편》<br>시《10월의 번개》, 문집《동국리상국집》 |
| 7 | 김극기 | 12~13세기 문인 | 시《농사집의 네절기》 |
| 8 | 리제현 | 13세기 고려문인 | 시《사리화》, 산문《력옹패설》 |
| 9 | 리 색 | 14세기 문인 | 문집《목은집》 |
| 10 | 김시습 | 15세기 리조작가 | 소설집《금오신화》<br>문집《매월당집》 |
| 11 | 정 철 | 16세기 리조시인 | 국문시가《관동별곡》, 《송강가사》 |
| 12 | 박인로 | 16~17세기 리조 무관, 시인 | 시《태평사》, 《선상탄》, 《발갈이노래》, 《가난의 노래》<br>문집《로계집》 |
| 13 | 허란설헌 | 16세기 녀류시인 | 《가난한 집 처녀》, 문집《란설헌집》 |
| 14 | 황진이 | 16세기 녀류시인 | 《박연폭포》 등 많은 시 창작 |
| 15 | 허 균 | 16~17세기 작가 | 소설《홍길동전》 |
| 16 | 권 필 | 16~17세기 시인 | 시《뜻을 말한다》, 《싸우는 개》, 《흑흑 느껴운다》 |
| 17 | 윤선도 | 17세기 국문시인 | 시《어부사시사》, 《산중신곡》, 《가을밤의 노래》 |
| 18 | 림 제 | 16세기 작가 | 소설《재판받는 쥐》,《꽃력사》, 문집《백호집》 |
| 19 | 김만중 | 17세기 작가 | 국문소설《사씨남정기》, 《구운몽》 |
| 20 | 김삿갓<br>(김병연) | 19세기 풍자시인 | 《온종일 머리숙인 나그네》,《원생원》, 《량반의 아들을 조롱함》등 수많은 풍자시 |

| | | | |
|---|---|---|---|
| 22 | 리해조 | 19세기말 작가 | 소설《자유종》, 《빈상설》, 《구미검》 |
| 23 | 김교제 | 〃 | 소설《현미경》 |
| 24 | 량건식 | 1910년대 작가 | 소설《슬픈 모순》 |
| 25 | 최서해 | 1920년대 작가 | 소설《탈출기》, 《박돌의 죽음》 등 |
| 26 | 라도향 | 1920년대 작가 | 소설《행랑자식》 등 |

## 11. 뛰여난 음악가, 미술가들

| 이름 | 활동시기 | 대표적인 작품 |
|---|---|---|
| 려 옥 | 고조선시기 시인 음악가 | 《공후인》 |
| 왕산악 | 3~4세기 고구려 음악가 | 거문고를 잘 타고 100여곡의 노래창작 |
| 담 징 | 7세기 고구려화가, 학자, 기술자 | (※ 학자, 기술자편에 있음) |
| 우 륵 | 가야 음악가 | 가야금을 처음으로 만듦 |
| 아 좌 | 6세기 백제화가 | 일본법륭사에 《성덕태자상》그림 |
| 백결선생 | 5세기 신라 음악가 | 《방아타령》창작 |
| 솔 거 | 8세기 후기신라 화가 | 황룡사 벽화, 단군의 화상 |
| 김 생 | 8세기 서예가 | |
| 리 녕 | 12세기 고려 화가 | 《례성강 풍경》 |
| 박 연 | 15세기 리조 음악가 | 12률관(12개 음의 높이)제정, 악기,악곡 수많이 만듦 |
| 한 호 (한석봉) | 16세기 서예가 | 《석봉필적》, 《석봉서엽》, 《석봉천자문》 |
| 리상좌 | 16세기 화가 | 《달밤에 소나무밑을 거닐며》,《산수도》 |
| 안 견 | 15세기 화가 | 《어부의 얼굴》, 《꿈에 본 동산》 |
| 신사임당 | 16세기 녀류화가 | 《가지》,《포도》,《물오리》 |
| 리명욱 | 17세기 화가 | 《어부와 나무군》 |
| 김홍도 | 18세기 화가 | 《대장간》, 《마당질》 |
| 김두량 | 18세기 화가 | 《소몰이군》 |

| | | |
|---|---|---|
| 신윤복 | 19세기 화가 | 《단오놀이》 |
| 김득신 | 19세기 화가 | 《량반과 상민》 |
| 장승업 | 19세기 화가 | 《매화》, 《련못가의 물촉새》 |
| 김창조 | 19세기말 음악가 | 가야금 산조완성 |
| 홍란파 | 해방전 음악가 | 《봉선화》, 《고향의 봄》 |
| 안기영 | 해방전 음악가 | 《그리운 강남》 |
| 라운규 | 1920년대 영화연출가, 배우, 영화문학작가 | 예술영화 《아리랑》, 《풍운아》 등 영화창작 |

## 12. 이름난 녀류인물들

| 이름 | 활동시기 | 활동내용 |
|---|---|---|
| 려 옥 | 고조선시기 | 시인, 음악가, 대표작 《공후인》 |
| 신사임당 | 16세기 | 화가, 서예, 수예, 글짓기 다 잘함, 이름난 학자이며 정치가였던 리이(률곡)의 어머니 |
| 론 개 | 16세기 | 임진조국전쟁때 경상남도 진주 촉석루에서 왜적장 게다니에게 술을 먹인 다음 놈을 끌어안고 절벽에서 남강에 떨어져 처단한 애국녀성 |
| 계월향 | 16세기 | 임진조국전쟁시기 평양관청의 기생으로서 김응서장군과 련계하여 왜적장을 처단한 애국녀성 |
| 황진이 | 16세기 | 인물, 학문, 시, 음악, 서예에서 뛰여났다. 당시의 이름난 대학자 서경덕과 친분이 두터웠다. 개경의 박연폭포와 서경덕, 황진이를 개경의 뛰여난 세가지 자랑이라 하여 《송도삼절》이라 하였다. |
| 허란설헌 | 16세기 | 《홍길동전》을 쓴 허균의 누이동생. 7살 때부터 시와 그림에 뛰여남. 시《가난한 집 처녀》,《성쌓는 괴로움》등 많은 시를 창작함. 4형제가 다 이름난 문장가였다. |
| 류관순 | 1919년 | 16살의 학생으로서 3.1인민봉기때 용감히 싸우다가 일제경찰에 체포되여 악착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최후의 순간까지 견결히 싸웠다. |
| 강경애 | 해방전 | 진보적 녀류작가로서 장편소설 《인간문제》, 《어머니와 딸》을 비롯한 많은 작품에서 근로인민의 투쟁과 생활을 보여주었다. |

## 13. 고조선의 성립과 종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조선은 우리 민족의 시조국가이며 우리 나라의 첫 노예소유자국가입니다.》**

### 1) 성립

① B.C.30세기초에 단군이 세웠다. 수도는 평양이였고 령역은 강성기에 조선반도 전 지역과 중국의 길림성, 료녕성, 흑룡강성, 로씨야변강남부연해일대였다.

② 고조선의 건국설화 《단군신화》

고조선의 건국설화인 《단군신화》에는 단군이 태여난 사실이 신비하게 꾸며져있다.

《단군신화》에 반영된 력사적사실은 다음과 같다. 오랜 옛날 오늘의 평양일대에는 하늘신을 조상신으로 믿는 씨족이 살고있었다. 이 씨족을 박달족(배달족)이라고 하였다. 씨족의 우두머리는 《단군신화》에서 《하늘임금의 아들》이라고 신비한 존재로 꾸며놓은 환웅이였다.

한편 박달족 이웃에는 범과 곰을 각각 자기들의 조상으로 삼는 두 씨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합쳐 부족을 이루었다.

박달족은 이 부족과 합쳐 더 큰 공동체를 형성하였으며 환웅이 그 공동체의 추장으로 되였다. 환웅은 통합된 부족우두머리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단군이였다.

③ 단군의 고조선건국

단군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추장이 되였다. 그는 주변의 여러 부족들을 통합하여 나라를 세우고 나라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였다.

후세사람들은 이 나라를 옛날의 조선이라는 뜻에서 고조선이라고 불러왔다.

고조선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는 물론 동방에서 제일 먼저 세워졌으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일찌기 선 나라들중의 하나이다.

고조선의 성립으로 우리 선조들은 일찌기 문명시대, 국가시대에 들어섰으며 하나의 민족으로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나가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현

명한 령도에 의하여 신화적인물로만 전해오던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조선민족의 원시조라는것이 밝혀지고 그의 무덤과 유골이 발굴되였으며 단군릉이 조선민족의 시조 단군릉답게 훌륭히 건설되였다.

**[삼조선]**

고조선은 거의 3 000년간 존재하였다.

그 기간은 세 시기-세개의 왕조로 구분되는데 그것은 전조선(단군조선), 후조선, 만조선이다.

이 세 왕조를 삼조선이라고 한다.

단군조선은 B.C.15세기중엽까지, 후조선은 B.C.194년까지, 만조선은 B.C.108년까지 각각 존재하였다.

### 2) 고조선의 종말

#### (1) 종말년대－B. C. 108년

#### (2) 종말과정

① 노예폭동과 봉건관계의 발생

고조선은 노예소유자국가였다. 노예소유자국가가 노예주를 반대하는 노예와 평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멸망하는것은 사회발전법칙이다. 고조선에서도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노예와 평민들의 투쟁이 벌어졌다.

이러한 때에 봉건적관계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즉 노예주들이 노예들에게 땅을 빌려주어 농사짓게 한 다음 빼앗아가는 방법으로 착취하기 시작하였다.

② 왕검성싸움

B.C.109년 한나라침략군 수십만이 바다와 륙지로 고조선을 침략하였다. 적들의 주되는 목표는 부수도 왕검성이였다. 고조선에서는 왕검성의 방어력량을 강화하면서 서부국경부근에서 침략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한편 적장 양복은 공명심에 들떠 7 000명 수군을 선발해가지고 왕검성으로 달려들었다가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던 고조선군대의 드세찬 반격으로 거의다 전멸당하였다.

양복은 혼자 도망쳐 10여일간 산속을 헤매이다가 겨우 목숨을 건졌다.

첫 싸움에서 패한 적들은 위산을 보내여 《담판》을 제기해왔다. 우거왕은 태자에게 1만명의 군대와 수천필의 군마를 끌고가 담판할 태세

를 취하게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적들은 담판을 파탄시켰다. 한무제는 그 책임을 들씌워 위산을 죽여버리였다. 그리고 무력을 증강하여 수많은 수군과 륙군으로 부수도 왕검성을 포위공격하였다.

왕검성전투는 나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싸움이였다.

당시 왕검성에는 우거왕과 태자 그리고 높은 관료들이 나가있었다.

왕검성에서는 거의 1년동안 치렬한 항전이 벌어졌다.

전투가 오래동안 계속되자 고조선통치배들속에서 투항변절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우거왕을 죽이고 왕검성방어전투를 지휘하던 대신인 성기장군마저 암살하였다.

결국 근 3천년동안이나 동방의 강국으로 서있던 고조선은 통치배들속에서 투항변절자들이 나와 B.C.108년에 종말하고말았다.

※ **고조선의 수도-왕검성**

왕검성은 고조선의 수도 평양을 가리킨 말이다. 력사책들인 《삼국사기》, 《고려사》 등에서 왕검성은 《선인왕검》(단군왕검)이 살던 도읍터, 수도라는것을 밝히고있다.

※ **고조선의 부수도－왕검성**

B.C.109－B.C.108년 고조선－한전쟁때 격전이 벌어진 왕검성이 바로 중국 료녕성 개주시일대에 있었다.

※ **단군릉**－평양시 강동군 문흥리에 있다. 단군릉에는 단군과 그 안해의 유골이 있고 여러 인물들과 신하들, 범, 비파형단검을 형상한 돌조각상들이 있다.

※ **후국**－고조선에는 후국들로서 부여, 구려, 진국이 있었다. 후국이란 국왕이 통치하는 큰 나라에 속하여 그에 복종하는 작은 나라로서 고조선의 지방통치지역들이였다. 이 후국들은 점차 자기의 세력이 커지면서 독자적인 고대국가로 떨어져나갔다.

※ **소국**－말그대로 작은 나라라는 뜻이다. 흔히 처음 나라가 세워질 때 소국이라 한다. 후국처럼 큰 나라의 지방통치단위로 소속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나라이다.

**[룡산리 순장무덤]**

순장무덤이란 노예사회에서 노예주가 죽으면 노예들을 죽이거나 산채로 노예주 무덤곁에 같이 묻은 무덤을 말한다.

평안남도 성천군 룡산리에서 30여명의 노예들을 순장한 무덤이 발견되였다.

노예주무덤칸은 잘 만들고 청동기들과 치레거리들을 넣었다. 그 둘레에 10개의 작은 무덤칸들을 만들어 평균 3명의 노예들을 묻었다.
룡산리순장무덤은 단군조선 성립초기의것으로서 당시 노예주가 죽으면 많은 노예들을 순장한 노예사회제도에 대하여 더욱 알수 있게 한다.
고조선의 순장무덤으로서 중국 료동반도 남단(대련시 후목성역)의 강상무덤과 루상무덤이 있다. 강상무덤에서는 무려 140여명의 유골과 수많은 청동기들이 나왔다.

**[《범금 8조》]**

고조선에 있었던 법이다. 본래 8가지 조항으로 되여있었는데 지금 3개 조항만 전해지고있다. 그 내용은 사람을 죽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하며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보상하며 남의 물건을 도적한자는 노예로 만든다는것이다. 이것은 노예주들을 반대하는 노예들의 투쟁을 억누르기 위한 반동적인 법이였다는것을 보여준다.
3개 조항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란 투쟁을 벌린 노예들을 말하는것이였다.
노예주가 노예를 마음대로 죽이는것은 《죄》로 되지 않았다.

※ **고인돌무덤**(고인돌)—원시사회 말기 또는 고대시기 노예소유자들의 무덤이다. 무게가 몇십t, 지어 100t, 길이와 너비가 거의 10m씩 되는 큰 돌을 다듬어 세우고 그우에 판돌을 덮은것이다. 이것은 방대한 권력을 가진 노예소유자들이 있었다는것, 따라서 그들이 인민대중을 통치하는 고조선과 같은 국가를 세웠다는것을 보여준다.
고인돌무덤은 우리 나라 거의 전 지역에 있는데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100리안에 1만 4천여기나 밀집되여있었으며 그중에는 왕릉급에 이르는 특대형의것들도 적지 않았다. 그것은 평양지방이 지배계급이 집중되여있던 중심지였음을 말해준다.
고인돌무덤에서는 여러가지 유물들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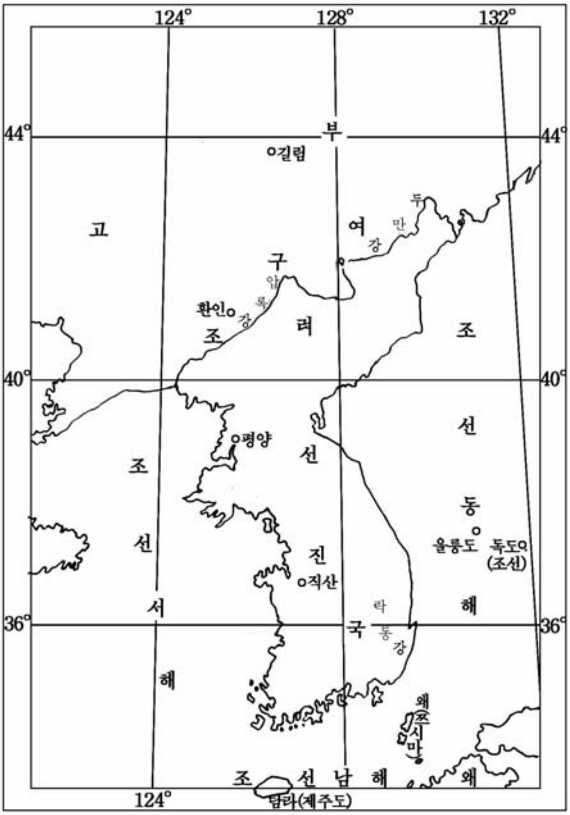
**※ 비파형단검**

고조선초기의 전형적인 청동무기, 칼이다. 옛날 악기인 비파처럼 생겼다고 하여 비파형단검이라고 한다. 길이는 30~50cm정도이며 칼날은 량쪽에 있는데 날부분과 검자루, 검자루맞추개로 조립하게 되여있다. 자루에는 여러가지 무늬를 도드라지게 새겼다.
비파형단검은 당시 청동가공기술의 높은 발전수준을 보여준다. 비파형단검을 만든 고조선인민들은 그후 보다 발전된 청동무기인 좁은놋단검을 만들어냈다.

# 14. 부여, 구려, 진국의 성립과 존재시기

| 나　라 | 성립, 존재시기 | 수도(중심지) | 령　역 |
|---|---|---|---|
| 부여 | B.C. 15세기 중엽 - B.C. 219년 | 중국 길림부근 | 함경북도, 송화강 상류, 서료하일대 |
| 구려 | B.C. 15세기 중엽 - B.C. 277년 | 졸본(중국 환인현 부근) | 혼강을 중심으로 하는 압록강중류, 자강도일대 |
| 진국 | B.C. 12세기경-A.D. 1세기초 중엽 | 월지국 ( 충청남도 직산) | 조선반도 중남부 지역 |

—부여, 구려, 진국은 본래 고조선의 후국들이였으나 점차 그 세력들이 커지면서 고조선으로부터 떨어져나가 독자적인 고대국가들로 되였다.




고 대 국 가 들 의 위 치 도

—구려는 부여에서 구려땅으로 이동해온 고주몽집단이 첫 봉건국가 고구려를 세움으로써 종말하였다.

—부여는 B.C. 219년에 새로 선 고구려와의 전쟁후 급격히 약화되여 통치층이 분렬투항하면서 고구려에 통합되고 종말하였다.

—진국은 마한, 진한, 변한의 3개 소국으로 있었다. 진국은 3한의 련합체이다.

매개 소국에는 더 작은 수많은 소국들이 있었다. 진국은 A.D. 1세기경에 새로 자라난 백제봉건국가에 의하여 종말되였다.

## 15. 고구려의 성립

### 1) 성립시기, 수도, 령역

고구려는 B.C. 277년에 동명왕(고주몽)이 세운 나라였다. 처음 수도는 졸본(중국 환인현부근)이였고 령역은 초기에 고대국가 구려의 령역과 같았으나 강성기에는 동족의 나라 령토를 거의다 통합하였다.

### 2) 성립과정

① B.C. 3세기초에 고대국가 부여에서 주몽을 비롯한 한 집단이 구려땅으로 이동해왔다.

② 주몽은 여기서 점차 세력을 강화하여 자주 침입하던 말갈족을 쳐서 눌러놓았는데 그 명성이 높아져 한개 지역의 우두머리가 되였다.

③ 구려왕이 주몽의 비상한 재주와 인품을 알고 사위로 삼았다. 구려왕이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게 되자 주몽이 왕으로 되였다.

④ 주몽은 새로 자라나는 봉건세력에 의거하여 나라안의 봉건적제도와 질서를 세워나갔다.

나라이름을 《고구려》라 하고 자기의 성도 고씨로 삼았다.

※ 동명왕이란 주몽이 죽은 다음에 붙인 시호이다.

### 3) 고구려건국의 의의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봉건국가가 세워짐으로써 노예사회시기를 끝장내고 봉건사회력사의 시기에로 이행하게 된것이다.

고구려의 영향밑에 다른 겨레의 나라들도 봉건사회로 발전하고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는 세나라력사의 시작을 뗀것이다.

**※ 동명왕전설**

고구려의 건국사실을 담고있는 전설이다.

옛날 부여의 왕궁에서 류화라는 녀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놀랍게도 인차 말을 하고 7살에는 활쏘기명수가 되였다. 부여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했는데 그래서 그의 이름도 주몽이라고 하였다.

주몽은 부여의 왕자들과 함께 놀며 자랐는데 인격과 재주가 뛰여난 주몽을 왕자들이 질투하였다.

하루는 사냥을 나갔는데 주몽은 혼자서 여러마리의 사슴을 잡았지만 7명의 왕자들은 40명의 몰이군들을 데리고서도 겨우 사슴 한마리를 잡았다. 왕자들은 주몽을 나무에 비끄러매놓고 사슴을 빼앗아가지고 돌아갔다.

주몽이 울분을 터뜨려 힘을 쓰니 나무가 통채로 뽑히였다. 왕자들은 주몽을 더욱 미워하며 왕에게 그를 죽이자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왕은 주몽이 목장에서 말을 기르게 하였다.

주몽은 가장 날랜 말의 혀에 바늘을 꽂아 여위게 하였다.

왕은 말들을 돌아보다가 그 여윈 말을 주몽에게 주었다. 주몽이 말의 혀에서 바늘을 뽑아주었더니 얼마후 다시금 날랜 준마가 되였다.

주몽은 어머니의 말대로 세명의 벗들과 함께 부여를 탈출하여 멀리 남쪽으로 떠나갔다.

그들이 어느 한 강에 이르렀을 때 부여의 군사들이 질풍같이 뒤따라 오는데 다리가 없었다.

주몽이 말채찍을 휘두르며 하늘을 우러러 웨치니 삽시에 물고기와 자라들이 떠올라 《다리》가 되였다. 주몽일행이 《다리》를 건느자 물고기와 자라들이 흩어져 부여군사들이 더는 따라오지 못하였다.

주몽일행이 이른 곳은 바로 고대국가 구려의 땅이였다. 주몽은 여기서 고구려를 세웠다.

## 16. 고구려의 강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고구려는 지난날 우리 나라 력사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 1) 고구려사람들의 상무의 기풍

—상무의 기풍이란 군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일상적으로 무술을 련마해나가는 기풍을 말한다.

—그 표현

어려서부터 말타기와 활쏘기, 칼쓰기와 창다루기, 달리기, 씨름, 수박희(손치기), 사냥경기 등을 일상적으로 하면서 무술을 련마하는것을 남자들의 의무로 여긴데서 나타났다.

또한 민간오락과 경기도 무술을 기본으로 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관리등용에서도 무술을 기본으로 본것이다.

### 2) 고구려의 강한 군사력

- 고구려에는 30여만명의 상비군이 항시적으로 있었다.
- 고구려군대는 중앙군과 지방군, 륙군과 수군으로 구분되여있었다.

고구려의 강한 군사력은 수백만의 외래침략자도 물리칠수 있었다.

- 정연한 군사지휘체계가 수립되여있었다.
- 정연한 성방어체계가 수립되여있었다.

### 3) 고구려의 령토확장

고구려의 령토확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실은 덕흥리벽화무덤과 《광개토왕릉비》비문의 내용을 통하여 알수 있다.

#### [덕흥리벽화무덤]

강서구역 덕흥리 고구려무덤벽화에는 유주라는 지방행정단위의 장관이 그아래 장관들인 13개 군 태수들로부터 사업보고를 받는 위엄있는 그림이 그려져있다.

그 장관벼슬은 자사이고 이름은 진이였다.

그러면 고구려의 자사 진이 통치하던 곳인 유주는 어디였는가.

그 중심지는 만리장성을 넘어 베이징부근이였다.

벽화에 씌여진 글에 이러한 사실들이 반영되여있다.

유주가 2 000여리나 되는 넓은 지역으로서 베이징부근이였다는 사실은 370년대에 고구려의 령토가 서쪽으로 이 지역까지 뻗어 대단히 넓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370년대에 고구려는 수만명의 철기(말에도 갑옷을 입히여 중무장한 기병)들을 동원하여 전연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전진도 전연을 공격하였다.

수도 엄성을 공격하자 모용외는 성을 빠져나와 도망치는데 처음 4 000명의 기병호위를 받았으나 다 도망치고 얼마후 10여명이 남았고 며칠후에는 말까지 잃고 혼자 도망치다가 잡히고말았다.

고구려는 새로 확보한 지역을 관할하기 위하여 유주라는 지방행정단위를 설치하고 그 장관으로 진이라는 사람을 임명하였으며 전연의 잔여세력을 완전히 소탕하였다. 그리고 대릉하-의무려산줄기계선을 확보함으로써 고조선의 옛땅을 되찾았다.

**[광개토왕릉비]**

**릉비의 건립**- 광개토왕은 고구려의 24대왕으로서 391년-412년까지 나라를 통치하였다. 그가 죽은 다음 그의 아들인 장수왕이 414년에 왕릉앞에 비석을 세웠다. 중국 길림성 집안시 대왕촌에 있다.

비문의 내용

비석에는 1 800자가량의 한자가 새겨져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광개토왕이 령토를 크게 넓혀 고구려의 강대성을 떨친 업적이다. 례하면 395년에는 변강을 자주 침범하던 거란의 한 종족인 비려를 징벌하였으며 410년에는 동부여를 쳐서 동북쪽으로 넓은 지역을 차지하였다. 396년에는 왕이 직접 수군을 거느리고 가서 백제의 여러 성들을 함락하고 수도를 포위하여 백제 아신왕을 항복시키고 고구려왕의 신하가 되겠다는 맹세를 받아냈다. 이때 아신왕은 노비 1 000명, 가는 베 1 000필을 바치고 58개의 성과 700개 촌을 떼주었으며 자기 동생과 대신 10명을 고구려에 볼모(인질)로 보내였다.

## 17. 세나라를 통일하기 위한 고구려의 투쟁

### 1) 고구려의 삼국통일정책

고구려는 오래전부터 백제와 신라를 통합하여 동족의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할것을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고 투쟁하였다.

### 2) 고국원왕릉

고구려 21대왕인 고국원왕(331년-371년)의 릉이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리에 있다.(안악 3호무덤이라고도 한다.)

왕릉이 왜 거기에 있게 되였는가?

371년 10월 고구려군대는 갑자기 남평양(황해남도 신원군 장수산일대)으로 쳐들어온 3만의 백제군과 싸웠다.

이때 고국원왕은 직접 남평양으로 나가 싸움을 지휘하였다. 고구려군은 비록 적은 인원이였지만 백제군을 물리쳤다. 그러나 싸움을 지휘하던 왕이 그만 전사하였다. 그런데 싸움으로 긴장한 시기여서 왕의 시신을 수천리밖의 수도 집안에까지 옮겨갈수 없었다. 그러므로 부수도 남평양과 가까운 안악군에 묻게 되였다.

### 3) 평양천도

고구려는 일찌기 고조선의 수도였으며 지리적으로나 경제군사적으로 유리한 평양에 삼국통일을 위한 거점을 꾸리고 427년에 이곳으로 수도를 옮기였다.

(첫 수도는 졸본성, 그후 국내성(중국 집안시)으로 옮겼다가 다시 평양으로 옮김)

・평양에서 수도가 자리잡은 곳은 대성산일대였다. 왕궁으로는 대성산아래에 안학궁을 크게 건설하고 수도방위성으로는 대성산성을 쌓았다. 그리고 건국시조인 동명왕의 무덤을 오늘의 력포구역 룡산리로 옮겨왔다.

이리하여 평양은 삼국통일을 위한 튼튼한 거점으로 되였으며 고구려는 삼국통일정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고구려는 그후 오늘의 평양시 중심부에 새로 평양성을 건설하고 수도를 옮겼다.

### 4) 중원고구려비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고구려사람들이 세운 비석

비문의 내용은 고구려가 장수왕때에 백제, 신라를 공격하여 남쪽으로 령토를 넓혔다는것이다. (발견당시 행정구역이름을 따서 《중원고구려비》라고 한다.)

이것은 고구려가 6세기에 들어와 국토통일위업을 거의 완성단계로 추진하였던 사실을 보여준다.

당시 고구려령토는 백제, 신라, 가야를 다 합친것보다 거의 10배나 큰 아시아의 대강국이였다.

### ※ 고구려의 부수도

고구려에도 고조선에서와 같이 군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대에 부수도를 건설하였다.

오늘의 황해남도 장수산일대와 서울부근에는 남평양, 압록강건너 료동쪽에는 북평양（봉황성）이 있었다.

환도성도 한때 부수도로 되여있었다.

※ **료 동**

료동이란 중국의 료하를 경계로 동쪽지역을 말하며 그 서쪽지역은 료서라고 한다.

료하, 료동, 료서지방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뗄수 없이 깊은 인연이 있는 고장이다. 고조선, 고구려사람들은 한때 료동지방을 지나 서쪽으로 멀리 만리장성부근, 베이징부근까지 세력을 뻗치였다.

특히 료동지방은 우리 민족의 첫 국가였던 고조선과 그뒤를 이은 고구려, 발해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 정통국가들의 령토로 되여있었기때문에 우리나라의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는 14세기 후반기에 고구려, 발해의 옛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료동지방에 대한 여러차례의 원정을 진행하였다.

료동지방은 또한 수천년동안 우리 선조들이 후한, 수, 당나라들을 비롯한 수많은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반침략애국투쟁의 력사가 깃든 고장이다.

료동지방 곳곳에는 우리 선조들이 태고로부터 살아오면서 남겨놓은 유적과 유물들이 있다.

## 18. 고구려－수전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고구려인민들은 70년동안이나 수나라와 당나라의 대규모적이고 집요한 침략을 격퇴하고 나라의 존엄과 독립을 지켜냈다.》**

### 1）시기와 지휘자

시기-598년-614년

1차　598년

2차　612년

3차　613년

4차　614년

고구려군의 총지휘자 애국명장－을지문덕

※ 수나라－589년에 전 중국을 통일하고 세워진 봉건국가

**2) 전쟁과정**

(1) 1차침입은 수군과 륙군 100만으로 쳐들어왔으나 륙군은 료하계선에서 고구려군에게 녹아나고 수군은 바다에서 녹아나고말았다.

(2) 612년 2차침략

침략군의 력량—300만이상

고구려는 을지문덕을 총지휘자로 하고 전선사령부는 부수도인 북평양성(봉황성)에 두었다. 료하계선의 방비에 큰 힘을 넣었다.

① 료동성전투

료동성은 료하동쪽(료양)에 있던 성이였다. 료동성에서 612년 4월부터 100여일간 전투가 벌어졌다. 적들은 한달만에 료하를 건너 수십만의 력량으로 료동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으나 무리죽음만 냈다. 마지막에는 수나라왕 양제가 직접 전투를 지휘하였으나 료동성의 군민들은 침략자들의 공격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렸다.

② 북평양성(봉황성)전투

※ 봉황성-고구려의 제2수도 북평양

수양제는 새로운 작전계획을 세웠다.

즉 30만 5천명의 별동대를 따로 조직하여 수군과 함께 고구려왕이 나와있는 북평양성을 공격하자는것이였다.(《수륙병진작전》)

그런데 적 수군 4만여명은 먼저 북평양성가까이에 도착하여 별동대가 오기 전에 성을 점령하려고 달려들었다가 무리죽음만 내고말았다.

륙군별동대는 고구려군의 저항에서 겨우 벗어나 북평양성에 이르렀으나 녹아난 수군이 도망간 소식을 듣고 공격할 엄두를 못내였다.

수양제의 《수륙병진작전》은 파탄되였다.

③ 살수전투(《살수대첩》)—살수에서의 대승리

※ 살수—오늘의 대양하의 지류인 소자하

적별동대가 태자하까지 밀려왔을 때 담판을 구실로 적군속에 들어가 그 내부형편을 탐지한 을지문덕장군은 청야수성전술과 유인전술로 적을 약화시키고 소탕할 작전을 펼쳤다.

※ **청야수성전술**—적들이 지나갈 마을과 주변의 모든 곳에 식량과 집짐승, 말먹이 등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지어 우물까지 메워버린 다음 군대와 인민들은 성안에 들어가 성을 지켜싸우며 적을 녹여내는 전술.

고구려군은 청야수성전술을 쓰는 한편 을지문덕의 유인전술에 따라 압록수(태자하)를 건너온 적별동대와 매일 6~7차씩 전투를 하여 매번 패하는척

하면서 적들을 북평양성까지 끌고왔다. 그때에야 적들은 유인전술에 걸렸다는것, 저들의 수군이 녹아났다는것을 알고 겁을 먹었다. 또 힘이 진하고 먹을것은 없는데다가 북평양성은 철벽이여서 오도가도 못하였다. 이때 을지문덕이 적장 우중문에게 시 한수를 써보냈다.

신통한 전략은 천문을 꿰뚫었고
기묘한 전술은 지리를 통달했네
싸움에서 이겨 공로가 이미 높거니
만족함을 알고 돌아감이 어떠하리

이젠 《싸움에서 이겨》공로가 큰데 그만 돌아감이 어떤가? …하는 아주 배포유하고 적들을 야유조소하는 시였다.

적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하자 추격전을 벌렸다. 또한 수많은 고구려군이 살수주변에 매복해있었다.

7월 24일 적들이 강복판에 들어섰을 때 고구려군은 총공격으로 대섬멸전을 벌리였다. 적 별동대 30만 5천명가운데 2 000여명만이 겨우 살아돌아갔다.

## 19. 고구려－당전쟁

### 1) 시기 및 지휘자

시기－645년－648년

1차 645년, 2차 647년, 3차 648년

고구려군의 총지휘자－애국명장 연개소문

※ 당나라- 618년 수나라가 망하고 새로 선 봉건국가

### 2) 전쟁과정

#### (1) 당나라의 침략책동과 연개소문의 정변

① 당나라의 침략책동

당나라는 세워지자 곧 고구려침략을 위한 군사적준비를 갖추었다.

또한 고구려에 《죽은 수나라군대의 해골을 찾아 제사를 지내라》, 고구려가 전쟁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경관을 허물어버리라》, 《나라 지형을 그린 지도를 보내라》고 하면서 침략의 구실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② 연개소문의 정변

고구려의 애국명장 연개소문은 왕과 일부 통치배들이 당나라에 굽신

거리면서 그를 반대하여 자기를 죽일 음모까지 꾸미자 642년 9월에 정변을 일으켰다.

100여명의 관리들과 왕을 죽이고 모든 권한을 틀어쥔 막리지가 되여 당나라에 강경하게 맞섰다.

**※ 연개소문**

연개소문은 높은 관리였던 연태조의 아들이다. 용감하고 무술에 능하며 성품이 강직하고 위풍이 있었다. 연개소문은 고구려군을 지휘하여 만리장성부근까지 나가 당나라에 타격을 주었다. 당나라에서는《연개소문이 온다.》고 하면 울던 아이도 울음을 그쳤다고 한다. 대성산 소문봉은 연개소문의 공적을 전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그는 666년에 병으로 죽었다.

**（2）1차침략과 안시성전투**

—645년 10월 당태종(왕)은 수륙군 수십만으로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고구려군은 료동성에서 17일동안이나 용감히 싸워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료동성전투후 적들은 다시 안시성으로 달려들었다.

안시성（료하하류 해성부근）을 지켜내는것은 그때 료하일대의 일부 성들이 적에게 강점된 조건에서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하였다.

안시성에는 양만춘장군이 지휘하는 10만의 군사들이 있었다. 고구려군은 매일 6~7차씩 달려드는 적들의 공격을 물리쳤다.

그냥 싸워서는 성을 점령할수 없다고 본 당태종은 모든 병졸들을 다 내몰아 60여일동안에 50만공수의 로력을 들여 성벽보다 높은 흙산을 쌓게 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의거해서 성안을 공격하자는것이였다.

고구려군도 성벽을 더 높이 쌓고 대항하였다.

그런데 다져지지 않은 흙산이 무너지면서 성벽 한쪽을 무너뜨렸다. 위급한 시각 고구려군이 먼저 달려나가 적들을 족치고 흙산을 점령하였다. 당태종은 흙산을 빼앗겠다고 3일간이나 공격을 벌렸으나 무리죽음만 내고말았다. 이때 그는 고구려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 한쪽눈알을 잃은 애꾸가 되였다.

적들은 군량이 다 떨어지고 추위까지 들이닥쳤다. 결국 침략자들은 88일동안이나 안시성을 공격했으나 수많은 주검을 내고 쫓겨가지 않을수 없었다.

### （3）2차, 3차 침략과 그 참패

2차침입—647년에 수군 1만명, 륙군 3천명으로 기여들었다가 쫓겨갔다.

3차침입—648년에 3만명으로 기여들었다가 고구려군에게 참패를 당하고 쫓겨갔다.

## 20. 고구려의 종말

### 1）권력싸움

666년 연개소문이 죽자 고구려통치배들속에서는 연개소문의 세 아들들을 끼고 권력싸움을 벌리였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막리지로 있던 연개소문의 맏아들 연남생은 권력싸움에서 밀리우게 되자 당나라에 투항하였다.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도 신라에 투항하였다.

그리하여 나라의 중요한 비밀이 적들에게 들어가고 국가통수체계와 군사지휘체계가 헝클어졌다.

### 2）라당련합군의 고구려침공과 고구려의 종말

고구려국가 및 군사통수체계가 헝클어진 때인 668년에 침공의 기회를 노리던 라—당련합군 70만이 고구려로 쳐들어왔다. 적들에게 포위된 평양성의 고구려군사들은 한달동안이나 용감히 싸웠으나 비겁한 통치배들은 싸우는 군민을 배반하고 적에게 투항하였다. 그리하여 천년강국 고구려는 종말을 고하고말았다.

고구려의 종말은 내부가 분렬되고 투항변절자들이 나타나면 나라의 통수체계가 마비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것을 교훈으로 보여준다.

### ※ 라당비밀협약과 《라당련합군》

세나라시기 신라통치배들은 령토를 넓히려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를 침략하려고 기회를 노리고있던 당나라침략세력을 끌어들이는 죄악을 저질렀다.

643년에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여 두 나라 군대가 련합하여 고구려, 백제를 치자고 했으며 645년 고구려—당전쟁때에는 당나라를 도와 3만의 군대로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648년에는 김춘추를 보내여 두 나라 군대가 고구려, 백제를 무너뜨린 다음 대동강남쪽땅은 신라가 차지하고 그 북쪽땅은 당나라가 차지한다는 비밀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때 당나라의 속심은 고구려, 백제를 무너뜨린 다음 신라까지 정복하자는것이였다.

※ 660년에 신라－당나라군대(라당련합군)는 협공으로 백제를 무너뜨렸고 668년에는 고구려를 무너뜨렸다.

## 21. 고구려의 문화유적유물들

### 1) 천문도

고구려사람들은 5세기말 매끈하게 다듬은 돌판에 태양, 달, 별의 자리를 그림으로 새겼다. 이것을 석각천문도라고 한다. 석각천문도에는 은하수가 강줄기처럼 표시되고 1 464개의 별이 282개의 별자리에 표시되였다.

이 천문도는 그후 거의 1천년이 지난 1395년에 《천상렬차분야지도》라는 보다 새롭고 발전된 천문도를 만드는데 쓰이였다.

**[안학궁]**

427년에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길 때 대성산기슭에 건설한 왕궁으로서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

총 면적이 38만$m^2$ 되는 왕궁안에는 길이 87m, 너비 27m 되는 궁전을 비롯하여 52개의 크고작은 건물들이 있었다. 또 여러개의 인공못과 산, 성문들이 있었다.

### 2) 대성산성

안학궁뒤에 있는 고구려의 수도방어성이였다.

성의 둘레는 거의 20리나 되며 성안에는 병실, 무기고, 식량창고 등의 건물과 많은 못이 있었다.

그러므로 수만명의 군대가 들어가있으면서 적과 싸울수 있었다.

대성산성은 고구려성중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의 하나였다.

### 3) 평양성

오늘의 평양시 중심부에 건설하였던 새 수도성으로서 장안성이라고도 하였다. 586년에 이곳으로 수도를 옮기였다.

평양성은 북성, 내성, 중성, 외성의 4개의 구역으로 나뉘였는데 성벽의 총 길이는 약 23㎞나 되였다. 평양성에는 대동문, 보통문, 칠성문을 비롯한 많은 성문이 있었다.

**4）동명왕릉**

평양시 력포구역 룡산리에 있는 고구려시조왕의 무덤이다. 고구려가 427년에 집안으로부터 평양으로 수도를 옮길 때 옮겨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왕릉은 훌륭히 개건되였다.

왕릉앞에는 문관, 무관, 범, 말 등 여러가지 조각상들이 있다. 왕릉에서 좀 떨어진 곳에는 동명왕을 위하여 지은 정릉사라는 사원이 있다.

**5）강서세무덤의 벽화**

남포시 강서구역 삼묘리에 있는 고구려의 벽화무덤이다.

무덤벽에는 동서남북 4방향을 지킨다는 환상적인 동물인 청룡(푸른룡), 백호(흰범), 주작(붉은 새), 현무(검은거부기와 뱀)를 그리였다. 그림들은 1 000년이상 오래되였지만 색이 선명하며 실지 살아움직이는 동물같이 생동하다. 세계적인 걸작품으로서 고구려사람들의 미술적재능을 잘 보여준다.

**6）고전소설 《온달전》**

고구려사람들이 창작한 소설이다.

평강왕때 수도 평양에는 《바보온달》로 불리우는 가난한 총각이 눈먼 어머니에게 밥을 빌어다 대접하며 살고있었다.

그때 평강왕에게는 어려서 울기를 잘하는 딸이 있었는데 왕이 롱말로 《바보온달》에게나 시집을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공주가 다 자라자 왕은 딸을 높은 귀족에게 시집보내려고 하였다. 그런데 공주는 임금이 어찌 거짓말을 할수 있는가고 하면서 왕의 말을 듣지 않아 왕궁에서 쫓겨나게 된다. 공주는 온달을 찾아가 가정을 이루고 온달이 무예를 닦도록 지성을 다한다. 온달은 국가적인 사냥경기에서 1등을 하고 장수가 되여 외적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한다.

소설은 고구려사람들의 상무의 기풍과 근로인민의 지향, 고구려의 문학발전수준을 보여준다.

**※ 왕산악（4세기）**

고구려의 음악가로서 거문고를 잘 탔다. 그 소리가 아름다와 날아가던 학들이 내려와 춤을 추었다고 한다. 왕산악은 노래도 100여곡이나 지었다.

## 22. 후부여의 성립과 종말

### 1) 성립

후부여는 B.C. 2세기초에 고대부여를 계승하여 세워졌다.
처음 수도는 길림부근에 있었다.

### 2) 존재와 종말

후부여는 한동안 국력이 강화되였다가 3세기부터 외래침략으로 분렬약화되였다.

5세기초부터 시작하여 494년에는 완전히 고구려에 통합됨으로써 존재를 마치였다.

## 23. 백제의 성립과 종말

### 1) 소국형성

B.C. 3세기 중엽 동명왕의 아들 온조가 세웠다.
수도는 하북위례성 (오늘의 서울지방)
령역은 한강, 례성강류역을 중심으로 사방 100리 지역

※ **온조이야기** (백제봉건소국의 건국전설)

어느날 동명왕에게 그의 아들 유류가 찾아왔다.

그는 고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기 전 부여에 있을 때의 안해 례씨가 주몽이 그곳을 떠나온 후 낳은 아들이였다. 그래서 아버지도 아들도 서로 알수 없었다.

동명왕은 안해가 유류에게 주어보낸 칼 한쪼각과 그의 재주가 뛰여난것을 보고 아들임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왕자리를 이을 태자로 삼았다.

동명왕에게는 구려땅에 와서 고구려를 세울 때 적극 뒤받침해준 다른 안해 소서노가 낳은 두 아들 비류와 온조도 있었다.

비류와 온조는 유류가 태자로 되자 의가 상할것 같아 고구려왕실을 떠났다.

그들이 1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온조일행은 오늘의 서울지방에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형인 비류는 이곳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미추홀 (인천지방) 로 갔다. 얼마후 비류는 미추홀이 사람 못살 고장이라고 하여 다시 온조에게로 돌아왔는데 온조는 벌써 백제소국을 세우고있었다. 비류는 자기 행동을 후회하다가 병들어 죽었다.

이와 같은 온조이야기는 백제도 고구려에서 갈라져나온 사람들이 세운 한겨레의 나라라는것을 말해준다.

**2) 백제봉건국가의 성립**

백제소국이 완전한 봉건국가로 성립된 시기는 B.C. 1세기 말엽, 첫 왕은 구태였다.

**3) 백제의 종말**

**(1) 종말년대 660년**

**(2) 종말과정**

① 라—당련합군의 공격

7세기 중엽 백제는 통치배들의 부패타락으로 국력이 심히 약화되였다.

이러한 때 라당련합군이 백제로 쳐들어왔다. 13만의 당나라침략군은 바다를 건너 서쪽에서 금강으로 거슬러올라왔고 5만의 신라군은 동쪽에서 백제의 수도 사비성으로 쳐들어왔다. 이러한 때 의자왕은 적들을 막기 위한 적절한 전술방안을 내놓는 충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능한 관리들의 주장에 따라 우유부단하게 행동하였다.

② 황산벌격전과 계백장군

황산벌은 충청남도 론산시 련산동쪽의 벌이였다. 여기서 김유신이 이끄는 5만의 신라군과 계백장군이 이끄는 5천명의 백제군사이에 대격전이 벌어졌다.

계백장군은 백제의 애국명장이였다.

그는 나라를 파멸에로 몰아간 의자왕을 비롯한 통치배들을 저주하면서 나라를 지켜 한몸바쳐 싸울것을 결심하였다.

계백장군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전해온다.

최후결전을 앞둔 날 밤이였다. 계백은 처자들을 두고 생각하였다.

…이제 나라는 침략자들에게 먹히여 망하고말것이다. 그러면 나의 처자들은 놈들에게 여지없이 짓밟힐것이다. 그렇다면 내 손으로 깨끗이?!…

계백은 자기 손으로 처자들을 모두 죽이고 싸움마당으로 달려갔다고 한다.

계백장군은 5천명의 백제군결사대를 뽑아 황산벌에서 진을 치고있다가 쳐들어오는 5만의 신라군을 맞받아 용감히 싸웠다.

백제군은 10배나 되는 신라군의 공격을 4차례나 물리쳤다.

③ 수도함락과 백제멸망

백제군은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용감히 싸웠으나 우세한 신라군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수도 사비성이 적들에게 포위되자 왕은 공주로 도망치고 통치배들속에서는 투항하는자들이 나타났다.

마침내 수도가 적들에게 강점되자 의자왕은 다시 돌아와 싸우는 인민들을 배반하고 적들에게 항복하였다.

이리하여 백제는 멸망하고말았다.

**[벽골제]**

백제사람들이 건설한 저수지.

있는 곳: 전라북도 김제시

건설년대: 330년

뚝의 높이는 약 4m, 둘레는 52km로서 당시로서는 매우 큰 저수지였다.

이 저수지에 많은 물을 채웠다가 수만정보의 논과 밭에 물을 대여 농사를 안전하게 하였다. 당시 농업의 발전모습과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준다.

## 24. 백제의 문화유적유물

**1)《칠지도》**

길이 약 75cm에 7개의 날이 있는 칼.

칼몸 량쪽에 가지날이 3개씩 엇갈려 붙어있다.(칼몸까지 날이 7개 있다.)

만든 년대－백제기술자들이 408년에 만들었다.

있는 곳－일본 나라현 이소노가미신궁에 보관

이 칼은 백제왕이 제후(작은 왕)였던 《왜》왕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칼에는 …이 칼은 408년에 100번이나 단조한 쇠로 만들었는데 모든 무기중에서 으뜸이니《왜》왕에게 줄만 하다. 이전에는 이런 칼이 없었으니 《왜》왕은 이 칼을 잘 보존하여 길이 전하라…는 내용의 글자 61자가 새겨져있다.

칠지도는 백제기술자들의 높은 금속가공기술을 보여준다.

### 2）무늬벽돌

백제에서는 무늬를 새긴 벽돌을 많이 만들었다.

벽돌에 새긴 무늬－련꽃, 나무우거진 산과 그속에 있는 집, 불길모양 꽃잎과 나무잎, 날아오르는 룡, 괴상한 짐승 등 수십가지이다.

### 3）정림사 5층탑

있는 곳－백제의 마지막수도였던 충청남도 부여

4각 5층으로 된 높이 약 10m 되는 돌탑이다.

아래단, 탑몸, 탑머리로 되였으며 모두 균형이 잘 잡혔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리 나라의 돌탑가운데서 제일 오랜것이다.

### 4）《도미와 그의 안해》

백제사람들이 창작한 소설이다.

기본내용－백제에 신분은 낮으나 대바르고 의리깊은 도미가 곱고 품성이 단정한 안해와 화목하게 살았다.

다정한 부부에 대한 소문을 들은 포악한 왕이 도미를 가두고 신하를 왕으로 가장시켜 집으로 보내여 안해를 유혹하려다가 실패한다.

왕은 성이 나서 도미의 두눈을 뽑고 배에 태워 물에 띄워버린 후 그의 안해를 굴복시키려고 갖은 방법을 다 쓴다. 그러나 도미의 안해는 왕을 속여넘기고 도망하여 배를 타고가다가 외진 섬에 올랐는데 뜻밖에도 풀뿌리를 캐먹는 남편을 만난다.

그들은 다시 배를 타고 고구려땅으로 가서 이웃들의 도움을 받으며 화목하게 산다.

소설은 추악한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증오, 선량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 고구려사람들의 깊은 인정과 의리를 보여준다.

## 25. 신라의 성립

### 1）사로봉건소국의 성립

신라는 B.C. 1세기초 중엽에 박혁거세에 의하여 세워졌던 사로봉건소국이 독자적인 봉건국가로 된 나라였다.

### 2）소국의 형성과정

B.C. 3세기이후 고조선을 비롯한 북방사람들이 고대국가 진국의 동남쪽지방（진한지역）에 이동해왔다.

그들은 본래 이곳에 살던 주민들과 함께 B.C. 1세기초 중엽에 봉건소국인 사로국을 세웠다.

※ **박혁거세전설**（신라건국전설）

옛날 경주지방에는 여섯 마을이 있었다. 여섯 마을의 우두머리들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조선에서 이동해온것을 의미）

어느날 그들이 한 언덕에 모여 왕을 내세우고 나라를 세우자는 의논들을 하는데 갑자기 양산기슭의 우물곁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이더니 흰 말이 무릎을 꿇고 절하는 시늉을 하는것이였다.

사람들이 달려가니 말은 긴 울음소리를 내면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데 땅우에는 보라빛나는 둥글고 큰 알이 하나 있었다.

얼마후 알에서는 단정하고 고운 사내아이가 나왔다.

아이를 샘물에다 씻어주니 눈부신 빛이 돌았다. 아이가 박처럼 둥근 알에서 나오고 빛을 낸다고 하여 이름을 박혁거세라고 하였다.

한편 알영우물가에서는 룡이 처녀애를 낳았는데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알영이라고 지었다.

박혁거세와 알영이 13살이 되자 사람들은 그들을 왕과 왕비로 삼고 나라이름을 사로라고 하였다.

### 3）신라봉건국가의 성립

사로국은 주변의 소국들을 통합하여 힘을 키워나갔다. 그리하여 1세기초 중엽에는 완전히 독자적인 봉건국가로 되였다.

세운 사람은 유리니사금이였다.

## 26. 신라의 문화유적유물

### 1）첨성대

태양, 별, 달 등을 관측하고 연구하는 천문대이다.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 있다.

7세기 전반기에 건설하였다.

지금까지 세계에 남아있는 천문대들가운데서 제일 오랜것이다.

잘 다듬은 돌을 약 9m 높이로 27줄 쌓았는데 꽃병모양 같다.

첨성대가운데에는 네모난 구멍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들기 위한것이였다. 맨우에는 4각 돌귀틀을 두겹으로 올려놓았다. 이 틀우에 여러가지 기구들을 올려놓고 천문기상현상들을 관측하였다.

130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대로 서있는 첨성대는 당시 건축술의 우수성과 기상천문학의 발전모습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력사문화유적이다.

**2) 황룡사 9층탑**

황룡사는 경주에 있다.

누런 룡이 나타난 절간이라고 하여 황룡사라고 불러온다.

황룡사는 화가 솔거가 벽에 소나무그림을 그린것으로 하여 유명하다.

9층탑은 높이가 약 78m 되는 나무로 만든 탑이였다.

이 탑은 553년-645년에 백제와 신라의 건축가들이 건설하였다.

탑은 계단으로 맨꼭대기까지 올라갈수 있었다. 그때까지 그렇게 높은 탑이 어느 나라에도 없었다. 9층탑은 백제의 기술자 아비지의 지도밑에 건설되였다.

탑은 불교를 선전하기 위해 건설한것이지만 거기에는 우리 선조들의 높은 건축기술이 깃들어있다. 황룡사와 탑은 1238년 몽골침략자들에 의하여 불타 없어졌다.

**3) 금관**

경주의 한 왕릉인 금관무덤에서 나왔다.

왕들의 머리에 쓰던 금으로 만든 관이다.

금관은 높이 44.4cm, 직경은 18.5cm이다.

금관은 테둘레, 기둥, 새김장식, 금판쪼박, 금실, 구슬 등 여러가지 부분들이 다 훌륭하여 세계적인 세공품으로 자랑높다.

※ 금관무덤에서는 순금으로 만든 유물만 해도 7.5kg이나 나왔으며 구슬은 3만여개나 되였다.

**4) 천보노**

화살을 1 000보정도 날려보낼수 있는 기계활이다.

7세기에 신라의 재능있는 무기기술자 구진천이 만들었다.

신라의 천보노에 대한 소문은 당나라에도 퍼져갔다. 당나라왕은 자기네도 그런 유력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구진천을 초청해갔다.

그리고 여러가지로 얼리기도 하고 위협도 하였지만 구진천은 천보노제작비밀을 끝까지 지켰다. 천보노제작기술은 고조선, 고구려의 우수한 활만드는 기술을 이어 발전시킨것이다.

### 5) 소설 《설씨의 딸》

기본내용

딸을 데리고 가난하게 사는 설씨로인에게 변방수비에 나가라는 관가의 령이 내린다.

설씨로인과 딸이 근심에 싸였을 때 이웃총각인 가실이 대신 나갈것을 결심한다.

설씨로인은 너무도 고마와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여 은혜를 갚으려 한다.

가실이 설씨의 딸과 굳은 언약을 하고 떠난 후 3년 기한이 지나고 또 몇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설씨로인은 나이들어가는 딸을 걱정하여 딴사람에게 시집보내려한다.

그러나 딸은 굳게 다진 약속 변치 않고 기다려 끝내 돌아온 가실을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된다.

이처럼 소설은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풍모와 인민들에게 고통과 불행을 들씌우는 봉건사회의 부패상을 보여준다.

**※ 백결선생**

신라의 이름난 음악가. 가난하여 옷을 100군데나 기워입었다 하여《백결선생》이라 불리웠다.

어느해 설날 부자집들에서는 떡방아를 쿵쿵 찧으며 흥성거리는데 백결선생 집은 그럴수 없었다. 안해가 가난이 싫어 푸념을 하기에 백결선생은 그를 위로하여 노래를 지어 거문고로 연주하였다. 그런데 그 소리가 신통히도 방아찧는 소리와 같아 《방아타령》으로 전해졌다.

## 27. 가　야

### 1) 성립

가야는 세나라시기 봉건국가의 하나였다.

B.C. 1세기초 중엽에 봉건소국으로 형성되였다가 1세기 중엽에 독자적인 봉건국가로 성립되였다.

중심지는 경상남도 김해이며 령역은 락동강남쪽지역 고대국가 진국의 변한지역이였다.

가야는 변한지역에서 성립된 6개 소국들의 련합체였다. 즉 금관가

야, 고령가야, 대가야, 소가야, 성산가야, 아라가야(6가야)인데 초기에는 금관가야가, 후기에는 대가야가 주도적자리를 차지하였다.

※ **김수로전설**(가야건국설화)

세상이 생겨난 후 이 땅에는 아직 나라도 왕도 신하도 없었다. 그래서 9명의 《한》들이 추장으로서 백성 100호, 1만 5천명을 거느리고있었다.

3월 어느날 구지봉에서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나기에 200~300명의 사람들이 모이니 《여기에 누가 있는가?》하는 소리만 들리였다.

9한들이 《우리가 있습니다.》하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하였다.

《구씨입니다.》하니 《하늘이 나에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9한이 시키는대로 하니 붉은빛 보자기에 싼 금함에 6개의 황금알이 있었는데 거기서 6명의 아이가 나와서 10일 지나서는 어른이 되였고 보름날에 왕이 되였다. 제일먼저 나온 사람을 《수로》라고 하였고 남은 5명은 5가야의 왕이 되였다.

가야는 건국전설에서 엿볼수 있는것처럼 북방(전설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김수로를 비롯한 사람들이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면서 세워졌다.

### 2) 발전

가야는 농업과 수공업, 배무이기술이 발전하였다.

가야사람들은 일찍부터 배를 타고 왜(일본)땅에 건너가 소국을 세우고 원주민들에게 경제문화적영향을 주었다.

### 3) 종말

가야는 562년에 신라에 통합되여 존재를 마쳤다.

**허황한 궤변－《미마나 미야께》설**

삼국시기에 일본 야마또왕정이 금관가야를 거점으로 남부조선일대를 몇세기동안 지배하였다고 하는 허황한 궤변이다.

일본 옛 책에 씌여있는《미마나》는 가야사람들이 왜땅에 건너가 세운 소국을 가리킨것이다.《미마나》는 야마또왕정에서 파견한 관리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 관리가 있는 기관을 《미야께》라고 하였다.

결국 《미마나 미야께》란 왜땅에 있던 《소국에 대한 통치기관》인 것이다.

그런데 일본반동들은 《미마나》가 조선반도남단에 있던 가야국이라고 하면서 거꾸로 된 《미마나 미야께》설을 꾸며내여 억지주장하고있다.

이것은 지난날 일제의 조선침략과 오늘의 재침책동을 합리화하려는 궤변이다.

## 28. 일본땅에 퍼진 세나라의 문화

세나라사람들은 일찍부터 일본땅에 건너가 일본의 문화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 1) 다까마쯔즈까무덤과 벽화

다까마쯔즈까무덤은 일본 나라현 아스까지방에서 1972년에 발견되였다.

무덤은 남녀인물과 사신도, 해와 달 등 모든 그림과 무덤을 만든 형식으로 보아 고구려식벽화무덤이라는것이 확증되였다.

따라서 이 무덤은 고구려기술자들의 지도밑에 만든것으로서 고구려사람들의 발전된 기술과 문화가 일본에 널리 보급된것을 보여준다.

### 2) 법륭사

나라현에 있는 사원이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목조건물가운데서 제일 오래다.

법륭사는 건설로부터 불상, 그림, 탑 등이 모두 고구려, 백제사람들에 의하여 창조된것이다.

그림에서 유명한것은 고구려화가 담징이 그린 불교를 선전하는 모습인 아미타여래상이다.

※ 그 벽화가 1949년에 화재로 타버리자 일본의 많은 일류급화가들이 다시 그렸지만 본래것만 못하다고 그들자신이 인정하였다.

담징은 일본에 물감, 먹, 물방아기술도 배워주었다.

법륭사에는 백제의 기술자, 조각가들이 만든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고 잘된 공예작품인 나무금속조각 《옥충주자》와 나무부처조각인 《백제관음상》이 있다.

### 3)《성덕태자상》

백제의 화가 아좌가 597년에 일본에 초빙되여가서 일본의 실권자였던 성덕태자의 초상을 그린것이다. 이 그림은 중세시기의 세계적인 걸작으로 평가되고있다.

## 29. 발해의 성립과 종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서 7세기말부터 10세기초에 이르는 시기에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 1) 성립

698년에 고구려의 장수였던 대조영이 세웠다.

처음 수도는 동모산(중국 돈화)에 정하였으며 령역은 남쪽은 대동강류역-원산계선, 북쪽은 제야강상류 오호쯔크해계선, 동쪽은 조선동해, 서쪽은 료하서쪽지역-눈강 서쪽류역계선까지였다.

고구려가 망한 후 696년 5월에 고구려사람들은 당나라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대조영의 지휘밑에 영주지방(료녕성 조양)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당시 영주지방에는 고구려유민들과 거란, 말갈 등 여러 종족들이 있었다.

고구려유민폭동군은 동쪽으로 진격하였다. 그 목적은 더 많은 고구려유민들을 묶어세워 당나라침략세력을 몰아내고 옛 고구려땅에 그를 계승한 강대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다.

폭동군은 698년 천문령에서 공격해오는 당나라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대조영은 각지 고구려유민들의 투쟁을 련합하여 당나라침략세력을 완전히 몰아냈다. 그는 마침내 동모산을 수도로 하여 698년에 고구려를 계승할 봉건국가 《발해》의 창건을 선포하였다.

수도는 그후 여러곳으로 옮겨졌고 기본수도로 된 곳은 상경이였다..

### 2) 발해의 5경 15부

발해에서 지방행정구역을 5개의 경과 15개의 부로 설정한것이다.

5경-상경(기본수도), 중경, 동경, 서경, 남경

15부에서 5개 부는 경이 설치된 곳이였다.

부밑에는 62개의 주와 수백개의 현이 있었다.

### 3) 종말

종말년대 926년

종말과정

10세기초에 들어서면서 통치배들의 권력싸움으로 국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침략의 기회를 노리던 거란침략자들이 대규모로 쳐들어왔다.

군대와 인민들은 용감히 떨쳐나 싸웠으나 부패무능한 통치배들은 적들에게 투항하고말았다.

## 30. 발해의 문화유적유물

### 1) 상경성

상경성은 발해의 수도성이다. 궁성(왕이 있는 성), 황성(관청이 있는 성), 외성(주민지구)을 쌓고 그안에 왕궁, 관청건물, 주택 등을 건설하였다.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의 건설방식을 이어받았다.

도로폭은 110m나 되는 곳도 있었다.

### 2) 상경의 돌등

밤에 불을 켜서 사원을 밝히는 돌등.

높이가 6.3m인 정자모양의 커다란 돌조각품이다.

웃부분의 치레, 초불을 켜는 불집, 기둥, 받침대 등이 조각예술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 3) 시 《밤에 다듬이소리를 듣고》

발해사람 양태사가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조국에 대한 그리움에 북받쳐 지은 시이다.

밤에 다듬이소리를 들으며 고향과 안해, 조국에 대한 사랑을 정서적으로 훌륭히 형상하였다.

※ 왕효렴의 시 《달을 보고 고향을 생각하며》도 향토애를 담은 우수한 작품이다.

## 31. 후기신라의 9주5소경과 청해진

### 1) 9주5소경

후기신라의 지방행정구역인 9개의 주와 5개의 소경을 말한다.

주는 오늘의 도급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였다.

**9주**－삽량주, 사별주, 청주, 무진주, 완산주, 웅천주, 한산주, 수약주, 하서주

**5소경**－소경은 작은 수도라는 뜻이다.

5소경으로는 북원소경, 금관소경, 서원소경, 남원소경, 국원소경이였다.

주밑에는 117개의 군과 293개의 현이 있었다.

후기신라에서 9주, 5소경, 군, 현들을 설치한것은 지방통치제도가 째였다는것을, 인민들에 대한 지배와 착취가 강화되였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 **주의 장관**－군주, 후에는 도독.

소경의 장관－사신

※ 5소경을 757년에 북원경, 김해경, 서원경, 남원경, 중원경으로 고쳤다.

**2) 청해진과 장보고**

청해진은 후기신라시기 오늘의 전라남도 완도에 설치되였던 강력한 수군기지이며 동방의 무역중심지였다.

9세기에 신라상선들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당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 해적들이 나타나 신라상선들에 대한 해적행위를 빈번히 감행하였고 신라사람들을 끌고가 노비로 팔아먹었다.

당나라에 가있으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장보고는 신라에 돌아와 봉건정부에 조음도(완도)에 강력한 수군기지를 설치할것을 제기하였다.

왕은 그에게 군사 1만명을 주어 청해진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그를 청해진의 장관인 대사로 임명하였다.

장보고는 당나라에 가서 무령군 소장이라는 군사지휘관으로 있었다.

그는 말타고 칼을 쓰는데서 당나라사람들이 당해낼수 없는 사람이였다. 또한 바다에 익숙하여 헤염을 잘 쳤다.

청해진대사가 된 장보고는 완강하고 능란한 군사적솜씨로 짧은 기간에 청해진을 철통같이 꾸리고 해적들을 련속 징벌하였다. 그리하여 신라상선들이 마음대로 당나라와 일본으로 항행하면서 무역을 하여 큰 리득을 얻게 되였다.

청해진은 조선서해와 남해를 지키는 수군기지, 동방무역의 중심지

로 번창하면서 나라의 위력을 떨치였다.

그 요인은 고구려의 기술을 이어받은 신라의 배무이기술이 발전한 것과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고 나라의 안전을 지키려는 인민들의 애국적 투쟁에 있었다.

청해진은 그후 그 세력이 커지는데 불만을 느낀 봉건통치배들에 의하여 해산되였다.

## 32. 후기신라의 문화유적유물

### 1) 불국사

신라의 수도 경주 토함산기슭에 있는 유명한 사원이다.

6세기초에 처음 세워지고 8세기 중엽에 웅장하게 재건되였는데 임진조국전쟁때 불탄것을 18세기에 다시 지었다.

사원은 불교를 선전하기 위한 건물이지만 거기에는 그것을 지은 건축가들과 인민들의 뛰여난 건축기술과 재능이 깃들어있다.

불국사의 건축기술은 동쪽의 청운교, 백운교, 서쪽의 칠보교, 련화교라는 다리, 자타문(중문), 건물의 지붕과 기둥 등 모든 요소들에서 훌륭하게 나타나고있다.

### 2) 다보탑과 석가탑

불국사에는 특히 대웅전 앞마당에 마주서있는 다보탑과 석가탑이 뛰여난 건축조각기술로 하여 유명하다.

그 탑들은 돌로 만들었지만 나무를 다듬어 깎듯이 섬세하고 부드러우며 균형이 잘 잡혔다.

※ 석가탑을 무영탑이라고 부르게 된 전설

석가탑을 만들 때였다.

이름난 석공이 부역에 끌려나왔는데 기한이 다 지났어도 집으로 보내주지 않았다.

기다리고기다리던 안해가 불원천리 먼길을 걸어 찾아왔으나 그곳 중들과 관리들은 남편을 만날수 없게 하였다.

남편을 애타게 그리던 안해는 련못에 비낀 탑의 그림자에서 남편의 모습을 보고 그만 물에 뛰여들어 빠져죽었다.

그후 석가탑은 그림자가 없어져 무영탑이라고 부르게 되였다고 한다.

### 3) 봉덕사종

경주의 봉덕사라는 사원에 있는 종이다. 771년에 만들었다.

종의 무게는 12만근(72t), 소리는 100리밖에서도 들리였다고 한다.

이처럼 큰 종을 한꺼번에 부어 만들었다는것은 기술이 매우 높았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종 겉면에 련꽃, 선녀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무늬를 새겼는데 그 조각기술도 우수하다.

종은 중들이 왕의 《명복》을 빈다는 구실로 인민들의 재물을 긁어내여 만든것이다.

이 종을 《에밀레종》이라고 부르게 된 전설이 그것을 말하여준다.

중들이 종을 두번이나 만들었으나 소리가 잘 나지 않았다.

중들은 그것이 백성들이 재물바치기를 싫어하여 부처의 노여움을 산데 있다고 하면서 마구 략탈하였는데 어느 한 녀인에게서는 재물이 없다하여 아이를 빼앗아다 쇠물가마에 넣고 종을 부어냈다.

그후 종을 칠 때마다 《에밀레》, 《에밀레》라는 소리가 났다고 한다.

### 4)《왕오천축국전》

8세기 전반기에 중이였던 혜초가 천축국(인디아에 있던 작은 나라들) 등 곳곳을 다녀보면서 쓴 장편려행기작품이다.

혜초는 불교를 연구하기 위하여 당나라를 거쳐 인디아와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근 10년간 려행하면서 가는 곳마다에서 보고 듣고 느낀 자연과 풍속, 통치제도, 경제생활 등 여러가지 내용을 써놓았다.

1910년에 3권으로 된 책의 내용을 1권으로 축소한 간략본의 일부가 중국의 유명한 돈황석굴에서 발견되여 세상에 공개되였다.

발견된 책은 일부분이지만 력사연구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세계적재보로 되고있다.

### 5) 솔거와 그의 그림

8세기 신라의 유명한 화가였던 솔거가 황룡사벽에 늙은 소나무를 그렸는데 어찌나 생동하였는지 날아가던 새들이 진짜 소나무인줄로 알고

앉으려다가 벽에 부딪쳐 떨어지군 하였다고 한다.

그후 그림의 색이 날아서 그림을 잘 그린다는 중들이 다시 그렸더니 다시는 새들이 날아들지 않았다고 한다. 솔거는 이밖에도 여러 사원에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특히 단군의 초상을 1 000여상이나 그렸다고 한다.

가난한 솔거가 유명한 화가로 된것은 꾸준한 노력과 탐구의 결과였다.

## 33. 9세기말 농민전쟁결과 《후삼국》출현

### 1)《후삼국》

태봉국, 후백제, 후기신라를 삼국시기(고구려, 백제, 신라가 같이 있던 시기)후의 세나라라는 뜻에서 《후삼국》이라고 한다.

### 2) 9세기말 농민전쟁

9세기 전반기부터 본격화된 농민폭동은 9세기말에 이르러 온 나라를 휩쓴 농민전쟁으로 확대되였으며 이 투쟁을 통하여 많은 지역이 농민군에게 장악되였다.

일부 정치적야심가들은 이것을 리용하여 새로운 봉건국가들을 세웠다.

**붉은바지농민폭동**

후기신라에서 9세기초부터 농민들이 봉건적착취와 압박을 반대하여 각지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그중 896년에 신라의 남부에서 일어난 폭동은 농민들이 적아를 구별하며 단결된 힘을 보여주기 위하여 붉은바지를 입고 투쟁하였기때문에 《붉은바지농민폭동》이라고 한다.

폭동군은 여러 고을관청과 부자들의 집을 습격하여 악질관료들을 처단하면서 수도 경주부근에까지 쳐들어갔다.

봉건통치배들은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폭동은 통치배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 3) 후백제의 출현

농민폭동이 일어나자 왕이 되려는 야심을 품은 견훤은 신라군지휘관으로부터 농민군두령으로 되였다.

넓은 지역에 세력을 확장한 견훤은 900년에 전주(완산주)를 수도로 정하고 《후백제》라는 나라를 선포하였으며 자기가 왕이 되였다.

#### 4) 대봉국의 출현

궁예는 원래 신라왕의 첩의 아들로서 왕실의 버림을 받아 사원에 숨어지내던자였다.

농민군에 들어간 그는 자기 본심을 숨기고 《열성》을 보여 한개 부대 지휘자로 되였다.

궁예는 옛 고구려를 일떠세우겠다는 구호를 내걸고 지방봉건세력들을 자기 부대에 끌어들였다.

901년에 송악(개성)에서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였다.

그후 수도를 철원(남강원도)으로 옮기고 904년에는 나라이름을 《마진》, 911년에는 《태봉》이라고 고쳤다.

#### 5) 후기신라

신라는 후백제, 태봉국이 새로 출현한 결과 3개 나라로 되였다.

7세기 중엽까지 고구려, 백제와 함께 있은 신라를 전기신라, 그후 백제, 고구려가 존재를 마치고 신라가 발해와 함께 있은 때의 신라를 후기신라라고 한다.

## 34. 고려의 성립

#### 1) 태봉국왕 궁예의 폭압정치

태봉국을 세운 궁예는 왕의 자리에 오르자 자기의 포악성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 《일목대왕의 쇠방망이》**

《일목대왕》이라고 하는것은 한쪽 눈만 있는 대왕이라는 말로서 궁예를 가리키며 《쇠방망이》는 그의 폭압정치를 쇠몽둥이정치로 표현한것이다.

① 궁예는 우선 인민들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하였다.

성곽건설과 절간, 관청건설 등으로 인민들을 혹사하고 착취하였다.

② 죄없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잡아죽이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특히 신라사람이라면 남녀로소 가리지 않고 모조리 잔인하게 죽이였다.

지어는 심복부하들까지 의심하여 마구 죽이였다.

③ 또한 극도의 사치하고 부화한 생활에 빠져있었다.

궁예는 자기는 부처(《미륵불》부처)라고 하면서 자기를 떠받들고 무조건 복종하게 하였다.

### 2) 왕건의 정변과 고려의 성립

① 918년 6월 왕건의 정변

인민들과 통치배들속에서 불평불만이 높아가고있을 때 왕건은 홍유, 배현경과 함께 1만여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정변을 일으켜 왕궁을 포위공격하였다.

궁예는 도망치다가 인민들에게 붙잡혀 죽었다.

**※ 왕건**

개성지방의 큰 봉건세력가였는데 10세기초《후삼국》중의 하나인 태봉국(오늘의 남강원도 철원지방) 왕 궁예의 부하로 있었다. 918년 6월 왕건은 정변을 일으켜 궁예를 제끼고 나라이름을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의미에서 《고려》라고 하였다. 다음해에 수도를 개경으로 옮겼다. 당시 왕건의 나이는 41살이였다.

그는 943년 7월까지 25년간 왕으로 있었다.

② 고려성립의 의의

고려봉건국가의 성립은 한강토에서 살려는 인민들의 통일념원을 실현시킬수 있는 중요한 사변으로 되였다는데 있다.

## 35. 고려에 의한 국토의 통일

### 1) 고려의 국토통일정책

#### (1) 10세기초의 정세

① 우리 인민의 통일지향이 높았다.

우리 인민은 단군조선시기로부터 한강토에서 한피줄을 타고 같은 말을 하면서 살아온 단일민족이였다.

그런데 당시 나라는 《후삼국》으로 갈라져 싸우고있었고 발해가 약화된 틈을 타서 녀진족과 거란족의 준동이 심해졌다. 그러므로 통일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졌다.

② 새 집권자들도 고구려의 후손들로서 통일을 지향해나섰다.

### (2) 고려의 국토통일정책

① 서경건설과 서북지방개척

통일정책에서 서경건설을 중시한것은 서경이 고려서북방의 중요한 군사정치적중심지이며 강대국 고구려의 수도로서 옛 고구려땅을 다 차지하는데서 의의가 컸기때문이다. 그러므로 건설을 벌리고 947년에는 수도를 서경에로 옮기려고 준비사업까지 벌리였다.

서북지방을 개척하는것도 국토통일을 위한 선차적문제였으므로 980년까지 대동강북쪽지대에 50여개의 성을 쌓고 방비를 강화하였다.

② 발해사람들에 대한 포섭정책

926년 발해종말후 발해유민들을 포섭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의 혈연적련계, 민족적공통성을 높이고 북방방비도 강화해나갔다.

### 2) 후백제와 후기신라의 통합

① 후기신라의 통합

－고려의 후기신라통합을 위한 기본정책은 적극 보호해주고 고려에 의탁하게 하여 스스로 투항하도록 하는것이였다.

－고려는 후기신라를 보호하여 후백제의 략탈을 막아주었다.

－930년 고창군（안동군）병산전투에서 고려군의 큰 승리와 후백제왕 견훤의 투항으로 심리적변화가 일어난 후기신라의 경순왕（김부）은 935년 11월에 고려에 투항하였다.

② 후백제의 통합

－고려의 후백제통합에서 내세운 기본정책은

초기에는 충돌을 피하는것이였다.

후에 국력이 강화된 다음 공세에로 넘어가는것이였다.

－고려는 925년부터 적극적인 공세에로 넘어가기 시작하였다.

936년 경상북도 선산에서 후백제군을 크게 격파하고 통합하였다.

그리하여 936년 고려에 의한 국토통일이 실현되였다.

③ 국토통일의 요인과 력사적의의

요인

・나라의 분렬을 끝장내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민들이 적극 투쟁하였기때문이다.

・우리 인민들이 통일된 한나라 한강토우에서 함께 살며 민족성을 꽃피울수 있게 되였다.

・경제와 문화가 새로운 토대우에서 보다 전면적으로 발전할수 있게 되였다.

**[고려의 3성6부와 5도량계]**

① 고려의 중앙통치기구에서 기본골격을 이룬것은 3성6부였다.

—3성은 국왕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고 그 집행을 감독통제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6부는 국왕의 명령지시를 직접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들이였다.

6부에는 리부, 례부, 병부, 호부, 형부, 공부가 있었다.

리부는 관리들의 임명, 례부는 국가적인 행사, 병부는 군사문제, 호부는 재정, 형부는 각종 형벌, 공부는 수공업과 건설 등을 맡아보았다.

② 5도량계는 지방행정구역이였다.

—전국을 경기（개성）와 5도량계로 나누었다.

5도에는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가 있었다.

량계는 동계와 북계로 나누어졌다.

—5도밑에는 여러개의 부, 주, 군, 현을 두었다.

—지방통치의 실제적인 중심지로서 4경, 3도호부, 8목을 설치하였다.

※ 4경은 수도 개경（개성）과 서경（평양）, 남경（양주）, 동경（경주）
3도호부는 안북（안주）, 안서（해주）, 안변 등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들이였다. 8목은 황주, 광주(경기도), 충주, 전주, 라주, 진주, 상주 등이였다.

## 36. 고려－거란전쟁

### 1）거란의 제1차 침입과 주요전투

※ **거란**은 10~13세기초 북중국과 중앙아시아지역에 존재하였던 봉건국가

① 거란침략자들은 993년 10월 고려에 대한 제1차 침입을 감행하였다.

② 안융진전투와 강화담판에서의 승리(적우두머리 소손녕)

적들은 평안북도 산간지대를 거쳐 안융진에 달려들었다.（안융진은 안주서쪽 약 65리지점）

안융진방어자들은 중랑장 대도수의 지휘밑에 결사전을 벌려 우세한

적들의 여러차례의 공격을 물리치고 무리죽음을 안기였다.

적들은 하는수없이 담판을 제기하였다.

담판에서 서희는 고구려 옛 땅을 내놓으라는 문제, 거란과의 관계를 가지라는 요구, 송나라와 국교관계를 끊으라는 요구에 대하여 응당한 타격을 주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 **서희**（942년-998년）

뛰여난 외교가, 군사가

거란의 1차침입당시 고려군 명장으로 활약

그때 왕을 비롯한 일부 통치배들이 적들의《항복》요구에 겁을 먹고 그에 응하려 할 때 싸울것을 적극 주장하였다.

적장 소손녕과의 강화담판에서 든든한 배짱과 사리정연한 론리로 승리함으로써 적들이 더는 침략구실을 못 찾고 물러나게 하였다.

**2）거란의 제2차 침입과 대표적인 전투들**

1010년 11월 고려에 대한 2차 침공을 감행하였다.

흥화진（의주 동남쪽）에서 첫 전투가 벌어졌다.(적우두머리 성종)

도순검사（방면군지휘자） 양규의 지휘밑에 고려의 군대와 인민들은 달려드는 적들에게 17일동안 큰 타격을 안기여 승리하였다.

일시적우세를 리용하여 개경까지 기여들었던 거란의 주력군은 강감찬장군의 청야전술에 걸려들어 1011년 1월 중순 퇴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1월 28일 애전（선천동쪽）에서는 양규, 김숙흥의 지휘밑에 퇴각하는 거란군을 격파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미 구주에서 된타격을 받고 애전방향으로 빠져나가려던 적들은 고려군의 드세찬 공격에 넋을 잃고 무기와 전투기재를 버린채 도망치고 말았다.

양규와 김숙흥은 온몸에 화살이 가득 박혀 숨을 거둘 때까지 싸움마당을 떠나지 않았다.

**3）거란의 제3차 침입과 《구주대첩》**

1018년 12월 10일 소배압을 우두머리로 하여 10만의 거란군이 침입하였다.

-고려군은 흥화진 동쪽에서 고진강상류를 막아놓았던 소가죽제방을 터쳐 거란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흥화진에서 타격을 받은 적들은 도중전투를 피하면서 남쪽으로 침입하였다.

- 한편 황해도 신계까지 기여들었던 적들은 강감찬장군의 청야전술

에 걸려 쫓겨가기 시작하였다.

고려군은 강감찬장군의 지휘밑에 도망치는 적들을 1019년 2월초 구주동쪽 벌판에서 대포위진을 치고 포위섬멸하여 대승리를 이룩하였다.

이 전투에서 10만의 적군가운데서 겨우 살아 도망친 놈들은 수천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를 《구주대첩》(구주대승리)이라고 한다.

※ **강감찬** (948년-1031년)

강감찬은 고려봉건정부의 최고벼슬인 문하시중을 하였다.

1010년 11월 거란왕 성종이 40만대군으로 2차로 고려를 침입해왔을 때 청야전술로 적을 물리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1018년 거란의 3차침입때 흥화진과 구주계선에서 기묘한 전술로 적들을 통쾌하게 답새겨 승리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승리의 요인은 열렬한 애국주의정신과 불굴의 기개를 발휘하여 군대와 인민이 모두 떨쳐나 싸운데 있다.

의의는 단결하여 싸우면 그 어떤 침략자도 능히 물리칠수 있다는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나라의 대외적지위를 한층 높였다는데 있었다.

## 37. 고려의 대외무역

### 1) 대외무역이 발전할수 있었던 요인

고려의 대외적위신이 높아지고 나라의 힘이 강화되였기때문이다.

### 2) 대외무역의 중요내용

① 송나라와의 무역

송나라와의 무역은 두가지 형식으로 진행되였다.

사신들이 서로 오고갈 때 두 나라 왕들사이에 례물을 주고받는 형식과 개별상인들이 오고가며 교류하는 형식이였다.

수출품은 자기, 비단, 인삼, 종이, 먹, 붓, 돗자리, 부채 등이였다.

수입품은 색다른 비단과 약, 사치품들이였다.

② 녀진, 거란과의 무역

녀진인들은 개경에 찾아왔는데 한번에 적어서 수십명, 많을 때에는 수백명이나 되였다. 무역형식은 녀진우두머리들이 자기들의 물건을 가져와 바치고 고려왕실로부터 《선물》을 받아가는 형식으로 진행되였다.

가져온 물건은 말, 털가죽 등이였고 받아간것은 식량, 옷감, 철제

품들이였다. 녀진과의 무역은 물건을 얻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그들을 복속시키자는데 있었다.

거란과는 해마다 사신들이 오고갈 때 두 나라 왕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였다. 고려는 거란에 금, 은세공품, 모시, 문화용품 등을 수출하였고 거란으로부터는 말과 양 그밖에 사치품들을 수입하였다.

③ 일본과의 무역

일본상인들도 자주 찾아와서 무역을 하였다.

이들은 류황과 동, 귤 같은것을 싣고와서 고려의 비단, 공예품과 바꾸어갔다.

④ 대식국과의 무역

고려의 이름이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머나먼 대식국(아라비아반도와 이란)의 상인들까지 찾아왔다.

대식국상인들은 수백명씩 무리를 지어 열대지방에서 나는 향료, 물감, 상아 등을 가지고와 고려의 비단을 바꾸어갔다는 기록이 3건 있다.

**[무역항－벽란도]**

고려의 수도 개경에는 한꺼번에 수백명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일수 있는 려관이 꾸려져있어 거기에는 늘 외국사람들로 붐비였으며 고려의 무역항이였던 벽란도(례성강하류)에는 여러 나라 무역선들이 수많이 머물러있어 돛배들이 숲처럼 보였다고 한다.

이처럼 고려시기 대외무역이 크게 발전함으로써 동방무역의 중심지로 되고있었으며 이 과정에 고려(코레아)라는 이름은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 고려의 천리장성

고려에서 외래침략자를 막기 위해 압록강하구로부터 함경남도바다가에 이르는 1 000여리 구간에 쌓은 성.

북쪽의 거란과 녀진이 자주 침입하는데 대처하여 1033년－1044년 기간에 쌓았다. 신의주시, 의주군, 창성군, 희천시와 동신군, 요덕군, 금야군, 정평군일대에는 지금도 유적이 있다.

천리장성은 고려인민의 높은 애국적열의와 힘을 보여주었다.

## 묘청의 정변

### 1) 정변목적

서경량반들이 개경량반들을 밀어제끼고 권력을 잡자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수도를 개경으로부터 서경으로 옮기려 하였다.

그것은 왕을 자기편에 쟁취하여 저들이 권력을 잡는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 2) 정변시작, 서경인민들의 투쟁

◯ 묘청일파는 지리풍수설을 리용하여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려고 왕을 꾀여 서경 림원역(룡성구역 룡추동)에 새로 대화궁을 지었는데 그것이 벼락으로 불타자 개경관료들이 수도를 옮기는것을 파탄시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경량반들이 정변을 일으켰다.

1135년 1월 묘청일파는 서경과 그 부근고을에 와있던 개경출신관리들을 잡아가두고 그 자리에 서경출신들을 앉히였다.

◯ 묘청의 정변에 서경과 그 부근의 인민들이 호응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서경인민들이 투쟁에 궐기한 리유

첫째로, 개경량반들을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의 봉건적착취와 억압에 반발한데 있다.

둘째로, 큰 나라에 굽신거리는 봉건통치배들의 사대주의적대외정책에 반감을 품은데 있었다.

◯ 묘청일파는 정변을 일으키고 《대위국》이라는 나라를 선포한 다음 군대를 조직하여 서경을 지키게 하고 일부는 절령(오늘의 황해북도 자비령)계선까지 내보내여 정부군을 막게 하였다.

서경과 그 일대의 인민들은 여기에 합세하였다.

봉건정부는 《토벌군》을 조직하여 출동시켰다.

서경인민들은 남녀로소 떨쳐나 1년동안이나 성을 지키며 정부군의 봉쇄와 집요한 공격을 물리쳤다.

그러던 1136년 2월 지휘부안에 있던 변절자들이 묘청을 죽이고 투항함으로써 성은 함락되게 되였다.

서경인민들의 투쟁이 가지는 의의

첫째로, 부패하고 비굴한 봉건통치배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는데 있다.

둘째로, 대중적인 폭동적진출로서 12세기 후반기 농민전쟁의 서막으로 되였다는데 있다.

## 고려의 무신정권

### 1) 무신정변의 원인

・문신과 무신사이의 대립이 극도로 날카로와진데 있었다.

그것은 고려통치배들이 무신을 깔보고 문신을 우대하며 내세우는 정책을 실시하였기때문이다.

・의종의 부화방탕한 생활과 착취로 비참한 생활처지에 놓인 인민들의 원성도 높았다.

### 2) 정중부의 반란과 무신정권의 수탈

1170년 8월 유흥하려고 보현원(경기도 파주)으로 가던 의종왕은 도중에서 무관들의 5병수박희라는 경기를 벌리게 하고 문관들과 함께 구경하였다.

경기에서 무관인 리소응이 졌다고 하여 벼슬등급이 훨씬 낮은 문관인 한뢰가 그의 뺨을 후려쳐 섬돌아래로 떨어뜨렸다.

이때 국왕과 문관들은 손벽까지 치며 리소응을 비웃었다.

격분한 정중부 등 무신들은 보현원에 도착하자마자 군사를 동원하여 동행했던 문신들을 모조리 쳐죽이고 개경으로 올라와 문신들을 닥치는대로 처단하였다.

정중부는 의종왕을 거제도로 쫓아내고 명종을 왕자리에 들여앉힌다음 자기가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를 《정중부의 란》또는 《무신의 란》이라고 한다. 이때부터 1270년까지 100년간 무신정권의 주먹치기통치가 실시되였다.

무신정변의 본질은 높은 벼슬자리와 더 많은 토지와 재부를 차지하기 위한 통치배들사이의 권력싸움이였다.

무신정권은 인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무신들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정권이였다.

## 38. 망이농민폭동

### 1) 시기와 지휘자

투쟁시기. 1176년 1월-1177년 7월

지휘자. 망이와 망소이

### 2) 농민폭동원인과 폭동군의 구성

원인. 농민들 특히 충청도 공주 명학소의 천민들에 대한 봉건통치배들의 심한 착취와 천대에 있었다.

폭동군구성- 주력은《명학소》와《천민》부락에서 살던 사람들과 산간지대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던 농민군이였다.

※ **《소》**-향, 부곡들과 함께 《천민》들이 사는 고려시기의 특수행정구역, 여기에서 사는 주민들은 일반 군현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천시되고 더욱 가혹한 착취와 로력적부담을 강요당하였다.

### 3) 투쟁과정

1176년 1월 망이의 지휘밑에 수백명의 농민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공주를 점령하였다.

중부조선의 정치군사적중심지의 하나였던 공주를 점령한 농민군은 투쟁을 넓은 지역으로 확대해나갔다.

급해맞은 봉건통치배들은 회유기만술책으로 나갔다.

봉건정부는 3 000여명의 《토벌군》을 파견하는것과 함께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고쳐 그들의 대우를 높여주는듯이 꾸미였다.

봉건통치배들의 꾀임수에 속은 농민군은 통치배들과 《화의》를 맺었다. 봉건통치배들이 속임수를 쓴다는것을 깨달은 농민군은 1177년 2월 다시 투쟁에 일떠서 반년간 계속 투쟁을 벌렸다.

※ 《화의》를 맺고 공주로 돌아온 망이는 통치배들이 농민들을 탄압하면서 자기의 어머니와 안해를 랍치해간 사실을 알았다.

-농민군은 경기도 려주와 충청도 진천, 3월에는 홍경원을 습격하였으며 1177년 4월에 이르러 오늘의 충청북도 전 지역과 경기도의 일부지역까지 차지하였다.

-봉건통치배들은 《토벌군》을 조직하여 농민군을 진압하려고 발악하였다.

-농민군은 그럴수록 투쟁을 더욱 확대하여야 하겠으나 6월말에《화의》를 맺자는 정부군의 제의에 망설이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인 7월 망이가 관군에 체포되였으며 농민군대오는 흩어지고말았다. 농민폭동의 실패는 봉건통치계급에 대하여 자그마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 39. 고려－봉건몽골전쟁

### 1) 전쟁의 단계

1단계－1231년 8월-1232년 1월(몽골의 제1차침입을 격퇴)

2단계－1232년 8월-1270년 5월까지(근 40년에 걸쳐 계속된 몽골 침략자들의 침략을 물리친 투쟁)

### 2) 봉건몽골의 1차침입과 주요전투들

－13세기 봉건몽골침략세력이 북부중국에로의 침입이 강화되면서 고려정세도 매우 긴장해졌다. 그러나 최가무신집권자들은 리속을 채우는데만 피눈이 되여 나라의 방비에는 관심이 없었다.

－봉건몽골의 침입목적은 고려를 정복하여 인민들을 노예화하고 재부를 략탈하자는데 있었다.

－침략구실은 1225년 1월 고려에서 정탐행위를 감행한 몽골사신이 압록강가에서 살해된것이였다.

○ 1231년 8월 살례탑의 지휘밑에 수만의 병력으로 침입하였다.

침략군은 두개 부대로 나뉘여 한 부대는 구주에로, 다른 부대는 수도 개경을 향하여 침공을 하였다.

○ 구주성전투

1231년 9월초-1231년 12월까지 4차에 걸쳐 진행되였다.

지휘자는 서북면병마사 박서장군이였다.

성을 지키고있던 1 000여명의 고려군대와 인민들은 박서장군의 지휘밑에 한사람같이 투쟁에 떨쳐나섰다.

침략자들은 포차(큰 돌을 날려보내는 무기)를 비롯하여 각종 성공격수단들을 동원하면서 발악적으로 공격하였다. 적들은 지어 시체와 섶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달아 연기를 피우면서 공격하였다.

그러나 성안의 군민은 굴하지 않고 용감히 싸웠다. 남쪽방비를 맡고있던 김경손은 12명의 결사대로 달려드는 적들을 맞받아 족쳤는데 그는 화살이 박힌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용맹을 떨쳤다고 한다.

※ 구주성군민의 투쟁에 대하여 당시 70살의 한 몽골장수는 어려서부터 여러 전쟁에 참가하여 많은 싸움을 보았지만 이처럼 무서운 공격을 받으면서도 끄떡하지 않는 성은 없었다고,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신의 힘을 빌린 것 같다고 하였다.

○ 각지 인민들의 투쟁에 질겁한 몽골침략자들은 1232년 1월 《화의》를 맺고 쫓겨갔다.

### 3) 1232년 8월-1270년 5월 봉건몽골의 계속적인 침입과 주요전투

봉건몽골침략자들은 1232년 《강화도천도》와 《다로가치》를 처단한것을 침략의 구실로 삼았다.

※ **다로가치-** 봉건몽골침략자들이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위하여 파견한 관리

※ **《강화도천도》란－** 1232년 6월 개경의 통치배들이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긴것을 말한다.

－처인성(경기도 룡인)전투(1232년 12월)

처인성의 군대와 인민들은 달려드는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었으며 김윤후는 한개의 화살로 적괴수 살례탑을 쏴죽였다.

－충주성전투(1253년 10월)

충주성의 인민들은 김윤후의 지휘밑에 70여일간이나 성을 지켜 용감히 싸웠다.

그리하여 침략자들은 1259년에 《화의》를 맺고 물러갈수밖에 없었다.

### 4) 1270년 6월-1273년 4월 삼별초군의 투쟁

삼별초란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등 세개의 부대를 통털어 부르던 이름으로서 강화도를 지키던 군대의 주력이였다.

－삼별초군의 투쟁동기

고려봉건통치배들이 봉건몽골의 요구를 받아들여 1270년 5월 《구도환경》을 진행하고 삼별초군을 해산시킨데 있다.

※ **구도환경－**옛 도읍지로 수도를 옮겼다는 뜻으로서 고려봉건정부가 수도를 강화도로부터 개경으로 다시 옮겨간것을 말한다.

－투쟁과정

삼별초군은 1270년 배중손의 지휘밑에 강화도의 무기고를 들이쳐 무장한 다음 강화도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6월초에 투쟁근거지를 진도로 옮기고 투쟁을 계속하여 전라도를 뒤흔들어놓았다.

1271년 5월 김통정의 지휘밑에 제주도로 기지를 옮기고 1272년 봄부터 1273년까지 투쟁을 벌리였다.

3년간 계속된 삼별초군의 항전은 봉건몽골침략자들과 고려봉건통치배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우리 인민의 애국정신과 기개를 시위하였다.

### 1360년대말-1370년대초 고려의 료동원정

1369년말-1370년대초에 고려는 료동지방에 대한 3차례의 원정을 진행하였다.

### 1) 원정리유

고려에서 쫓겨난 원나라침략세력이 료동지방에 《동녕부》를 설치하고 고려반역자들을 긁어모아 다시 고려를 침략하려 하였기때문이다.

또한 고구려, 발해의 옛땅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 2) 원정과정

① 1차원정- 1369년 11월 양백연이 지휘한 고려군이 료양성을 들이치고 올라산성을 함락하였으며 넓은 지역을 장악하였다.

② 2차원정-1370년 11월 지룡수가 지휘한 고려원정군이 료동성을 점령하고 많은 적들을 포로한 다음 그곳이 옛날부터 우리의 강토라는것을 선포하고 돌아왔다.

③ 3차원정-1371년 9월 안우경이 지휘한 고려원정군이 압록강중류를 건너 올라산성을 공격하여 원나라침략세력의 잔당들을 모조리 소탕하고 우두머리들을 잡아가지고왔다.

료동원정은 원나라침략세력의 잔당들을 격파하고 고구려, 발해의 옛땅을 되찾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였다.

## 40. 진포와 운봉에서 왜구의 격멸

### 1) 왜구

왜구란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및 동남아시아 여러 해안들에 싸다니면서 로략질을 일삼던 중세 일본해적무리들이였다.

### 2) 왜구에 의한 피해

왜구는 1350년부터 수백, 수천, 때로는 수만명씩 고려에 달려들어 략탈과 살인, 방화만행을 더욱 자주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고려인민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히고 국가의 군량미와 조세마저 해상으로 실어나를수 없게 되였다.

이러한 때 고려에서는 최무선이 화약과 화약무기를 새로 발명제작하여 싸움배에 설치하였다.

### 3) 진포해전

1380년 8월 수만명의 왜구가 500여척의 배에 타고 전라도 진포에 침입하여 략탈만행을 감행하다가 고려수군과 싸움을 벌렸다.

고려함대는 100여척이였지만 화포탄을 쏘아 적함들을 짓부시며 불태워버렸다.

고려에 위력한 화약무기가 있는줄을 모르고 덤벼들었던 왜구는 진포해전에서 커다란 패배를 당하였다.

#### 4) 운봉전투

진포에서 녹아난 왜구의 잔당들은 륙지에 기여올라 남원고을 운봉골짜기에 모여들었다.

1380년 9월 고려군은 드센 공격으로 적들을 운봉골짜기에 몰아넣고 몽땅 소탕하였다. 그때 죽어가는 왜구의 비명소리는 몇만마리의 소가 한꺼번에 울어대는것과도 같았다고 전해온다. 또 왜구의 시체가 락동강의 지류인 남강을 메울 지경이고 강물이 여러날 붉어져있었다고 한다.

### 41. 쯔시마원정

#### 1) 1389년원정

① 시기 및 지휘자

시기-1389년 2월

지휘자-박위

② 쯔시마공격의 중요성

당시 쯔시마는 일본해적 왜구의 소굴이였으며 쯔시마령주놈은 왜구를 조종하는 우두머리였다.

쯔시마령주놈은 해적선들의 뒤받침을 해주고 그들이 략탈해온 물건에서 한몫 보고있었다.

따라서 쯔시마를 짓부셔놓는것은 피맺힌 우리 인민의 원한을 풀고 왜적들이 다시는 얼씬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주는 정당한 공세였다.

③ 공격진행과정

－고려함대는 300척의 왜적선을 불사르고 연안의 적소굴들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고려군의 불의의 공격에 혼비백산한 적들은 산속으로 기여들어가 발악하였다.

－고려군은 왜적들이 침략에 리용하던 해안시설들을 파괴하고 랍치되였던 100여명의 인민들을 구원한 다음 개선하였다.

#### 2) 1419년원정

① 원정의 동기, 원정개시와 지휘자

· 동기-1419년 5월초 왜구들이 충청도 비인현 도두움곶과 해주의 연평곶에 기여들어 감행한 략탈사건이다.

· 개시-1419년 6월-7월

· 지휘자-리종무

② 원정과정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원정군을 조직하였다.

6월 19일 원정군이 출정하였다.

227척의 군함에 거의 17 300명의 군사가 거제도를 떠나 쯔시마를 습격하였다.

조선함대가 불의에 들이치자 놈들은 바빠맞아 모두 산속으로 도망쳤다.

원정군은 사람을 보내여 쯔시마령주에게 항복할것을 요구하였다.

놈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원정군은 포구를 샅샅이 뒤져 적들의 배 124척을 불사르고 34척을 로획하였다.

바빠맞은 적들은 조선땅에 다시는 침범하지 않으며 조선에 복종하겠다고 맹세하였다.

승리한 원정군은 기세드높이 7월 3일에 개선하였다.

③ 원정이 가지는 의의

· 오래동안 왜구의 침습을 받아온 우리 나라가 반격으로 왜구에 된타격을 주고 우리 인민의 자주적지향과 의지를 보여준데 있다.

· 우리 나라의 국력을 떨치고 대외적권위를 높인 중요한 계기로 된데 있다.

### 42. 고려군의 1388년 료동출병과 《위화도회군》

#### 1) 료동출병의 목적

첫째로, 명나라의 압력을 짓부셔버리자는데 있었다.

※ 1368년 오늘의 중국땅에서는 원(몽골)세력이 쫓겨나고 명나라가 세워졌는데 명나라는 초기부터 고려침략을 기도하였으므로 그것을 사전에 짓부시자는것이였다.

둘째로, 료동일대의 옛 령토를 종국적으로 되찾자는데 있었다.

### 2) 출병과 결과

① 1388년 4월 최영을 총지휘자로 하는 5만명의 료동원정군이 출병하였다.

—원정군은 최영을 8도도통사로 하고 조민수를 좌군도통사, 리성계를 우군도통사로 하여 조직되였다.

—최영은 왕과 함께 평양의 전선지휘부에 있고 조민수와 리성계가 원정군을 거느리고 료동으로 향하였다.

—5월 원정군은 압록강가에 이르렀다.

이때 선봉부대들은 이미 압록강을 건너 료동지방으로 진격하여 적들을 족치기 시작하였다.

—당시 정권야심을 품었던 리성계는 장마로 물이 불어 강을 못 건느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공격하여왔다.

이것을 력사에서 《위화도회군》이라고 한다.

개경에 돌아온 리성계는 최영을 살해하고 우왕을 쫓아냈으며 9살짜리 창왕을 앉혔다.

※ **최영**(1316년-1388년)

고려말기의 명장, 개경에서 관리였던 최원직의 아들로 태여났다.

최영은 성격이 강직하고 의협심이 강하여 바른말만 하였으며 사리사욕을 멀리하고 생활을 늘 검소하게 하였다.

고려말기 외적과의 싸움에 거의 모두 관여하면서 조국방위에 《충의》를 다 바쳤다.

1388년 고려의 최고관직인 문하시중벼슬을 지내면서 명나라침략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료동원정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리성계의 반역적행위로 원정은 파탄되였고 반역자에 의하여 살해당하였다.

※ **위화도**—신의주앞 압록강의 섬

② 료동원정은 정당하고 충분히 가능한것이였지만 리성계의 반역음모로 중도에서 파탄되였고 고구려, 발해의 옛땅을 되찾으려던 고려의 지향을 실현할수 없게 되였다.

## 43. 고려의 문화

### 1)《팔만대장경》

고려시기 1236년-1261년기간에 출판한 불교총서.

판목 8만여매로 불경책을 6 793권이나 찍어냈다. 그 책을 8만여매의 판목으로 찍었다고 하여 《팔만대장경》이라고 한다.

《팔만대장경》은 지금까지 전해지는 대장경가운데서 세계적으로 그 내용이 가장 정확하고 방대한것으로 하여 널리 알려져있다. 그것이 허황한 불교선전에 쓰인것이지만 우리 인민의 높은 재능과 슬기가 담겨진 귀중한 재보이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위대한 원수님의 높은 뜻에 의하여《팔만대장경》은 오늘 묘향산《팔만대장경보존고》에 정히 보관되여있다.

※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11~12세기에 10만여매나 되는 대장경판목을 만들어 출판하였는데 1232년에 봉건몽골침략자들에 의하여 불타버렸다.

### 2)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 발명

발명시기－12세기 전반기

※ 금속활자가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책을 찍었는가.

・나무판에 글을 새겨 찍었다. 실례로 8만대장경을 들수 있다.

・그후 나무활자를 만들어 찍었다.

어떻게 하여 금속활자를 발명했는가.

금속을 생산하고 가공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글자를 새긴 구리돈을 부어냈다. 그러한 기술이 발전하여 작은 금속활자도 만들어내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금속활자의 발명은 유럽보다 300년 앞섰다.

세계적으로 도이칠란드, 네데를란드가 제일 앞섰다고 했는데 최근에 우리 나라가 더 앞섰다는것이 인정되였다. 1972년에 프랑스에서 열린《책의 력사》전람회에 우리 나라에서 금속활자로 찍은 제일 오랜 책《직지심경》을 내놓아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하였다.

### 3) 최무선과 화약무기의 제작

－14세기 후반기 최무선에 의하여 화약제조법이 새롭게 발명되였다.

※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시기부터 화약을 만들어 썼다.

최무선은 자기 집에 실험실을 꾸리고 조력자들을 두어 여러가지 실

험을 하였다.

1373년 10월에 화약의 기본성분인 염초를 얻어내고 여기에 류황과 버드나무재를 섞어 화약을 제조해냈다.

－최무선은 1377년 10월 봉건정부에 제기하여 《화통도감》이라는 기관을 내오고 여기서 포와 포탄, 불화살 등 화약무기들을 여러가지로 만들어냈다.

새로 만든 화약무기를 싸움배에 설치하여 1380년 진포해전에서 그 위력을 파시하였다. 이것은 화포를 해전에 리용한 세계최초의 바다싸움으로서 유럽보다 200년 앞선것으로 된다.

### 4) 문익점과 목화

문익점은 목화씨를 조국에 가져다가 퍼뜨리였다.

목화재배를 시작한 년도: 1364년

문익점은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류배지에서 그곳 농민들이 목화를 재배하는것을 보게 되였다.

목화가 매우 유익한 공예작물이라는것을 알자 그 씨앗을 얻어가지고 오려고 하였으나 그것은 그 나라의 엄격한 통제품이였다.

그는 목화씨 몇알을 붓대속에 넣어가지고 돌아와 경상도 진주에 살던 장인 정천익에게 주어 1364년에 처음으로 목화를 심어가꾸었다.

그런데 겨우 한그루를 살려내여 100여알의 씨앗을 받을수 있었다.

다음해에 그 100알을 심어가꾸고 씨앗을 불구어 3년만에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줄수 있게 되였다.

목화가 온 나라 곳곳에서 재배됨에 따라 문익점과 그의 가족들은 목화씨를 뽑는 씨아와 물레를 창안하였다.

무명천을 짜는 기술도 진주지방으로부터 경기도, 전라도를 비롯한 우리 나라의 거의 모든 지역에 퍼지게 되였다.

### 5) 세계에 이름난 고려자기

－고려자기의 우수성

고려자기는 색과 무늬가 독특하고 수준이 높았다.

대표적인 자기들로는 먼저 비색(청-푸른색)자기를 들수 있다. 다음 상감(무늬박이)자기를 들수 있다.

고려자기는 모양도 매우 우수하였다.

－고려자기의 예술적특징

고려자기는 색갈과 문양, 모양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어울려 그 하나하나가 나무랄데 없는 미술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 고려자기는 봉건시대 세계도자기력사의 최고봉을 이루는 걸작품, 《천하제일》로 일러왔으며 오늘까지도 세상사람들로부터 보물로 취급되고있다.

### 6) 《삼국사기》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세나라시기의 력사를 담은 책으로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전해지고있는 책들가운데서 제일 오랜 력사책의 하나이다. 모두 50권이다.

1145년 고려의 봉건관리 김부식이 편찬하였다. 책의 구성체계에서 본기(28권)는 고구려를 비롯한 세나라와 가야의 성립과 발전, 붕괴 등을 담은 왕조력사이며 년표(3권)는 일람표식으로 된 세나라의 간단한 년대표이다.

지(9권)에는 통치기구와 법률제도 등 정치행정관계가 기록되여있으며 렬전(10권)에는 을지문덕, 연개소문을 비롯한 애국명장들과 명인들, 반동적인물 등 80여명의 전기가 실려있다.

### 7) 《삼국유사》

우리 나라에서 현재 전해지고있는 책들가운데서 《삼국사기》다음으로 오래된 력사책이다.

13세기 말엽 고려의 중 일연이 썼는데 세나라시기의 력사를 담고있다.

모두 5권 9편으로 된 이 책은《삼국사기》에 담지 않은 자료들을 모았다 하여 《삼국유사》라고 이름붙였다.

세나라의 력사와 문화자료가 적지 않게 담겨있어 우리 나라의 고대, 중세력사를 밝히는데서 의의가 크다.

## 44. 리조봉건국가의 성립

① 1388년 《위화도회군》후 실권을 틀어쥔 리성계는 제놈의 지반을 꾸리는데 달라붙었다.

첫째로, 왕권을 차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사람은 잡아죽이고 내쫓았다.

※ 1388년 7월 조민수를 내쫓은데 이어 여러가지 사건을 날조하여 반대파들을 숙청하였다. 그뿐아니라 11월에는 창왕마저 내쫓고 먼 왕족출신인 공양왕을 앉혔으며 주요관직을 제놈의 심복으로 채워나갔다.

둘째로, 경제적지반도 강화하였다.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여 등록하는 한편 1391년 5월에는 과전법을 실시하였다.

② 리성계는 왕자리를 타고앉기 위한 음모를 본격적으로 벌리였다.

리성계는 1392년 4월 고려왕조의 대관료였던 정몽주를 살해하였다.

③ 1392년 7월 고려의 마지막왕인 공양왕을 내쫓고 왕자리를 타고앉아 1393년 2월에는 나라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였다.

※ 이때의 조선을 리씨왕조라 하여 《리씨조선》, 《리조》라고 한다.

④ 리조봉건국가의 성격

극소수의 봉건통치배들이 인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우로부터 강제로 만들어낸 반인민적이며 관료적인 정권이였다.

**[정몽주와 선죽교]**

정몽주는 고려시기의 이름난 유학자이며 대관료였다. 리성계는 이름이 높았던 정몽주의 지지를 받으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몽주는 오히려 리성계일당을 정계에서 제거하려고 하였다. 뜻을 이루지 못한 리성계는 1392년 4월 개경 선죽교에서 아들 리방원과 심복을 시켜 잔인한 방법으로 정몽주를 살해하였다.

본래 《선지교》라고 부르던 그 다리결에 정몽주가 피살된 날 밤 《참대가 솟아났》기때문에 《선죽교》라고 고쳐불렀다고 한다.

## 수도 한양건설

### 1) 수도를 옮긴 목적

① 개경은 고려의 수도로서 리성계에 대한 반감이 높았으므로 그를 피하려는데 있었다.

② 리조봉건통치배들이 새로운 수도에 왕궁도 크게 지어 새 왕조의 《위엄》을 올려보자는데 있었다.

### 2) 수도옮김과 건설

—리성계일파는 1394년 10월 수도를 한양(서울)으로 옮기였다.

—봉건통치배들은 수도를 옮기면서 수도건설을 본격적으로 벌리였다.

—한양건설에는 10여만명의 인민들이 강제로 동원되여 혹사당하였다.

—인민들의 피땀으로 건설된 수도성은 40리나 되였는데 그안에는 동서로 뻗은 큰 길인 종로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펼쳐졌다.

※ 종로의 북쪽에 왕궁인 경복궁, 창덕궁과 그 부속건물들, 관청들, 량반들의 집이 배치되였다. 그리고 남쪽의 습한 지대에 상인과 일반백성들의 살림집들이 배치되였다.

또한 성안에는 서북—동남방향으로 개천(청계천)이 파지고 종로를 따라 물건을 파는 행랑들이 늘어섰다. 이 방대한 공사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고 부상당하였으며 굶어죽은 사람도 많았다. 한양건설공사후 성한 몸으로 고향에 돌아간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한양은 인민들의 희생의 대가로 건설되였지만 거기에는 봉건통치배들이 틀고앉았고 인민들을 억압착취하는 반인민적통치거점으로 되였다.

## 45. 15세기 리조의 통치기구와 군대제도

### 1) 중앙통치기구

① 최고통치자는 국왕이였다.

국왕은 최대의 권력자, 최대의 착취자였다.

국왕은 아무런 제한도 받음이 없이 모든 정치를 좌우지하며 많은 토지와 노비를 가진 가장 큰 착취자이며 억압자였다.

② 최고통치기관으로서 의정부가 있었다.

의정부에는 령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3명의 정승이 있었다.

이들은 국왕을 도와 국가의 모든 관청들과 관리들을 통솔하는 가장 높은 관리들이였다.

③ 의정부밑에는 6조가 있었다.

6조란 중앙의 기본행정사무를 맡아보는 리조, 호조, 례조, 병조, 형조, 공조 등 6개의 관청이였다.

리조는 문관관리들의 선발배치, 호조는 나라의 재정, 례조는 교육, 외교와 의식, 병조는 군사, 형조는 형벌, 감옥 등, 공조는 관청수공업과 건설공사 등을 맡아보았다.

매개 조의 제일 높은 관리들을 판서라고 하였다.

6조밖에 의정부밑에는 수십개의 중앙관청들이 있었다.

### 2) 지방통치기구

① 전국을 8개의 도로 나누었다. 경기, 황해도, 평안도, 함길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② 도밑에는 300개가 넘는 부, 대도호부, 목, 도호부, 군, 현 등 크고작은 고을들을 두었다.

③ 모든 고을들에는 지방관청을 설치하고 그 우두머리는 국왕이 직접 파견하였다.

※ 도에는 관찰사(감사), 부에는 부사, 목에는 목사, 군에는 군수, 현에는 현령 또는 현감을 내려보냈다. 이러한 우두머리들을 통털어 원이라고 불렀다.

④ 지방통치기구는 인민들에 대한 봉건국가의 지배와 착취를 직접 집행하는 행정기구였다.

**군대제도**

① 군대는 모든 량인남자들이 16살부터 60살까지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의무병역제에 기초하고있었다.

② 군대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편성되여있었다.

- 중앙군은 왕궁호위와 수도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중앙군은 5개의 위로 조직되였다. 5위를 통솔하는 기관으로 5위도총부가 있었다.

- 지방군은 륙군과 수군으로 구분되였다.

지방군을 통솔하기 위하여 매개 도에 13명의 병마절도사를, 수군에는 수군절도사를 임명하여 내려보냈다.

③ 군대지휘관들은 모두 량반출신들로 임명되였다.

## 4군 6진

### 1) 4군 6진이란

15세기에 압록강과 두만강류역에 새로 설치한 4개의 군과 6개의 진을 말한다.

### 2) 4군 6진을 설치한 목적

북쪽에서 녀진족들의 침입을 막아내고 국토를 완정하며 그 일대의 방비를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 3) 4군 6진의 설치

1416년-1443년사이에 오늘의 자강도 북쪽과 량강도 서북지방에 려연군(김형직군 금창리 고성동), 우예군(중강군), 자성군, 후창군(김형직군) 등 4개의 새 고을을 설치하였으며 4군의 설치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두만강류역에는 경원, 경흥, 온성, 종성, 회령, 부령의 6진

을 설치하였다.

4군 6진이 설치되고 압록강과 두만강계선의 방비를 강화함으로써 녀진의 침입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옛 고구려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더욱 성과적으로 벌릴수 있게 되였다.

**녀진과 청나라**

① 녀진

고려와 리조시기 압록강, 두만강류역에 살던 종족이였다. 녀진족들은 여러 갈래였는데 자주 우리 나라 북부에 쳐들어왔다. 그러므로 고려는 1017년에 윤관이 거느린 17만의 군사로 녀진족을 쳐서 두만강밖으로 내쫓았다.

② 금나라

1115년 추장 아골타는 녀진족을 통합하여 금나라를 세웠다. 금나라는 몽골의 침략으로 1234년에 망하였다.

③ 후금과 청나라

1616년 녀진추장 누루하치가 녀진세력을 통합하여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명나라를 쳐서 멸망시켰다.

1636년 후금은 나라이름을《청》으로 고쳤다. 후금, 청은 1627년과 1636년 두 차례 우리 나라에 침입하였다.

청나라는 1911년 중국신해혁명으로 종말하였다.

## 46. 리조시기 봉건적신분제도, 호패법실시

### 1) 봉건적신분제도

신분제도란 계급사회에서 사람들을 여러 등급으로 그 지위를 나누어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세습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 (1) 지배계급신분

① 왕

② 량반

량반은 지배계급신분가운데서 벼슬을 할수 있는 신분층이였다.

량반은 많은 토지와 노비를 차지하고있는 봉건지주이며 노비소유자들이였다.

③ 중인

중인에는 주로 외국어, 법률, 의학, 지리학, 천문력서 등 여러 부문의 기술관리들이 있었다.

중인이란 말은 이들이 서울중심 종로거리에 살았다는데로부터 붙여지게 되였다.

중인은 문무량반들보다는 낮은 신분이였다.

그러나 통역관 같이 사신을 따라다니면서 외국파의 무역을 진행하여 큰 부자가 된자들도 있었다.

④ 아전(서리)

중앙과 지방관청들에서 사무를 맡아보는자들이였다. 지배계급의 신분가운데서 제일 낮은 신분층으로서 사회적지위는 낮았지만 봉건국가와 통치배들의 손발이 되여 인민들에 대한 착취에 직접 참가했다. 아전들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전세와 공물, 부역 등 인민들에 대한 착취에서 한몫 보는 착취자들이였다.

### (2) 피지배계급신분

① 량인

량인을 《상민》,《평민》,《백성》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량인이란 봉건국가에 얽매여 전세, 공물, 병역, 부역 등을 걸머지고있던 신분층을 말한다.

량인에는 농민, 수공업자, 상인이 있고 《신량역천》으로 불리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신량역천》이라는것은 신분은 량인이지만 하는 일이 《천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② 노비

최하층의 사람들로서 가장 가혹한 천대와 멸시를 받는 계층이였다.

노비는 소속관계에 따라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되였다.

공노비는 왕실 및 국가기관에 예속된 노비이며 사노비는 개인에게 예속된 노비였다.

### (3) 신분제도의 반동적본질

신분제도는 봉건통치배들이 인민들을 저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도록 하며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반동적인 제도였다.

### 2) 호패법의 실시

① 호패법이란

16살부터 60살까지 모든 남자들이 관청의 도장이 찍힌 호패(주민증 같은 패쪽)를 차고 다니게 한 제도를 말한다.

② 호패법실시의 목적

봉건국가가 일할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며 자기 고장을 마음대로 떠나지 못하게 얽매여놓고 착취하기 위한데 있었다.

※ 높은 량반관리들은 짐승뿔이나 결이 고운 여러 종류의 나무로 호패를 만들고 거기에 벼슬과 이름만을 새겨넣는다.

그러나 피지배계급신분의 인민들은 보통나무로 만든 패쪽에다 이름과 나이, 사는 곳뿐아니라 얼굴의 생김새까지 밝혀 새기였고 노비의 경우에는 누구의 노비라는것까지 밝혔다.

③ 호패는 량반관리들에게는 명예와 특권의 표식으로 되였지만 피지배계급인민들에게는 신분적예속의 수단으로 되였다.

④ 호패법은 1458년, 1469년 등 여러번 실시되였지만 인차 페지되군 하였다.

그것은 인민들이 호패법을 반대하여 투쟁하였기때문이였다. 그러나 봉건국가는 이 과정을 통하여 많은 량인장정들을 호적에 등록할수 있었다.

※ 1404년에 호적에 등록된 장정(성인남자)수가 32만여명이였다면 15세기 30년대에는 거의 2.2배인 70여만명에 이르렀다.

## 47. 리조시기 봉건적착취형태

### 1) 전 세

전세란 봉건국가 또는 개별적봉건지주들이 농민들에게서 빼앗아내는 토지세를 말한다.

봉건국가는 각종 명목으로 전세에 의한 착취를 가혹하게 감행하였다.

※ 전세량은 일정하게 규정되였지만 토지의 비옥도와 그해의 흉풍 그리고 운반비, 소모량보충미, 접대비 등 여러가지 롱간을 통하여 규정량보다 더 많은 전세를 빼앗아갔다.

특히 토지의 비옥도를 정할 때는 지주의것은 낮게, 일반 량인농민의것은 높게 정함으로써 일반농민들로부터 더 많은 전세를 빼앗아갔다.

### 2) 공 물

① 공물이란 중앙의 관청들이나 지방관청들에서 지방특산물과 수공업제품들을 인민들로부터 현물로 빼앗아내는 하나의 착취형태를 말한다.

② 공물착취의 특성

전세부담보다 더 고통스러운것으로 되였다는데 있다.

그것은

.공물품종과 수량이 엄청나게 많기때문이였다.

.서울까지 공물운반이 힘들었고 운반도중에 변질되면 다시 마련해야 하였기때문이다.

.해당 지방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을 요구하였기때문이였다.

.대납, 인납, 진상 등의 현상이 성행하였기때문이다.

※ **대납-** 공물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것

**인납-** 2~3년분의 공물을 앞당겨바치게 하는것

**진상-** 각도의 감사, 병마사, 계수관들이 례물로 왕에게 바치거나 국가적인 제사를 진행하는 기관(종묘,성균관)에 바치는 물품

### 3) 부 역

부역이란 봉건국가가 16살-60살까지의 모든 남자들에게 아무런 보수도 없이 강제적으로 들씌우는 의무로동을 말한다.

—부역은 계절에 관계없이 강요되여 농사를 망치게도 하였다.

—부역은 동원기간 자재와 로동도구,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자체로 부담해야 했다.

—왕궁과 관청짓기, 성쌓기, 쇠부리로동, 짐나르기 등 종류가 많고 무질서하게 강요되여 인민들의 생활에 고통을 주었다.

## 48. 15세기 경제의 발전

### 1) 농업의 발전

① 부침땅면적과 수리시설이 늘어났다.

-묵은 황무지들이 많이 개간되였다.

-저수지들을 보수 또는 새로 건설하여 많은 논과 밭에 물을 댈수 있게 되였다.

※ 세나라시기에 건설된 전라도 김제의 벽골제제방을 보수하고 많은 물을 채웠다.

이 시기 충청도, 황해도를 비롯한 나라의 곳곳에 큰 저수지만 하여도 40여개나 되였다.

② 농업기술도 발전하였다.

2모작과 그루갈이농법, 모내기법이 퍼졌으며 새로운 품종이 육종되는 등의 발전이 이룩되였다.

2모작은 3~6월 중순경에 보리를 심고 가을한 다음 콩이나 팥, 조를 엇바꾸어심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또한 종자개량에 힘을 넣어 벼종자만 하여도 27종, 조 15종, 콩 20종을 비롯하여 수십종의 곡식품종들이 나오게 되였다. 그가운데는 벼종자인 《50일벼》와 큰 기장종자인 《거서》가 있었다.

③ 공예작물과 파일생산도 늘어났다.

### 2) 수공업의 발전

15세기 수공업의 구성

- 민간수공업이 있었다.

민간수공업에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물건을 만드는 가내수공업과 수공업을 전문으로 하는 전업적개인수공업이 있었다.

- 관청수공업이 있었다. 그것은 중앙관청수공업과 지방관청수공업으로 구성되여있었다.

① 가내수공업에서는 주로 무명, 베, 명주 등 옷감들과 일용품들, 그릇들이 생산되였다.

② 전업적인 개인수공업에서는 농민들이 가내수공업에서 만들수 없고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제품들이 생산되였다.

전업적인 수공업에서는 농기구, 쇠가마, 놋그릇, 사기그릇, 종이, 붓, 먹, 돗자리, 장농 등과 같은것들을 만들었다.

그가운데서 제일 우수한것은 종이, 붓, 먹, 벼루 등을 비롯한 문화용품이였다.

③ 관청수공업은 수공업에서 지배적자리를 차지하고있었다.

서울과 지방에 있는 관청수공업장들에서는 강제로 끌려온 많은 개인수공업자들과 공노비들이 일하고있었다.

그들은 여러 업종별로 갈라지고 그안에서도 생산물에 따라 나뉘여

일하였다.

15세기에 30개의 중앙수공업관청에 속한 수공업장들에는 129개의 업종이 있고 2 800여명의 수공업자들이 일하고있었다.

책을 인쇄하는 수공업자만도 146명이 업종별로 갈라져서 일하였다.

관청수공업에서는 대포, 화약, 창, 칼 등의 무기류와 금속활자, 도자기, 고급옷감, 종이, 치레거리 등을 생산하는 부문이 특히 발전하였다.

### 3) 상업과 대외무역의 발전

① 서울과 평양,개성과 같은 주요도시들에서 발전하였다.

※ 봉건통치배들은 상업을 천한것으로 여기면서도 상업이 저들에게 복무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그것은 저들이 지정한 몇명의 상인들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물건들을 눅은 값으로 대게 하고 그 대가로 쌀, 소, 말, 소금과 같은 중요한 물품들을 독차지하고 사고팔수 있도록 특권을 주는것이였다.

만일 이 물품을 다른 사람들이 팔 때에는 강제로 빼앗았다. 이렇게 봉건국가의 비호를 받는 상인들을 《어용상인》, 《시전인》이라고 하였다.

시전인들을 비롯한 상인들은 상고(큰 상인), 행상(다니면서 파는 상인), 좌고(점방을 차려놓고 파는 상인) 등으로 불리웠다.

② 지방시장(장시)이 생겨나고 그것이 전국에 퍼졌다.

장시 즉 장마당은 15세기 20년대이후 전라도지방에서 발전하였고 15세기말-16세기초에는 전국의 지방마다에 생겨났다.

③ 15세기 대외무역도 발전하였다.

-명나라와  무역을 진행하였다.

명나라와의 무역은 해마다 오고가는 사신단을 통하여 많이 진행되였다.

수출품-베, 모시, 꽃방석, 표범가죽, 고급종이, 잣, 오미자, 인삼, 붓, 먹 등

수입품-여러가지 책, 약재, 향료, 고급사기그릇과 고급비단 등

-녀진과의 무역도 진행하였다.

녀진과의 무역은 그들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방향에서 진행되였다.

녀진인들은 해마다 자기 지방의 특산물인 말과 표범, 곰 등의 짐승가죽과 꿩을 잡는 매를 가지고와서 리조봉건정부에 바치고 그대신 무명, 베, 모시, 농기구, 종이 등 수공업품과 쌀, 소금 등의 식용품을 받아갔다.

-일본과의 무역도 활발하게 진행되였다.

일본상인들은 경상도의 부산포와 냉이포, 염포에 와서 살면서 무역을 진행하였다.

수입품-동, 류황, 그밖의 남방과일향료와 물감 등이였다.

수출품-무명, 모시, 꽃방석, 범가죽, 인삼 등

## 49. 함길도농민전쟁

### 1) 농민전쟁의 시기와 지휘자, 원인

.시기-1467년 5월-8월

.지휘자-리시애

.원인-다른 지방보다 함길도지방인민들에 대한 봉건적억압과 착취가 우심하였기때문이다.

량반들도 함길도출신은 심한 차별을 받은데 있다.

### 2) 대표적인 전투

① 북청성전투-6월 중순부터 7월 하순기간에 벌어졌다.

함길도에서 농민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오자 봉건정부는 《토벌군》을 조직하여 농민군탄압에 내몰았다. 첫 전투는 북청에서 진행되였는데 농민군은 적들을 북청읍으로 유인하여 소멸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겁에 질린 《토벌군》은 녀줄고개에 나무울타리를 치고 그밖으로 못을 파 방어진을 만들고 덤벼들 엄두를 못내였다.

1월 25일 리시애가 거느린 농민군은 1만 6천여명으로 10여차 맹공격을 들이대여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토벌군》은 홍원을 거쳐 함흥쪽으로 쫓겨갔다. 력량을 보충한 적들은 7월 하순에 다시 북청을 공격하였다.

이때 농민군은 무방비상태에 있다가 적지 않은 손실을 보고 북쪽으로 후퇴하였다.

② 만령전투-8월초에 진행되였다.

※ 만령고개는 북청에서 리원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유리한 지점이였다.

8월 4일 《토벌군》은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5개의 방향으로 농민군을 공격해왔다.

농민군은 무장장비에 있어서 보잘것 없었지만 용감히 싸웠다. 그러나 농민군은 바다가쪽이 벼랑이라고 방비를 소홀히 하는 파오를 범하였다. 《토벌군》은 은밀히 바다가쪽으로 에돌아 불의에 농민군의 후면을 공격해왔다.

그리하여 농민군은 다시 북쪽으로 후퇴하게 되였다.

이러한 시기 지휘층안에서 변절자들이 나타나 리시애를 붙잡아 적들에게 넘겨주고 투항하였다.

결국 3개월에 걸친 농민전쟁은 실패하였다.

### 3) 농민전쟁의 력사적의의

첫째로, 봉건통치배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는데 있다.

둘째로, 각지 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는데 있다.

## 50. 임진조국전쟁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은 잔인무도하고 흉악한 일본사무라이들과 7년간이나 결사적으로 싸워 마침내 왜적을 조국땅에서 몰아내고 조국의 영예와 존엄을 지켰습니다.》**

### 1) 임진조국전쟁기간과 단계

① 전쟁기간

1592년 4월-1598년 11월

② 전쟁의 단계별투쟁내용

1단계-1592년 4월-1593년 6월

적들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대동강이남지역이 강점되는 시기이며 강점한 적들을 남해안 좁은 지역에로 구축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된 시기이다.

2단계-1593년 7월-1597년 1월

침략자들에게 련속적인 타격을 안기던 시기이며 일시적휴전상태에 들어간 시기이다.

3단계-1597년 2월-1598년 11월

침략자들에게 련속적인 타격을 안겨 우리 강토에서 종국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투쟁을 벌린 시기이다.

### 2) 임진조국전쟁시기 대표적투쟁

#### (1) 전쟁 첫 시기 조선수군의 투쟁

① 1591년 2월 전라좌도수군절도사로 임명된 리순신장군은 수군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다.

② 조선수군의 대표적인 전투

리순신장군의 지휘밑에 3차례의 출전을 진행하였다.

그중 3차출전시기에 있은 《한산대첩(한산도 앞바다에서의 대승리)》은 중세해전력사에서 이름을 떨친 해전이였다.

전쟁 첫 시기부터 조선수군의 맹렬한 활동에 의하여 련속적인 참패를 받은 적 수군은 1592년 7월초 조선수군에 총공격을 감행해왔다.

이때 적들의 제1함대에 소속된 함선들이 견내량에 집결되여 있었다.

그런데 견내량은 너비가 500m밖에 안되고 암초가 많아서 큰 배들이 움직이기 힘든 곳이였다.

이것을 타산한 조선함대는 한산도 앞바다로 적들을 유인하여 격파작전을 벌리였다.

이때 5~6척의 판옥선으로 적들을 유인하였다.

적들이 한산도 앞바다로 끌려나오자 북쪽기슭에 은페하고있던 조선함대가 학익진(학이 날개를 편 모양으로 친 진)을 치면서 공격하여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이 전투에서 조선함대는 적함 73척가운데서 59척을 완전히 격침시키고 수천명의 적을 살상하였다.

이것을 력사에서 《한산대첩(한산에서의 큰 승리)》이라고 한다.

**[리순신]**

리순신장군은 임진조국전쟁시기 세계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들어 바다싸움들에서 일본침략자들의 수군함대를 수십수백척씩 까부시고 승리함으로써 세계해전사에 널리 알려진 애국명장이다.

뛰여난 군사적재능을 가지고있었던 그는 이미 1586년에 조산포 만호로 있을 때 두만강어구의 록둔도에 침입한 녀진족들을 물리치고 공을 세웠다. 그러나 통치배들은 그의 공로를 오래동안 인정하지 않고있다가 임진전쟁직전에야 그를 전라좌도수군절도사로 임명하였다.

봉건통치배들이 당파싸움을 일삼으면서 나라의 방비대책을 세우지 않아 나라의 군사력이 매우 약화된 형편에서도 그는 세계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완성하고 함선들을 수리하며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등으로 싸움준비에 힘썼다.

1592년에 왜적의 불의의 침범으로 경상좌우도의 수군이 흩어지자 그는 침략자들을 주동적으로 쳐부시기 위하여 5월에 전라좌도수군을 거느리고 경상도

앞바다로 맞받아나갔다.

그가 지휘한 수군은 옥포해전을 비롯한 세차례의 전투와 사천선창과 당항포, 당포해전들에서 적선 100여척을 짓부시는 전과를 올렸다. 1593년 8월부터 그는 3도수군통제사로 임명되여 적들에게 련속적인 타격을 줌으로써 조선수군은 바다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쥐였다. 1597년 원균의 모해와 왜적의 간교한 술책으로 체포투옥되였다가 조선수군의 주력이 칠천도해전에서 큰 타격을 받은 후에 다시 3도수군통제사로 임명되였다.

그는 1598년 로량해전을 지휘하다가 적탄에 맞아 장렬하게 생을 마치였다.

그의 저서로는 《리충무공전서》가 전해지고있다.

### (2) 애국적의병들의 투쟁

① 의병투쟁이 일어난 지역과 지휘자

경상도-곽재우

전라도-고경명

충청도-조헌

경기도-홍계남

황해도-김만수

평양-림중량, 서산대사

함경도-정문부

② 대표적인 의병대의 투쟁

-곽재우의병대의 투쟁

의령지방의 애국적인 유생이였던 곽재우는 전쟁이 일어나자 제일먼저 의병대를 조직하고 투쟁하였다.

의병대는 1592년 5월 의령지방으로 기여드는 침략군을 유인매복전술로 통쾌하게 족쳐버렸다.

6월에는 솥나루(정진나루)전투에서 기묘한 유인전술로 적들을 격파하였다.

곽재우는 붉은옷을 입고 싸웠으므로《홍의장군》이라고 불렀는데 이 전투때는 여러 지휘관들에게 그와 같은 옷을 입히고 부대를 나누어 행동하면서 적의 대부대를 각개분산시키고 총공격을 들이대여 소탕하였다.

그후부터 적들은 《홍의장군》이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

곽재우는 그후 진주목사, 경상좌도방어사로 임명되였다.

그는 전후에도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서산대사(1520년-1604년)를 비롯한 중출신의병들의 투쟁

서산대사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중출신의 이름난 의병장이였다.

본래이름은 최현웅, 불교의 승려로서 법휘(불교에서 부르는 이름)는 휴정, 법호(불교에서 부르는 별호)는 청허 또는 서산이였다.

그가 서산대사로 불려지게 된것은 서산 즉 묘향산에서 오래동안 대사(봉건국가에서 불교의 선종계통 높은 급의 중에게 주는 칭호)로 있었기때문이였다.

안주에서 출생하여 9살에 부모를 잃고 의지할 곳 없는 고아로 되였다. 그때부터 떠돌아다니면서 당시 사회의 불평등을 목격하였고 과거를 단념하고 18살에 중이 되였다.

그는 불교교리를 깊이 연구하여 30대에 이름있는 학자중으로 되였으며 수많은 제자들을 가지게 되였다.

1592년 일본침략자들이 평양에까지 기여들자 전국8도의 중들에게 왜적을 반대하여 의병투쟁에 궐기할것을 호소하고 중들로 의병부대를 모집하였다.

서산대사의 호소에 호응하여 전국각지 중들이 의병에 나섰다.

휴정(사명당)은 관동지방에서, 처영은 호남지방에서, 령규는 공주지방에서 각각 의병대를 무었다.

서산대사자신은 순안 법흥사에서 1 500명의 중의병을 조직하였으며 왕명으로《8도선교16종도총섭》(승병총대장)이 되여 투쟁을 벌렸다. 전국적으로 중의병수는 수만명을 헤아렸다.

서산대사는 73살의 고령이였으나 중의병(승병)을 거느리고 평양성 공격전투도 직접 벌리였다.

**임진조국전쟁시기 이름난 전투들**

| 이름난 전투 | | 시기 | 전투 지휘자 | 전과 |
|---|---|---|---|---|
| 바다에서의 전투 | ① 한산대첩 (경상도) | 1592년 7월 8일 | 리순신 | 적함선 73척중에서 59척을 까부시고 수천명의 적을 소탕 |
| | ② 부산대첩 (경상도) | 1592년 9월 1일 | 리순신 | 적함선 100여척을 까부시고 많은 적들을 소멸 |
| | ③ 명량대첩 (전라도) | 1597년 9월 중순 | 리순신 | 적함선 330척가운데서 30척을 까부시고 4천명의 적들을 소멸 |
| | ④로량대첩 (전라도) | 1598년 11월 19일 | 리순신 | 500척의 적함선가운데서 200척을 까부시고 적 2만명을 소멸 |

| | | | | |
|---|---|---|---|---|
| 륙지에서의 전투 | ① 진주대첩 (경상도) | 1592년 10월초 | 김시민 | 3 000명의 인원으로 3만명의 적과 맞서 5일간 성을 고수하고 적 지휘관 300명을 비롯한 수많은 적들을 소멸함 |
| | ② 평양성 해방전투 | 1593년 1월초 | 김응서 서산 대사 | 1만 5천명의 정부군과 2만명의 의병들이 1만 5천명의 왜놈들이 둥지를 튼 평양성을 3일간 공격하여 해방하고 1만명의 적들을 소멸 |
| | ③ 행주대첩 (경기도) | 1593년 2월 | 권률 | 2천 3백명의 조선군사들과 인민들은 행주산성에서 달려드는 3만의 왜놈들의 10여차례 공격을 물리치며 적을 거의 전멸시킴 |
| | ④ 연안대첩 (황해도) | 1592년 8월 | 리정암 | 북쪽과 남쪽지방해상교통로의 안전을 보장하였으며 3 000명의 일본침략군을 거의 다 섬멸하였다. |

## 51. 청나라침략을 물리친 인민들의 투쟁

### 1) 후금(청)의 침략구실

압록강건너편에 살던 녀진인부족들은 통합되여 1616년에 우두머리 추장 누루하치를 왕으로 하는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1636년에는 나라이름을 《청》이라고 고쳤다.

후금은 세워지자부터 명나라침략을 서두르면서 조선에 명나라와 관계를 끊고 중립을 지킬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리조봉건통치배들은 후금의 침략위험을 막을 대책은 없이 명나라의 지원요구에 따라 군대와 군수물자를 보냈다.

후금은 이것을 좋은 구실로 삼아 조선침략을 벌려왔다.

### 2) 1627년 후금의 침략과 그 격퇴 (《정묘호란》)

① 후금침략군 3만은 1627년 1월 압록강을 건너와 의주성, 안주성을 강점하고 서경(평양)을 거쳐 황해도 평산까지 기여들었다.

② 봉건통치배들은 수도를 버리고 강화도와 전주로 도망쳤다.

그러나 적강점지역 특히 청천강이북지역 인민들은 의병투쟁을 맹렬히 벌려 적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③ 침략자들은 할수없이 리조봉건정부와 《화의》를 맺었다.

그러나 물러가지 않고 계속 파괴와 략탈을 감행하였다.

④ 오늘의 평안북도지방에서는 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인민들의 의병투쟁이 세차게 벌어졌다.

룡골산성(염주지방)에서는 임진조국전쟁때 용감히 싸운 철산사람 정봉수가 지휘하는 4천명의 의병대가 여러차례 전투를 벌려 침략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각지 의병들의 투쟁에 더는 배겨날수 없게 된 침략자들은 8월에 쫓겨가고말았다.

### 3) 1636년 청나라의 침략과 그 격퇴 (병자호란)

① 후금은 나라이름을 《청》으로 고치고 왕을 《황제》로 자칭하면서 조선이 저들에게 복종할것을 강박하여왔다.

그러던 청침략자들은 1636년 12월 12만의 대군으로 침략해왔다.

침략자들은 의주 백마산성에서 우리 인민의 항전에 부딪치자 그에 대한 공격을 단념하고 안주를 거쳐 곧장 남쪽으로 밀려나왔다.

② 국왕을 비롯한 통치배들은 이번에도 경기도 광주의 남한산성으로 도망쳤다.

적들은 서울을 강점하고 남한산성을 공격하였다.

남한산성의 군대와 인민들은 한달나마 적들의 집요한 공격을 물리치면서 견결히 싸웠다.

그러나 봉건통치배들은 날이 갈수록 식량이 떨어져가고 각 도의 증원부대들도 도중에서 좌절된데다가 강화도까지 적들에게 강점되자 1637년 1월 침략자들과 굴욕적인 《화의》를 맺고말았다.

③ 인민들은 《화의》를 인정하지 않고 평양, 평산, 해주와 청천강이북 각지에서 의병투쟁을 견결하게 벌려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고 나라의 자주권을 끝까지 지켰다.

## 52. 15~16세기의 문화

### 1) 《훈민정음》창제

① 《훈민정음》창제의 필요성

첫째로, 우리 인민들은 이미 서사생활에 써오던 글자보다 발전된 글자를 요구하였다.

둘째로, 봉건통치배들은 저들의 지배사상을 선전하며 봉건통치를 강화하는데 필요를 느끼였다.

② 《훈민정음》의 창제

《훈민정음》이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였다.

《훈민정음》은 1444년 1월(음력 1443년 12월) 에 창제되였다.

당시 집현전(왕실직속 학문연구기관)의 성삼문, 신숙주, 최항, 박팽년, 정린지 등 학자들은 세종왕의 관심밑에 10여년간 고심어린 연구를 통하여 《훈민정음》을 만들어냈다.

③ 《훈민정음》의 우수성

첫째로, 글자의 모양이 독특한 원리에 따라 만들어지고 우리 말에 잘 맞는 문자라는데 있다.

둘째로, 우리 글자는 세계의 어떤 민족어도 정확히 쓸수 있는 글자라는데 있다.

셋째로, 배우기 쉽고 쓰기에도 편리하다.

④ 《훈민정음》의 창제가 가지는 의의

우수한 우리 글자가 창제됨으로써 과학과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사람들의 생활에 커다란 도움을 준데 있다.

**2) 측우기의 발명과 흠경각의 설치**

① 측우기의 발명

측우기는 비내림량을 측정하는 기구였다.

- 우리 인민은 1441년 8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측우기를 발명하였다.
- 처음 만든 측우기의 높이는 약 40cm, 직경이 약 16cm의 철제 원통이였다. 그후 매개 지방에서 비내림특성에 따라 측우기의 높이가 조절되였다.
- 우리 나라에서 측우기의 발명과 사용은 유럽보다 근 200년이나 앞섰다.

※ 이딸리아사람인 베네데또 까스뗄리가 기구를 가지고 비물의 깊이를 측정한 것은 1639년이였고 전국적으로 강우량을 측정한것은 그보다 훨씬 후였다.

② 흠경각의 설치

흠경각은 시간측정과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네계절의 변화 등을 다 눈으로 볼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이였다.

・흠경각은 1438년 1월 장영실, 리천 등 기술자들에 의하여 세워졌다.

・흠경각은 서울 경복궁안 천주전 서쪽에 세워졌다.

・흠경각안에 설치된 옥류기륜이라는 자동물시계는 자격루보다 훨씬 더 발전하였다.

※ **자격루**- 장영실이 흠경각을 만들기 전에 만들었던 자동물시계

### 3) 거북선과 《비격진천뢰》

#### (1) 거북선의 발명

15~16세기 배무이기술에서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였는데 특히 큰 성과는 거북선의 발명이였다.

- 1413년에 거북선을 만들어 림진강에서 그 위력을 시험하였으며 임진조국전쟁을 앞둔 시기 리순신장군은 거북선을 세계최초의 철갑선으로 완성하였다.

- 거북선의 모양

총 길이가 113자(35m), 그우에 두꺼운 판자를 덮고 철판을 씌워 거북잔등처럼 만들었다 하여 배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

- 거북선의 특징

・다른 배들보다 든든하고 적들이 범접할수 없었다.

배우에 칼과 송곳 같은것을 꽂아 적들이 기여오를수 없게 되여있었다.

・화포들이 많이 배치되여있어 공격력이 컸다. 화포를 26개나 싣고 있었다.

・속도가 매우 빨라 싸움에서 전술적주도권을 쥐군 하였다. 거북선의 량쪽에 노가 각각 10개씩 있었다.

- 거북선은 유럽에서 처음 만든 철갑선보다 200여년이나 앞섰다.

#### (2) 《비격진천뢰》

《비격진천뢰》는 임진조국전쟁시기 화포기술자였던 리장손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비격진천뢰》는 시한폭탄과 비슷한것인데 무게가 70kg이나 되였다. 둥근 쇠통안에 신관장치가 되여있고 화약심지의 길이에 따라 터지는 시간이 조절되였다. 이 무기의 위력은 1592년 9월 경주해방전투에서 잘 나타났다.

※ 《향약집성방》

1433년 로중례, 박윤석 등이 85권(30책)으로 편찬한 우리 나라 민족의학의 성과를 집대성한 고려의학전서이다.

이 책은 우리 나라에서 나오는 약재로 959종에 달하는 질병을 치료할수 있는 처방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방대한 책으로서《의방류취》,《동의보감》과 함께 중세 3대고려의학고전으로 일러온다.

※ 《의방류취》

이름있는 의학자인 로중례, 김례몽 등이 1443년부터 1445년사이에 편찬한 의학백과전서이다.

이 책은 내용이 풍부하고 규모가 방대하며 체계가 정연한 의학책으로서 고려의학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고려사》]

1451년에 김종서, 정린지 등이 139권으로 쓴 고려시기의 력사책이다.

근 500년간의 고려력사를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대외관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왕대별로 썼다.

고려시기력사를 연구하는데서 귀중한 자료로 된다.

[《리조실록》]

500여년간의 리조시기력사를 왕대별로 년, 월, 일 순서로 쓴 봉건국가의《정부일지》이다.

그 권수가 1763권이며 책으로는 900여권이나 된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대외관계 등 모든 분야의 내용을 다 담고있다.

《세종실록》, 《순종실록》이라고 하는것은 《리조실록》의 세종편, 순종편을 말하는것이다.

《리조실록》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방대한 량과 풍부한 내용을 담고있는 우리 인민의 귀중한 민족적재보이다.

《리조실록》은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커다란 관심과 배려에 의하여 모두 우리 글로 번역되였다.

※ 김종서와 그의 시

김종서는 15세기 리조봉건국가의 관리이며 학자였다.

1433년에 함길도 도절제사로 된 그는 녀진족의 침입을 막고 나라의 방위를 강화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그때 침략자들을 단숨에 요정낼 용맹한 무사의 기상을 다음과 같은 시로 보여주었다.

삭풍은 나무끝에 불고 명월은 눈속에 찬데
만리 변역에 일장검 짚고서서
긴바람 한소래에 거칠것이 없어라

그는 6진개척사업을 추진시키고 돌아오면서 말공부만 일삼으며 허송세월하는 썩어빠진 량반통치배들을 규탄하고 국토방위에서 무훈을 세운 무인들의 업적을 찬양하는 시도 지었다.

장백산에 기를 꽂고 두만강에 말씻기니
썩은 저 선비야 우리 아니 사나이냐
어떻다 룡연각상에 뉘 얼굴 그릴고

김종서는 《고려사》편찬에도 참가하였다.
15세기 어린 조카(단종)의 왕자리를 빼앗아 크게 소문낸 수양대군(세조)에 의하여 두 아들과 함께 살해당하였다.

### ※ 남이와 그의 시

남이는 15세기 중엽의 명장이다.
어려서부터 학문과 무술로 이름이 났다.
그가 소나기속에서 칼춤을 추면 비를 맞지 않았고 큰 은행나무의 모든 잎에 칼자리를 두급씩 어김없이 냈다고 한다.
그는 북쪽에서 자주 침입하는 녀진인들을 징벌하는 원정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백두산 돌은 칼갈아 다 없애고
두만강물은 말먹여 다 말리리
사나이 스무살에 나라 평정 못하면
후세에 그 누가 대장부랴 일러주랴

그런데 간신 류자광이 시에서 《나라 평정》이라는 문구를 《나라를 얻지 못하면》이라고 외곡하여 반역의 뜻을 담고있다고 왕에게 알리였다.
그후 어느날 밤 혜성이 나타났을 때 남이의 동료들은 나라에 불길한 징조가 있을것 갈다고 하였으나 남이는 오히려 즐겁고 좋은 일이 있을 징조인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아, 아름다운 밤, 아름다운 내 강토!》라고 웨쳤다.
류자광이 이것을 또《반역할 마음》이라고 왕에게 고자질하였다. 지어 남이가 공주를 겁탈하였다고까지 거짓을 꾸며댔다.
이렇게 되여 남이는 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다.
그는 아무죄도 없이 죽어야 하는 억울한 사실을 밝혀 구원해주지 않는 령의정 강순을 자기와 《공모》했다고 꾸며대여 그도 죽게 하였다. 강순은 나이 80이라 죽어도 아까울것 없건만 입을 다물고있었다.
애국의 열혈에 끓는 나라의 기둥감을 구원하자고 말 한마디 못하는 겁쟁이가 외적의 칼날앞이면 감히 령의정이라는 자리나마 지켜내겠는가 하는것에서였다.

※ **김시습(1435년-1493년)**

15세기 이름있는 작가, 철학가, 어린시절부터 문학수업에 힘썼으며 일찌기 그 이름이 궁중에 알려져 세종왕의 총애를 받았다.
세종이 죽은 뒤 어린 단종의 왕자리를 세조가 빼앗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일생을 방랑생활로 보냈다.
그는 우리 나라 중세기소설가로서 이름이 높다.
그는 1464년부터 약 6년간 경주 금오산에 들어가 창작활동을 하였는데 이때 단편소설《리생의 사랑》,《만복사의 윷놀이》,《남염부주이야기》,《부벽정의 달맞이》, 《룡궁의 상량잔치》 등을 써서 《금오신화》라는 단편집을 묶어놓았다.

※ **림제**(1549년-1587년)

16세기 유명한 소설 《서옥설》(재판받은 쥐)을 쓴 특출한 작가이다.
어려서부터 예술적재능이 뛰여나고 정의감이 강하였다.
높은 벼슬에 있던 학자인 성혼이 어린 림제에게 《그대는 어느 가문의 자재인가》하니 《나는 이름없는 평민의 아들》이라고 대답하였다.
사실 그는 리씨문벌로서 절도사의 아들이였고 높은 벼슬도 하였으나 리왕조의 문벌제도를 아주 증오하였다.
그는 봉건통치배들의 너절한 당파싸움에 침을 뱉고 문학에 전력하였다. 그리하여《서옥설》,《꽃력사》,《시름의 성》,《원생몽유록》등 유명한 소설들과 수많은 시들을 창작하였다.

## ※ 박연(1378년-1458년)

15세기 뛰여난 음악리론가이며 작곡가, 연주가였다.

그는 봉건정부에 제기하여 악기도감을 설치하고 여러가지 악기들을 제작하였다.

박연의 음악활동에서 이룩한 가장 큰 공로는 12률관을 만든것이다.

12률관이란 당시 우리 나라 음악에서 리용하던 12개의 고정음들의 높이를 말한다.

12률관이 만들어짐으로써 악기들의 음의 높이를 확정할수 있게 되고 악보로 기록하며 새 악기도 만들수 있게 되였다.

그러나 이때 사대주의에 물젖은 량반들은 큰 나라에서 쓰는 음정을 제껴놓고 자기것을 연구하는 그를 비난하고 방해하였다.

박연은 편경을 비롯한 60여종의 악기를 만들고 음악가양성, 음악창작 등 음악과 무용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많은 업적을 쌓았다.

박연은 셋째아들이 세조의 왕위찬탈사건에 관련되여 사형당하자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80살에 사망하였다.

## ※ 《악학궤범》

1493년에 성현 등이 쓴 음악리론책이다.

이 책에서는 12률관과 수십종의 악기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주었다.

## ※ 춤 《강강수월래》와 《쾌지나 칭칭 나네》

춤 《강강수월래》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인민들속에서 창작된 대중적인 춤이다. 30~40명씩 사람들이 손을 잡고 원을 지어 돌아가며 춘다.

춤은 적들에게 우리의 위력을 시위하며 놈들이 기여드는것을 감시하기 위하여 마을녀성들이 곳곳에 불을 피우고 그 주위를 돌면서 《강강수월래》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데서 시작되였다.

《쾌지나 칭칭 나네》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싸움에서 패하여 도망치는 왜놈들의 몰골과 승리한 인민들의 기쁨을 보여주는 춤이다.

## [보통문과 대동문]

6세기 중엽 고구려에서 세운 평양성의 서문이 보통문이고 동문이 대동문이였다.

보통문은 지금의 중구역 보통문동에 있다.

지금것은 1473년에 다시 세운것이다.

보통문은 오늘까지 남아있는 우리 나라 성곽건물가운데서 가장 오랜 문루의 하나로서 조선식건축기술을 남김없이 보여준 훌륭한 건축물이다.

대동문은 중구역 대동문동에 있다.

지금것은 1635년에 고쳐세운것이다.

대동문에는 《읍호루》라고 쓴 현판이 있는데 그것은 대동문다락에서 손을 드리워 대동강의 물을 퍼올린다는 뜻으로서 이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말해준다.

대동문밖에는 나루터가 있었는데 여기에 배다리가 놓여있어 대동강건너편을 《선교》라고 부르게 되였다.

대동문은 웅장하고 무게있어보이며 부드럽고 아름다와 민족건축기술의 높은 수준을 잘 보여준다.

**[련광정]**

고구려때 평양에 지은 루정(다락집)으로서 전시에는 군사지휘처로, 평시에는 봉건통치배들의 놀이터로 리용되여왔다.

지금 건물은 1670년에 고쳐세운것이다.

련광정은 건물도 잘 지었거니와 그것이 대동강과 대동문 등 자연풍치와 잘 어울려 예로부터 《관서8경》의 하나로 이름나게 되였다.

**[평양종]**

개성남대문에 있는 연복사종과 함께 공화국북반부에 있는 가장 큰 종이다.

평양종은 옛날에 외래침략자들이 쳐들어올 때 비상경보를 울리였다.

또한 아침에는 33번 쳐서 성안의 6개 성문을 동시에 열고 저녁에는 28번 쳐서 그것들을 동시에 닫았다.

종의 크기는 높이가 3.1m, 아구리직경이 1.6m이며 무게는 12t 914kg이나 되는데 리조시기 금속주조기술의 높은 수준을 잘 보여주고있다.

**[서울남대문]**

우리 나라 성문가운데서 큰것에 속하며 500여년간의 리왕조의 성문다운 위풍을 잘 보여주고있다.

2층다락집으로서 웅장하고 거뜬하며 시원스럽다.

**※ 안견**

15세기 중엽의 이름난 화가.

사람, 동물, 풍경그림들을 다 잘 그렸다.

지금 남아있는 대표적인 그림은 《꿈에 본 동산》과 《어부의 얼굴》이다.

## ※ 신사임당

16세기의 재능있는 녀류화가이다.

이름난 유학자인 리이(률곡)의 어머니였다.

그는 풍경, 꽃과 새, 물고기, 날짐승그림을 다 잘 그렸는데 특히 《가지》그림이 유명하다. 어떤 사람이 신사임당이 그린 풀벌레그림을 말리려고 밖에 내놓았는데 닭들이 모여들어 《풀벌레》를 쪼았다고 한다.

이것은 그의 그림이 실물처럼 신통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 ※ 세종(1397년-1450년)

리조봉건국가의 4대왕

1419년에 왕자리에 올라 30여년간 통치하였다.

그는 녀진족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압록강, 두만강을 따라 4군6진을 설치하여 북부지방의 방비를 강화하고 고구려와 발해의 옛땅을 되찾는데서 일정한 전진을 가져왔다.

세종은 1420년에 집현전(과학문화연구기관)을 크게 확장하고 젊고 유망한 선비들을 선발해 학자로 배치하여 학문연구에 전심하게 하였다.

세종은 집현전의 학자들과 함께 1444년 1월(양력) 우리의 고유한 민족문자를 만들고 그것을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공포하였다.

## ※ 리천(1376년-1451년)

15세기 재능있는 기술자, 발명가이며 유능한 군사지휘관이였다.

리천은 1437년 6 000명의 원정군을 거느리고 만포에서 압록강을 건너 녀진의 소굴을 소탕하고 개선하였다. 이 전투에 앞서 그가 발명한 화포는 전투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는 1420년에 새 활자(경자자)를 주조하여 당시 서적출판사업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하였다. 1436년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연활자를 만들어냈다. 리천은 당시 유명한 기술자 장영실 등과 함께 1443년 천문관측기구인 혼천의와 자동물시계인 자격루 그리고 옥류기륜, 앙부일구를 비롯한 각종 해시계, 천체좌표측정기구인 간의 등 수많은 천문관측기구를 창안제작하는데서 주동적역할을 하였다.

## ※ 장영실

15세기 중엽에 천문관측기구를 창안제작한 발명가이며 기술자였다.

경상도 동래현의 천민출신이였던 그는 오랜 기간 연구를 거듭하여 간의, 혼천의 등 천문관측기구를 구리로 만드는데 성공하였으며 시간측정기구인 천

평일구, 정남일구, 앙부일구, 일정정시의, 자격루 등을 창안제작하였다.

이 기구들은 매우 정밀하고 정확하였다.

그중 자격루는 보루각에 설치되였는데 물의 힘으로 자동적으로 돌아가면서 정확한 시간을 알리는 자동물시계였다.

장영실은 당시 새로운 금속활자와 악기제작에서도 많은 공로를 세웠다.

**※ 안룡복**

17세기 울릉도와 독도를 제놈들의 섬으로 만들려고 책동한 왜놈들을 반대하여 싸움으로써 조국의 성문을 지켜낸 애국적인 어부이다.

안룡복은 1693년 여름 40여명의 사람들과 고기잡이를 하다가 태풍으로 울릉도에 이르게 되였다.

그는 거기에 비법적으로 기여든 왜놈들이 섬을 저들의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음엔 오끼시마주, 다음에는 백기주태수까지 찾아가 끝끝내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우리의 섬이라는것을 인정시켰다.

그러나 교활한 쯔시마도주놈은 저들의 울릉도침입사건을 조선사람이《침입》했으니《사죄》하라고 리조정부에 요구하면서 그 진상이 드러날가 두려워 돌아오는 안룡복을 50일이나 억류했다가 다시 동래왜관에 40일이나 억류하였다.

안룡복은 조국에 돌아와 울릉도, 독도문제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것을 동래부사와 리조정부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부패무능한 통치배들은 오히려 그를 박해하였다.

안룡복은 혼자서라도 기어이 섬을 지켜내기 위하여 1696년에 다시 울릉도에 가서 불법침입한 왜놈들과 견결히 싸워 놈들의 책동을 분쇄하였다.

그러나 봉건통치배들은 그를 평가할 대신 《국법을 어겼다.》고 처형하려 했지만 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의하여 철회하였다.

## 53.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

### 1) 자본주의적관계발생의 전제조건

① 신분적으로 《자유로운》 무산자들이 생겨났다.

그것은 18세기를 전후하여 대토지소유의 확대로 토지를 잃은 품팔이군이 많아진것과 관련된다.

② 돈을 많이 모은 상인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금속화페가 널리 리용되면서 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졌기때문이다.

### 금속화페의 류통

① 금속화페류통의 필요성

첫째로, 17세기에 들어와 상품생산이 늘어나고 상업이 발전함에 따라 물건값을 정하고 값을 주고받는데서 돈(화페)이 절실히 요구된데 있다.

둘째로, 고갈되는 봉건국가의 재정수입을 늘이기 위하여서도 필요하였다.

② 봉건정부는 1678년 구리돈(엽전)을 나라에서 쓸것을 공포하였다.

- 우리 나라에서 화페류통문제는 17세기 20년대부터 실천단계에 들어섰다.

※ 화페류통은 그후 후금의 침략과 청나라와의 전쟁 등 난관으로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 17세기 50년대에 다시 론의되면서 엽전《상평통보》가 만들어지고 1678년 8월에 화페를 전국적으로 류통시킬것을 결정하였다.

③ 금속화페류통이 사회경제발전에 준 영향

첫째로, 봉건통치배들이 화페류통공간을 통하여 인민들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였다.

둘째로, 상품화페경제가 더욱 발전하고 자연경제가 붕괴되여갔다.

셋째로, 봉건적신분제도가 빨리 무너져가게 하였다.

※ **상품화페경제**-남에게 팔기 위한 상품생산이 늘어나고 생산된 상품을 돈을 가지고 사고파는 경제.

※ **자연경제**-남에게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먹고 쓰기 위하여 농산물과 수공업품을 만들어내는 페쇄적인 봉건경제.

### 장의 발전

우리 나라에서 장은 세나라시기에 출현하였다. 리조시기에 와서 상품생산과 류통이 확대되면서 장은 전국에 더 널리 퍼지게 되였다.

17세기 이후 장은 보통 5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열리였다. 그런데 18세기에 와서 장은 더욱 발전하여 온 나라 각곳에 1 000여개나 열리였다.

장들에서는 주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여러가지 그릇, 종이, 천, 금속제품, 갓, 문방구 등이 사고 팔리였다.

큰 장들은 점차 여러 지방을 련결하는 상업중심지로 발전하였다. 덕원의 원산장, 박천의 진두장, 봉산의 은파장, 은진의 강경장, 창원의 마산장 등은 중요한 상업중심지들이였으며 평양, 서울, 함흥, 의주, 전주 등은 온 나라의 물건들이 집중되여 사고 팔리는 큰 상업중심지로 발전하였다.

상업이 발전하는데 따라 많은 돈을 모은 상인들, 수백만금을 모은 큰 상업자본가들이 청나라나 일본과의 무역도 하였다.

### 《대동법》의 실시

17세기에 봉건국가는 여러가지 지방특산물로 받던 공물을 토지면적에 따라 쌀로 받아들이는 제도-《대동법》을 실시하였다.

대동법에 의하여 봉건국가는 여러가지 지방특산물을 수탈하던 공물착취대신에 토지 1결에 쌀 12~16말을 받아냈다. 대동법은 결국 인민들에 대한 착취방법을 바꾸어놓은데 지나지 않았다.

### 2)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발전

① 18세기 중엽 광업분야에서 먼저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생하였다.
그것은
첫째로, 금, 은, 동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때문이다.
둘째로, 광산은 밑천을 적게 들이고 큰 리득을 볼수 있었기때문이다.
셋째로, 봉건국가의 통제가 덜 미쳤기때문이다.

### ※ 물주와 점군

물주라는 말은 생산이나 상업활동을 하도록 밑천을 대주는 사람을 말한다.
18세기 중엽이후 개인광산, 개인수공업이 발전하면서 돈을 많이 모은 부자들은 점차 자기는 돈만 대고 다른 사람들이 광석을 캐거나 여러가지 수공업로동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생산된 물건은 돈을 댄 자기가 거의 독차지하였다. 이때 광석을 캐는 사람들을 점군이라고 하였다.
결국 물주와 점군의 경제적처지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라는데 차이가 있고 기업활동을 조직지휘하는 사람과 거기에 얽매여 로동을 하고 삯을 받는 사람이라는데 차이가 있다.
18세기이후 광산, 수공업 등에서 생산이 장성하면서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전하였는데 이때 물주는 자본가로 되고 점군은 로동자로 불리우게 된것이다.
결국 물주와 점군은 자본가와 로동자가 발생하던 력사적시대의 용어이다.

② 18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제철 및 철가공수공업, 놋그릇제조수공업 등 수공업분야에서도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생하였다.

### 3)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적관계발생의 특징

첫째로, 광업에서 자본주의적관계가 먼저 발생발전하였다는데 있다.

둘째로, 상인이 자본가로 되였다는것이다.

셋째로, 규모가 크지 않았고 농촌에서는 뒤늦게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생발전한것이다.

**1801년 공노비《해방》**

1801년 1월 리조봉건정부가 6만 6천여명의 공노비들을 노비신분으로부터 《해방》하여 량인으로 되게 한 조치이다.

공노비《해방》은 신분적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비들의 오랜 기간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였다.

한편 봉건통치배들은 노비들을 량인으로 만든다고 해도 노비로부터 수탈하던것(신공)을 량인이 된 그 사람한테서《군포》등의 이름으로 빼앗아낼수 있기때문에 경제적으로《손해》볼것이 없었다. 이로부터 공노비《해방》조치가 취해졌다.

**안동김가의 세도정치**

18세기말~19세기 중엽에 왕의 외가켠, 처켠친척들이 국가권력을 틀어쥐고 전횡을 부린 반동적인 문벌정치, 독판치기정치를 말한다.

1801년에 11살의 순조가 왕이 되면서 그의 아버지 정조의 유언으로 김조순(안동김가)이 왕을 돕게 되였다. 김조순은 이 기회에 딸을 왕비로 들여보내여 왕의 장인으로 되였다.

어린 순조는 아버지유언대로 장인인 김조순에게 나라의 실권을 맡기였다.

결국 11살짜리가 왕자리에 앉았을뿐이지 나라일을 이래라저래라 하는것은 김조순이였다.

이렇게 시작된 안동김가의 세도정치는 약 60년간 계속되면서 나라를 파국적상태에 몰아갔다.

## 54. 평안도농민전쟁

### 1) 평안도농민전쟁의 시기와 지휘자

○ 농민전쟁기간-1811년 12월 - 1812년 4월까지
○ 지휘자 홍경래

### 2) 농민전쟁의 중요전투

① 송림전투(1811년 12월 하순)

1811년 12월 18일 가산군 다복동에서 일어난 폭동은 삽시에 평안도 전지역을 휩쓸었다. 전쟁개시후 농민군은 남진군과 북상군으로 나뉘여 북상군은 김사용의 지휘밑에 곽산에서 일어나 전천, 철산, 구성, 남창을 점령하였다. 남진군은 홍경래의 지휘밑에 가산, 박천, 정주를 점령하고 안주를 공격하기 위하여 송림에 집결하였다.

한편 봉건통치배들은《토벌군》을 내몰아 농민군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였다. 농민군은 빈틈없는 전투태세를 갖추고있다가 송림으로 공격해오는 놈들에게 호된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쌍방간의 격전이 계속되면서 희생자가 늘어나고 평시에 훈련이 부족하였던 농민군 뒤서렬이 동요하면서 퇴각함으로써 송림전투는 실패하였다.

송림전투의 실패는 농민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농민군대오를 늘이는데 저애를 주어 정세를 바라보고있던 상인, 중소지주들로 하여금 봉건정부편으로 넘어가게 하였다.

② 정주성전투(1812년 1월-4월)

송림에서 후퇴한 농민군은 대오를 수습하고 방어에 유리한 곳인 정주성에 들어가 방어준비를 강화하였다.

1812년 1월 15일 8천여명의《토벌군》은 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시작하였다.

농민군은《토벌군》이 공격해올 때마다 능숙한 전법으로 소멸하군하였다.

농민군은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고 3월부터는 대담한 반공격전도 벌렸다.

그러나 전투가 오래 계속되면서 성안에서는 희생자가 늘어나고 외부와의 련계가 끊어져 혹심한 식량난까지 겹쳤다.

농민군은 비전투성원들을 줄이고 필사의 각오를 가진 사람들만 성에 남아 계속 투쟁을 벌렸다. 악에 받친《토벌군》은 4월에 이르러 땅

굴을 파고 화약을 터뜨려 성벽을 무너뜨렸다. 농민군은 성으로 밀려드는 《토벌군》을 맞받아 마지막 한사람까지 싸웠으나 실패하였다.

### 3) 농민전쟁의 실패원인과 력사적의의

① 실패원인

첫째로, 옳바른 투쟁구호를 들고 광범한 농민대중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데 있다.

둘째로, 옳은 전략전술을 쓰지 못한데 있다.

② 력사적의의

봉건통치배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는데 있다.

자주성에 대한 인민들의 강렬한 지향을 보여주었으며 인민대중의 힘을 시위한데 있다.

※ **홍경래**(1780년-1812년)

평안도농민전쟁의 지휘자

평안도 룡강현의 농민가정에서 태여났고 어려서부터 학문과 재능이 비상하였다. 《비천한》평안도출신이라는 신분적차별을 받는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그는 한때 큰 상인들과 련계를 가지고 자금을 변통하여 광산업과 홍삼밀무역에 종사하다가 관청의 단속을 받게 되면서 그 불평은 더욱 커져 봉건통치배들을 쓸어버릴것을 결심하게 되였다.

그는 《풍수쟁이》로 가장하고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세상형편을 료해하고 동료규합에 힘썼다. 이 과정에 《천한》신분출신인 상인 겸 광산을 경영하던 구성의 우군측을 비롯하여 리희저, 김사용, 홍총각, 리제초 등과 깊이 사귀게 되였고 그들과 함께 싸울것을 결의하고 폭동준비를 다그쳤다. 그들은 가산군 다복동(운전군 가산리)을 본거지로 삼고 폭동력량을 꾸려나가면서 무기와 군량, 군복을 준비하였다.

홍경래는 폭동지휘부를 구성하고 지휘체계를 세웠다. 그는 1811년 12월 18일에 평안도농민전쟁을 일으켜 1812년 4월까지 봉건통치를 크게 뒤흔들어놓았다.

그러나 농민전쟁은 실패하고 홍경래는 32살의 청년으로서 생애를 마치였다.

## 55. 1862년 전국적농민폭동

### 1) 농민폭동의 시기, 원인, 단계와 특징

시기- 1862년 2월-12월

원인 봉건통치배들의 가혹한 착취에 있었다.

단계와 특징

1단계(1862년 2월-4월)

경상도를 중심으로 진행되였으며 기본투쟁목표는 환자착취(환정)의 페지였다.

2단계(1862년 12월)

북부지역으로부터 제주도에 이르는 전국각지에서 벌어졌으며 3정착취를 다시 시작한것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 **3정-**전정, 군정, 환정착취를 통털어 이르는 말이다.

전정이란 봉건국가가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전세를 기본으로 하여 대동미, 삼수미, 결미를 포함시킨 착취를 말한다.

군정이란 군대에 복무할 대상자로부터 군대에 복무하지 않는 대가로 포(천) 또는 쌀을 빼앗아내는 착취를 말한다.

환정이란 환자착취를 말한다. 봉건국가는 농민들에게 곡식을 봄에 꾸어주고 가을에 높은 리자를 붙여 빼앗아냈다.

### 2) 대표적인 농민폭동

1862년 경상도 진주지방인민들의 폭동

① 폭동의 원인

경상우도병마사 백락신을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이 수탈을 가혹하게 감행한데 있다.

② 폭동의 개시

폭동은 1862년 2월 류계춘 등의 지휘밑에 일어났다.

2월 14일 농민들은 악질량반들을 족친 다음 덕산장에 모여 대오를 늘이고 진주읍을 치기 위한 준비를 다그쳤다.

- 농민군은 2월 18일 진주읍을 공격하였다.

진주읍을 점령한 농민군은 백락신을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을 끌어내여 군중앞에서 죄행을 낱낱이 폭로하고 3정착취를 늦추거나 그만두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③ 폭동의 실패

농민군은 이것으로 소원이 풀린것으로 생각하고 23일에 헤쳐갔다.

농민군이 해산된 기회에 봉건정부는 농민군을 탄압하였으며 폭동은 실패로 끝났다.

④ 진주농민폭동의 교훈

첫째로, 봉건통치배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둘째로, 투쟁을 멈추지 말고 계속 확대하면서 성과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는것이다.

## 56. 17~19세기 전반기 문화

### 1) 실학

#### (1) 실학과 그 발전과정

① 실학이란

《쓸모있는 학문》을 연구하며《사물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진리를 탐구》하는것을 목적한 학문체계를 말한다.

② 실학의 발전과정

- 실학은 17세기에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실학자는 류형원, 리수광이였다.

-실학은 18세기에 더욱 발전하였는데 이 시기를 실학의 개화기라고 한다.

대표적인 실학자는 리익, 박지원, 홍대용 등이다.

- 실학은 19세기초 중엽에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실학자는 정약용(정다산), 리규경, 최한기 등이다.

#### (2) 실학의 사상적내용

① 실학자들은 봉건통치제도와 신분제도, 관리등용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고치며 어지러워진 토지제도와 착취제도를 바로잡을데 대하여 주장하였다.

②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여 농업과 수공업을 발전시키며 국내외상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할것을 제기하였다.

④ 자기의것을 업수이 여기고 큰 나라의것만 숭배하는 사대굴종주의 사상도 어느 정도 비판하였다.

**(3)실학의 진보성과 제한성**

① 진보성

첫째로, 나라의 생산력발전과 민족문화발전에 일정하게 기여하였다는데 있다.

둘째로, 근대사상발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데 있다.

② 제한성

봉건제도자체를 부정하지 못하였다는데 있다.

※ **박지원**(1737년-1805년)

소설 《량반전》을 비롯한 많은 작품을 쓴 이름난 작가이며 대표적인 실학자였다.

2~3개월동안 청나라에 갔다와서 려행기 《열하일기》를 썼고 영농법에 대한 의견을 담은《과농소초》라는 책과 수많은 문학작품을 썼다. 그는 실학사상을 정리하면서 봉건제도를 개혁할데 대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의 저서로는 《연암집》이 있다.

**2) 《동의보감》과 《대동여지도》**

**(1) 《동의보감》**

① 《동의보감》은 1610년 허준이 쓴 고려의학책이다.

※ **허준**은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천시를 당하였으나 20대에 벌써 명의로서 이름을 떨쳤다.

그는 임진조국전쟁이 한창이던 1596년에 집필에 착수하여 1610년까지 15년간에 걸쳐 《동의보감》을 완성하였다.

② 《동의보감》은 당시 국내외의 의학성과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한 의학백과전서이다.

책에서는 당시 여러 의학리론과 치료경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것을 받아들여 각종 질병의 원인과 치료방법을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게 갈라서 25권으로 서술하였다.

③《동의보감》은 당시 의학수준에서 볼 때 과학적으로도 깊이가 있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있다.

### (2)《대동여지도》

①《대동여지도》는 지리학자 김정호에 의하여 1861년에 출판되였다.

※ **김정호**는 평민의 집에서 태여나 일찍부터 지리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였으며 조선지도를 만드는데 한생을 바쳤다.

그는 국방력을 강화하고 인민들에게 국토를 잘 알도록 하기 위해 정확한 지도를 만들것을 봉건정부에 여러차례 제기하였으며 이미 1834년에는 10년동안의 현지답사와 조사에 기초하여 《청구도》라는 우리 나라 지도첩을 만들었다.

김정호는 근 30년동안의 답사끝에 전 조선적인《대동여지도》를 직접 나무판에 새겨 출판하였다.

②《대동여지도》는 16만 2천분의 1자줄임으로 되여있는 33㎡나 되는 매우 큰 지도이다.

지도에는 산봉우리, 산줄기, 강과 호수, 행정구역경계, 도로, 항구, 력사유적, 군사시설, 통신망 등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자연의 모든 분야의 자료들이 일정한 기호로 표시되여있다.

③ 이 지도는 우리 나라 지리, 력사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되고있다.

### 3) 기중기(거중기)와 유형차

① 거중기의 창안과 리용

거중기는 실학자 정약용(정다산)에 의하여 18세기에 제작리용되였다.

거중기는 량쪽에 15명씩 서서 물레차를 돌리면 1만 2천근(약 7t)의 짐을 들어올릴수 있었다.

이것은 장정 1명이 400근(230kg)의 무게를 들어올리는것으로서 보통 5~6배이상의 능률을 낼수 있었다.

② 유형차의 창안과 리용

유형차는 실학자 정약용에 의하여 18세기에 제작리용되였다.

유형차는 짐을 운반하는데 편리하게 특히 짐을 싣고 경사지를 올라가기 쉽게 만든 달구지였다.

보통달구지라면 100대로 320여일 걸려야 운반할 짐을 유형차로는 70대로 154일에 다 나를수 있었다.

거중기와 유형차는 당시 수원성건설에 리용되여 큰 은을 내였다.

※ **정약용**(1762년-1836년)

이름난 실학자이며 문인이였다.

둘째형은 류배형을, 셋째형은 사형을 당했고 그자신은 18년간 류배살이를 하였다. 《적성촌의 오막살이》,《굶주린 백성의 노래》 등 수많은 문학작품과 썩어빠진 봉건제도를 비판하면서 그것을 고칠데 대한 책들을 썼다. 《경세유표》,《목민심서》 등이 대표적이다.

거중기와 유형차를 설계한것을 비롯하여 자연과학과 기술도 깊이 연구하고 성과를 올렸다. 문집으로는 《여유당전서》가 있다.

**4) 17~19세기의 대표적인 소설들**

① 국문소설

17세기-《임진록》,《박씨부인전》,《홍길동전》

18세기-《춘향전》,《심청전》,《흥보전》

※ **《임진록》**-임진조국전쟁시기 일본침략자들을 쳐물리친 인민들의 용감한 투쟁모습을 보여주고있다.

※ **《홍길동전》**-봉건사회의 불합리성을 폭로하면서 가난한 인민들을 구제하고 적서차별을 없애며 《어진 정치》를 하여 《리상왕국》을 세워야 한다는 사상을 보여주고있다.

② 한문소설

《량반전》,《허생전》(박지원 씀)

※ **김삿갓**(1807년-1863년)

19세기 중엽의 이름있는 풍자시인이다.

서울량반집안에서 출생한 김삿갓이 6살 되던 해에 선천부사로 있던 할아버지가 홍경래농민군에게로 넘어간 《죄》로 하여 온 집안이 처형당하게 되였다.

그때 어린 그는 자기 집 종의 도움을 받아 곡산으로 피해가서 자라났다.

19살에 과거에 장원급제하였으나 《역적》가족이라 하여 취소당한것을 계기로 불만이 더 커졌으며 그후 22살에 집을 떠나 방랑생활로 일생을 보냈다.

그의 이름은 김병연이였는데 삿갓을 쓰고 방랑생활을 한데로부터 김삿갓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김삿갓은 량반들의 허장성세와 위선, 무지와 몽매, 탐욕과 린색, 아부아첨과 공명 등을 폭로야유하는 풍자시를 많이 썼다.

풍자시 《량반의 자식을 조롱함》에서 그는 몸에 어울리지 않는 큰 관에 긴 담배대를 물고 우쭐대는 량반자식의 몰골을 조소하고 그놈이 맹자책을 읽는

모양이 마치도 《갓 생긴 원숭이》같고 그 목소리는 《와글거리는 개구리》 갈다고 통쾌하게 비웃고있다.

풍자시 《온종일 머리숙인 나그네》에서는 량반들이란 겉으로는 점잖게 거드름을 피우며 허장성세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무식하고 돈만 아는자들이며 출세를 꿈꾸면서 권세에 아부아첨하는 추물이라는것을 까밝히고있다.

김삿갓은 또한 농민들의 가난한 생활처지를 동정하고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씨들을 노래하는 서정시들도 지었다. 대표적인것은 《가난한 집》,《제목없이》 등이다.

이밖에도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경치를 노래한 서정시들도 썼다.

### 5) 17~19세기의 이름난 화가와 그림들

김홍도의 《대장간》,《마당질》,《씨름》

김두량의 《소몰이군》,《네계절》

김득신의 《량반과 상민》을 들수 있다.

## 57. 대원군의 《개혁》과 쇄국정책

### 1) 대원군의 집권과 나라의 형편

① 대원군의 집권

대원군이란 리조시기 죽은 왕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어 왕족가운데서 누가 왕이 되였을 때 그의 아버지를 높여부르던 말이다.

1863년 12월 리조 25대왕 철종이 왕자리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자 왕족인 리하응의 둘째아들 리명복을 왕(고종)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그가 12살의 어린 나이였으므로 리하응이 대원군칭호를 받고 정치를 하게 되였다.

② 이 시기 나라의 형편

리조봉건국가가 심한 위기를 겪고있었다.

그것은 우선 봉건통치체제가 문란해졌기때문이였다.

다음으로 봉건적억압과 착취를 반대한 농민들의 투쟁이 벌어졌기때문이였다.

다음으로 자본주의적관계가 장성하여 봉건제도를 허물고있었기때문이다.

다음으로 외래자본주의렬강들의 침략이 강화되였기때문이다.

### 2) 대원군의 《개혁》정책

① 60여년간 계속된 안동김가의 세도정치를 끝장내고 왕족을 중심으로 관료집단을 새롭게 꾸리였다.

② 리왕조의 위엄을 세우기 위하여 경복궁개건을 비롯한 여러 관청건물공사를 전국적규모에서 벌려놓았다.

③ 전국적으로 600여개의 서원중에서 47개만 남기고 다 없애버렸다.

④ 당시의 기본착취제도인 3정(전정, 군정, 환정)을 정비하였다.

⑤ 나라의 방비를 강화하였다.

군대수를 늘이고 지휘체계를 세우며 군사장비를 개선하고 방어시설들을 강화하였다.

### 3) 대원군의 쇄국정책

대원군은 대외적으로는 나라의 문을 굳게 닫아매고 외국과의 일체관계를 가지지 않는 철저한 쇄국정책을 실시하였다.

① 자본주의침략의 길잡이인 카톨릭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② 유미자본주의침략자들이 요구하는《개국통상》을 거부하고 그들과의 밀무역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③ 일본, 청나라에 대하여서도 이전과는 달리 강경자세를 취하였다.

### 4) 대원군정책의 본질

대내적으로는 무너져가는 봉건제도를 강화하여 봉건왕권의 안정을 유지하며 대외적으로는 쇄국정책을 실시하여 민족적위기를 막아보자는것이였다.

## 58. 1866년-1871년 미국침략자들을 쳐물리친 인민들의 투쟁

### 1) 미국침략선 《셔먼》호 격멸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866년 평양인민들은 대동강에 침입한 미국해적선 <샤만>호를 물속에 처박아넣었으며 인민들과 군인들은 프랑스침략선을 쳐물리쳤습니다.》**

#### (1) 《셔먼》호의 침입과 강도적만행

① 《셔먼》호는 어떤 군함이였는가

《셔먼》호는 1861년-1865년 미국남북전쟁에 참가했던 군함으로서

이 전쟁후 악명높은 방면군사령관 셔먼놈의 이름을 붙인 당시로서는 가장 발전된 전투함선이였다.

② 《셔먼》호의 침략목적

대포와 군함으로 리조봉건정부를 위협하여 예속적이고 불평등한 《조약》을 맺어 조선침략의 길을 열자는것이였으며 평양주변의 옛 무덤들에 묻혀있는 금은보화를 도적질하려는데 있었다.

③ 《셔먼》호의 대동강침입과 강도적만행

-《셔먼》호는 4문의 포와 근대적저격무기로 무장한 90여명의 전투인원을 태우고 1866년 7월 7일(양력 8월 16일) 대동강하구에 침입하였다.

- 미국침략자들은 여러차례에 걸치는 조선관리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정탐행위를 감행하면서 계속 대동강을 거슬러올라와 란폭한 도발행위를 하였다.

- 침략자들은 조선군대의 배를 습격하여 2명의 군인을 살해하고 평양감영의 중군 리현익을 《셔먼》호에 잡아가두었다.

- 평양감영에서 중군을 석방할것을 요구하자 그대신 쌀 1 000섬과 많은 금, 은, 인삼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을 선두로 한 평양인민들의 《셔먼》호 격멸**

- 미국침략자들의 만행에 격분한 평양인민들은 김응우선생님을 따라 《셔먼》호를 격멸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 선생님께서는 대동강에 바줄을 건너질러 침략선의 앞길을 막는 투쟁을 조직지도하시였다.

- 김응우선생님께서는 《화공전술》을 발기하시고 결사대를 조직하시였으며 불배를 준비하도록 하시였다.

※ **《화공전술》**-불을 가지고 공격하는 전술

평양성인민들은 《셔먼》호 격멸에 모두 떨쳐나섰다.

퇴역장교였던 박춘권은 혼자몸으로 《셔먼》호에 뛰여올라 억류되였던 중군을 구출하였다.

- 김응우선생님의 지휘밑에《셔먼》호에 대한 총공격이 시작되였다.

7월 24일 김응우선생님의 지휘에 따라 결사대원들이 불배를 밀고 침략선으로 헤염쳐갔고 강기슭에서도 집중사격을 하여 침략선《셔먼》호를 불태워버리였다. 침략선에 탔던 90여놈의 침략군놈들은 불에 타죽고 도망치던 놈들은 인민들에게 붙잡혀 처단되였다.

승리의 요인과 력사적의의

- 승리의 요인

김응우선생님을 선두로 한 평양군민들이 높은 애국심을 발휘하여 용감하게 싸운데 있다.

- 력사적의의

미국침략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 조선인민의 애국적기개를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는데 있다.

우리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그후 반침략투쟁에 커다란 고무적영향을 주었다는데 있다.

### 2) 미국침략선《쉐난도아》호의 침입과 남연군묘도굴만행

#### (1) 《쉐난도아》호의 침입과 그 격퇴

① 침입목적

《셔먼》호사건에 대한 《해명》을 구실로 평양부근에서 각종 도발책동을 벌리여 조선인민의 시선을 이곳에 돌리게 함으로써 젠킨스도적무리의 묘도굴을 무난하게 하자는것이였다.

그리고 남연군유골을 가지고 리조봉건정부를 굴복시켜 제놈들의 침략적요구를 실현하자는것이였다.

② 침입과 그 격퇴

- 1868년 3월 미해군중좌 페비거의 지휘밑에 9문의 포와 230여명의 병력을 실은 전투함《쉐난도아》호가 황해도 앞바다로 기여들었다. 침략선은 황해도와 평안도연해를 돌아치면서 총포를 마구 쏘아대며 대동강으로 침입할 기회를 노리였다.

-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응우선생님께서는 또다시 평양인민들의 앞장에 서시여 《쉐난도아》호를 격퇴하기 위한 투쟁을 지휘하시였다.

김응우선생님께서는 진지방어전법을 내놓으시여 대동강연안일대를 요새로 만들도록 하시였다.

김응우선생님께서는 대동강연안 각지 인민들과 애국적인 군인, 선비들로 의용군을 뭇도록 하시였다.

침략선《쉐난도아》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동진포대앞을 통과하려 하자 불의에 된타격을 가하게 하시였다. 침략선은 더 기여들지 못하고 도망쳤다. 《쉐난도아》호는 그후 2주일이상 조선서해를 싸다니다가 4월말에 완전히 도망쳤다.

**(2) 남연군묘도굴만행**

미국침략자들이 《쉐난도아》호 침입과 때를 같이하여 충청도에 침략선《챠이나》호를 침입시켜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파헤친 사건이다.

① 목적

덕산군 가동에 있는 남연군의 묘를 파헤치고 그 유골을 도적질하여 가지고 조선봉건정부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하려는데 있었다.

② 과정

- 1868년 4월 18일 100여명의 침략자들이 침략선 《챠이나》호에 발동선《크레타》호를 달고 충청도 아산만을 거쳐 구만포에 침입하였다.

- 이놈들은 로씨야군대로 가장하고 지방관청을 습격하여 무기를 빼앗고 건물을 마슨 다음 남연군묘가 있는 가동에 기여들어 묘를 파헤치기 시작하였다.

- 미국침략자들은 이곳 인민들의 투쟁에 부딪쳐 남연군묘도굴을 포기하고말았다.

- 도굴흉계가 실패하자 미국침략자들은 리조봉건정부에 협박장을 보내여 묘도굴만행을 합리화하면서 불평등조약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파탄되자 침략자들은 략탈만행을 저지르고 도망쳤다.

**(3) 1871년 《신미양요》**

① 《신미양요》란

신미년(1871년)에 서양오랑캐(미국놈)들이 일으킨 침략사건(소요)이라는 뜻이다.

② 미국침략자들의 불평등조약체결 강요

미국침략자들은 1871년 1월 조선봉건정부에 협박장을 보내여 《셔먼》호 격침을 걸고들면서 불평등조약체결을 요구하였다.

조선봉건정부는《셔먼》호의 격침은 응당한것이며 미국과 통상조약

을 체결할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였다.

③ 미국침략자들의 무력침략과 그 격퇴

1871년 4월 8일 미국침략자들은 5척의 군함과 80문의 포, 1 230명의 침략군으로 된 침략함대로 강화도 남쪽 물치도부근에 침입하였다.

- 손돌목전투

14일 침략자들은 2척의 군함과 4척의 소함정으로 강화해협의 길목인 손돌목에 기여들어 수로를 측량하고 우리 수비병들을 공격하였다.

손돌목을 지키던 조선군인들은 집중포화를 들씌워 적들의 주력함《모노카시》호를 격상시키여 격퇴하였다.

- 초지진전투

미국침략자들은 4월 23일 450명의 병력으로 강화도 남쪽의 초지진에 침입하였다.

조선수비병들은 초지진첨사 리렴의 지휘밑에 적의 진지를 밤중에 습격하여 100여명을 살상하여 물리쳤다.

- 광성진전투

4월 24일 침략자들은 500여명의 병력으로 광성진을 3면으로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어재연이 지휘하는 70여명의 광성진수비병들은 거의 10배나 되는 적들을 맞받아 용감히 싸웠다. 적들은 물치도부근으로 도망쳤다.

그후 미국침략자들은 위협적인 외교적방법으로 조선봉건정부를 굴복시켜보려고 꾀하였으나 그것도 실패를 면할수 없었다.

- 리조봉건정부는 4월 25일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도록 하였다.

※ **《척화비》**

19세기 중엽 유미자본주의침략을 반대하며 적들과의 화의를 배척하라고 글을 새겨 세운 비석

## 59. 1866년 프랑스침략자들을 쳐물리친 인민들의 투쟁

### 1) 프랑스침략자들의 조선침략구실

1866년초 대원군의 명령으로 우리 나라에 기여들어 카톨릭교를 퍼뜨리면서 침략의 발판을 닦던 프랑스선교사 9명을 처단한것을 구실로 삼았다.

### 2) 프랑스침략자들의 첫 침략기도파탄

프랑스침략자들은 극동함대사령관 로즈놈의 지휘밑에 1866년 8월 12일 3척의 군함으로 강화도남쪽 물치도부근에 침입하였다.

이 소식에 접한 전국각지의 인민들이 투쟁에 궐기하였다.

조선인민의 투쟁기세에 질겁한 놈들은 8월 23일 황급히 도망치고 말았다.

### 3) 프랑스침략자들의 재차침입과 그 격퇴

침략자들은 9월 5일 7척의 군함과 2 500여명의 병력으로 또다시 물치도부근에 기여들었다.

① 문수산성전투

적들은 우리의 강한 한강방어를 피하여 륙로로 서울을 향해가다가 9월 8일 문수산성을 공격하였다.

문수산성방어군은 성의 남문으로 침입하는 100여명의 적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안기여 물리쳤다.

② 정족산성전투

적들은 강이나 륙로로 서울을 침공할수 없다는것을 깨닫고 이미 강점한 강화성에 의거하여 강화도라도 타고앉으려고 정족산성으로 달려들었다. 량헌수가 지휘하는 500여명의 방어부대는 매복전으로 적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들이댔다. 방어부대는 이틀후 두번째로 공격해오는 160여명의 적을 산성에 의거하여 맹렬한 반격으로 물리쳤다. 적들은 도망치면서 강화도일대에 대한 방화와 파괴, 략탈만행을 감행하였다.

우리 인민들은 도망치는 적함대에 다시한번 호된 타격을 주었다. 침략자들은 더는 기여들지 못하고 먼바다에서 빙빙 돌다가 10월 31일에 완전히 물러가고말았다.

이리하여 프랑스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은 승리로 끝났다.

## 60. 《운양》호사건과 《강화도조약》의 조작

### 1) 《운양》호사건

1875년 8월 일본침략선《운양》호가 강화도에 침입하여 무장도발을 감행한 사건이다.

- 일본군국주의자들은《운양》호사건에 앞서 1875년 4월 해군소좌 이노우에놈이 거느린 군함《운양》호와 해군소좌 이또놈이 거느린 군함《다이니에이요》호를 우리 나라의 부산과 원산 등 항구들에 들여보내여 군사연습과 무력시위를 감행하였다.

그런데 민비일당이 아무런 대응조치도 취하지 않자 침략자들은 더욱 횡포해지고 오만해졌다.

- 1875년 8월 21일 놈들은 군함《운양》호를 끌고 강화도 앞바다에 기여들었다.

먼저 20여명의 적들이 초지진포대에 접근하여 그 위력을 정찰하고 륙전대로 포대를 점령하려고 하였다.

이때 우리 수비병들이 자위적인 포사격을 하자 놈들은 기다렸다는듯이 초지진포대에 대한 포격을 감행하였다.

초지진포병들은 격분하여 맹렬한 공격을 들이댐으로써 적들을 물리쳤다.

그 이튿날 적들은 보복적으로 평화적주민들만 살고있는 항산도를 불의에 습격하여 우리 인민들을 학살하고 집들을 불살랐다.

다음날에는 영종진 앞바다에 《운양》호를 띄워놓고 함포사격으로 포대를 완전히 파괴한 다음 성안에 기여들어 인민들을 학살하고 영종진을 재더미로 만들었다.

이것이 《운양》호사건이였다.

**2)《강화도조약》의 조작**

- 《운양》호사건을 일으킨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을 조작하려고 하였다.

이때 미국놈들은 저들이 지난날 일본을 침략하여 예속시키던 수법을 쓴《페리의 일본원정소사》라는 책을 주면서 일본놈들의 조선침략을 부추기였다.

- 1875년 12월 전권대사 구로다놈은 7척의 군함에 800여명의 군대를 끌고 침입하여 무력시위를 하면서《담판》에 응할것을 강요하였다.

- 이 소식에 접한 우리 인민들은 왜적격멸에 모두다 떨쳐나섰다.

- 봉건통치배들은 인민들의 반침략투쟁기세는 보지 않고 침략자들에게 굴복하였다.

그리하여 1876년 2월 3일《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라는 불평등《조약》이 조작되였다.

### 3) 《강화도조약》의 내용과 그 본질

① 《강화도조약》의 내용

- 부산과 다른 2개의 항구를 더 개항하며 거기에 일본인이 거주하여 살면서 략탈적인 무역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것이다.

- 개항된 항구들에 일본령사를 두며 왜놈들의 범죄행위는 일본법에 의하여 처리된다는 《령사재판권》을 규정하였다.

- 왜놈들이 조선연해를 마음대로 측량하고 해도를 작성할수 있다는것이다.

②《조약》의 침략적본질

일본놈들에게는 특권을 주고 조선측은 예속적인 의무만을 지게 한 불평등적인 침략문건이라는데 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는 일본의 반식민지로 전락되기 시작하였다.

## 61. 임오군인폭동

### 1) 서울군인들의 생활처지

- 민비일당은 인민들에게서 수탈한 돈과 식량으로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군인들에게는 군료(군인들에게 주는 봉급)를 몇달씩이나 주지 않았다.

- 리조봉건정부는 새로 조직된 별기군에 대해서는 높은 대우를 하면서도 국가무력의 주력인 이미 있던 군대에 대하여서는 심한 차별대우를 하였다.

### 2) 폭동의 동기 - 군료지불사건

봉건정부에서는 1882년 6월초에 13개월만에 처음으로 한달분의 쌀을 주었는데 대부분 썩은 쌀인데다가 겨와 모래가 절반이상 섞이고 그것마저 량이 되지 않았다.

부당한 군료지불에 격분한 김춘영, 류복만, 정의길 등을 선두로 한 군인들은 더는 참을수 없어 도봉소창고지기를 때려눕혔다.

병조판서이며 선혜청당상인 민겸호는 포교들을 풀어 주모자들을 잡아가두고 사형에 처하겠다고 선포하였다.

군인들은 쌓이고쌓였던 분노를 터쳐 군인폭동을 일으켰다.

#### 3) 폭동과정과 폭동의 실패

① 6월 9일 김장손, 류춘만을 선두로 한 군인들은 무기고를 쳐서 무장을 갖추었으며 감옥을 점령하고 동료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석방하였다.

폭동군인들은 2개 대오로 나뉘여 한 대오는 악질관리들의 집을 습격하고 일본교관놈을 처단하였다.

다른 한 대오는 일본공사관을 포위하고 공격태세를 갖추었다.

② 6월 10일 군인들의 투쟁은 더욱 고조되였다.

한 대오는 왕궁으로 밀려가 민비를 처단하려 하였으나 도망쳐갔으므로 숨어있던 악질관리놈들만 처단하였다.

다른 대오는 인천으로 도망치는 일본침략자들을 추격하여 10여명을 처단하였다.

이틀간의 투쟁에서 군인들은 13명의 일본침략자들을 처단하였고 서울에서 일본놈들을 내몰았으며 악질관리들을 처단하였다.

큰 타격을 받은 국왕은 6월 10일 대원군에게 정권을 넘긴다는것을 선포하였다.

③ 군인들의 투쟁에 대한 일본, 청나라의 무력간섭이 시작되였다.

6월 27일 청나라통치배들은 4척의 군함과 13척의 수송선에 3 000여명의 병력을 싣고와 서울에 기여들었으며 6월 29일에는 일본침략자들이 군함을 끌고 인천에 침입하였다.

청나라간섭자들은 대원군을 붙잡아 자기 나라에 강제로 끌어가고 폭동에 참가하였던 군인들을 탄압하여나섰다.

애국적인 군인들과 인민들은 적들과 이틀간 용감하게 싸웠으나 진압당하고말았다.

#### 4) 군인폭동의 력사적의의와 그 교훈

##### (1) 력사적의의

①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과 반동적봉건통치배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것이다.

② 조선인민의 애국심과 투지를 보여주고 그후 반침략반봉건투쟁이 더욱 힘차게 벌어지게 한것이다.

### (2) 교훈

① 인민대중의 투쟁이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옳은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것이다.

② 국왕을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에게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것이다.

③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무장을 놓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것이다.

## 62. 개화사상의 발생과 개화파의 형성

### 1) 개화사상의 발생과 그 주요내용

개화사상이란

19세기 중엽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부르죠아사상조류로서 낡은 봉건제도를 없애고 근대적인 자본주의제도를 세워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하자는 사상이다.

### (1) 19세기 중엽 나라의 형편

① 봉건제도가 무너져가고있었다.

그것은 우선 자본주의적관계가 장성하면서 봉건제도를 약화시키였기때문이다.

또한 봉건제도, 봉건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벌어졌기때문이다.

② 외래자본주의침략으로 나라의 위기가 더욱 심해졌다.

### (2) 개화사상의 발생

1850년대부터 선각자들은 하루빨리 조성된 위기를 가시고 나라를 부강발전시킬 방도들을 탐구해나갔다. 그 대표자들로는 오경석, 류홍기, 박규수 등이였다.

이들에 의하여 싹트기 시작한 개화사상은 70~80년대에 김옥균에 의하여 더욱 발전하였다.

※ 개화사상은 실학사상에 토대하여 발생하였다.

### (3) 개화사상의 주요내용

① 정치분야에서 낡은 봉건제도를 없애고 근대적인 자본주의제도를 세우자는것

② 경제분야에서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근대적인 산업을 건설하자는것

③ 교육문화분야에서는 근대적인 학교교육을 실시하며 락후한 봉건 유습을 없애고 녀성들의 사회적대우를 개선하자는것

④ 국방분야에서 징병제를 실시하며 군대의 훈련과 장비를 근대화하자는것

⑤ 봉건적신분제도를 없애고 부르죠아적《자유》와《평등》을 보장하자는것

#### (4) 개화사상의 진보성과 제한성

- 진보성

시대의 요구와 선진적인 계층의 지향을 반영한 애국적이고 반침략적인 사상이였다.

- 제한성

① 봉건제도를 혁명적인 방법으로 청산하려고 하지 못한것이다.

군주제를 그냥 두려고 하였다.

②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것이다.

### 2) 개화파의 형성

① 개화사상가들은 개화사상을 리념으로 한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형성년대-1870년대초

중심인물-김옥균

개화파구성-봉건정부안의 홍영식, 박영교 등 진보적인 관리들과 선비들, 군인들과 자본가들, 《천민》들과 궁녀, 내시 등 각계층 사람들.

② 개화파가 형성된 후 세력을 넓혀나가는 과정에《충의계》라는 비밀조직을 무었다.

《충의계》는 부르죠아개혁운동을 밀고나가기 위한 비밀정치조직으로서 개화파의 핵심들을 망라한 우리 나라 근대정치조직의 맹아였다.

### 3) 개화파의 초기활동

① 개화사상을 선전보급하는 활동을 적극 벌렸다.

② 봉건국가기구를 근대적으로 개편하는 사업을 밀고나갔다.

우선 《통리기무아문》을 내오고 그밑에 12사를 두었다.

또한 신식군대를 조직하고 군사기구를 근대적으로 개편해나갔다.

③ 다른 나라의 근대적인 과학기술과 경험을 배우며 인재를 키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④ 국내시장을 보호하며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벌렸다.

## 63. 갑신정변

1884년 10월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들은 나라의 근대화를 위한 부르죠아개혁사업을 수구파반동들의 책동으로 해나갈수 없게 되자 폭력으로 수구파정권을 뒤집어엎는 정변을 일으키였다. 이 정변을 갑신정변(1884년 부르죠아개혁)이라고 한다.

### 1) 정변전 개화파의 활동과 수구파의 책동

① 1882년 정부안에 개혁담당기구로서 《기무처》라는 기관을 조직하였다.

② 불필요한 관리들과 재정의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감생청》이라는 기구를 내왔다.

③ 《순경국》,《우정국》,《박문국》,《치도국》,《대동상회》 등 여러가지 근대적인 기관들과 회사, 신식군대를 조직하였다.

④ 《한성순보》라는 첫 근대적인 신문을 발간하였다.

이처럼 개화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부르죠아개혁사업이 추진되자 수구파반동들은 그것을 방해하여 책동하였다.

우선 개화파의 주요인물들을 벼슬자리에서 떼여 지방으로 보내거나 외교관으로 다른 나라에 보냈다.

또한 개화파들이 양성한 신식군대를 해산하였으며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지도자들을 암살하려고까지 하였다.

### 2) 갑신정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갑신정변은 궁중에서 일어난 단순한 권력싸움이 아니라 나라의 근대화를 목적한 부르죠아개혁이였습니다.》**

#### (1) 정변의 수행과 개화파정부의 조직

① 김옥균은 여러차례 개화파들의 모임을 가지고 정변날자와 구체

적인 행동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10월 17일 밤 우정국청사준공축하연회를 계기로 수구파우두머리들을 처단하기로 하였다.

※ **우정국**- 1884년 4월 개화파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창설된 근대적인 체신행정기구

② 연회때 별궁에 불을 지르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김옥균은 지체없이 다른 건물에 불을 달게 하고 수구파우두머리들을 처단하는 한편 창덕궁에 있던 왕과 민비를 경우궁으로 옮겨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개화파는 국왕과 민비를 자기들의 손안에 넣음으로써 실제상 정권을 잡게 되였다.

③ 개화파는 경우궁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남은 수구파우두머리들을 마저 처단함으로써 수구파정권을 타도하였다.

④ 개화파는 새 정부를 구성한 다음 10월 18일 그것을 세상에 공포하였다.

새 정부는 개화파와 그 지지자들로 구성되였다.

### (2) 개화파정부의 정강

개화파는 10월 19일 14개 조항으로 된 새 정부의 정강을 발표하였다.

#### 정강의 기본내용

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청나라의 간섭을 없애고 봉건국왕의 무제한한 권한을 줄일것을 밝혔다.

② 봉건적신분제도를 없애고 관리의 선발은 재능과 기술에 따라 할것을 규정하였다.

③ 경제와 문화분야에서 봉건적락후성을 가시고 근대적발전을 이룩할것을 제기하였다.

④ 봉건적인 재판, 경찰 및 군사제도를 근대적으로 개혁할것을 규정하였다.

새 정부의 정강은 자본주의길로 나가려는 우리 나라 사회발전의 요구를 반영한 진보적인 부르죠아적정강이였으며 민족의 위기를 헤쳐나가려는 애국적인 정강이였다.

#### 정강의 제한성

정강은 봉건국왕과 봉건적토지소유제도를 그대로 두려고 한 불철저한 부르죠아적정강이였다.

**갑신정변의 실패**

① 새 정부가 서자 민비일당은 그것을 뒤집어엎기 위하여 국왕과 개화파정부를 경우궁으로부터 창덕궁으로 옮기도록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② 10월 19일 민비가 조종하는 수구파가 1 500명의 청나라군대를 앞세우고 창덕궁으로 쳐들어왔다.

③ 왕궁을 지켜준다던 일본놈들은 청나라와 관계가 나빠진다고 하면서 개화파를 배반하고 달아났다.

④ 왕궁은 적들에게 점령되고 국왕은 다시 수구파반동들의 손에 들어갔으며 많은 개화파성원들이 무참히 학살당하였다.

⑤ 김옥균을 비롯한 일부 개화파인물들은 다시 일어날것을 결심하고 인천으로 피하였다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이리하여 갑신정변은 《3일천하》로 실패하고말았다.

### 3) 갑신정변의 실패원인과 력사적의의

#### (1) 실패원인

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지 못한데 있었다.

② 갑신정변을 준비하고 지도하는데서 전술상결함(외세의존)도 있었다.

③ 미일침략자들의 악랄한 방해책동과 청나라군대의 무력간섭에 있었다.

#### (2) 력사적의의

① 우리 인민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부르죠아개혁운동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았다는데 있다.

② 정변이후 우리 나라 부르죠아개혁운동을 크게 추동하였다는데 있다.

**김옥균(1851년-1894년)**

1884년 부르죠아개혁지도자의 한 사람이다. 충청남도 공주의 량반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개화사상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1870년대초에 개화파를 형성하였다.
그는 봉건정부관리로 있으면서 개화파의 정치적지반을 꾸리는 한편 근대적개혁을 위해 노력하였다. 1884년 10월 17일에는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개화파자체의 결함과 청나라간섭, 일본침략자들의 배신행위로 3일만에

실패하였다.

정변이 실패한 후 투쟁을 계속할 결심밑에 일본으로 망명하였으나 일본정부와 수구파반동들의 책동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1894년 2월 중국 상해에서 살해당하였다.

## 64. 갑오농민전쟁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갑오농민전쟁은 19세기 아세아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새벽종을 울린 하나의 력사적사변으로서 중국의 태평천국농민전쟁, 인도의 시파이폭동과 더불어 아세아 3대항전으로 특기할만 한것이였다.》**

갑오농민전쟁은 전라도지방에서 전봉준의 지휘밑에 일어났던 대규모적인 농민전쟁이다.

갑오농민전쟁은 우리 나라 력사상 가장 큰 농민전쟁으로서 중국의 태평천국농민전쟁, 인디아의 시파이폭동과 함께 아시아 3대항전의 하나로 되고있다.

### 1) 갑오농민전쟁의 시작

① 고부농민폭동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은 만석보(저수지의 이름)의 물세를 비롯한 각종 명목으로 농민들을 악착하게 수탈하였다.

견딜수 없었던 고부농민들이 관청에 수탈량을 조절하여줄것을 요구하러 찾아갔다가 참형까지 당하였다. 격분한 농민들은 1894년 1월 전봉준의 지휘밑에 폭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관청을 습격하여 악질관리들을 처단하였다.

그후 안핵사로 파견된 리용태는 조병갑이 못지 않게 악독한짓을 하면서 폭동참가자들을 탄압하였다.

② 농민전쟁의 시작

1894년 농민전쟁은 고부농민폭동을 계기로 시작되였다.

전봉준은 새로운 대규모투쟁을 결심하고 고부 백산에서 8 000명 농민들로 폭동군을 편성하였다.

전봉준은 격문을 발표하여 광범한 인민들이 투쟁에 나설것을 호소하고 봉건통치배들과 봉건제도를 반대한 전쟁을 벌리였다.

### 2) 농민군의 련속적승리, 전주성점령

① 농민군의 련속적승리

4월 3일 농민군은 백산을 포위공격해오는 1 300여명의 《토벌군》에게 반격을 가하여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6~7일에는 황토현에서 800여명의 적들을 살상하고 총통 500여정을 로획하였다.

농민군은 전라도 여러 고을들을 련속 점령하면서 10여만명으로 늘어났다.

4월 22일 농민군은 장성군 황룡촌에서 신식으로 무장한 적들을 살상하고 대포 2문을 비롯하여 많은 무기를 로획하였다.

② 전주성점령

4월말 농민군은 전주성을 포위공격하여 단숨에 점령하였다.

### 3) 일본과 청나라의 무력간섭, 《전주화의》와 《집강소》설치

① 일본과 청나라군대의 무력간섭

봉건통치배들은 농민군을 회유기만하는 한편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하는 반역행위를 저질렀다.

그리하여 5월초 청나라군대 1 500명이 출병하였다.

일본은 청나라의 조선출병과 때를 같이하여 1만명의 대군을 들이밀었다.

② 《전주화의》와 《집강소》설치

청일량군이 조선에 기여들자 봉건정부는 농민군에게 《화의》를 제기하였다.

5월 8일 전주에서 농민군과 봉건정부사이에 담판이 진행되였다.

농민군은 《화의》조건으로 12가지 페정개혁안을 내놓았고 정부는 그것을 접수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을 력사에서 《전주화의》라고 한다.

《화의》후 전라도 각 고을에 페정개혁실시를 감독하기 위한 농민대표기관으로서 《집강소》가 설치되였다.

### 4) 농민전쟁의 재발, 공주대격전

① 농민전쟁의 재발원인

봉건정부가 페정개혁을 진행하지 않고 농민군《토벌》에로 나왔기때문이다.

일본침략자들이 조선왕궁을 습격하고 봉건정부에 《내정개혁》을 강

요하는 한편 청일전쟁을 일으켜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더욱 짓밟았기때문이다.

② 농민전쟁의 재발

전봉준은 9월 중순에 전주북쪽에 있는 삼례에 투쟁본부를 정하고 각지 농민들에게 투쟁을 호소하였다.

한편 충청도농민군과도 련합을 실현하여 10월 20일에는 론산에 수십만의 농민군을 집결하게 하였다.

③ 공주대격전

농민군은 서울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공주를 공격하였다.

농민군은 제1차 공주공격전에서 목천, 세성산전투, 리인전투 등 여러 전투들에서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제2차로 공주를 공격하여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나 농민군은 무장이 약하고 전술상 약점으로 실패하였다.

농민군은 력량을 보존하며 앞으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대오를 해산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전봉준이 변절자의 밀고로 적들에게 체포되였다.

### 5) 농민전쟁의 실패원인과 의의

#### (1) 실패원인

① 농민군이 옳바른 투쟁목표와 방도를 잘 알지 못한데 있었다.
② 농민군이 전략적으로 잘못한데 있다.
③ 청일침략자들의 무력간섭과 봉건통치배들의 반역행위에 있었다.

#### (2) 의의

① 근대 우리 나라 반침략반봉건투쟁의 력사를 빛나게 장식하였다는데 있다.
② 우리 나라 사회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는데 있다.
③ 아시아반제민족해방투쟁의 력사적사변으로 된다는데 있다.

**전봉준(1854년-1895년)**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서당훈장을 하던 전창혁의 아들로 태여났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하고 재주가 뛰여났으며 정의감이 높았다.

전봉준의 어릴적 이름은 녹두였다.

청년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훈장도 하였다.

봉건통치배들의 수탈을 당하면서 농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체험하였다.
봉건통치배들의 착취를 반대하여 투쟁하던 아버지의 죽음에서 항의투쟁으로는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고 투쟁에 나섰다.
1894년초 고부농민폭동을 지도하여 농민전쟁으로 발전시켰다.
전봉준은 그해 12월 변절자의 밀고로 체포되여 굴하지 않고 잘 싸우다가 1895년 3월 서울감옥에서 사형당하였다.

**동학과 최제우**

동학은 19세기 중엽에 인민들의 반봉건적진출과 외래자본주의침략으로 조성된 민족적위기를 막기 위한 반침략투쟁에 편승하여 발생한 민족종교이다.
동학이란 동방의 학문, 다시말하여 조선의 학문이란 뜻인데 서학(카톨릭교)에 대립하여 붙인 이름이다.
민족의 장래와 나라의 운명을 우려한 선각자들은 인민들의 반봉건반침략투쟁에 고무되면서 조선사람은 외국에서 들어온 남의 교리를 믿을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상과 학문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다는 자각을 가지고 조선의 학문을 요구하였다.
동학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1860년 최제우(1824년-1864년)에 의하여 정립되였다.
동학은《지상천국》을 설교하면서 농민들의 반봉건적지향과 반침략적지향을 반영하였다.
동학은 외래침략자들로부터 나라를 구원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한다는《보국안민》의 과업을 제기하였다.
동학은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사람들의 사회적의식발전에 해독적후과를 미치게 되는 환상적인 종교미신적형태를 떠고나온 약점도 가지고있다.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는 동학사상을 창시하고 퍼뜨렸다는 죄로 체포되여 1864년에 사형당하였다.
동학은 그후 천도교를 비롯한 수많은 교들로 분화되였다.

## 65. 갑오개혁

갑오개혁은 1894(갑오)년에 혁신관료들이 나라의 근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한 개혁이다.

### 1) 개혁기운의 성숙

① 청일량군의 무력간섭과 내정간섭으로 봉건제도의 위기가 더욱

촉진됨으로써 혁신관료들뿐아니라 봉건정부대신들과 국왕까지도 폐정개혁에 관심을 가지게 되였다.

② 혁신관료의 중심인물인 김홍집은 대신회의에서 폐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2) 교정청, 군국기무처의 조직과 갑오개혁의 실시

① 1894년 6월 11일 개혁담당기구로서 교정청이 설치되였다.

교정청에는 김홍집, 어윤중 등 주요혁신관료들이 들어갔다.

교정청은《전주화의》에서 제기된 폐정개혁조항들을 실현하며 자체의 힘으로 개혁을 실시하여 일본침략자들의 횡포한 간섭책동을 막을것을 당면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교정청은 10년안에 인민들에게 들씌운 모든 잡세를 폐지할데 대한 결정을 공포하였다.

교정청은 농민군이 제기한 요구조건에 기초하여 봉건적악페를 청산할데 대한 12개조개혁안을 선포하였다.

② 6월 25일 교정청을 새롭게 발전시킨 개혁담당기구로서 군국기무처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정부안에서 수구파들을 제거하고 혁신정권을 세웠다.

군국기무처는 나라의 중요법안들을 심의채택하는 기관으로서 부르죠아개혁조치들을 취하였다.

- 정치분야에서의 개혁

· 국가통치기구들을 새롭게 개편하는 사업들을 하였다.

· 관료선발제도를 근대적으로 고쳤다.

· 봉건적신분제도를 없애며 대외관계에서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 경제분야에서의 개혁

· 국가재정체계를 하나로 만들었다.

· 조세를 돈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 도량형의 통일, 새 화페제도를 실시했다.

- 사회문화분야에서의 개혁

· 교육사업에 힘을 넣어 근대적교육제도와 학교들도 내오도록 하였다.

· 낡은 격식과 풍습을 고칠것을 제기하였다.

- 군사분야의 개혁

· 《친위군》을 조직하며 군대에 대한 통일적지휘를 주장하였다.

· 군대장비의 근대화와 군대양성을 주장하였다.

### 3) 갑오개혁의 실패와 교훈

① 갑오개혁은 일제의 방해책동으로 실패하였다.

· 일제는 제놈들의 앞잡이 박영효놈을 군국기무처안에 박아넣었고 제놈들의 《내정개혁안》을 조선정부가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 11월 21일 군국기무처는 해산되고 혁신정권도 무너지고말았다.

② 교훈

· 일제는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고 나라의 근대적발전을 가로막는 철천지원쑤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 인민대중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진보적인 개혁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③ 력사적의의

나라의 근대적발전과 부르죠아민족운동을 일정하게 촉진하였다는데 있다.

## 66. 갑오개혁후 내정개혁

### 1) 내정개혁의 실시

갑오개혁후 개혁운동이 진척될수 있게 된것은 당시 개혁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한 진보적관리들의 존재와 관련되였다.

민영환, 박정양, 리용익, 리기 등 진보적관리들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각 방면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지어 조병세와 같은 봉건정부안의 보수적인 거물급인물들도 나라의 자주권을 위한 사회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① 사회정치제도의 개혁

- 국가제도에서 황제의 전제권을 확립해나갔다.

○ 1897년 8월 16일 나라정사의 새 출발을 알리는 표시로서 년호《광무》를 제정하였다.

○ 10월 11일에는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쳤으며 그 다음날인 12일에는 국왕을 황제로 높여 부르도록 하였다.

※ 리조 500여년력사에서 년호를 쓰고 황제칭호를 사용한것은 처음되는 일이였다.

○1897년 3월 《법규교정소》를 의정부에 소속시켰다.

법규교정소는 종전에 중추원에 내왔던 교전소를 개편한것이였다.

사명: 당시 혼탁된 법규범과 규정들을 정리하고 합리적으로 제정하는것이였다.

법규교정소에서는 1899년 8월 17일 《대한국국제》를 발포하였다.

여기에서는 황제의 지위를 법제화하고 사회정치, 경제, 군사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황제의 절대적지위를 확인하였다.

- 국왕의 전제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중앙행정기구를 개편하였다.

1898년 6월 궁내부대신을 의정부성원으로 다시 포함시키고 함정직을 따로 내왔다.

- 근대적인 재판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갔다.

1899년 5월《재판소구성법》을 개정하여 재판소를 지방재판소, 한성부와 각 개항시장재판소, 순회재판소, 평리원, 특별법원 등 5개로 규정하였다.

- 봉건적인 형벌을 근대적인것으로 개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시켰다.

《형법내전》을 만들어 형벌의 종류를 근대적인 양상으로 세분하였다.

- 갑오개혁시기 근대적인 경찰제도를 그대로 유지발전시켰다.

1900년 6월 경무청을 하나의 독자적인 국가기관인《경부》로 개편하였다.

② 경제제도의 개혁

- 리조정부는 《토지제도개혁》사업을 진행하였다.

○1898년 7월-1901년 12월까지 124개 군에서 량전사업을 진행하였다.

○1901년 10월 《지계》(토지증명서)를 발급하여 국가적인 문서로 토지소유권을 확인해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로일전쟁을 도발하고 우리 나라를 전쟁마당으로 만듦으로써 량전, 지계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 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시켰다.

○1898년 7월 《철도사》를 설치하고 이어 《철도사》를 《철도국》으로 개칭하여 《농상공부》에 소속시켰다.

○철도부설을 위한 계획안이 작성되였다.

○민간철도회사들인 《대한철도회사》,《대한국내철도용달회사》,《대한운수회사》등이 설립되였다.

- 근대적인 통신기관을 세우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였다.

○1896년 7월 중앙체신기관으로 《전보사》를 설치하였다.

○1895년 6월 《우체사》가 설치된데 이어 1896년 8월 《우체사관제》를 개정하였다.

○1900년 3월 농상공부에《통신원》을 설치하여 우체, 전신, 선박, 선원을 관리하게 하였다.

○1902년 4월에는 《전화세칙》을 발포하였다.

- 화폐제도를 근대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1901년 2월 《화폐조례》를 발포하고 화폐제도를 개혁하였다.

화폐의 단위는 《환》으로 하였다.

○금, 은본위제의 실시를 위하여 1903년 3월 《중앙은행조례》와 《교환금권조례》를 발포하였다.

③ 군사제도의 개혁

- 군사제도의 개혁에서는 우선 황제가 군대의 통수권을 쥐며 전제권을 무력으로 담보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1899년 6월 《원수부관제》가 선포되였다.

○이를 위하여 《원수부》를 설치한다고 규정하였다.

- 군사교육기관을 창설하고 군사후비를 양성해내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1899년 11월에 《무관학교관제》가 개정되고 군사교육이 진행되였다.

○1900년 3월 무관학교출신으로서 원수부시험을 거쳐 황제에게 보고하여 무관으로 임명하는 체계를 세웠다.

- 군사편제를 근대적으로 재편성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중앙군으로서 친위대와 시위대를 두었다.

○지방군으로 진위대를 두었다.

○1902년 8월에 혼성려단을 창설하였다.

보병2개련대, 기병1개중대, 포병1개중대의 력량을 두었다.

그리고 려단장 1명, 부관 2명의 편제를 두었다.

- 1900년 6월 헌병사령부가 설치되고 헌병대가 조직되였다.

사명: 군대의 규률과 질서를 바로잡는것이였다.

④ 사회문화분야에서의 개혁

- 근대적인 교육제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였다.

○중등기술교육과 전문교육의 근대화를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였다.

1899년 4월 《중학교관제》가 공포되였다.

1899년 2월 지석영 등 애국적지식인들에 의해 의학교가 설립되였다.

1899년 6월 상공학교가 설립되였다.

1900년 8월 실업학교인 광무학교가 설립되고 9월 관립학교로 되였다.

○진보적인 사립학교들이 설립되였다.

당시 사립학교들로는 흥화학교, 중교의당, 정성녀학교, 송천사립학교, 사립법률학교 등이 있었다.

- 관리들의 관복을 개정하였다.

- 표창제도도 실시하였다.

※ 1899년 7월 《표훈원관제》가 발표되고 표훈원이 설치되였다.

갑오개혁후에 진행된 제반개혁들은 외세의 무력간섭과 반동통치배들의 매국배족행위 그리고 개혁담당자들의 계급적제한성 등으로 실패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 사회의 근대적발전을 지향하여 벌어진 개혁운동으로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2) 내정개혁의 성격과 그 교훈**

갑오개혁이후시기는 외세의 침략으로 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독립이 엄중한 위험계선에 있던 첨예한 시기였다.

이러한 때 정치적위기를 타개하며 나라의 근대적발전을 지향한 내정개혁은 그 의도에서 볼 때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성격을 가진다.

① 내정개혁의 진보적성격

- 개혁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독립을 고수하는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제기하고 개혁 전 과정에 독립국으로서의 명분을 공고히 하려고 한것이다.

- 정치기구의 변천과 사회 여러 분야에서 갑오개혁의 근대적시책들을 계승하고 전진시킨것이다.

갑오개혁후의 내정개혁은 로일전쟁을 도발하고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제의 조선강점을 계기로 성공을 보지 못한채 실패하였다.

② 내정개혁실패의 교훈

- 외세의 침략행위가 강화되고 민족적자주권이 위기에 처한 시기의 사회정치제도의 개혁은 전 민족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때에만 승리할수 있다는것이다.

- 외세의 간섭밑에서는 진정한 사회적진보를 이룩할수 없으며 사회

적진보와 나라의 자주권은 오직 강력한 군사력의 담보우에서만 이룩될 수 있다는것이다.

- 사회정치개혁은 그것을 주도하는 뛰여난 지도자가 없이는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없다는것이다.

## 67. 1905년 일제의 조선강점

### 1) 《을미사변》

① 조선을 제 손아귀에 넣기 위한 로일간의 암투

1894~1895년 청일전쟁을 통하여 일제는 대만, 료동반도, 팽호렬도 등 광대한 령토와 막대한 배상금을 빼앗고 청정부로 하여금 조선에 대한 저들의 지배권을 인정하게 하였다.

이로 하여 일제는 《3국간섭》을 받게 되였다.

**※ 3국간섭**

로씨야, 도이췰란드, 프랑스가 1895년 3월 이른바《동양평화》를 위하여 료동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주라고 요구한것을 3국간섭이라고 한다.

이때부터 로일간의 모순이 격화되였다.

모순은 로일이 각기 리조국왕을 자기 손에 틀어쥐기 위한것으로 격화되였다.

특히 1894년 10월 일본공사 이노우에놈의 내정간섭으로 리조국왕과 민비가 로씨야편으로 기울어지자 일제는 로씨야세력을 밀어내기 위한 전쟁준비를 하면서 우선 조선에서 친로파세력을 없애고 친일세력을 부추기기 위하여 민비를 죽이기 위한 범죄적음모를 꾸미였다.

② 민비학살만행(1895년 8월 20일)

1895년 7월 흉악한 군벌출신 예비역중장이며 궁실고문이였던 미우라는 공사로 임명되자 민비의 환심을 사려고 하였다.

그러나 민비가 친일세력을 모조리 제거하자 민비를 살해할 결심을 내렸다.

일제는 이 사건에 대원군을 끌어들여 마치도 내부정변인듯이 조작하려고 하였다.

1895년 8월 놈들은 일본수비대, 경찰, 불량배 등 1 000여명을 내몰아 대원군을 가마에 태워가지고 왕궁에 쳐들어갔다.

그리고 민비의 침전에 달려들어 칼로 내리친 다음 숨이 붙어있는

그를 장작더미우에 올려놓고 석유를 뿌려 불태웠다. 타다남은 뼈와 재가루는 못가에 처넣었다.

**춘생문사건(1895년 10월 11일)**

리조봉건정부의 군사《고문》으로 기여든 미국인 테니놈이 저들이 훈련시킨 시위대를 사촉하여 왕궁을 습격하고 국왕을 틀어쥐며 친미정권을 조작하려고 한 사건이다.

그러나 놈들의 음모를 미리 알아낸 리조정부가 왕궁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왕궁에 침입한 시위대병사들의 민족적량심에 호소하여 돌려세움으로써 미제의 음모를 파탄시키였다.

**아관파천(1896년 2월 11일)**

국왕과 왕세자가 왕궁을 떠나 로씨야공사관에 옮겨앉아 정치를 한 사건.

짜리로씨야는 그들대로 리조정부를 제놈들이 틀어쥐고 친로파정부를 조작하려고 하였다.

1896년 2월 11일 짜리로씨야공사 웨베르는 친로파들을 발동해서 국왕과 왕태자를 저들의 공사관에 유인하여 친로내각을 조작하였다. 국왕은 애국적인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1년만에 놓여나왔다.

### 2) 일제의 조선강점과 《조약》날조

1904~1905년 로일전쟁결과로 조선에서 짜리로씨야세력을 몰아낸 일제는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였다.

#### (1) 일제의 조선강점을 지지한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책동

① 《가쯔라-타프트》의 비밀협약

1905년 미륙군장관 타프트와 일본수상 가쯔라는 비밀회의를 열고 미제는 필리핀을 지배하며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할데 대하여 인정하였다.

② 제2차《영일동맹》

영제국주의자들은 1905년 8월 일제가 조선에서《지도, 감리, 보호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는 제2차《영일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일제의 조선강점을 지지하였다.

### (2) 일제의 《을사5조약》날조와 조선강점

① 《을사5조약》의 날조

로일전쟁후 조선침략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한 일제는 우리 나라를 강점한다는 《합법적》문건조작에 달라붙었다.

1905년 일본은 조선침략의 원흉인 이등박문(이또 히로부미)놈을 《특사》로 파견하여 《을사5조약》을 강요하게 하였다.

조선에 기여든 이또놈은 조선이 일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천황》의 《칙서》를 고종황제에게 전하고 며칠후에는 제놈들이 꾸며가지고온 강도적인 조약안을 내놓으면서 도장을 찍을것을 강요해나섰다.

고종이 죽어도 그런 조약은 승인할수 없다고 하자 11월 17일 중무장한 침략군으로 왕궁을 포위하고는 대신들의 회의를 열게 하고《토의》하게 하였다.

이 회의에서 참정대신 한규설 등이 조약체결을 반대해나서자 이또놈은 아무 꺼리낌없이 회의장에 들어와 한규설을 끌어내가고는《조약이 체결되였다.》고 제멋대로 공포하였다.

이처럼 《을사5조약》은 국왕의 사전수표도 없고 왕의 도장도 찍지 못한 허위문서였다.

당시 법에는 왕의 도장을 찍지 않으면 조약이 법적효력을 못가진다고 밝혀있었다.

②《조약》의 내용

조선의 외교사업을 일본이 감독하고 《지휘》하며 조선정부는 일본의 승인이 없이는 다른 나라와 그 어떤 조약도 맺을수 없다는것, 일본인《통감》을 보내여《통감정치》를 실시한다는것 등 조선의 자주권을 완전히 빼앗는 강도적내용으로 일관되여있었다.

《을사5조약》이 조작된 다음부터 조선인민은 40여년간 일제의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하게 되였다.

**※ 을사5적**

을사년(1905년)에 나라를 팔아먹은 5놈의 역적이라는 뜻으로서 《을사5조약》을 찬성해나선 학부대신 리완용, 내부대신 리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군부대신 리근택,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을 말한다.

#### (3) 《정미7조약》의 날조

일제는 1907년《헤그밀사사건》의 책임을 고종에게 넘겨씌워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압력을 가하는 한편 리완용을 부추겨 《정미7조약》이라는 침략문서를 날조하였다.

이 《조약》은 리조정부가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통감》의 사전승인을 받을데 대한 문제,《통감》이 추천하는 일본놈을 조선정부의 관리로 임명할데 대한 문제 등 조선의 내정권을 일본이 완전히 틀어쥐기 위한 강도적인 문건이다.

이 《조약》도 고종이 왕위에서 물러나지 않은 기간에 조작된것으로서 역시 왕의 비준과 수표도, 아무런 법적타당성도 없는 침략문건이였다.

#### (4) 조선군대의 강제해산

일제침략자들은 1907년 8월 1일 서울의 조선군인들을 무장이 없이 훈련원에 모이게 하고는 군대를 해산하라는 날조된 왕의 《명령》을 발표하고 강제해산시켰으며 이어 지방군대들도 해산시켜버리였다.

#### (5) 《한일합병조약》의 날조

일제는 1910년 8월《한일합병조약》을 조작하여 이미 1905년에 우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된 기정사실을 다시 확인해놓았다.

《한일합병조약》이 날조됨으로써 형식상으로나마 있었던 조선봉건정부와 《조선》이라는 국호마저도 완전히 없어지고말았다.

## 68. 반일의병투쟁

### 1) 반일의병투쟁의 시작과 중단

- 갑오농민전쟁이 실패한 후 여러곳에서 활동하던 농민무장대들은 점차 일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반일의병투쟁에로 넘어갔다.

- 애국적인 선비들도 자기 지방에서 의병대를 뭇고 투쟁에 나섰다.

첫 의병대는 1895년 7월 평안도 상원에서 김원교가 조직한 의병대였다.

- 1895년 8월 민비학살사건을 계기로 확대되였다.

대표적인 의병대는 류린석이 충청도 제천에서 조직한 부대였다.

류린석부대는 1896년 초 《8도의 여러 고을에 호소한다.》는 격문을 발표하고 충주성을 포위공격하여 거의 한달동안 성을 틀어쥐고

일제놈들의 여러차례 공격을 물리쳤다.

- 첫 단계의 반일의병투쟁은 1896년초부터 시작되였다가 그해 가을에 가서는 중단되였다.

그 원인은 의병장으로 나섰던 선비출신들의 유교도덕관에 기초한 계급적제한성에 있었다.

1896년 《아관파천》이후 국왕은 《란적(봉건정부안의 친일파들)이 소탕되고 나라의 원쑤를 갚았으니》의병대도 해산하라고《명령》하였다.

그러자 의병상층을 이루고있던 선비들은 왕의 명령이라 하여 부대를 해산하였던것이다.

**2) 반일의병투쟁의 재발과 앙양**

재발원인

- 1904년 로일전쟁을 일으킨 일본놈들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침략책동을 더욱 강화해나선데 있다.

- 1904년 2월 서울에서 조선군인들이 반일의병대를 무은데 이어 온 나라 각지에서 일어났다.

- 1905년 11월에 침략적인 《을사5조약》이 날조된것을 계기로 앙양되였다.

대표적인 의병대들의 투쟁은 충청도의 민종식의병대, 전라도의 최익현의병대, 경상도의 신돌석의병대의 투쟁이였다.

1906년 3월 충청도 정산군 천장리에서 조직된 민종식의병대는 이웃의병들과 합세하여 서천을 비롯한 여러 고을의 적들을 족쳤으며 5월 1 000여명의 력량으로 홍주성을 들이쳐 일제침략군을 물리치고 성을 10일간이나 점령하였다.

전라도 태인지방에 거점을 둔 최익현의병대는 100여명의 인원으로 1906년 6월 순창의 적통치기관을 들부시였으며 그후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견결히 싸웠다.

**3) 반일의병투쟁의 확대발전**

반일의병투쟁은 1907년 《정미7조약》의 조작과 조선군대강제해산을 계기로 전국적규모에서 확대발전되였다.

대표적인것은 함경도지방에서 활동한 홍범도의병부대의 투쟁이였다.

홍범도의병대는 1907년 11월《토벌》에 날뛰던 일제침략자들을 후치령에서 완전히 몰살시켰다.

뿐만아니라 1907년말~1908년 8월사이에는 갑산읍습격전투를 비롯한 37차의 전투를 벌려 일제놈들을 벌벌 떨게 하였다.

강원도의 리린영의병대활동도 적극적이였다.

리린영의병대는 1908년 11월 경기도 양구에서 서울공격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였다.

#### 4) 반일의병투쟁의 력사적의의와 실패원인

- 력사적의의

첫째로, 일제침략자들의 조선침략정책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는데 있다.

둘째로, 우리 인민의 강한 애국정신과 높은 투쟁기세를 보여주었다는데 있다.

- 실패원인

첫째로, 탁월한 지도자의 령도를 받지 못한데 있다.

둘째로, 통일적인 군사지휘체계가 없고 튼튼한 기지를 못가진것등 군사활동에서 부족점들이 있은데 있다.

셋째로, 일제와 봉건통치배들, 미영제국주의자들이 야합하였던 불리한 정세속에서 투쟁하여야 했던데도 있다.

**류린석(1842년-1915년)**

19세기말 - 20세기초에 활동한 유생출신의 애국적인 반일의병장이다.

강원도 춘천부 가정리에서 출생하여 청년시기부터 반침략애국사상을 지니고 활동하였다.

류린석은 1895년 충청도 제천에서 반일의병대를 조직하고 활동하다가 1907년이후 로씨야의 연해주로 들어가 반일활동을 벌렸으며 1910년 13도의병도총재가 되여 일제의 《한일합병》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1913년 관전현으로 이동하여 반일활동을 하다가 1915년에 사망하였다.

**홍범도(1868년-1943년)**

20세기초 풍산지대를 중심으로 활동한 반일의병장이다.

평양 외성에서 태여나 일찌기 부모를 잃고 머슴살이를 하다가 1887년에 군대에 뽑혔으며 황해도 수안군에서 금점로동도 하였다.

풍산, 삼수 등지에서 포수로서 사냥도 하고 농사도 하였다.

그는 1907년 포수들을 중심으로 하는 반일의병대를 조직하고 자체로 무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무장을 갖춘 의병대는 후치령전투, 삼수성전투, 갑산전투 등 많은 전투들에서 일본침략군을 련이어 섬멸하였다.

일제의 탄압으로 국내에서의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중국 동북지방과 로씨야 원동지방에서 투쟁을 계속하였다.

**헤그밀사사건**

1907년 6월 네데를란드의 헤그에서 열리는 제2차《만국평화대회》에 조선대표의 자격으로 참가하려고 갔던 밀사(리준)가 회의에 참가할수 없게 되자 회의장에서 배를 갈라 자결한 사건을 말한다.

그는 이 회의에 참가하여 《을사5조약》의 비법성을 세상에 폭로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인정을 얻는다면 빼앗긴 국권을 되찾을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국왕(고종)에게서 조선대표로 인정하는 비밀편지를 받아가지고 리상설, 리위종과 함께 밀사로 헤그에 갔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에게 그들의 의사가 통할리 없었다. 일제와 특히 그들이 환상을 가지고있던 미제의 책동으로 회의에 참가할수 없게 되자 리준은 칼로 배를 갈라 장렬하게 죽음으로써 일제에게 항거하여나섰다.

이 사건은 탁월한 지도자의 령도밑에 옳바른 투쟁방도를 가지고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투쟁으로 외세를 몰아내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었다.

## 69. 부르죠아《민권》운동과 애국문화운동

### 1) 부르죠아《민권》운동

① 부르죠아《민권》운동이란

자본주의제도가 발생하던 시기 봉건전제정치를 반대하고 부르죠아지의 정치적권리를 넓힐 목적으로 벌어지는 운동이다.

우리 나라에서 《민권》운동은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고 나라의 근대화를 위한 투쟁과정에 리상재, 남궁억, 정교 등 애국적지식인들에 의하여 시작되였다.

19세기말 《독립협회》의 조직과 활동, 만민공동회투쟁 등이 그러한 운동이였다.

② 《독립협회》조직과 《독립문》건설

1896년 7월 애국적인 지식인들은 서울에서 《독립협회》라는 정치

조직을 내왔다.

《독립협회》는 나라의 독립을 지킬것을 투쟁목적으로 삼고 활동한 우리 나라에서의 첫 근대적인 정치단체였다. 《독립협회》의 활동으로 1897년 《독립문》이 건설되고 독립공원을 꾸렸으며 《모화관》을 《독립회관》으로 고치고 인민들에게 독립사상을 심어주었다.

③ 만민공동회투쟁

- 1896년 9월 17일 서울시민들은 《국경수비대》로 기여든 미국불량배들을 쫓아내기 위한 시위투쟁을 벌렸다.

-10월 7일《7흉》이라고 부르던 악질적인 봉건정부의 대신들을 내쫓을것을 요구하였다.

- 1898년 10월 29일 서울 종로거리에서 부르죠아민권운동자들의 주최로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이 일어났다.

- 1898년 3월부터 힘차게 벌어지던 만민공동회투쟁은 안팎의 원쑤들의 탄압책동으로 12월에 가서 실패로 끝을 보았다.

### 2) 애국문화운동

① 애국문화운동이란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한 시기 애국적지식인들이 반일의병투쟁을 비롯한 인민들의 투쟁에 고무되여 대중계몽을 목적으로 벌린 애국적인 문화활동이다. 부르죠아《민권》운동에 이어 20세기초에 벌어졌다.

이들은 애국적인 정치단체들을 조직하고 출판, 교육, 국문운동 등을 벌려나갔다.

②《헌정연구회》의 조직과 활동

《헌정연구회》는 1905년 5월 리준 등이 나라의 근대적발전과 립헌군주제의 실시를 목적으로 조직하고 친일주구단체인 《일진회》를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③ 《대한자강회》와 《대한협회》의 활동

-《대한자강회》

1906년 3월 장지연 등이 교육과 산업을 발전시키며 자체로 나라를 강화할 목적밑에 조직하였다.

1년후에 25개의 군과 여러 지역에 지회를 둔 큰 조직으로 발전하였으며 잡지 《대한자강회월보》를 통하여 대중속에서 《조선의 넋을 배양》하는 사업을 벌리였다. 1907년 8월 일제의 탄압으로 해산되였다.

-《대한협회》

1907년 11월《대한자강회》를 이어 국권회복과 친일주구단체인《일진회》를 파탄시킬 목적으로 조직되였다.

1907년에 80여개의 지회와 수만명의 회원을 가진 큰 조직으로 확대되였고 잡지《대한협회》를 통하여 우리 나라 력사와 애국명장들을 소개하고 일제의 침략책동을 폭로하였다.

④《신민회》의 활동

1909년 량기탁, 신채호, 리동휘, 리승훈 등이 조작한 비밀정치단체이다.《신민회》는 대렬을 꾸리는 한편 출판물들을 통하여《일진회》와《을사5적》의 매국적죄행, 의병들의 투쟁소식을 실어 인민들의 반일투쟁정신을 북돋아주었다.

⑤ 애국적인 언론출판활동

박은식, 신채호, 주시경 등 애국문화운동자들은 19세기말부터 발행된《황성신문》,《제국신문》과 함께 새로《대한매일신문》,《조양보》등 수많은 신문, 잡지들을 발간하였다.

이 출판물들을 통하여 우선 일제와 그 앞잡이들의 죄행을 폭로규탄하였다.

다음으로 나라안팎의 새 소식과 력사이야기를 자주 실어 인민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었다.

또한 근대적인 국가를 세워야 할 필요성과 방도, 민족산업의 발전과 새 기술의 도입을 선전하였다.

⑥ 애국적인 교육활동

- 학회의 조직

학회들은 나라의 독립과 국권회복의 기초를 쌓기 위해 정치, 교육, 산업을 발전시킬것을 목적으로 하는 애국단체들이였다.

※ 대표적인 학회는 1906년 10월 서울에서 평안도, 황해도출신의 지식인들이 조직한《서우학회》이다.

기관잡지로《서우》를 발행하였다.

그 이후《한북흥학회》,《호서학회》등 수많은 학회들이 지방별로 조직되였는데《서우학회》와《한북흥학회》는 1908년 1월에《서북학회》로 통합되였다.

- 사립학교운동

애국문화운동자들은 나라의 독립도 사회의 근대화도 교육에 있다고 보고 도처에서 사립학교를 세우고 교육활동을 벌리였다.

대표적인 인물은 안창호, 리동휘, 리승훈, 리상재, 남궁억

1908년에 사립학교수는 3 000~5 000여교나 되였다.

⑦ 국문운동

우리 말과 글을 지키고 발전시키는것을 나라의 독립과 안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사업이 주시경 등에 의하여 힘있게 벌어졌다.

이것을 국문운동이라고 한다.

⑧《국채보상운동》

일제에게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우리 나라가 일본에 진 《빚》을 갚을 목적으로 1907~1908년사이에 벌어졌던 전국민적인 애국운동이다.

로일전쟁이후 일제놈들은 두 차례에 걸쳐 조선정부에 1 300만원의 《차관》(꾸어주는 돈)을 받도록 강박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빚더미우에 올려놓았다.

리준, 량기탁 등 애국지사들은 이 빚만 갚으면 국권도 회복하고 일제의 예속에서 벗어날것으로 보고 국채보상운동을 발기하였다.

이 운동은 1907년 2월 대구에서 애국문화운동자들이 담배를 끊고 그 돈을 모아서 나라의 빚을 갚는다는 뜻에서 《단연회》를 무은것으로 발단되였다.

이 운동은 삽시에 온 나라에 퍼져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빨리 국권을 되찾기 위해 술, 담배를 끊고 식찬을 줄이며 가산과 귀중품을 파는 등 수단을 다하여 보상금을 마련해나갔다.

당황한 일제는 국채보상운동의 지도자의 한 사람인 량기탁을 국채보상금《횡행죄》로 몰아 잡아가두고 1908년에 새로 2 000만원의 《차관》을 또 강제적으로 들이밀어 빚더미속에서 헤여날수 없게 만들었다.

이리하여 국채보상운동은 중단되고말았다.

## 70. 일제의 야만적《무단통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에서 세계력사상 류례없는 잔인무도한 총독정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을 야만적방법으로 통치하였습니다.》**

일제는 1910년 《한일합병조약》조작후 총독부를 내오고 《총독통

치》를 실시하였는데 그것은 《통감통치》보다 더 악랄하고 잔인무도하였다.

**1) 식민지통치기구와 군사경찰적폭압기구의 설치**

① 식민지통치기구의 강화

-《조선총독부》를 조작하였다.

- 또한 식민지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하였다.

1915년 4월현재 일제에 의하여 개편된 지방행정구역은 13도 12부 218군 2도(섬)였다.

② 군사경찰적폭압기구의 강화

- 우선 헌병경찰제도를 확립하였다.

※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나라의 경찰제도를 보면 헌병은 군사경찰의 임무를 말으며 경찰이 민사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여있다.

그러나 일제는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 헌병과 경찰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그에 대한 지휘체계를 단일화한 헌병경찰제도를 조작하였다.

일제는 1910년 10월 조선주둔 헌병대사령관 아까시놈을《조선총독부》경무총감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각 도의 헌병대장놈들이 각 도경무부장을 겸하게 하였다.

헌병경찰제도를 확립한 일제침략자들은 헌병경찰기관을 우리 나라의 곳곳에 배치하였다. 1918년에 헌병경찰기관수는 1 825개나 되였다.

헌병경찰들에게는 방대한 권한이 부여되였다.

실로 일제헌병경찰은 경찰인 동시에 검사, 재판관이였으며 행정관이였다.

- 다음으로 침략군대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전국에 늘여놓았다.

서울에 조선주둔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서울 룡산에 제20사단, 라남에 제19사단 본부를 두었으며 함흥, 회령, 평양, 대구에 련대와 대대를 두고 국경일대에는 수비대도 배치하였다.

- 다음으로 재판소, 감옥을 대대적으로 늘쿠었다.

1912년 《조선감옥령》을 발포하고 가장 야만적인 감옥제도를 세웠다.

1916년까지 본감옥은 9개, 분감옥은 13개, 감옥출장소는 3개를 만들어놓았다.

2) 일제의 정치적탄압, 민족문화말살정책, 경제적략탈정책

① 일제의 정치적탄압

우선 조선인민에게 털끝만 한 정치적자유와 권리도 주지 않았다.

또한 조선인민을 마구 잡아가두고 학살하였다.

1915년 일제가 조선인민을 검거투옥한 건수는 4만 8 643건, 1918년에 검거투옥한 사람은 14만 2 000명이나 되였다.

②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

- 민족어말살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 식민지노예교육을 강요하였다.
- 조선력사를 외곡날조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파괴략탈을 감행하였다.

※ 일제는 1910년 편찬하기 시작한《조선반도사》에서 일본사람과 조선사람의 조상이 갈다는 허황하기짝이 없는《일선동조론》을 꾸며냈으며 이른바《외인론》(조선력사가 외부적요인에 의해 발전하였다는 반동리론)과 조선력사 발전의 《정체성》에 관한 《학설》을 되풀이하였다.

※ 1915년에 일제는 희귀한 문화재 4만 2 020점을 《연구자료》로 쓴다는 구실밑에 빼앗아갔다.

일제는 국보적의의를 가지는《리조실록》을 비롯한 수많은 민족고전들과 민족악기, 악곡, 무용복, 금은세공품, 공예품, 주옥제품 등 귀중한 문화재들을 닥치는대로 략탈하였다.

③ 일제의 경제적략탈

- 토지략탈

일제는 1910년-1918년까지《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농민들의 토지를 대대적으로 략탈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은 사기와 협잡,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여러가지 까다로운 《규정》들을 만들어놓고는 그것을 구실로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아냈다.

- 민족산업의 억제와 자원략탈

일제는 1910년 12월에《회사령》을, 1915년 12월에《조선광업령》을 발포하여 민족산업을 억제하고 자원을 략탈하였다.

※ 1910년대에 들어와 10년동안에 일본광업자의 광구수가 해마다 늘어나

1921년에는 우리 나라 전체 광구수의 85.2%에 이르렀다.

따라서 조선에서 략탈해간 주요지하자원총액은 1914년에 1 141만 9 367원이던것이 1916년에는 2 269만 4 966원으로 늘어났다.

일제는 수산자원을 략탈하기 위하여 《어업령》을, 《림야조사사업》을 통하여 많은 산림자원을 략탈하였다.

## 71. 3.1인민봉기

### 1) 3.1인민봉기의 폭발과 확대발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19년 3월 1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 <조선독립 만세!>의 구호를 소리높이 웨치면서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전민족적투쟁을 전개한 날이며 우리 민족이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준 날입니다.》**

① 폭발원인

일제의 야만적인 《무단통치》를 반대한 조선인민의 쌓이고쌓인 원한과 울분이 폭발한것이였다.

② 평양과 서울에서의 봉기

- 평양에서는 낮 12시에 수천명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이 종소리를 신호로 하여 장대재에 있는 숭실녀학교운동장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랑독하고 조선이 독립국가라는것을 선포한 다음《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조선독립 만세!》구호를 부르며 가두시위를 벌리는것으로부터 시작되여 대오는 순식간에 10여만명으로 늘어났다.

만경대와 칠골인민들도 평양성으로 밀려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덟살의 어리신 나이에 시위대렬에 참가하시여 만세를 부르시며 보통문앞까지 가시였다.

시위군중들은 달려드는 일제기마경찰대와 군대들을 맞받아 계속 전진하면서 놈들과 용감히 싸웠다.

- 이날 서울에서는 탑골공원에 모여든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이 오후 2시 30분 청년학생대표가 《독립선언서》를 랑독하고 조선이 자주독립국가라는것을 선포한 다음《조선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행진에 나선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시위군중은 거리에 달려나온 각계각층 군중들, 고종왕의 장례식을

보려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까지 합쳐 수십만명으로 늘어났다.

일제는 서울시의 경찰무력은 물론 일본군까지 동원하여 야수적으로 탄압하여나섰으나 시위자들은 피바다속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③ 3.1인민봉기의 확대발전

3.1인민봉기의 불길은 평양, 서울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 등지에서도 세차게 타올랐으며 도시로부터 농촌으로 퍼져나갔다.

폭동군중은 도처에서 도끼, 낫, 몽둥이를 들고 일제의 통치기관들을 들이치고 일제놈들과 그 앞잡이들을 처단하였다.

봉기는 3월 중순-4월 하순에 절정에 달했으며 국내뿐아니라 해외의 조선동포들에게까지 확대되였다.

### 2) 3.1인민봉기의 실패와 교훈

① 일제의 야수적탄압과 봉기의 실패

우선 일제는 3.1인민봉기를 탄압하기 위해 라남 19사단과 룡산 20사단무력과 헌병경찰무력을 다 동원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일본본토군 6개 대대와 헌병 400여명을 더 동원하였다.

또한 일제는 거리와 마을을 불사르고 야수적방법으로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3.1인민봉기 전기간에 일제의 총칼에 맞아 쓰러진 사람은 10여만명이였다.

또한 일제놈들은 대대적인 검거선풍을 일으켜 수많은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잡아가두고 가혹한 형벌과 고문을 가하였다.

미제는 3.1인민봉기를 중상모독하면서 그를 무력으로 사정없이 족쳐야 한다고 일제놈들을 부추겼다. 또한 미제는 일제의 학살만행을 감싸주었다.

② 실패의 원인과 교훈, 력사적의의

실패원인

- 탁월한 수령의 령도, 혁명적인 계급과 혁명적인 당의 령도를 받지 못한데 있다.

- 다음으로 이 봉기를 지도한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의 계급적제한

성과 배신행위에 있었다.

※ 부르죠아민족주의상층은 미국대통령 윌슨이 내놓은《민족자결론》에 환상을 가지고 어리석게도 미제를 비롯한 렬강들에게 《청원》하는 방법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3.1인민봉기의 성격을 비폭력적인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봉기가 대중투쟁으로 확대되는데 겁을 먹고는 군중과의 약속을 줴버리고 일제에게 투항하고말았다.

교훈

· 인민대중이 투쟁에서 승리하자면 탁월한 수령과 혁명적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이 하는 방법대로는 나라의 독립도 인민의 자유와 해방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3.1인민봉기를 계기로 부르죠아민족주의운동은 종말을 고하고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력사적의의

· 조선인민의 자주정신과 애국정신, 불굴의 기상을 온 세상에 과시한데 있다.

·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각성을 비상히 높여준데 있다.

· 다른 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 72. 일제의 교활한 《문화통치》

### 1) 일제가 《문화통치》를 표방하게 된 원인

1910년대 일제가 조선에서 실시한 《무단통치》는 구식민주의통치방법에서도 가장 포악하고 야만적인것이였다.

그러므로 일제의《무단통치》의 실시는 조선인민은 더 말할것도 없고 세계적인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이로부터 교활한 일제는 3.1봉기를 계기로 조선에서 식민지통치방법을 바꾸어 《문화통치》를 표방해나섬으로써 마치 그 무슨《선심》이라도 쓰는듯이 가장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인민과 세계여론을 기만하려고 하였다.

### 2)《문화통치》의 기만적내용

①《무단통치》시기까지 일제는 륙해군대장만 할수 있다던 총독자

리에 기만적으로 민간인도 오를수 있다고 하였다.

②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바꾸어 포악성을 가리우려하였다.

③《민의창달》의 기만적구호를 내걸어 민주주의를 실시하는듯이 위장하였다.

※**《민의창달》-** 소위 인민들의 의사가 자유롭게 반영된다는 뜻

《문화통치》는 철두철미 조선인민을 속이기 위한 얼림수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은

① 조선총독자리에 민간인도 앉힌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총독이 된자들이 모두 악독한 군부출신뿐이였다는데서 알수 있다.

②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바꾼다는 간판밑에 경찰기관과 인원들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고등경찰(비밀경찰)을 새로 내오는 한편 밀정망을 늘여 조선사람의 모든 행동을 물샐틈없이 감시하게 한데서 나타났다.

③ 조선사람을 정치에 참여시킨다는 명목으로 친일파, 민족반역자 몇명을 끌어들여 꼭두각시로 앉혀놓고 실제적권력은 제놈들이 다 틀어쥔데서 알수 있다.

④ 《동아일보》,《조선일보》와 같은 조선말로 된 신문, 잡지도 몇종 내게 하였지만 엄격한 검열제도를 실시하여 제놈들에게 저촉될 때에는 삭제, 배포금지시키는 등 자기들의 어용출판물로 만들려고 한데서도 알수 있다.

### 3) 《문화통치》의 간판밑에 감행된 식민지파쑈통치

① 정치적폭압과 학살만행

일제는 1925년 5월《치안유지법》을 조작하여 그것을 휘둘러 우리 인민에 대한 탄압과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1920년 10월《경신년간도대토벌》, 1923년 9월《간또대지진사건》, 1925년 6월에 체결된《미쯔야협정》을 통해 국외에서 조선인민에 대한 탄압,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 《경신년간도대토벌》**

1920(경신)년에 일제가 독립군을 《토벌》한다는 구실로 동만에서 3만명의 조선사람들을 학살하고 6 000여호의 집을 불태워버린 야수적만행을 말한다.

3.1인민봉기이후 독립군부대들은 무장투쟁을 본격적으로 벌리기 시작하였다.

홍범도독립군은 1919년 8월과 10월 북부국경지대에 진출하여 여러번 일제 침략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일제는 1920년 여름 독립군을《토벌》하기 위해 왕청현 봉오골에 기여들었는데 여기서도 된타격을 받고 120여명이나 살상되였다.

이에 악이 받친 놈들은《토벌》을 본격화하기 위해《훈춘사건》이라는것을 꾸며냈다.

《훈춘사건》이라는것은 일제가 비적들을 매수하여 훈춘에 있는 제놈들의 령사관을《습격》하게 하고는 그것을 독립군의 소행으로 날조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구실로 씨비리에 출동하였던 제놈들의 병력과 19사단의 한개 련대, 함경북도 경찰대 등 많은 무력을 훈춘, 왕청, 화룡일대에 들이밀었다.

일제는 이르는 곳마다에서 불바다, 피바다에 잠그어 조선사람들 3만명이나 학살하였다. 이것을《경신년간도대토벌》이라고 한다.

**※ 간또대지진때의 대학살만행**

1923년 9월 일본 간또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정치경제적혼란과 위기가 조성되였다.

일본반동정부는 그 책임을 재일조선동포들에게 넘겨씌워 일본인들의 반정부기운을 조선사람들에게 돌리여 조선사람을 배척하며 증오하게 하여 조선인 대학살을 계획적으로 조작하였다.

놈들은《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집에 불을 지르고 우물에 독약을 친다.》는 소문을 무전소를 통하여 전국에 퍼뜨렸다.

그리고 수만명의 군대, 헌병, 경찰을 동원하여 2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잡아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하였다.

② 경제적략탈과 착취의 강화

일제는 산업에 대한 독점과 략탈, 농촌에 대한 수탈 등 경제적략탈과 착취를 강화하였다.

③ 식민지노예교육과 민족문화말살정책의 실시

사립학교도 세우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미 있던 학교들을 온갖 구실을 붙여 문을 닫게 하였다.

또한 민족문화유산을 파괴략탈하였다.

## 독립군운동

### 1) 독립군부대들의 조직과 활동

① 조직

3.1인민봉기를 계기로 독립군부대들을 뭇고 반일의병투쟁의 계속으로서 무장활동을 벌리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독립군부대들

《대한독립군》-간도지방에서 홍범도 등이 조직

《대한국민회군》-간도지방에서 안무 등이 조직

《군무도독부》-간도에서 최진동 등이 조직

《북로군정서》의 부대-간도에서 서일 등이 조직

이밖에 연해주지방에서도 여러개의 독립군이 조직되였다.

독립군운동단체들

남만지방에서는《한족회》,《독립단》,《독립군려단》,《태극단》을 비롯하여 20여개

동만에서는 《대한광복단》을 비롯하여 20여개

북만에서는 《혈성단》,《대한독립결사대》

중국 상해에서는 《구국보험단》등 여러 단체들이 조직되였다.

② 활동

· 1919년 8월 갑산, 혜산일대에서 전투

· 1919년 10월 강계, 만포, 자성일대에서 전투

· 1920년 6월 4일 왕청현 봉오골전투에서 120명의 적을 살상하였다.

· 1920년 10월 21일 화룡현 청산리전투에서 적련대장놈을 포함한 10여명의 장교들과 수백명의 일제침략군을 소멸하였다.

일제는 1920년 10월 2일 《훈춘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경신년간도대토벌》로 독립군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였다.

**[《흑하사변》(자유시사변)]**

일제의 조선독립군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작전이 로골화되고있던 1921년 《흑하사변》이 있었다.

흑하사변이란 1921년 중국과 로씨야의 국경지대에 있는 흑

하시(자유시)에서 독립군부대들사이에 있었던 류혈적인 무장충돌사건을 말한다.

1920년 10월 홍범도독립군이 화룡현 청산리전투에서 일제침략자들에게 또다시 된타격을 가하고 승리를 거둔 후 독립군부대들은 더욱 강화되는 일제의 《토벌》을 피하여 북만의 로씨야-중국국경지방으로 옮겨갔다.

이들은 여기에서 다시 력량을 추세워가지고 일제와 싸우려 하였다. 그런데 연해주 등지에서 온 독립군부대들과 중국동북일대에서 활동하던 독립군우두머리들이 두갈래로 나뉘여 류혈적인 무장충돌을 벌리였다.

《흑하사변》을 계기로 독립군운동은 추서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말았다.

**[민족개량주의의 출현]**

- 민족개량주의란 일제의 식민지통치테두리안에서 교육과 산업을 《발전》시켜 《실력》을 키우고 《민족성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나라를 독립시킬수 있다고 보는 사상이다.

-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이 민족개량주의자로 전락되게 된 원인은

· 일제의 탄압에 겁을 먹고 그놈들과 타협한데 있다.

· 일제의 교활한 《문화통치》에 대한 환상과 일제의 매수정책에 있다.

· 로동자, 농민들의 혁명적진출을 두려워한데 있다.

민족개량주의자들은 제국주의식민주의자들에게 매수되여 일제식민지통치를 안받침해주는 민족반역자들이였다.

**[해외부르죠아민족운동상층분자들의 매국배족행위]**

해외에 있던 부르죠아운동의 상층부들은 1919년 4월에 중국 상해에서 이른바 《림시정부》라는것을 꾸몄는데 그안에서 《자치파》니,《독립파》니 하는 파벌들이 나와서 권력싸움을 벌리였다.

강대국들에 독립을 구걸하러 다니는 사대주의적망동을 부렸다.

운동자금을 모아들여 탕진하면서 세력지반을 넓히기 위해 책동하였다. 이처럼 부르죠아민족운동상층분자들의 부패타락한 매국배족행위는 독립군운동의 와해와 함께 우리 나라 부르죠아민족운동의 쇠퇴몰락을 가져왔다.

## 73. 3.1인민봉기후 대중운동의 장성과 초기공산주의운동

3.1인민봉기후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은 부르죠아민족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 점차 로동계급의 선진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 1) 3.1인민봉기후 대중운동의 장성

#### (1) 대중단체들의 조직

1920년 4월에 《조선로동공제회》가, 1924년 4월에는 《조선로농총동맹》이 조직되고 각지에 농민단체로서 《소작인조합》, 《농우회》, 《농민공제회》가, 청년단체로서는 《조선청년총동맹》이 조직되였다.

#### (2)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의 투쟁

① 로동자들의 투쟁

· 1923년 7월 서울고무공장녀성로동자들의 파업

· 평양양말공장로동자들의 동맹파업

· 군산정미공장로동자들의 총파업

· 평양인쇄공장로동자들의 파업

② 농민들의 투쟁

· 1924년 재령 나무리벌농민들의 대규모적인 투쟁

· 무안군 암태도 농민들의 투쟁

③ 청년학생들의 투쟁

청년학생들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노예교육을 반대하는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 2) 초기공산주의운동

#### (1) 조선공산당창건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제한성

① 조선공산당의 창건

3.1인민봉기이후 맑스-레닌주의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였다.

그러면서 대중단체들이 무어지고 로동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이 장성하였다.

이 과정에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창건되였다.

공산당창건은 로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과 민족해방

운동의 발전을 추동하였다.

②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제한성

- 우선 공산주의자들이 대중과 리탈되여 령도권싸움과 말공부만 하면서 실지 혁명투쟁에 대중을 불러일으키지 않은것이였다.

- 다음으로 그 제한성은 공산주의운동안에서 발생한 종파주의를 극복하지 못한것이다.

초기공산주의운동안에 종파주의가 발생하게 된것은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밑에 로동운동이 앙양되고 맑스-레닌주의가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던 때에 부르죠아지, 소부르죠아인테리, 몰락한 량반층 인테리들이 맑스-레닌주의간판을 들고 혁명운동대렬에 끼여들었기때문이였다.

초기공산주의운동안에 발생한 종파는《화요파》,《서울파》,《엠엘파》,《서상파》등이였다.

**※ 화요파**

1922년 3월에 조직된《무산자동맹》의 관계자들이《이르꾸쯔크파》와 종파적으로 결탁되여 1923년 5월에《신사상연구회》를 조직하였으며 1924년 11월에 그의 이름을 맑스가 탄생한 화요일을 본따서《화요파》로 고쳤다.

이 파는《혁청당》,《용진당》과 같은 테로단을 만들어 다른 파에 폭행을 가하는 비렬한 행위까지 감행하였다.

미제의 고용간첩이며 반당반혁명종파분자 박헌영도《화요파》계렬의 종파분자였다.

**※ 서울파**

1921년 1월 서울에서 조직된《서울청년회》계통의 김사주, 라영, 최창익과 같은자들로 형성된 종파이다.

1925년말에 서울파는 내부에서 자리다툼에 몰두하면서《신파》와《구파》로 갈라지고 신파는 다른 종파들과 결탁하여《엠엘파》를 , 구파는《상해파》와 결탁하여《서상파》를 형성하였다.

**※ 엠엘파**

1926년 4월에 서울에서 최창익을 두목으로 하는 서울 신파와《고려공청만주총국》의 일부《1월회》성원들이 결탁하여 만들어졌다.

《고려공청만주총국》은《이르꾸쯔크파》관계자들의 한 계렬로 조직된 종파집단이다. 서울파의 일부가 이자들과 결탁하여《레닌주의자동맹》을 만들고

여기에 《1월회》성원들을 인입하였다. 이것이 소위 《엠엘파》이다.

※ **서상파**

1927년 12월 서울에서 서울 구파와 《상해파》가 결탁되여 형성되였다. 이 파는 자기들끼리 따로 《당대회》를 소집하여 《지도부》를 구성하고 《엠엘파》의 《지도부》와 맞섰다.

종파분자들의 죄악

파벌을 형성하고 서로《령도권》싸움을 벌리면서 공산주의대렬을 산산이 분렬시키고 로동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말아먹었으며 사대주의를 퍼뜨리는 등 막대한 해독적작용을 하였다.

③ 조선공산당의 해산

종파분자들의 파벌싸움과 일제의 탄압으로 조선공산당은 1928년에 해산되였다. 이처럼 1920년대 초기공산주의운동이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게 된것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가 없었기때문이였다.

이러한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제한성은 1926년에 벌어진 6.10만세시위투쟁에서 잘 나타났다.

## 6.10만세시위투쟁

1926년 6.10만세시위투쟁은 초기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대중적인 반일시위투쟁이였다.

① 초기공산주의자들에 의한 6.10만세시위투쟁의 준비

1926년 4월에 초기공산주의자들은 인민들의 반일기세에 편승하여 전국적인 반일시위투쟁을 벌릴것을 계획하고 그 준비를 비밀리에 추진하였다. 서울인쇄공장로동자들과 청년학생들은 5만여매의 삐라와 격문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종파들에 의해 일제경찰에 밀고되고 준비위원회관계자들이 체포투옥됨으로써 면밀히 준비될수 없었다.

② 6.10만세반일시위

6월 10일 리조 마지막왕이였던 순종의 장례행렬을 보기 위해 나섰던 서울시민들은 망국의 설음을 터뜨리였고 일제경찰이 탄압하자 반일시위투쟁에로 넘어갔다.

시위투쟁에 떨쳐나선 서울시민들은 무장한 일제경찰과 류혈적인 격투를 벌리였다.

순종의 장례행렬이 서울 종로를 지나갈 때 수만명의 시민들이 《조선독립 만세!》, 《일본군대는 물러가라!》, 《조선독립운동자들은 단결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렸다.

보통학교학생들까지 시위에 떨쳐나섰다.

일제군경들은 총을 미친듯이 쏘아대며 시위자들을 탄압하였다.

격노한 군중은 맨주먹으로 무장한 원쑤들을 때려눕혔다.

이날 인천을 비롯한 여러 지방에서도 시위투쟁이 벌어졌다.

③ 6.10만세시위투쟁의 실패와 그 교훈

일제경찰에 의하여 이날 시위자 180여명이 부상당하고 300여명의 공산주의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체포되였으며 시위자들은 일제의 야수적 탄압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참으로 종파행위는 이 투쟁을 말아먹은 기본화근이였다.

이 투쟁을 지도하면서 화요파는 저들의 종파적목적에서 조직사업을 하고 서울파는 이에 대립하여 방해공작을 하였다.

6.10만세운동은 종파를 극복함이 없이는 공산주의운동의 발전은 물론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승리도 이룩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것은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탁월한 수령이 없었기때문이였다.

### 광주학생사건

1920년대말-1930년대초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의 혁명적진출은 더욱 강화되였다.

그 대표적인것이 원산, 신흥, 단천, 광주에서의 투쟁들이다.

광주학생사건은 1929년 10월 30일 전라남도 광주-라주사이의 기차안에서 일본 남학생들이 조선녀학생을 모욕한것을 계기로 일어났다.

- 투쟁

○ 처음 광주역에서 조선인통학생들과 일본학생들사이에 충돌이 있었는데 일본경찰들은 조선학생들을 때리고 잡아가두었으며 300여명의 일본놈 중학교 교직원학생들은 보총까지 들고 조선인통학생들을 습격하

였다.

조선인학생 200여명은 맨주먹으로 격투를 벌려 놈들에게 보복을 안기였다.

11월 3일 광주학생들은 일제히 동맹휴학을 단행하고《일제를 타도하자!》,《식민지노예교육제도를 철폐하라!》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반일시위를 벌리였다.

이날 그들은 자기들의 정당한 투쟁을 모독하는 글을 낸 광주일보사를 습격하였다.

○ 11일에 학생들은 달려드는 일제경찰대, 소방대와 맞서 치렬한 싸움을 벌리였다.

○ 광주학생들의 투쟁의 불길은 전국에 퍼져갔다.

각지에서 6만여명의 청년학생들의 동맹휴학과 반일시위가 6개월동안이나 줄기차게 벌어졌다.

- 광주학생운동의 의의

1920년대말-1930년대초 청년학생들의 대중적진출의 첫 신호로서 국내외 청소년학생들의 반일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는데 있다.

## 74. 19세기 후반기-20세기초의 문화

### 1. 과학과 기술

이 시기에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의학, 농학, 수학, 지리학, 력사학등이 일정하게 발전하였다.

**※ 리제마(1837년-1900년)와 《4상의학설》**

리제마는 19세기 4상의학설을 내놓은 의학자이다.

함경남도 함흥의 가난한 농민의 가정에서 나서 어려서부터 유교서적들, 국내외의 의학서적을 많이 읽었다. 한때 벼슬을 하다가 그만두고 림상활동을 꾸준히 벌리면서 4상의학연구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이 과정에 그는 환자의 체질과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같은 병일지라도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며 약물에 대한 반응도 다르다는것을 밝히고 사람을 그에 따라 4가지 형으로 가르고 예방치료를 하는 방법(《4상의학설》)을 내놓았다.

4상의학설은 《동의수세보원》(4권)이라는 의학책에 집대성하여 1894년에 세상에 내놓았다.

※ **신채호(1880년-1936년)**

20세기초 애국문화운동가, 력사가, 문학가이다.

충청북도 문의군의 봉건유생집에서 출생한 그는 20살 때 리조봉건국가의 최고교육기관인 성균관에서 박사벼슬을 하였다.

그는 19세기말-20세기초에 민족적위기가 더욱 격화되자 벼슬살이를 그만두고 반일투쟁무대에 나섰다.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 신문들과 《서우》, 《서북학회일보》 등 잡지를 통해 인민들을 민족적으로 각성시키였으며 많은 력사책들을 썼다.

1907년 9월 《신민회》를 조직하는데도 참가하였다.

일제의 탄압으로 로씨야 연해주로 망명하여 활동하였다.

그후 그는 자신의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반일의병운동 등 적극적인 반일투쟁에는 참가하지 못했다.

1936년 3월에 옥사하였다.

### 2. 문학과 음악

이 시기 문학과 음악은 반침략반봉건투쟁과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한 주제로 된 작품이 많이 창작되였다.

문학형식에서 가사, 시, 민요, 참요, 동요, 구전설화, 전기, 우화, 소설, 정치소설 등 다양하게 창작되였다.

특히 이 시기에 나라의 자주독립과 문명개화를 지향하여 낡은 봉건사상과 풍속에서 벗어나 근대적사상과 지식을 깨우치기 위한 애국적이고 진보적인 계몽기문학작품들이 나왔다.

그리고 1920년대 전반기에는 새로운 문학조류로서 프로레타리아기치를 든 신경향파문학이 출현하였다.

신경향파문학의 대표작으로는 《탈출기》, 《박돌의 죽음》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신경향파문학이 발전하여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이 발생하였다.

1925년에 결성된 《카프》에 망라된 조명희, 송영, 리기영, 박세영, 박팔양 등 작가들에 의하여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작품들인 《황혼》, 《고향》, 《락동강》, 《일체 면회를 거절하라》, 《산제비》, 《진달래》 등 많은 작품이 나왔다.

음악에서는 창가와 창극이 새롭게 발생발전하였다.

창가로서 《병정가》, 《의병대가》, 《흥타령》, 《닐리리야》, 《압록강의 노래》 등 대표적 음악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였다.

창극은 극형식의 음악으로서《협률사》라는 창극단체가 나오면서 발생하였다.

대표작은 《춘향전》, 《심청전》이다.

※ **홍란파**

애국적인 음악가이며 문학가이다.

경기도 수원에서 태여나 어릴 때부터 음악을 즐겨하였다. 1925년 제1회 바이올린독주회를 가지였으며 우리 나라 최초의 음악잡지 《음악계》를 발간하였다.

문학에도 조예가 깊고 《처녀의 춤》, 《폭풍이 지난 뒤》 등 여러편의 소설을 발표하였다. 그후 그는 일본, 미국 등지에 다니며 음악공부를 하고 조국에 돌아와 처음으로 관현악단을 조직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은 《봉선화》,《고향의 봄》 등이다.

## 조선민속명절풍습

○ 민족적생활풍습이란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이루어지고 전통적인 관습으로 굳어진 민족적인 생활풍습이라고 할수 있다. 생활풍습에는 크게 로동생활풍습, 식생활풍습, 민속명절풍습, 가족생활풍습 등이 있다.

생활풍습은 민속명절을 쇠는데서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우리의 대표적인 민속명절들은 설명절, 정월대보름, 추석(한가위), 동지 등이며 이러한 명절때에 음식과 놀이에서 우리 민족풍습이 잘 나타난다.

○ 설날 아이들은 색동저고리로, 녀성들은 조선치마저고리로 민족옷차림을 하며 집안과 이웃의 나이 많은 어른에게부터 세배를 하였다.

오늘날 세배(설인사)는 제일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동상이나 초상화앞에서 인사드리는것으로부터 시작하고있다.

설명절음식은 찰떡, 설기떡, 떡국, 만두국, 지짐, 수정과, 식혜, 고기구이, 당과류, 과일, 술 등이다.

설날의 민속놀이는 윷놀이, 장기, 널뛰기, 연띄우기, 썰매타기, 바람개비놀이, 팽이치기, 제기차기 등이다.

○ 정월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이다.

그 이름은 새해 첫달에 맞는 보름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였다.

이날에는 마른 나물 9가지로 반찬을 만들고 오곡밥과 엿을 만들어 먹었다.

저녁에는 보름달을 먼저 구경하기 위해 남녀로소가 언덕으로 떨쳐나서며 여러가지 놀이를 하였다.

○ 추석(한가위)은 음력 8월 15일이다.

이날은 햇쌀에 녹두, 팥, 콩 등 햇곡식으로 음식을 해가지고 가족별로 조상들의 묘지를 찾아 손질하고 제사하였다.

한가위를 상징하는 음식은 송편이며 찰떡, 시루떡, 찹쌀술 등과 사과, 배, 대추, 포도, 밤 등 과일도 다양하게 먹으며 즐기였다.

○ 조선민속풍습의 중요한 특징은 우리 인민이 재물이나 권력보다도 도덕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선량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것을 지향한것이다.

## 상식 및 용어해설

**[력사지명 몇가지]**

### 관동지방과 관서지방

고려때에는 철령을, 리조때에는 태백산줄기를 경계로 그 동쪽을 관동(또는 령동), 서쪽을 관서(또는 령서)지방이라고 하였다.

### 령남지방

소백산줄기의 죽령이남지역 즉 경상남북도, 대구시, 부산시지역이다.

### 호서지방과 호남지방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의림호의 서쪽지역을 호서, 그 남쪽지방인 전라남북도지역을 호남지방이라고 한다.

### 삼남지방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지역이다.

**《조선8경》**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경치 아름다운 8개의 지역과 대상을 8경이라고 불러왔다.

《조선8경》은 백두산, 평양, 금강산, 묘향산, 부전고원, 불국사, 지리산, 해운대이다.

**《관동8경》**

원산의 명사십리, 통천의 총석정, 고성의 삼일포, 간성의 청간정, 양양의 락산사, 강릉의 경포대, 삼척의 죽서루, 울진의 망양정이다.(루각과 정자를 중심으로 할 때에는 명사십리대신 평해의 월송정을 꼽는다.)

**《관서8경》**

평양의 련광정, 강계의 인풍루, 만포의 세검정, 녕변의 약산동대, 안주의 백상루, 의주의 통군정, 선천(현재 동림군)의 동림폭포, 성천의 강선루이다.

**도의 딴이름**

평안도는 관서, 함경도는 관북, 강원도는 관동, 황해도는 해서, 충청도는 호서, 경상도는 령남, 경기도와 충청도를 기호, 평안도와 황해도를 량서, 충청도와 전라도를 량호, 전라도와 경상도를 량남이라고 불렀다.

**남도, 북도, 좌도, 우도**

리조시기 일부 도들을 나누어 부른 이름이다.

함경도는 마천령을 경계로 남도(남관), 북도(북관)라 하였다.

충청도는 금강을 경계로 그 좌안을 좌도, 우안을 우도로, 전라도는 로령을 경계로 그 남쪽을 좌도, 북쪽을 우도로, 경상도는 락동강을 경계로 그 좌안을 좌도, 우안을 우도로 불렀다.

**[민족종교 천도교(동학)]**

1860년 4월 최제우가 그 교리를 발표한 우리 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민족종교이다.

경상도의 몰락한 량반출신인 최제우는 6살에 어머니를, 16살에는

아버지를 잃고 20년간 전국을 방랑하면서 봉건적악정과 악페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자고 모색하던 끝에 천도교를 만들어냈다. 최제우는 천도교를 서양종교인 서학(카톨릭교)에 대치시켜 동방에서 사는 조선사람의 종교라는 의미에서 동학이라고 하였다.

천도교는 유교나 그리스도교처럼 허황한《하느님》, 신을 믿는것이 아니라《사람이 곧 하늘》(인내천)이라 하면서 사람의 능력을 귀중히 여기자고 하였다.

또한 외래침략을 막고 나라를 지키며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보국안민》의 구호를 내놓았다.

이처럼 동학은 애국적이고 진보적인것이기는 하나 종교적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 [리조시기 관직 몇가지]

#### 정승

리조봉건국가의 최고통치기관인 의정부의 령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말한다.

령의정은 정부수반급, 좌의정과 우의정은 부수반급관리였다.

#### 3당상

리조봉건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인 6조의 당상관들인 판서, 참판, 참의를 말한다. 판서는 해당 조의 장관, 참판은 부장관, 참의는 그아래 고관이였다. 그들을 부를 때에는《리조판서》,《병조참판》,《례조참의》 등으로 해당 기관이름과 함께 불렀다.

#### 관찰사(감사)

각 도의 장관, 방백이라고도 하였다.

#### 병마절도사(병사)

각 도의 륙군군사지휘관, 각 도에 1~3명을 두었는데 그중 1명은 관찰사가 겸임하였다.

**수군절도사(수사)**

각 도의 수군함대지휘관, 각 도에 1~3명, 그중 1명을 관찰사가 겸임하였다.

**수군통제사**

경상, 전라, 충청 3도의 수군 총지휘관이였다. (일명 3도수군통제사)

**도체찰사**

국가무력동원시에 림시로 행정군사적권한을 주어 지방에 파견하던 최고위급관리였다. 정승급에서 파견하였다.

**순변사**

군사적임무를 가지고 지방 특히 변방에 림시로 파견되던 중앙관리였다.

**순무사**

농민폭동 또는 지배계급내부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지방에 림시로 파견되던 중앙관리였다.

안핵사

지방에서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파견되던 관리였다.

**부사**

대도호부, 도호부의 최고장관이였다.

**현령, 현감**

현령은 큰 현의 원, 현감은 작은 현의 원(원은 군수와 같은 의미)이였다.

**암행어사**

리조시기 왕의 명령으로 비밀리에 주민들의 동태와 관리들의 행정사업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하던 관리였다.

암행어사에게는 사태가 엄중할 때 모든 문제를 현지에서 자기 결심에 의하여 국왕의 명의로 처리할수 있는 큰 권한이 부여되였다.

18~19세기에 가혹한 봉건적착취와 탐관오리들의 전횡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일어나자 봉건통치배들은 인민들의 투쟁을 억제하며 봉건통치를 강화할 목적으로 자주 암행어사를 파견하였다.

그들은 봉건왕권을 침해하고 봉건통치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지방관리들을 적발하여 처벌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자기와 같은 당파에 속하거나 이러저러하게 인연이 있는 집안출신의 관리들을 두둔하고 세력없는 관리들의 허물을 들추어내는것이 보통 현상이였으며 더구나 인민들의 리익을 위한 문제처리는 전혀 할수 없었다.

**[역참제도]**

리조봉건시대에 국가의 통신과 관리들의 려행, 공물, 진상물자의 운반 등을 보장하던 봉건국가의 교통운수통신제도.

고려때에는 수도(개경)를 중심으로 하여 22개의 길에 525개의 역이 속해있었다. 리조시기에는 역참을 30리마다에 하나씩 설치하는 원칙이였으므로 500개 역참의 총 연장길이가 대체로 1만 5 000리였다.

역참들에서는 려행하는 관리들에게 역마를 보장해주었다. 각 도들에서 국왕에게 보고할 일이 있거나 공물이나 진상물자를 보낼 때에도 역마를 리용하여 물건을 전달하거나 짐을 운반하였다.

역참제도는 1895년에 페지되고 다음해부터 일부 지역에 철도가 부설됨으로써 낡은 교통운수제도는 완전히 페지되였다.

**[봉수제도]**

봉건시대에 전국각지로부터 사변의 유무를 제때에 통보받기 위하여 만든 신호련락체계이다.

봉수제도는 봉건정부가 외적의 침입과 국내농민들의 폭동을 비롯하여 봉건정부를 반대하는 온갖 무력행위를 제때에 알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만든 신호체계이다.

밤에는 홰불(봉)로, 낮에는 연기(수)로 신호하였는데 이것을 봉화대라고 하였다.

신호는 사고가 없으면 1개, 외적이 나타났으면 2개, 변방 가까이 왔으면 3개,

변방을 침범했으면 4개, 이미 싸움이 벌어지고있으면 5개의 홰불 또는 연기로서 하였다.

봉화대에는 5~10명의 봉수군이 배치되여있었다.

**［왕족들을 부르던 말］**

비-왕의 처이다. 고종왕의 처를 성을 붙여 《민비》라고 하였다.

빈-왕의 첩이다.

왕자-왕의 아들. 그중에서 왕위를 이을 왕자를 왕세자, 왕태자, 동궁이라고 불렀다.

대군은 왕비가 낳은 아들, 군은 첩(궁녀)이 낳은 아들을 말한다.

공주, 옹주-공주는 왕비가 낳은 딸, 옹주는 빈이 낳은 딸을 말한다.

왕의 사위는 부마 또는 의빈이라 하였다.

**상왕**

왕이 왕자리를 아들 또는 아우에게 넘겨주었을 때 상왕이라고 하였으며 넘겨받은 왕자리를 또 넘겨주었을 때 상왕을 태상왕이라고 하였다.

**대비**

왕의 어머니, 보통 성을 붙여 《조대비》, 《엄대비》라고 불렀다.

**대왕대비**

살아있는 전전왕의 안해(즉 태상왕의 안해)를 이르는 말이였다. 왕대가 끊어지지 않고 왕의 손자가 왕자리를 이으면 그 할머니가 대왕대비이다.

※ **마마** - 왕과 그 가족들의 칭호뒤에 붙여 높이는 뜻을 나타냈다. 왕은 상감마마, 대전마마, 왕비는 중궁마마, 내전마마, 왕세자는 동궁마마라고 하였다.

※ **전하** - 왕, 왕비, 왕족을 높여부른 말이다.

※ **대감, 령감, 나으리**

높은 중앙급관리(당상관)로부터 차례로 낮은 급의 중앙관리(당하관)를 높여부른 말이다.

[서울 규장각 고문서의 고발]

오늘날 서울에 있는 규장각은 리조시기 희귀한 책들과 왕들의 문서를 보관관리하던 기관건물이였다. 여기에 있는 옛 문서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되여 세상사람들을 또 한번 놀라게 하였다.

…강압체결된것으로 알려졌던 《을사5조약》은 구조선황제의 인허, 수결, 옥새날인거부로 체결되지 못하였다.

《정미7조약》과 그에 기초하여 발포된 모든 《법령》들에는 리조황제의 수표가 위조되였다. …

이처럼 규장각 옛 문서들은 이등박문이 조선정부대신들을 제껴놓고 제멋대로 《조약은 체결되였다.》고 공포한 일제가 강압날조한 허위문서라는것을 다시한번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일진회》]

1904년 8월에 조직되여 일제의 조선강점에 적극 협력한 친일역적들의 매국단체.

1904년 일본침략자들의 사촉밑에 리용구, 송병준 등은 친일파들의 단체인 《진보회》를 조직하였으며 윤병시 등은 《유진회》를 조직하였다가 그 이름을 《일진회》로 고치였다.

일제의 앞잡이들로 조직된 두 단체는 1904년 8월에 《일진회》로 합치고 리용구, 송병준 등이 그 《지도권》을 장악하였다.

일제는 조선인민의 애국적인 반일기세에 못이겨 1910년 9월《일진회》를 해체하였다.

# 세계력사편

## 1. 고대에짚트의 피라미드

에짚트는 오랜 력사를 가진 나라이며 고대 인류문화의 발상지의 하나이다.

① 고대에짚트의 력대왕들은 저들의 무제한한 권력을 시위하며 피착취대중을 지배할 목적으로 수많은 피라미드를 건설하였다.

-피라미드란 돌을 가공하여 사각추모양으로 쌓아올리고 그안에 왕의 시체(미이라)를 보관하는 큰 무덤을 말한다. 피라미드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

에 많이 분포되여있다.

-오늘 에짚트의 수도인 까히라에서 멀지 않은 기제촌에는 고대시기 건설한 수많은 피라미드들이 있다.

② 그중에서 제일 큰것은 B. C. 2800년경에 건설한 헤오프스왕의 피라미드이다.

이 피라미드에는 평균 2.5t씩 되게 다듬은 돌이 230만여개나 들었다.

이 피라미드의 당시 높이는 146m나 되였다.

이 피라미드를 세우는데 20년이 걸렸다고 전해지고있다.

③ 고대에짚트의 피라미드는 왕과 노예주들의 포악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고대인류문화의 발전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력사유물의 하나로 되고있다.

※ **스핑크스** - 사람의 얼굴에 사자의 몸뚱이를 형상한 돌조각상이다.
고대에짚트의 일부 피라미드앞에 세워져있다.
스핑크스의 큰것은 높이가 20m, 길이가 57m나 된다.

## 2. 고대 인디아의 바르나제도

바르나제도는 고대인디아의 신분제도이다.

B.C. 10세기에 노예주계급은 인디아의 모든 주민을 4개의 등급으로 가르고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였다.

① 바르나제도에 의한 신분의 구분

이 신분제도에서 제1신분은 승려귀족집단인 브라만, 제2신분은 군사귀족인 크샤트리, 제3신분은 농민과 수공업자, 상인들인 와이샤였고 제4신분은 대부분 노예로 된 슈드라였다.

4개 신분중 대부분은 노예로 된 슈드라였다.

② 4개 신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1, 2신분은 노예주계급이며 착취계급이였다.

그중에서도 브라만이 제일 높은 특권을 가지고있었다.

그들은 모든 권리를 독차지하고 자기 아래의 신분을 억압착취하였다. 나이 많은 크샤트리도 나이 어린 브라만을 만나면 절을 해야 하였다.

—3, 4신분은 생산자대중이며 기본착취대상이였다.

평민인 와이샤는 노예주들을 먹여 살릴 의무만이 있었으며 슈드라

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노예적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였다.

매 신분은 음식과 옷도 정해진것을 먹고 입어야 했으며 자기 신분을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어야 하였다.

매 신분들사이에는 일체 교제, 접촉, 결혼 등이 엄격히 금지되였다.

③ 바르나제도는 고대나 중세는 물론 근대에 이르기까지도 인디아의 사회적진보를 가로막는 해독적작용을 하였다.

※ **바르나** - 고대인디아어로서 색갈을 의미한다. 매개 계층이 서로 다른 색의 옷을 입은데로부터 나온 말이다.
바르나제도는 16~17세기에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인디아에 침입한 후부터 카스트제도라고 불리웠다. 카스트란 말은 뽀르뚜갈어인 쟈스트(신성하다는 뜻)에서 유래된 영어화된 발음이다.

## 3. 불교의 발생과 그 전파

① 불교의 발생

—불교는 B.C. 6세기경에 인디아에서 발생하였다.

·불교는 오늘의 네팔왕국 남부에 있던 석가족의 왕자 가우따마 싯다르타(석가무니)에 의해 생겨났다고 한다.

석가무니는 40여년동안 인디아 각지에 절간들을 세우고 불교교리를 선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신자로 만들었다.

·불교는 살아있는 동안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이 죽어서 《극락세계》에 갈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무서운 고통을 당한다고 설교하였다.

즉 불교는 염세주의, 현실도피주의, 금욕주의, 무저항주의를 설교함으로써 인민대중의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려는 당대 착취계급에게 복무하였다.

불교는 고대인디아에서 브라만교의 반인민적성격으로 하여 노예제도가 무너져가던 시기 봉건계급의 리익을 반영하여나온것이다.

② 불교의 전파

그후 불교는 인디아는 물론 몽골, 먄마, 타이, 캄보쟈, 윁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퍼지였으며 중국을 거쳐 우리 나라와 일본에도 전파됨으로써 세계3대종교의 하나로 되였다.

※ **석가무니**-오늘의 네팔지방에 있던 한 종족인 석가족출신으로서 《무니》란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 4. 유교의 주요내용과 그 반동성

유교는 B.C. 6세기경에 중국에서 공자에 의해 발생하였다.

—유교교리에서 주요내용을 이루는 《3강5륜》

당시 중국의 통치배들은 봉건적착취제도와 봉건사회관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반동적인 《3강5륜》을 꾸며냈다.

·3강이란《세가지 도리》라는 뜻으로서 신하는 왕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안해는 남편에게 무조건 절대복종해야 한다는것이다.

·5륜이란 왕과 신하사이에 의리가 있어야 하고 부모와 자식사이에는 친분이 있어야 하며 웃사람과 아래사람사이에는 순차가 있어야 하고 남편과 안해사이에는 차별이 있어야 하며 친구들사이에《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5가지 봉건륜리도덕》이다.

—《3강5륜》의 반동성

《3강5륜》은 봉건지배계급의 리익에 맞게 사람들의 관계를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규범화하였다.

다시말하여 이것은 교활한 착취계급이 이른바 《도덕》을 내세우면서 근로인민대중을 저들에게 절대복종시키려는 반동적목적에서 조작해낸것이다.

## 5. 스파르타쿠스노예폭동

스파르타쿠스노예폭동(B.C. 73년 - B.C. 71년)은 고대로마에서 일어난 가장 큰 노예폭동이였다.

① 폭동의 원인

당시 검투노예들의 자주성이 무참히 유린당한데 있었다.

검투노예들은 노예주들의 구경거리로 무대우에서 자기 동료들끼리 싸우거나 또는 사나운 맹수들과 싸우다가 죽어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노예들이였다.

② 폭동의 시작과 과정

—B.C. 73년 카푸아시에서부터 시작되였다.

스파르타쿠스는 74명의 검투노예들을 이끌고 베주비오산으로 들어갔다.

정부군은 산을 포위하고 폭동자들을 굶겨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폭동자들은 산포도넝쿨로 꼰 바줄을 타고 험한 절벽을 내려 정부군의 뒤통수를 후려갈겼다.

—폭동군은 력량을 확대한 후 북부이딸리아로 진격하였다.

이 시기 폭동군의 수는 12만여명에 달하였다.

B.C. 72년 모데나부근전투에서 폭동군은 정부군 1만여명을 격파하였다.

—그후 폭동군은 방향을 바꾸어 남쪽으로 진격하였다.

남쪽으로 진격하면서 로마노예주들을 무자비하게 처단하였다.

놈들은 스파르타쿠스의 이름만 듣고도 벌벌 떨었다.

정부군은 폭동군의 진격을 막아보려고 발악하였다.

로마통치배들은 퇴각하는 부대들에 대하여서는 제비를 뽑게 하여 10명중 1명을 사형하는 소동을 벌렸는데 이렇게 죽은 로마군의 수가 4 000명이 넘었다고 한다.

③ 폭동의 실패와 의의

B.C. 71년 아폴리아에서 폭동군과 정부군사이에 판가리싸움이 벌어졌다.

스파르타쿠스는 적진을 향해 앞장서 돌진하다가 전사하였다. 그는 꺾이지 않는 의지의 소유자였지만 결단성이 부족하였다.

지휘자를 잃은 폭동자들은 제각기 흩어졌으며 결국 이 폭동은 실패하였다.

놈들은 살아남은 6 000여명의 폭동자들을 카푸아로부터 로마에 이르는 길가에 세운 말뚝들에 매달아 죽이였다.

—폭동은 실패하였으나 그것은 로마노예제도의 멸망과정을 촉진시켰다.

—폭동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옳은 지도력량을 가지지 못하고 대렬이 분렬된데 있으며 폭동자들의 계급의식이 낮은데로부터 노예제도자체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데 있었다.

※ 스파르타쿠스란 이름은 그후 유럽에서 용맹의 상징으로 되여 정치단체나 체육팀들의 명칭으로 널리 쓰이였다.

## 6. 그리스도교

① 그리스도교의 발생

—그리스도교는 신화적인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여났다고 하는 시

기(1세기)에 로마제국의 속주인 서부아시아(팔레스티나지역)에서 발생하였다.

그리스도교는 순전히 신화에 의하여 꾸며진것이였다.

그 신화에 의하면《하느님》의 아들인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와《하느님》을 믿는 사람만이 죽어서 《천당》에 가서 락을 누릴수 있다고 예언하고 죽은 후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허황한 거짓말로 되여있다.

② 그리스도교의 반동적설교

－그리스도교는 사람이 죽어서 《천당》에 가기 위해서는《하느님》에게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오직 예수의 교리만을 무조건 따르라고 설교한다.

－또한 모든 사람은 서로《사랑》하며 살아있는 동안 모든 고통을 참아야 죽어서 《천당》에 갈수 있다고 설교한다.

이 설교는 인민대중이 착취자를 반대하여 투쟁하지 못하게 하며 제놈들에게 복종시키려는 반동적목적을 추구한것이다.

③ 그리스도교의 전파

그리스도교는 처음에 로마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때문에 통치배들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로마통치배들은 그리스도교를 피착취대중을 복종시킬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보고 392년에는 로마국교로 선포하였다.

그리스도교가 지배계급의 도구로 전환되면서 그리스도교회는 방대한 토지와 재부, 노예를 기증받아 착취자, 억압자로 등장하였다.

그후 그리스도교는 3개의 기본조류 즉 로마카톨릭교(구교), 그리스정교(동방정교), 프로테스탄트교(신교)로 갈라졌다.

※ 그리스도교는 유럽아메리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 퍼지여 오늘 그를 믿는 신자수는 약 10억에 달하고있다.

## 7. 진시황제의 폭압정치와 만리장성

B.C. 221년 전국을 통일한 진나라왕(이름은 영정)은 자기를 시황제(첫 황제)로 부르게 하였다.

① 진시황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였다.

—부귀영화를 누릴 목적으로 궁녀 1만명을 끌어들이고 함양에 아방궁을 비롯한 크고작은 궁전 145개와 수많은 놀이터를 건설하였는데 그 둘레는 무려 900리나 되였다.

—제놈이 죽어서 묻힐 려산무덤을 만드는데 70여만명의 인민들을 강제동원시켰다.

② 진시황제의 폭압정치

—농학과 의학, 점치는 책을 제외한 모든 책들을 불살라버리고《어진정치》를 요구한 460명의 학자들을 생매장하여 죽였다.

—20여종에 달하는 형벌제도를 만들어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③ 만리장성의 수축

—만리장성은 여러 제후국들의 북방성들을 련결시키고 그것을 더 연장하여 쌓은것인데 오늘의 산해관으로부터 서쪽의 감숙성에 이르렀다.

—만리장성은 진시황제가 북쪽의 흉노족을 경계하며 동쪽으로는 동방의 강대국인 고구려의 위력을 두려워하면서 수많은 인민들을 강제로 끌어내여 쌓은 성이다.

## 8. 한나라시기 황건농민폭동

① 폭동의 시작과 그 과정

—황건농민폭동은 184년에 장각의 지휘밑에 일어났다.

폭동군이 머리에 누런 수건을 쓴데로부터 황건농민폭동이라고 한다.

폭동은 10여일만에 황하와 장강류역을 휩쓸었다.

농민군은 각지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처단하고 정부군을 격파하였다.

농민군은 한때 그 수가 100여만으로 늘어났다.

질겁한 통치배들은 40만명의 정부군을 동원하였으나 매번 격파당하였다.

장각이 병으로 죽자 그의 두 동생들이 폭동군을 지휘하였으나 10~11월에 모두 전사하였다.

② 폭동의 실패

지휘자를 잃은 농민들은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뚜렷한 투쟁목표가 없었던 농민군은 9개월만에 그 주력이 진압당하고 10여만명의 농민들이 학살당하였다.

—그후에도 개별적인 농민폭동군의 투쟁은 20여년동안 계속되였다.

인민들의 투쟁으로 한나라는 220년에 멸망하였다.

## 9. 수나라의 수립과 그 멸망

① 수나라에 의한 중국의 통일

—한나라가 망한 후 중국은 350년이상 분렬되여있었다.

그후 60년동안은 위, 촉, 오 세나라가 서로 싸우던 3국시기이다.

—3국시기에도 크고작은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계속되다가 589년에야 수나라에 의해 다시 통일되였다.

② 수양제의 반동정책

—수나라의 첫 왕은 양견이였는데 그의 아들인 양제가 604년에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자리를 차지하였다.

수양제는 인민들로부터 수탈한 조세와 공물을 수도(장안)로 더 빨리 날라오기 위해 황하와 장강을 련결하는 대운하를 팠다.

수양제의 사치와 향락은 끝이 없었다.

락양으로부터 강도(양주)에 이르는 배길에 룡선을 띄워놓고 유람과 술놀이로 부화방탕한 나날을 보냈다.

락양을 동쪽의 수도로 꾸리는 건축공사에 매달 200만명이상의 농민들을 강제동원시켰다.

③ 고구려에 대한 침략과 그 참패

—수나라는 589년부터 4차에 걸쳐 고구려에 침입하였는데 그중에서 612년의 침략은 규모가 가장 컸다.

이때 300만의 수나라침략군이 고구려에 침입하였으나 애국심과 용감성이 강한 고구려사람들은 료동성과 살수전투를 비롯한 많은 전투에서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기였다.

—수나라는 고구려침략에서의 대참패와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수나라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618년에 멸망하였다.

## 10. 리자성농민봉기와 명나라의 멸망

① 리자성농민봉기의 시작과 경과, 명나라의 멸망

—17세기 분산적으로 진행되던 농민폭동들은 1636년부터 리자성의 지휘밑에 폭동대렬이 통합되였다.

외삼촌인 고영상의 농민군부대에서 싸우던 리자성은 이해 가을에 고영상이 전사하자 그를 대신하여 농민군을 지휘하게 되였다.

—리자성농민군은 1641년에 락양을, 다음해에는 영양을 점령하였

다. 이때 농민군의 수는 100만명이상에 달하였다.

—1644년에는 수도 베이징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명나라군대와 관리들은 도망치고 명나라황제는 목을 매여 자살하였다.

결국 276년간 유지된 명나라는 멸망하였다.

② 리자성농민봉기의 실패

일시적인 승리에 자만한 농민군지휘자들은 안일해이되여 부화방탕한 생활을 일삼았으며 추악한 정권쟁탈전을 벌렸다.

—이 시기 명나라의 매국역적 오삼계는 청나라침략자들과 결탁하여 리자성농민군을 공격하였다.

이에 편승하여 지방의 지주들의 무력이 농민군의 배후를 공격하였다.

—리자성은 퇴각하던중 전사하였으며 지휘자를 잃은 농민군은 뿔뿔이 흩어지고말았다.

## 11. 칭기스한과 그 후예들의 침략전쟁

### 1) 칭기스한의 침략전쟁

—1206년에 몽골봉건국가의 첫 통치자로 된 테무진(칭기스한 - 가장 높은 통치자)은 당시 1 000명씩으로 구성된 95개 부대와 1만명의 친위병을 가지고있었다.

이 시기 몽골의 병사는 모두 기병이였다.

—칭기스한은 국가를 세운 첫날부터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하기 위한 침략전쟁을 미친듯이 벌리였다.

칭기스한은 1211년 북부중국에 쳐들어가 이 일대를 황폐화시켰으며 그후 중앙아시아에로 계속 침략을 확대하였다.

1221년에는 아제르바이잔과 그루지야, 크림에까지 침입하였다.

그후에 깔까강반에서 로씨야군대를 격파하였으며 이어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인두스강계선까지 갔다가 몽골로 돌아왔다.

칭기스한은 중국의 서하에 대한 정복전쟁중인 1227년에 감숙성에서 병으로 죽고말았다.

칭기스한의 침략전쟁으로 아시아와 유럽의 대부분지역이 몽골의 예속밑에 들어갔다.

### 2) 칭기스한의 후예들에 의한 침략전쟁

① 유럽에 대한 침략

—1235년 칭기스한의 손자 바뚜의 총지휘밑에 15만명의 몽골기병이 라쟌과 모스크바 등 로씨야의 여러 공국들을 점령하였다.

그후에는 뽈스까, 마쟈르, 도이췰란드, 체스꼬, 벌가리아, 이딸리아의 북부에까지 침입하였다.

② 아시아에 대한 침략

—몽골침략군은 1231년에 금나라와 고려에도 쳐들어왔다.

1234년 금나라는 완전히 점령당하였으나 고려인민들은 몽골침략자들을 쳐물리쳤다. 그후에도 몽골침략군은 6차례나 고려에 침입하였으나 그때마다 참패를 당하였다.

—이밖에도 몽골군은 이란, 소아시아, 아라비아반도, 인디아의 북부, 티베트, 웰남, 쟈와까지 침공하였다.

### 3) 몽골의 침략전쟁의 후과

집짐승방목밖에 모르던 몽골인들의 침략전쟁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수백년을 두고 이루어놓은 관개시설과 문화적재부들을 파괴소각함으로써 사회의 발전을 심히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 12. 일본에서 사무라이의 출현과 막부의 수립

### 1) 사무라이의 출현

— 9세기 후반기부터 일본에서는 나라의 중앙집권적통치질서가 문란해지면서 대토지소유자들이 자기의 개인무력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개별적인 봉건령주들에게 복무하는 사무라이(무사)가 생겨났다.

사무라이라는 말은 《사부라우》(모시다)에서 유래되였다.

—사무라이들은 장원(대농장)안의 농사일을 통제하고 자기 상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작은 사무라이집단은 점차 보다 큰 사무라이집단으로 합쳐지면서 그 세력은 급속히 강화되였다. 사무라이들은 상전으로부터 토지를 받고 예속농민들까지 소유하였다. 그리하여 사무라이들은 직업적인 군인신분층으로, 지주계급으로 전변되였다.

### 2) 막부의 수립

—처음에 군사경찰권만 장악하였던 막부는 점차 행정권, 사법권까지

틀어쥔 일본의 통치층으로 되였다.

—이때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일본에서는 무맥한 《천황》정권이 있으면서도 사무라이정권인 막부가 실권을 쥔 2중정권이 존재하였다.

※ 막부란 원래 군사령관이 출전중에 천막을 치고 정한 림시적인 거처를 의미하는 중국말이였다.

그것이 일본에서는 사무라이우두머리의 군사독재정권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게 되였다.

## 13. 백년전쟁과 쟌느 다르크

### 1) 백년전쟁

14～15세기에 걸쳐 영국과 프랑스간에 벌어진 전쟁이다.

전쟁도중 여러번 휴전하였다가 다시 이어져 100여년동안 진행되였으므로 백년전쟁이라고 한다.

—백년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

14세기에 영국은 프랑스령토의 적지 않은 지역을 차지하였을뿐아니라 프랑스왕위까지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리하여 두 나라간의 대립은 날로 커가다가 드디여 백년전쟁(1337년-1453년)으로 폭발하였다.

—백년전쟁의 진행과정

영국군대의 침입으로 시작된 전쟁은 주로 프랑스땅에서 벌어졌다.

전쟁초기에 프랑스군은 계속 패전하였다.

크레시전투에서 프랑스는 1 500여명의 기병을 잃고 패하였으며 1356년 푸아티예전투에서도 프랑스왕을 비롯한 많은 포로를 내고 패하였다.

그후에 영프간에 여러번 휴전조약이 맺어졌다가 다시 전쟁이 벌어져 영국군이 프랑스의 빠리까지 강점하였다.

1428년 영국군은  남부프랑스방어에서 중요요새인 오를레앙성을 포위하였다.

### 2) 쟌느 다르크의 활동

—17살의 평범한 농촌처녀 쟌느 다르크는 프랑스농민부대의 앞장에 서서 오를레앙해방전투에 참가하였다.

그가 이끈 부대는 오를레앙의 포위를 뚫고나와 북쪽으로 진격하면서 도시와 마을들을 련이어 해방하였다.

그의 이름은 프랑스인민과 병사들속에 널리 알려졌다.

—1430년 콤피엔느전투에서 불리한 정황에 부딪친 쟝느 다르크부대는 도시성문으로 퇴각하였다.

이때 배신적인 프랑스귀족들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가 적들에게 체포되게 하였다.

그후 영국침략자들은 쟝느 다르크를 《종교재판》에 걸어 불태워죽이였다.

1453년 백년전쟁은 프랑스의 승리로 끝났다.

쟝느 다르크는 프랑스의 민족적영웅으로 후세에 전해지게 되였다.

## 14.《십자군원정》

### 1) 《십자군원정》의 본질과 목적

—《십자군원정》은 1096년 –1272년까지 유럽의 봉건통치배들이 3차에 걸쳐 감행한 동방나라들에 대한 침략원정이였다.

이 원정은 그리스도교의 발생지인 예루살렘(팔레스티나의 꾸드스)을 뛰르끼예인들로부터 《해방》한다는 간판밑에 진행되였다.

이 원정참가자들이 십자가표식을 가슴에 달았던데로부터《십자군원정》이라고 하였다.

—이 침략원정의 목적은 유럽 여러 나라 봉건통치배들이《성지》해방이라는 간판밑에 동방의 광대한 땅과 풍부한 재부를 략탈하려는데 있었다.

### 2) 《십자군원정》의 과정

1095년 로마법왕은 프랑스의 클레르몽에서 종교회의를 소집하고 달콤한 거짓말로 회의참가자들에게 원정에 적극 참가할것을 호소하였다.

땅과 황금에 대한 탐욕에 눈이 뒤집힌 국왕, 령주, 중소귀족 등 서유럽의 여러 계층들이 이 원정에 참가하였다.

—《십자군원정》에는 도이췰란드와 프랑스, 영국의 왕들이 앞장섰다.

서유럽침략자들은 콘스탄티노플을 거쳐 팔레스티나에 침입하여 로인들과 아이들, 녀자들까지 닥치는대로 죽이면서 재부를 략탈하였다.

1212년에는 《소년십자군원정》까지 조직하였다.

서유럽봉건령주들은 《죄》많은 어른들로써는 《성지》를 해방할수 없기때문에 죄없는 순진한 소년들이 원정에 참가해야 한다고 떠벌이였다.

서유럽봉건령주들은 5만명의 프랑스와 도이췰란드소년들을 바다길로 동방을 향해 데리고가다가 풍파를 만나 대다수를 죽였고 나머지 소년들은 에짚트로 끌고가 노예로 팔아먹었다.

결국 《소년십자군원정》은 《성지》해방이 아니라 서유럽노예상인들의 범죄적인 인간매매행위였다.

—동방인민들의 끊임없는 반침략투쟁에 의하여 여러차례에 걸친 유럽침략자들의 《십자군원정》은 모두 참패로 끝났다.

## 15. 《지리적발견》

15세기말-16세기초에 서유럽침략자들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여 여러 대륙과 섬들을 침략하는 길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이 과정을 력사에서《지리적발견》이라고 한다.

### 1) 《지리적발견》의 목적과 전제조건

—목적

새로운 대륙과 항로를《발견》하기 위한 과학적탐험이 아니라 식민지략탈을 목적한 침략원정이였다.

서유럽봉건통치배들은 새로운 땅과 금은보화를 략탈하여 재부를 차지하려고 하였다.

—전제조건

당시 먼바다를 항행할수 있는 150~300t급의 배를 무을수 있었다.

지구가 둥글다는 학설도 나오고 라침판도 항해에 리용되고있었다.

### 2) 《지리적발견》과정

《지리적발견》의 앞장에 선 나라는 뽀르뚜갈과 에스빠냐였다.

—뽀르뚜갈의 귀족 바스꼬 다 가마에 의하여 유럽으로부터 아프리카남단을 거쳐 인디아로 가는 항로가 처음으로 알려졌다.

—15세기말 이딸리아사람 꼴롬부스는 3척의 배로 에스빠냐를 떠나

대서양을 가로 질렀다. 그는 아메리카의 작은 섬에 도착하여 그곳이 인디아의 서쪽 어느곳이라고 잘못 생각한데로부터 이 섬을 《서인디아제도》, 그 주민들을 《인디안》(인디아사람)이라고 하였다.

그후 이딸리아사람 아메리고 베스푸치에 의해 이 대륙이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대륙이라는것이 확인되였다. 이 대륙은 그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불리웠다.

—1519년 뽀르뚜갈사람 마젤란은 에스빠냐통치배들의 후원밑에 5척의 배와 280명의 인원으로 원정대를 조직하였다.

그들은 대서양을 가로질러 라틴아메리카의 마젤란해협을 지나 대양에 나섰다.

일기가 좋고 바다는 고요하였으므로 이 대양을《태평양》이라고 불렀다.

그후 원정대는 필리핀군도와 인디아양, 아프리카남단을 통과하였다.

1522년 1척의 배에 18명이 겨우 살아남아 에스빠냐로 돌아갔다. 이것은 력사상 최초의 세계일주였다.

《지리적발견》과정은 새 대륙의 《발견》이나 《항로의 개척》이 아니라 지구상의 넓은 지역에 대한 유럽식민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의 시작이였다.

## 16. 유럽침략자들의 인디안살륙과 흑인노예무역

### 1) 유럽침략자들의 인디안살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앵글로-쌕슨족은 인디안을 멸종시키기 위하여 살륙전쟁을 련이어 일으키고 그들을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하였습니다.》**

오늘의 미국땅에는 오랜 옛날부터 원주민인 인디안들이 살고있었다.

1492년 꼴롬부스에 의하여 아메리카대륙이 알려진 후 영국을 비롯한 유럽식민주의자들이 이곳으로 이리떼처럼 기여들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침략자들은 사람의 머리로써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야수적만행으로 인디안들을 모조리 멸족시키였다.

놈들은 인디안남자의 머리가죽에 대해서는 150US$, 녀자의 머리가죽에 대해서는 50US$의 상금을 내걸고 인디안학살에 미쳐날뛰였다.

이리하여 북아메리카에 살고있던 200만명의 인디안들이 멸족되였다.

### 2) 흑인노예무역

-유럽식민주의자들은 아메리카원주민의 멸족으로 이곳에서 로동력이 부족하게 되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사냥하여 아메리카땅으로 끌어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약 400년간에 걸쳐 1억 5 000만명에 달하는 아프리카흑인들이 이곳으로 끌려와 소나 말처럼 팔리고 고역에 시달리면서 무리로 죽었다.

유럽노예상인들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대량적으로 사냥하여 쇠사슬이나 바줄로 몇명씩 묶어서 노예선에 짐짝처럼 실어날라다 아메리카에 팔아먹었다.

노예상인들은 흑인노예들의 이마와 가슴 등에 불에 달군 쇠꼬치로 락인을 찍었으며 비위에 거슬리면 한팔을 잘라버리거나 한쪽눈을 도려내는 등 온갖 몸서리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노예상인들은 수송도중에도 수많은 흑인노예들을 죽여 바다에 처넣었다.

-이 저주로운 노예무역의 결과 세계 총 인구에서 20%를 차지하던 아프리카흑인들이 20세기초에는 7.7%밖에 되지 않았다.

## 17. 나뽈레옹의 침략전쟁

### 1) 나뽈레옹의 유럽대륙침략

-1799년 프랑스제국의 황제자리에 기여오른 나뽈레옹은 당시 강한 적수인 영국을 타승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1805년 10월 트라팔가르해전에서 영국함대에 의하여 심대한 패배를 당하였다.

-1807년에는 에스빠냐와 뽀르뚜갈을 침략하여 프랑스의 지배밑에 넣었다.

-1812년경까지 오스트리아, 프로씨아, 네데를란드, 이딸리아, 벨지끄 등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을 강점하였다.

### 2) 나뽈레옹침략군의 로씨야침략

-1812년 6월 나뽈레옹은 57만 5 000명의 침략군을 이끌고 로씨야를 침공하였다.

8월초 로씨야군은 스몰렌스크에서 프랑스침략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모스크바에서 멀지 않은 보로지노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로씨야는 4만 5 000명, 나뽈레옹군은 5만 8 000명의 사상자를 내였다.

-그후 나뽈레옹군은 텅 빈 모스크바에 기여들었으나 식량난으로 더는 견디기 어렵게 되였다.

나뽈레옹은 세차례나 로씨야측에 담판을 제기하였으나 로씨야군 총사령관 꾸뚜쪼브는 계속 대답을 주지 않았다.

한달이상 모스크바에 머무르던 나뽈레옹군은 퇴각을 시작하였다.

-로씨야군은 퇴각하는 적들을 3면으로 추격하였다.

나뽈레옹군은 로씨야의 추운 벌판에 수십만의 시체를 남기고 겨우 3만명만이 국경을 넘어 도망쳤다.

### 3) 유럽련합군의 빠리점령과 나뽈레옹전쟁의 종결

-1814년 3월 유럽련합군은 빠리를 점령하였으며 나뽈레옹은 지중해에 있는 엘바섬으로 류배살이를 가게 되였다.

-1815년 3월에 나뽈레옹은 엘바섬을 탈출하여 다시 빠리를 점령하였다.

-프랑스와 유럽련합군사이에 다시 전쟁이 벌어졌다.

나뽈레옹은 1815년 6월 벨지끄 브류쎌부근의 와떼를로격전에서 패하였다.

포로된 나뽈레옹은 대서양의 쎈트 헬레나섬으로 종신류형당하여 거기에서 죽고말았다.

-이리하여 약 20년간에 걸친 나뽈레옹의 침략전쟁은 참패로 끝났다.

## 18. 아편전쟁

① 아편밀무역과 아편금지운동

-영국식민주의자들이 아편밀무역에서 추구한 목적은 중국인민을 아편중독자로 만들어 그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각성을 마비시킴으로써 중국침략야망을 실현하는데 있었다.

-영국놈들이 중국에 밀수한 아편량은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 1838년에는 그것이 4만상자를 훨씬 넘어섰다.

당시 중국에는 아편중독자가 200만명이나 되였다.

아편중독자의 증가와 아편값으로 인한 은화의 류출은 중국의 국고를 줄어들게 하였다.

-만청통치배들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세금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때문에 중국인민은 영국놈들과 청나라통치배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인민들의 투쟁에 겁을 먹은 청나라정부는 1839년 3월 림측서를 전권대신으로 광주에 보내여 영국놈들의 아편밀무역을 금지시키도록 하였다.

② 1차아편전쟁의 폭발과 중국인민의 반침략투쟁

청나라정부의 아편밀무역금지조치를 트집잡아 영국놈들은 1840년 4월 수십척의 침략함대에 1만 5 000명의 침략군과 540문의 포를 싣고 와서 중국에 대한 침략을 개시하였다.

7~8월에 영국침략군은 베이징의 문어구인 백하구에 쳐들어감으로써 직접 청나라를 위협하였다.

청나라정부와의 강화담판에서 영국놈들은 배상금 600만량을 포함한 13개조로 된 강탈적요구조건을 들이대였다. 막대한 배상금을 해결할 길이 없었던 청나라황제는 영국에 선전포고하였다. 그러나 청나라는 근대적무기로 무장한 영국침략군을 막아낼 힘이 없었다.

이때 삼원리와 그 주변 100여개 부락의 인민들이 《평영단》을 뭇고 수백명의 영국침략자들을 소멸하였다.

불산진, 신안현 등 여러 지역들에서도 중국인민은 영국침략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청나라통치배들은 침략자들보다 자기 나라 인민들을 더 무서워하면서 적에게 굴복투항하였다.

③ 《남경조약》의 체결과 그 결과

청나라정부는 1842년 8월 영국침략자들이 강요한《남경조약》에 도장을 찍었다.

이 조약에 의하여 영국놈들은 홍콩을 강탈하고 광주, 상해 등 5개 항구를 열게 하였으며 《배상금》 2 100만량을 강탈하였다.

이때부터 청나라의 쇄국정책은 깨여지고 중국은 유럽아메리카자본주의렬강들의 반식민지로 굴러떨어지게 되였다.

④ 제2차 아편전쟁

영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렬강들은 1856년 11월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키고 련합세력으로 달려들었다. 이때에도 애국적인민들은 침략자들과 매국노들을 반대하여 완강히 투쟁하였다.

그러나 청나라통치배들은 또다시 외세앞에 굴복하고 굴욕적인 《베이징조약》을 체결하였다.

## 19. 《태평천국》농민전쟁

1851년-1864년까지 10여년간에 걸쳐 진행된 《태평천국》농민전쟁은 중국력사상 가장 큰 규모의 농민전쟁이였다.

① 전쟁의 원인

만청정부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에 의하여 중국인민의 생활처지가 심히 령락된데 있었다.

반동정부는 농민들에게 무거운 지세를 비롯한 각종 가렴잡세를 들씌웠다.

또한 자본주의렬강들에게 물어주어야 할 배상액을 전부 농민들에게 부담시켰다.

② 농민전쟁의 폭발과 그 과정

-1851년 1월 홍수전의 지도밑에 광서성 계평현 금전촌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태평천국》수립을 선포하였다.

1851년 9월 농민군은 몽산현 영안을 점령하였으며 1853년 3월에 남경을 점령하고 수도로 정하였다.

이 시기 농민군은 100여만명으로 장성하였다.

- 《태평천국》은 봉건적토지소유제도와 악습의 페지 등 일련의 진보적시책들을 실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당시의 력사적조건에서는 실현될수 없었다.

③ 농민전쟁의 실패

- 1853년 《태평천국》은 5만명의 적은 병력으로써 그것도 준비없이 북벌을 시작하였다.

북벌군은 2년간 적과 싸우다가 끝내 적들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그 대부분이 전사하였다.

- 이 시기 남경의 폭동지도부안에서는 권력싸움이 벌어져 농민군세력이 분렬되였다.

- 1863년 여름부터 영, 미침략군과 청나라정부군이 합세하여 《태평천국》의 수도 남경에 대한 포위진을 형성하였다.

1864년 7월 남경이 함락됨과 함께 14년간 계속된 《태평천국》농민전쟁은 실패하였다.

- 농민전쟁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청왕조의 통치를 뒤흔들어놓았으며 그후 중국인민의 반침략반봉건투쟁에 큰 영향을 주었다.

## 20. 시파이폭동

1857년-1859년 인디아인민들이 영국식민주의자들의 식민지강점정책을 반대하여 일으킨 전민족적인 폭동이였다.

① 폭동의 원인

영국식민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책동으로 하여 인디아인민들의 자주성이 무참히 짓밟힌데 있다.

② 폭동의 동기

1857년 5월 10일 영국장교놈들이 벵갈의 미르트주둔 두개의 시파이부대에 힌두교도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소의 기름과 이슬람교도들이 부정한것으로 여기는 돼지의 기름을 바른 새 탄약통을 공급하면서 그것을 입으로 물어뜯게 하여 쌓이고쌓인 민족적격분을 폭발시킨것이였다.

③ 폭동과정

폭동자들은 5월 11일에 델리를, 두주일후에는 북부인디아의 대부분을 장악하였으며 나중에는 폭동을 인디아의 3분의 2의 지역에까지 확대하였다. 폭동은 마울레비, 아흐마드 등이 지휘하였다.

폭동과정에 광범한 농민대중과 일부 봉건령주들이 참가하였는데 폭동자들은 델리, 칸푸르, 라크나우에 폭동근거지들을 만들고 그에 의거하여 영국식민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명목상 존재하던 무갈제국도 1858년에 완전히 멸망하였다.

④ 폭동의 실패

폭동은 영국식민주의자들의 야수적인 탄압과 폭동군대렬안에서의 분렬, 대중의 투쟁기세에 겁을 먹은 봉건령주들의 변절행위 특히는 인종적 및 종교적복잡성 등으로 하여 1859년 4월에 실패하였다.

영국침략군은 포로한 폭동자들을 대포에 매여놓고 포탄을 쏘아 날

려보내여 죽이는 등 야수적으로 처형하였다.

폭동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영국식민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 인디아인민들을 크게 각성시켰다.

## 21. 17세기 영국부르죠아혁명

### 1) 혁명의 원인과 동기

-원인

영국부르죠아혁명의 원인은 봉건통치배들의 억압과 착취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심히 유린당한데 있었다.

또한 낡은 봉건세력과 인민들의 반봉건투쟁을 리용하여 정권을 잡으려는 부르죠아지들간의 모순이 격화된데 있었다.

-동기

직접적동기는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국왕이 1640년 4월 의회를 열고 부르죠아지와 인민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내리먹이려고 한것이였다.

### 2) 국내전쟁

국내전쟁은 두 단계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① 제1차 국내전쟁(1642년-1646년)

-전쟁초기에 의회군은 력량상 우세에도 불구하고 연거퍼 패전하였다.

-그러나 인민들이 《민병대》를 뭇고 혁명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의회군은 마스톤무어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에서 큰 승리를 이룩하였다.

1645년 네스비전투에서는 국왕까지 포로함으로써 제1차 국내전쟁은 의회파부르죠아지의 승리로 끝났다.

-정권을 잡은 의회파안에서는 대부르죠아지들인 장로파와 중소부르죠아지들인 독립파사이에 정권쟁탈전이 벌어졌다.

② 제2차 국내전쟁(1648년-1649년)

-1648년 혼란된 정세를 리용하여 감옥에서 도망친 국왕 찰스1세는 반혁명세력을 긁어모아가지고 제2차 국내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이 개시되자 의회군은 힘을 합쳐 국왕군을 격파하였다.

-의회파는 1649년초 국왕을 사형에 처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③ 부르죠아군주제의 수립

-정권을 잡은 의회파우두머리 크롬웰은 인민대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강화하기 위해 군사독재를 실시하였다.

이에 격분한 인민들은 다시 투쟁에 일떠섰다.

-갓 정권을 잡은 부르죠아지들은 인민대중의 반정부진출에 겁을 먹고 국왕파와 손을 잡는 길로 나아갔다.

이리하여 영국에서는 1688년 부르죠아지들이 국왕을 내세우고 왕이 부르죠아의회에 의거하여 정치를 하는 립헌군주제형태의 부르죠아국가가 서게 되였다.

이처럼 영국부르죠아혁명은 불철저하게 수행되였지만 유럽에서 자본주의발전의 서막으로 되였다.

## 22. 빠리꼼뮨

1870년 7월부터 1871년까지 계속된 프랑스-프로씨아(도이췰란드)전쟁의 결과 프랑스는 패하고 빠리는 포위되였다. 이것은 프랑스에서 사회계급적모순을 더욱 격화시켰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빠리로동계급은 무능한 국내의 부르죠아반동정권을 반대하는 폭동을 전개하고 자체의 독자적인 혁명정권을 수립하게 되였다. 이것을 빠리꼼뮨이라고 한다.

① 폭동의 동기

프로씨아와 굴욕적인 정전협정을 체결한 프랑스반동정부는 빠리시민들의 혁명투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1871년 3월 18일 새벽에 국민근위대의 대포들을 빼앗으려고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것을 알게 된 주변로동자들은 정부군의 앞길을 막아나섰다. 대부분의 정부군병사들도 악질장교들을 처단하고 군중과 합류하였다. 이것이 동기로 되였다.

② 혁명의 승리와 꼼뮨의 선포

3월 18일 낮부터 국민근위대를 비롯한 전체 빠리인민들은 투쟁에 일떠서 정부청사들과 정권기관들을 점령하고 붉은기를 휘날리였다.

폭동은 승리하였다.

이것은 세계력사상 첫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승리였다.

꼼뮨위원회선거에 이어 3월 28일에는 꼼뮨이 선포되였다.

빠리꼼뮨은 세계최초의 로동계급의 정권형태였다.

③ 꼼뮨의 사회적시책

-꼼뮨은 우선 자본가계급의 국가기관과 군대를 없애버리고 인민을

위한 군대와 국가기관을 내왔다.

–꼼뮨은 도망친 자본가들의 집과 공장을 로동자들에게 넘겨주었다.

–또한 꼼뮨은 로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빚과 세금을 페지하였다.

–또한 꼼뮨은 교육에 큰 관심을 돌렸으며 교회를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④ 꼼뮨의 실패와 그 교훈, 력사적의의

–베르사이유로 도망친 부르죠아지들은 프로씨아침략자들과 결탁하여 빠리꼼뮨을 없애버리려고 발악하였다. 꼼뮨용사들과 시민들은 수적으로 우세한 적들과 마지막까지 결사적인 싸움을 벌렸지만 실패하였다.

빠리꼼뮨은 5월 28일에 자기 존재를 끝마쳤다.

–꼼뮨은 비록 72일간밖에 존재하지 못하였으나 국제로동운동에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빠리꼼뮨의 력사적교훈은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탁월한 수령과 혁명적당의 령도를 받아야 하며 혁명을 끝까지 밀고나가야 한다는것이였다.

또한 그 교훈은 로농동맹을 강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전체 근로대중을 묶어세워야만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이다.

–빠리꼼뮨은 실패했으나 그것이 력사상 처음으로 자본주의제도를 전복한 프로레타리아혁명이였다는것으로 하여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 23. 맑스, 엥겔스의 생애와 초기활동

– 맑스는 1818년 5월 5일 프로씨아의 라인주 트리에르시에서 태여났다. 그의 아버지는 변호사였다. 맑스는 고향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 본대학과 베를린대학에서 철학, 법학, 력사학을 공부하였다. 맑스의 혁명활동은 1842년 《라인신문사》주필로 활동한 시기부터 시작되였다.

이 시기 맑스는 로동계급만이 인류를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할수 있는 혁명적인 계급이라는것과 자본가계급을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는 사상을 내놓았다.

– 엥겔스는 1820년 11월 28일 프로씨아의 라인주 바르멘시에서 태여났다. 그의 아버지는 공장주였는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아들의 뜻

을 끝내 굽히지 못하였다.

엥겔스는 영국에 가서 영국로동계급의 비참한 처지를 직접 보고 또한 챠티스트운동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로동계급만이 압박받고 착취당하는 인민들을 해방할수 있는 가장 선진적인 계급이라고 보았다.

1844년 맑스와 엥겔스는 빠리에서 만났다. 이때부터 그들은 과학적공산주의사상의 창시와 국제로동운동을 지도하는 사업에서 혁명전우로서 공동활동을 시작하였다.

## 24. 제1국제당과 제2국제당의 창건

① 제1국제당의 창건

-1864년 9월말 런던에서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이딸리아로동자들의 국제회의가 열리였다.

맑스의 지도밑에 회의에서는 국제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로동계급의 국제적중앙조직이 필요하다는것을 인정하고 《국제로동자협회》를 창설하였다. 《국제로동자협회》는 1889년 제2국제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제1국제당이라고 불리우게 되였다.

-제1국제당은 맑스가 작성한 《창립선언》과 《총칙》을 강령적문헌으로 삼았다.

선언에서 맑스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로동자와 자본가간의 계급적대립과 투쟁이 첨예화된다는것을 론증하였다.

맑스는 또한 자본가들의 정권과 공장을 빼앗는 문제가 로동계급앞에 나선 최대의 임무로 된다는것을 밝혔다.

계속하여 맑스는 선언에서 정권쟁취를 위한 투쟁이 조직적이여야 하며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맑스는 선언에서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는 전투적구호로써 끝을 맺었다.

-제1국제당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마다 열리는 대회였으며 대회와 대회사이의 지도기관은 총무위원회였다. 매개 나라들에는 지부들이 조직되여 활동하도록 하였다.

맑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제1국제당이 창건됨으로써 로동계급은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면서 혁명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게 되였다.

② 제2국제당의 창건

제2국제당은 1889년 7월에 엥겔스의 지도밑에 빠리에서 창건되였다.

-대회에서는 로동계급의 종국적목적은 사회주의를 전취하는데 있다는것을 규정하고 당면한 민주주의적투쟁과업들을 규정하였다.

제2국제당은 주로 당 및 로동조합의 조직, 8시간로동제를 위한 투쟁 등 당면하게 나서는 문제들에 많은 주의를 돌리였다.

-대회에서는 또한 해마다 5월 1일을 전세계 로동계급의 국제적명절로 기념할것을 결정하였다.

제2국제당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대회를 소집하였을뿐 상설적인 지도기관은 두지 않았다.

엥겔스는 제2국제당을 창건한 후 여러 대회들에서 당안에 기여든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 25. 제1차 세계대전

### 1)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려는 세계제국주의국가들의 탐욕과 발악적인 침략책동에 의하여 일어났다.

### 2) 두 군사동맹인 《동맹국》과 《협상국》

-세계제국주의국가들은 저들의 침략목적과 리해관계에 따라 서로 대립되는 두개의 군사동맹을 무었다.

도이췰란드를 축으로 한 오스트리아-마쟈르, 이딸리아는 《3국동맹》을 무어 결탁하였고 영국, 프랑스, 로씨야는 《3국협상》을 형성하였다.

-이 두 군사동맹에 세계 33개 나라들이 저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이쪽 혹은 저쪽편에 가담하여 전쟁에 휘말려들었다.

제1차 세계대전(1914년-1918년)은 제국주의나라 호상간 저들의 략탈적목적을 추구한 부정의의 전쟁이였다.

### 3) 전쟁과정과 종결

-전쟁기간 주요전투는 도이췰란드 대 프랑스, 영국, 벨지끄가 싸우고있는 서부전선과 도이췰란드 대 로씨야가 싸우고있는 동부전선에서 벌어졌다.

1915년 동부전선에서 도이췰란드군과 로씨야군간의 대전투에서 로씨야는 300만의 사상자를 내였다.

1916년 도이췰란드군과 영, 프군대사이에 베르당, 쏨므강전투와 유틀란드앞바다에서의 해전이 벌어졌다.

베르당전투에서 쌍방은 70만의 병력을 잃었다.

5개월간 진행된 쏨므강전투에서 도이췰란드는 80만명, 영, 프 측은 54만명의 무리죽음을 내였다.

-교활한 미제는《동맹국》측의 패전이 명백해진 1917년 4월에《협상국》측에 가담하여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하였다.

-1917년 사회주의10월혁명으로 로씨야가 전쟁에서 탈퇴하였다.

-그후에도 두 뿔럭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다가 결국 도이췰란드의 패망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였다.

4년이상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에는 30여개 나라에서 7 400만의 군대가 동원되였는데 1 000만명의 전사자와 2 400만명의 불구자를 내였다.

전승국들은 전쟁의《획득물》을 나누어먹기 위한《베르사이유강화조약》등을 체결하였다.

## 26. 사회주의10월혁명의 승리

① 혁명정세의 성숙, 볼쉐비크당의 무장폭동준비

- 1917년 7월말 당 제6차대회에서 무장폭동에로 넘어갈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 레닌의 지도밑에 볼쉐비크당은 무장폭동준비를 힘있게 다그쳤다.

10월 10일 레닌의 참가밑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에서는 레닌의 폭동계획을 채택하고 공장, 기업소들과 여러 지역들에 적위대들을 조직하도록 하였다.

또한 뻬뜨로그라드수비대와 발뜨함대에 정치위원들을 파견하여 폭동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② 뻬뜨로그라드에서 무장폭동과 10월혁명의 승리

- 레닌의 지도하에 뻬뜨로그라드에서 무장폭동이 승리하였다. 혁명

을 가로막기 위한 부르죠아림시정부의 발악적책동이 극심하여가는 정세하에서 레닌은 당중앙위원회를 통하여 적을 무장해제시키고 림시정부대신들을 체포할것과 공격을 지체시키지 말것을 지시하였다.

레닌의 지시에 따라 몇시간사이에 적위대, 수비대, 발뜨함대해병으로 이루어진 20여만명의 무장대오가 일제히 떨쳐나섰다.

- 10월 25일 밤 폭동군은 순양함 《아브로라》호의 장엄한 포사격과 함께 일제히 동궁(겨울궁전)을 공격하여 26일 새벽 2시에 그를 점령하고 림시정부대신들을 모조리 체포하였다.

뻬뜨로그라드에서 무장폭동은 승리하였다.

10월 26일 밤에 스몰리느이궁전에서는 제2차 전로씨야로동자병사대의원쏘베트대회가 열리였다.

26일 레닌을 수반으로 하는 쏘베트정부가 수립되였다.

- 혁명은 전국적범위에로 급속히 확대되였다.

11월 3일에는 모스크바무장폭동이 승리하였으며 씨비리와 원동지방에서도 1918년 1월 - 2월에 쏘베트정권이 수립되였다.

이리하여 혁명이 시작된지 불과 3~4개월내에 지구륙지면적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광대한 령토우에 쏘베트정권이 수립되였다.

③ 사회주의10월혁명의 력사적의의

수천년동안이나 인간의 자주성을 짓밟던 낡은 착취제도를 철폐하고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의 시초를 열어놓았다는데 있다.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전세계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다는데 있다.

## 27. 중국에서 5.4운동

① 5.4운동의 원인과 동기

-원인은 중국인민을 지배하기 위한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강화된데 있었다.

-직접적동기는 빠리강화회의에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국가대표

들이 일제와 결탁하여 중국의 산동지방을 일제에게 넘겨주기 위한 부당한 결정을 채택한것과 관련되였다.

② 5.4운동진행과정

-첫 시기(1919년 5월-6월초까지)

1919년 5월 4일 베이징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 학생 3 000여명은 천안문광장에 모여 빠리회의결정을 배격하는 집회를 가진 다음 《청도를 다시 찾자!》,《중국은 중국사람의것이다!》,《매국역적들을 처벌하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대사관구역으로 밀려가 항의시위를 벌렸다.

중국반동경찰들은 무력으로 시위를 탄압하면서 30여명의 학생들을 체포하였다.

이에 격분한 학생들은 다음날부터 일제히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학생들의 용감한 투쟁에 고무된 베이징시민들도 투쟁에 떨쳐나섰다.

- 둘째 시기 (1919년 6월초-6월말까지)

6월 5일에는 상해에서 수만명의 로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다.

로동자들의 투쟁에 호응하여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벌렸으며 상인들은 상점문을 닫았다. 상해를 비롯한 중국의 여러 도시들에서 반일시위와 일본상품배척운동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였다.

인민들의 강력한 혁명적진출에 겁을 먹은 반동정부는 체포한 학생전원을 석방하였으며 몇놈의 친일역적을 그 직무에서 떼는《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었다.

빠리에 파견된 중국대표도 강화조약문건에 서명하기를 거절하였다.

5.4운동은 중국인민의 승리로 끝났다.

③ 의의

5.4운동은 자주성을 위한 중국인민의 투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5.4운동은 반동통치배들과 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5.4운동을 계기로 중국혁명은 공산당과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다.

## 28. 중국에서 국내혁명전쟁

### 1) 제1차 국내혁명전쟁

1920년대 후반기 중국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을 등에 업은 반동군벌

들호상간에 세력확장을 위한 군벌싸움이 그칠사이 없었다.

-군벌싸움을 끝장내고 통일된 민주주의국가를 세울것을 요구하는 중국인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1926년 7월초 약 10만명의 국민혁명군은 《제국주의를 타도하자!》,《군벌을 타도하자!》,《봉건세력을 타도하자!》라는 구호밑에 북벌전쟁을 시작하였다.

국민혁명군은 그해말까지 중국의 중남부지방과 이 지역주민 1억 5천만명을 해방하였다.

다음해 2월에는 국민혁명군이 로동자들에 의해 해방된 상해에 들어왔다.

-1927년 4월 《혁명가》로 가장하고 국민혁명군 총사령관자리를 타고앉았던 장개석은 상해에서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장개석도당은 상해로동자규찰대의 무장을 몰수하고 국민혁명군내에서 공산당과 로동자출신의 지휘관들을 내쫓았다.

또한 수많은 로동자들을 살해하고 공산당과 로동조합들을 파괴습격하였다.

장개석도당은 남경에서 반혁명적정부를 따로 조직하였다. 이리하여 국공합작은 파탄되고 제1차 국내혁명전쟁은 실패로 끝났다.

**2) 제2차 국내혁명전쟁**

제1차 국내혁명전쟁이 실패한 후 중국공산당은 장개석도당의 군사정변에 무장폭동으로 대답하였다.

- 1927년 8월 1일 남창에서 주은래와 주덕의 지휘밑에 공산당을 지지하는 8만여명의 군대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남창폭동을 계기로 제2차 국내혁명전쟁이 시작되였다.

남창폭동부대는 그후 정강산에 들어와 모택동의 로농홍군과 합류하였다. 전국적으로 11개 지역에 해방지구를 창설하였다.

해방지구에 대한 장개석도당의 여러차례의 대규모공격을 성과적으로 물리쳤다.

- 1934년 10월에 중국공산당은 항일전쟁을 하기 위하여 력사적인 2만 5천리장정을 시작하였다. 수만명의 홍군은 1935년 10월에 목적지인 섬북해방지구에 도착하였다.

그후 중국혁명은 연안을 중심으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 3) 제3차 국내혁명전쟁

1945년 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중국에서는 공산당과 장개석 국민당사이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였다.

-미제의 부추김을 받은 430만의 장개석군대는 1946년 7월부터 해방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3차국내혁명전쟁이 일어났다.

이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수많은 조선혁명가들을 중국전선에 파견하시여 중국인민의 투쟁을 적극 도와주도록 하시였다.

조선인민의 국제주의적지원에 고무된 중국인민해방군은 1947년 여름부터 반공격으로 넘어가 수백만의 적을 섬멸하고 1949년 4월 - 5월 장개석도당의 마지막 지탱점인 남경과 상해를 점령하였다.

장개석도당은 대만으로 도망쳤으며 인민해방군은 1950년까지 대만을 제외한 전 중국령토를 완전히 해방하였다.

-1949년 10월 1일 모택동을 주석으로 , 주은래를 총리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였다.

## 29. 국제공산당의 창건

① 국제공산당창건의 필요성

로씨야에서 사회주의10월혁명이 승리한 후 국제공산주의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국제적인 조직을 내오는 문제가 절박하게 제기되였다.

- 당시 갓 창건된 여러 나라의 공산당들은 자체의 충분한 지도력량과 옳바른 전략전술, 풍부한 투쟁경험이 없었다.

또한 파산된 제2국제당 수정주의자들이 국제로동운동의 지도권을 잡으려고 미쳐날뛰고있던 사정과도 관련되였다.

② 국제공산당의 창건과 의의

- 레닌의 지도밑에 1919년 3월 2일 모스크바에서는 국제공산당창립대회가 열렸다.

대회에는 30여개 나라의 공산당과 사회민주당 좌파들의 대표 50여명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제3국제당창건을 결정하고 이름을 국제공산당(일명 코민테른)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 대회에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당면한 투쟁과업이 로동계급의 정권을 세우기 위한 혁명투쟁을 강화하는데 있다는것을 강조하였다.

- 국제공산당 가입조건은 여러 나라 당들이 당강령을 공산주의적강령으로 바꾸고 1국1당제원칙을 지키는것이였다.

- 국제공산당창건은 갓 창건된 각국의 공산당들을 강화하고 로동계급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국제공산당은 창건된 이후 20여년간 국제로동운동과 각국의 민족해방운동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 30. 제2차 세계대전

### 1) 제2차 세계대전은 어떤 전쟁이였는가.

- 1939년 9월-1945년 9월초까지 6년간 진행된 제2차 세계대전은 파쑈도이췰란드와 일본, 이딸리아제국주의 등을 한편으로 하는《동맹국》과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을 다른편으로 하는《련합국》들사이의 세계제패를 실현하기 위한 부정의의 전쟁으로 시작되였다.

- 제2차 세계대전에는 세계인구의 80%를 망라한 60개 나라가 저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동맹국》 혹은 《련합국》편에 가담하여 전쟁에 참가하였다.

동원된 군대수는 1억 1 000만명이였으며 죽은 사람은 5 000만명이 훨씬 넘었다.

### 2) 제2차 세계대전의 성격

이 전쟁은 비록 제국주의렬강들사이의 부정의의 침략전쟁으로 시작되였지만 사회주의국가인 쏘련을 비롯한 전세계 민주주의력량이 참전함으로써 반파쑈해방전쟁의 성격을 띠고 발전하였다.

### 3)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과 결과

2차대전시기 진행된 기본전쟁은 쏘-도전쟁(1941년 6월-1945년 5월)과 일제에 의하여 도발된 《태평양전쟁》(1941년 12월-1945년 9월)이였다.

- 쏘-도전쟁은 1941년 6월 파쑈도이췰란드의 쏘련침공으로부터 시작되였으며 1945년 5월 쏘련군대의 베를린점령과

히틀러도이췰란드의 패배로 끝났다.

-《태평양전쟁》은 1941년 12월 일제의 진주만공격으로 시작되였다.

이 전쟁은 태평양과 동남아시아에서 일본 대 영국, 미국(그후 쏘련도 참가) 등 제국주의렬강들사이에 벌어졌다.

1945년 9월초 일제의 패망으로 《태평양전쟁》이 끝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였다.

#### 4) 제2차 세계대전이 남긴 력사적교훈

-침략과 전쟁을 본업으로 하는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평화로운 세계란 생각할수 없다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는것이다.

## 31. 중동전쟁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침략책동에 의하여 중근동에서는 이미 여러번 전쟁이 일어났으며 이 지역의 정세는 의연히 긴장되여있습니다.》**

#### 1) 중동지역의 정세가 력사적으로 긴장되여있는 원인

제2차 세계대전후 풍부한 석유자원에 눈독을 들인 미제가 이스라엘침략자들을《돌격대》로 내세워 이 지역을 지배하기 위하여 침략과 전쟁책동을 끊임없이 강화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 2) 중동전쟁과정

① 제1차 중동전쟁(팔레스티나전쟁)

-1차중동전쟁은 미제의 조종밑에 이스라엘국가가 조작된 1948년 5월에 일어났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수만명의 이스라엘침략군은 팔레스티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 전쟁이 터지자 에짚트군대는 수리아, 레바논, 이라크 등 아랍나라 군대들과 함께 이스라엘침략군을 반대하여 싸웠다. 그러나 아랍군대들은 이스라엘침략군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 1차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침략자들은 6 700㎢의 팔레스티나땅을 더 강점하고 그곳에서 100만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을 내쫓았다.

② 제2차 중동전쟁(《수에즈전쟁》)

-1956년 10월 영, 프,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에짚트정부의 수에즈운하국유화를 반대하여 일으켰다.

침략자들은 까히라, 수에즈 등 여러 지역을 폭격하고 에짚트의 일부 지역에 침입하였다.

- 그러나 침략자들은 에짚트군대와 인민들의 항전과 전세계 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 의하여 에짚트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되였다.

11월 6일 정화가 실시되고 영, 프침략군은 12월에, 이스라엘침략군은 다음해 3월까지 에짚트에서 쫓겨났다.

③ 제3차 중동전쟁(《6월전쟁》)

1967년 6월 미제의 군사적지원밑에 이스라엘군대는 불의에 에짚트와 수리아군대를 공격하였다.

첫 타격에 항공대를 격파당하고 중요진지들을 빼앗긴 에짚트는 할수없이 전쟁개시 5일만에 정화를 하였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요르단강 서안지역과 시나이반도, 수리아의 골란고원 그리고 레바논의 일부 령토를 강점하였다.

④ 제4차 중동전쟁(《10월전쟁》)

1973년 10월 미제의 부추김밑에 이스라엘침략군은 또다시 에짚트와 수리아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 전쟁초기 에짚트와 수리아군대는 즉시 반공격으로 넘어갔다.

전쟁이 터지자 많은 아랍국가들도 반이스라엘전쟁을 선포하였다.

에짚트군은 수에즈운하를 건너 시나이반도 한복판까지 진격하였다.

- 그러나 미제의 대규모적지원을 받은 이스라엘군대에 의하여 에짚트군의 주력이 포위당하였다.

에짚트정부는 외세의 압력으로 10월 정전협정에 조인하였다. 이 전쟁에서도 에짚트와 수리아는 미제의 간섭으로 이스라엘에 빼앗겼던 아랍땅을 전부 되찾지는 못하였다.

-오늘도 아랍나라들은 강점된 아랍땅을 되찾기 위하여 이스라엘침략자들과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 32. 꾸바혁명의 승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꾸바혁명의 승리는 미국의 코앞에서 일어난 사회주의혁명의 첫 승리이며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위대한 10월혁명의 계속입니다.》**

꾸바혁명가들은 미제와 바띠스따도당의 폭압통치를 반대하여 무장투쟁에 일떠섰다.

① 몬까다병영의 습격

1953년 7월 26일 165명의 꾸바혁명가들은 몬까다병영과 시립청사를 동시에 습격하였다. 그러나 이 병영의 습격은 실패하였다. 봉기자들의 대부분은 희생되거나 체포되여 외국으로 추방되였다.

② 《그란마》호의 상륙과 무장투쟁의 확대

메히꼬에 추방된 봉기자들은 그곳에서 다시 무장부대를 조직하였다.

1956년에 82명의 꾸바혁명가들은《그란마》호라는 배를 타고 꾸바의 오리엔떼주에 상륙하였다. 그러나 적들의 매복에 걸리여 대부분이 죽고 12명의 혁명가들만이 7자루의 총을 가지고 씨에라마에스뜨라산에 들어가 유격근거지를 창설하고 무장투쟁을 벌리였다. 무장투쟁은 꾸바인민을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였다.

③ 아바나의 해방과 혁명의 승리

전국에서 혁명투쟁이 앙양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봉기군은 산에서 내려와 총공격으로 넘어가 1959년 1월 1일 수도 아바나를 해방하였다.

이리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끝장나고 인민혁명은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혁명이 승리한 후 1959년 2월  혁명정부가 수립되였다.

④ 꾸바혁명승리의 력사적의의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사회주의혁명의 첫 승리로서 꾸바인민의 력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에서 미제의 식민지체계에 돌파구를 냄으로써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 33. 쁠럭불가담운동

### 1) 쁠럭불가담운동의 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운동이며 제국주의와 대치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력량입니다.》**

①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출현

제2차 세계대전후 미제는 세계도처에 침략적군사쁠럭을 만들어놓

고 여기에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얽매여놓음으로써 이 나라들에 대한 통제와 지배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많은 나라들이 중립 또는 쁠럭불가담정책을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쁠럭불가담국가들이 출현하였다.

② 쁠럭불가담운동의 시작

주체50(1961)년 9월 당시 유고슬라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가 소집됨으로써 쁠럭불가담운동이 시작되였다.

**2) 쁠럭불가담운동의 확대발전**

① 쁠럭불가담운동대렬의 급속한 확대

주체50(1961)년의 25개 나라로부터 주체95(2006)년 현재까지 118개의 성원국들이 망라되였으며 주체95(2006)년까지 14차례의 수뇌자회의를 가지였다. 수뇌자회의는 3년에 1차씩 진행되게 되여있다. 주체98(2009)년에 에짚트에서 제15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는 주체64(1975)년 8월에 쁠럭불가담운동의 정식 성원국으로 되였다.

② 쁠럭불가담운동의 역할

쁠럭불가담운동은 제국주의반동세력에 대치하고있는 강력한 정치세력으로서 국제무대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

국제정치생활에서 제국주의의 침략과 내정간섭,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략탈적인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하며 남남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공헌을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은 쁠럭불가담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 34. 쏘련 및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 《개혁》, 《개편》정책의 실시

1) 쏘련 및 동유럽나라들에서 반혁명적인 《개혁》,《개편》정책의 실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최근년간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였으며 얼마전에는 쏘련이 해체되여 자기 존재를 끝마쳤습니다.》**

1985년 쏘련에서 현대수정주의자이며 사회주의배신자인 고르바쵸브가 쏘련공산당의 지도부를 장악하면서부터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의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에서 《개혁》,《개편》정책이 실시되였다.

《개혁》,《개편》정책이란 사회정치생활에서 《다당제》를 받아들이며 경제분야에서 사회주의계획경제대신에 《시장경제》를 도입하며 사상문화분야에서 《자유화》, 군대의 《비정치화》,《비사상화》를 실시한다는것이다.

-사회정치생활에서《다당제》는 각이한 사상과 경향을 가진 여러 정당들이 활동하면서 선거《경쟁》을 벌려 여기에서 《이긴》 당이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한다는것이다.

《다당제》의 반동적본질은 부르죠아독재를《민주주의》로 위장한 현대제국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정당제도라는데 있다.

-시장경제가 도입된 결과 쏘련 및 동유럽나라들에서 개인기업, 개인상업이 늘어났으며 농촌에서는 협동조합들이 해산되고 개인경리가 되살아나게 되였다.

-모든것을 《공개》하고 《개방》한 결과 사상문화분야에서는 개인리기주의와 범죄가 성행하고 썩어빠진 자본주의생활양식이 널리 퍼지게 되였다.

-국방분야에서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가 법적으로 페지되고 군대안의 당조직과 정치부가 없어졌으며 군수공장은 민수공장으로 전환되고 군대들이 대폭 축소되였다.

-외교분야에서는 사회주의배신자들이 제국주의자들에게 빌붙고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배신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2) 《개혁》,《개편》정책의 후과**

- 다민족국가들인 쏘련 및 동유럽나라들에서 분립운동을 촉진시키였다.

쏘련에서는 발뜨해나라들로부터 시작하여 10여개의 가맹공화국들이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쏘련은 해체되였다.

도이췰란드에서도 1990년말에 동부도이췰란드가 서부도이췰란드에 먹히우는 방법으로 병합되였다.

이전 유고슬라비아에서도 련방이 해체되고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는 체스꼬와 슬로벤스꼬가 분리되여 독립하였다.

- 오늘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나라들에서는 정치적혼란과 경제적파산, 실업자의 증대, 민족간의 분쟁, 무서운 범죄 등으로 인민들이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있다.

그러나 일부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과 자본주의복귀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사회주의《종말》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며 더우기는 자본주의 《승리》로 될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위업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위업으로서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이기때문이다.

## 35. 위대한 주체사상의 연구보급사업의 심화발전

### 1) 주체사상의 연구와 보급을 위한 조직들의 결성과 그 확대발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세계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자주성을 지향하여나가는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습니다.》**

①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출현

-주체58(1969)년 4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탄생 57돐에 즈음하여 말리고등사범학교 교원, 학생들이 무은《**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결성으로부터 시작되였다.

-그후 주체사상을 연구하기 위한 조직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나라들에서 수많이 무어졌다. 여기에는 정계, 언론계의 이름있는 인사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참가하고있다.

-연구조직들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라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내오게 되였다.

②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국제적조직에로의 확대발전

-대륙적인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결성

주체67(1978)년에《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가 출현하였고 주체69(1980)년에는 《아시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가 결성되였다.

-주체사상연구를 위한 전세계적인 국제기구들의 결성

주체67(1978)년 4월 일본 도꾜에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을 온세상에 선포하였다.

주체83(1994)년말 현재 세계에는 국제적인 상설기관으로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 4개의 지역연구소, 27개의 전국위원회와 1 000여개의 연구조직들이 결성되여 활동하고있었다.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나라들에서는 선군사상연구소조를 비롯한 선군사상과 선군정치를 연구보급하기 위한 조직들이 련이어 조직되여 활동을 벌리고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미국에까지 조직되여있다.

**2) 위대한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의 심화발전**

주체사상에 관한 세계적인 연구토론회들이 진행되고있다.

주체77(1988)년 1년동안에만도 80여개 나라들에서 1 900여회에 걸쳐 주체사상에 관한 토론회와 모임이 진행되였다.

- 민족별로 전국적인 범위에서 주체사상연구토론회가 진행되고있다.
- 1970년대 중엽부터 한 나라와 대륙의 범위를 벗어나 국제적인 범위에서 토론회가 대규모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세계적으로 널리 출판보급되고있다.

-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주체75(1986)년 7월 현재 90여개 나라에서 58개 민족어로 2 000여만부나 번역출판되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력사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 하나만 놓고보더라도 이 로작이 발표된 후 곧 15개 나라 민족어로 번역출판되였으며 80여개 나라에서 200여종의 출판물에 실리였다.
-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해마다 우리 나라의 주요기념일을 계기로 신문, 방송, TV 등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들을 널리 보급선전하고있다.

이밖에도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은 강연회, 사진 및 도서전시회, 강습 등 다양한 형식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을 활발히 보급선전하고있다.

## 용어해설(세계력사)

**노모스** - 고대그리스어로 노모스는 원래 고대에짚트의 일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였는데 그것이 점차 작은 국가(소국)를 의미하였다.

노모스에는 왕(노마르흐)이 있었다.

그후 통일국가가 수립됨에 따라 노모스의 왕들은 통일왕국의 관리로 되였다.

**스파르타의 교육제도**-고대스파르타의 교육은 철저한 군사교육뿐이였다.

학교에서 책읽기와 글쓰기는 거의나 배우지 않고 주로 육체단련, 복종심과 참을성, 인내성만을 배양시켰다.

스파르타에서 아이들은 7살부터 어머니품에서 떨어져나와 무술, 경기훈련, 복종심과 명예의식으로 교육받고 20살-30살까지 군사복무를 하였다.

이리하여 고대스파르타는 군사적으로는 강하였으나 문화적으로는 가장 뒤떨어진 나라로 되였다.

**갑골문자**－고대중국인들이 쓰던 문자인데 거부기의 등껍데기나 짐승뼈에 새겨져있는것이 발굴된데로부터 이렇게 불렀다.

이 갑골문자가 점차 변화발전하면서 한자로 되였다.

**코란**－이슬람교를 내놓은 무함마드가 죽은 후 그의 말을 기록하여 만든 이슬람교의 경전이다.

114개조로 되여있는데 오늘까지 한자도 수정됨이 없이 전해오고있다.

《코란》에는 신앙에 관한 교리뿐아니라 이슬람교도들의 일상생활규범과 의무도 규정되여있다.

오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 팔레스티나,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등 세계의 여러 지역에 살고있는데 그 수는 10여억에 달한다.

**공장제수공업**－분업과 수공업기술에 기초한 자본주의적협동생산을 말한다.

일명《마누팍뚜라》라고도 한다. 마누팍뚜라의 《마누》는 《손》이며 《팍뚜라》는 《공장》이다.

공장제수공업의 특징은 분업에 기초한 수공업적협동생산이라는데 있다.

**3강5륜**-3강5륜은 봉건사회의 기본도덕원칙과 규범을 특징짓는 말이다.

3강은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안해의 륜리도덕관계에서 임금, 아버지, 남편은 각기 대방에 대하여《강》 즉 지배적지위에 있다는것이다.

5륜은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안해, 어른과 아이, 같은 또래의 동무들사이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다섯가지 륜리도덕 규범이다.

즉《군신유의》(임금과 신하사이에 의리가 있어야 한다),《부자유친》(아버지와 아들사이에 친분이 있어야 한다),《부부유별》(남편과 안해사이 구별이 있어야 한다),《장유유서》(어른과 어린 사람사이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붕우유신》(벗들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을 설교하고있다.

**대화개혁**－645년 일본에서 진행된 봉건적인 정치개혁.

나까노 오에와 나까도미노 가마다리 일파는 소가일족을 타도하고 국가의 실권을 틀어쥐였다. 나까노 오에는《황태자》가 되고 왕족출신인 고도꾸를《천황》으로 내세웠다. 반소가세력은 년호를 제정하고 나니와(오사까)에 천도(수도옮김)하였다. 이듬해인 646년에는 황실과 호족들의 사유지(소국)와 사유민을 페지하고 수도와 국, 군, 리의 지방행정조직을 확립하였으며 호적작성, 반전수수법의 실시, 조세와 공물, 부역등 통일적인 부과제도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지방할거적인 소국들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중앙집권적통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였다. 이것들이 시행되기까지는 그후 약 반세기가량의 시일이 걸렸다.

**사무라이**- 칼부림을 전문업으로 하는 일본의 봉건무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무라이라는 말은 무기를 가지고 상전의 측근에서 시종한다고 하여《모시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일본에서는 8세기경부터 사무라이가 발생하였다.

**막부**－일본사무라이 우두머리의 본거지 또는 그 권력조직을 말한다. 막부라는 말은 중세 중국에서 나왔다. 중국에서는 출전중에 있는 장군의 막사를 막부라고 불렀으며 일본에서는 근위대장의 거주지 또는 주택을 가리켰다. 근위대장이 세력을 확대하여 무신정권을 세우고 그 우두머리인 정이대장군으로 되면서 그의 집은 막부로 불리우게 되였다. 이로부터 막부는 무신정권(사무라이정권)이라는 개념으로 널리 쓰이였다.

**《3부회의》**- 1신분인 승려귀족, 2신분인 봉건귀족 그리고 3신분인 도시귀족(부르죠아화된 귀족)들의 회의를 말한다.

력사상 처음으로 3부회의는 영국에서 1265년에 출현하였다.

프랑스봉건국가에서 국왕의 주최로 진행된 3신분대표들의 회의는 14세기초(1302년)에 출현하여 18세기말까지 존재하였는데 이것은 이 나라에서 부르죠아의회정치의 시작으로 되였다.

**뉴톤의 공적**-영국의 물리학자이며 수학자인 뉴톤은 1642년 자작농의 아들로 태여났다. 1661년 캠브리치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광학과 기하학을 배웠으며 1665년에 졸업하였다. 뉴톤은 수학분야에서 1664년에 무한급수를 연구하여 2항정리를 수립하고 1668년에 반사망원경을 창안제작하였다. 그는 1687년에 집필한 저서 《자연철학의 수학적원리》에서 뉴톤의 운동법칙, 만유인력법칙, 태양행성들의 운동, 류체속에서의 물체의 운동에 관한 문제들을 서술하였다. 그는 또한 여러해에 걸쳐 진행한 빛에 대한 연구결과를 1704년에 저서《광학》을 통하여 체계화하였다.

그는 정력적인 연구로 한생에 많은 과학적성과들을 거두었다. 이 과정에 닭알이 아니라 회중시계를 삶았다는 일화까지 남기였다.

**큐리부인의 공적**－큐리 마리스끌로 돕스까(1867-1934)는 프랑스의 녀성물리학자, 화학자이다. 뽈스까의 와르샤와에서 리과교원의 딸로 태여났다.

녀학교시절부터 과학연구사업에 전념할 뜻을 품었으며 졸업후 수년간 가정교사로 일하면서 학비를 장만한 후 24살에 빠리의 소르본느대학에 입학하여 수학, 물리학을 전공하였다.

큐리부인은 1898년 라디움, 폴로니움을 발견하고 1903년에 리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남편(삐에르 큐리)과 함께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다. 1908년 소르본느대학의 교수로 있었으며 1910년 금속라디움의 분리에 성공하여 다음해 노벨화학상을 받았다.

제1차 세계대전시기 엑스선과 라디움료법을 부상자들에게 적용하여 많은 전상자를 치료하였다.

그의 이름에 따라 명명한 큐리원소가 있으며 《큐리》로 불리우는 방사능물질의 량적단위가 있다.

**마젤란**-뽀르뚜갈 하급귀족출신으로서 첫 세계일주 려행가이다.

당시 뽀르뚜갈과 에스빠냐사이에는 령토획득을 위한 경쟁이 심하였다. 뽀르뚜갈이 극동지방에 있는 섬들이 다 자기 나라 섬들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에스빠냐는 당시 향료섬으로 이름난 동남아시아의 말루꾸제도를 먼저 획득하고 자기 령토라는것을 주장하려고 하였다.

에스빠냐왕에게 복무한 마젤란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519년 8월 10일 기함 《플로리다》호를 비롯한 5척의 작은 배와 280명의 선원을 인솔하고 쎄빌랴항을 출발하여 남아메리카의 동해안을 지나 남쪽으로 항행하였다. 남반구 겨울의 불리한 날씨와 싸우면서 1520년 10월 21일 남아메리카남단에 도달하였다. 이 과정에 한척의 배는 파손되고 또 한척의 배는 조난당하였다. 그후 계속하여 대륙과 푸에고섬사이의 해협(후에 마젤란해협으로 명명함)을 지나 11월 28일 대양으로 나왔는데 그 바다가 하도 고요하므로 태평양이라고 이름지었다. 폭풍은 만나지 않았으나 음료수와 식량부족으로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93일후에 괌섬에 이르렀고 그로부터 얼마후인 1521년 3월 16일에 필리핀군도에 도달하였다. 이곳에서 마젤란은 필리핀군도의 중심부에 있는 쎄부섬원주민들과의 싸움에서 4월 27일에 죽었다. 선원들은 배 1척을 불태우고 기함과 《빅토리아》호로 향로섬인 말루꾸제도에 도달하였으며(11월 6일)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서 1522년 9월 9일에 에스빠냐에 돌아왔다. 이때 돌아온것은 《빅토리아》호와 승조원 18명뿐이였다.

**부르죠아혁명**-인민대중의 반봉건투쟁을 리용하여 부르죠아지가 혁명의 령도권을 쥐고 낡은 봉건제도를 뒤집어엎고 자본주의제도를 세우는 사회혁명이다.

부르죠아지들은 인민들의 반봉건투쟁을 리용하여 봉건제도를 청산하고 국가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자본가계급의 정권을 세울수 있었다.

**량당통치제도**-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자본가계급에게 복무하는 두개의 지배적정당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집권하는 반동적부르죠아통치제도이다.

이 통치제도는 자본가계급이 이른바《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제3당, 로동계급의 당의 정권출현을 억제하려는데 그 반동적본질이 있다.

**립헌군주제**-착취사회에서 군주의 권한이 의회(국회)에 의하여 제한되

는 군주통치형태의 하나이다.

**공화제**-공화제란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이나 국가수반을 선거하는 방법으로 조직하는 국가제도이다.

사회주의사회의 공화제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위한 민주주의적정치를 실현하는 형식이지만 착취사회의 공화제는 극소수 착취계급내부의 이른바《민주주의적》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형식이다.

공화제에는 의회제공화제, 대통령공화제가 있다.

**산업혁명**-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수립되는 시기에 손로동이 기계에 의한 로동으로 바뀌여지는 생산기술분야에서의 일대 변혁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수공업기술에 기초한 공장제수공업단계의 자본주의로부터 기계기술에 기초한 산업자본주의에로의 이행과정을 말한다.

산업혁명은 18세기 60년대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였으며 그후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일어났다.

산업혁명은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기술혁명과는 반대로 로동자들의 실업과 빈궁을 더욱 촉진시키며 자본가들에게 막대한 재부를 축적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명치유신》**-1868년 일본에서 수행된 부르죠아혁명을 말한다.

수백년동안 일본을 지배하던 봉건적도꾸가와막부통치가 무너지고 《천황》을 두목으로 하는 지주-부르죠아정권이 수립되였는데 이를 력사에서 《명치유신》이라고 한다.

《명치유신》을 통하여 군사봉건적인 일본은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정한론》**- 명치유신을 전후한 시기에 제창된 강도적인 조선침략론. 일본의 《번영》과 《천황》국가의 위력을 위하여 조선을 무력으로 정복하여야 한다는 일본군국주의집단의 침략적주장을 말한다. 그 대표자는 사이고 다까모리이다.

**《야스구니진쟈》**- 청일전쟁, 로일전쟁을 비롯한 여러 침략전쟁에서 황천객이 된자들의 위패가 있는 신사. 무려 240만개의 위패가 있다. 《천황》숭배사상과 군국주의사상을 전파하고 해외침략을 고취하는 거점

으로 되고있다.

**꼼뮨**-원래 자치기관이라는 뜻이였다. 꼼뮨은 프랑스에서 봉건사회때부터 있었다.

1871년 3월에 수립된 빠리꼼뮨은 예로부터 내려오던 꼼뮨의 형식만을 빌리였을뿐 그의 성격은 완전히 변하여 프로레타리아주권기관으로 되였다.

군사봉건적제국주의-봉건적군주제와 독점자본주의가 결합된 제국주의이다.

군사봉건적제국주의는 뒤늦게 발전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부르죠아혁명이 불철저하게 수행된 관계로 봉건지주계급이 청산되지 못하고 지주, 부르죠아지가 서로 손을 잡고 나가는 과정에 이루어진것이였다.

19세기말-20세기초 군사봉건적제국주의의 대표적인 나라는 도이췰란드, 일본제국주의와 로씨야제국주의였다.

**《포츠마스강화조약》**-로일전쟁(1904~1905년)의 결과 짜리로씨야와 일제간에 체결된 침략적인 조약을 말한다.

1905년 미국대통령 루즈벨트의 중재하에 미국의 포츠마스에서 체결되였다.

이 조약에 의하여 일제는 조선과 중국 동북지방에서 로씨야세력을 내쫓고 려순과 대련 및 남만주철도 그리고 로씨야 싸할린섬의 남부를 빼앗았다.

**《삼민주의》**-중국민족부르죠아지의 대표자인 손문(손중산)에 의하여 제창된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를 가리키는 말이다. 10월혁명을 전후하여 구삼민주의와 신삼민주의로 구분한다.

《삼민주의》는 청나라의 전복과 부르죠아공화정치의 실현, 토지문제의 해결 등 부르죠아혁명사상을 반영하였으나 많은 부족점도 가지고 있었다.

**볼쉐비크**-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안에서 레닌을 지지한 맑스주의자들을 가리킨 말이다.

1903년 당 제2차대회에서 레닌을 지지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

였기때문에 그들을 《볼쉐비크》(다수파)라고 부른데서 나왔다.

여기에서 레닌을 반대하여나선 기회주의자들을 멘쉐비크(소수파)라고 하였다.

레닌과 볼쉐비크당은 사회주의10월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었다.

**3.8국제부녀절**-1910년 8월 단마르크의 꽤뻰하븐에서 열린 제2차 국제사회주의자녀성대회에서 1909년 3월 8일에 있은 미국 시카고 방직공장녀성들의 투쟁을 기념하며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위한 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부녀절을 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발기자는 도이췰란드의 녀성활동가인 클라라 제트킨(1857.7-1933)이다.

**왜 10월혁명이라고 하는가?** -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10월혁명이 승리한 날은 1917년 11월 7일이다. 그런데 10월혁명이라고 하는것은 로씨야에서 혁명이후 력서를 새로 받아들인것과 관련된다.

원래 유럽에서는 16세기전까지 율리우스력서(구력)를 써왔다. 그런데 이 력서는 128년동안에 하루의 오차가 생기는 부족점이 있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도들에게 있어서 종교행사날자를 정하는데 혼란을 조성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로마법왕 그리고리 8세는 력서를 새로 만들도록 하고 1582년부터 사용하도록 칙령을 발표하였다.

이 새로운 력서를 그리고리력 또는 신력이라고 하였다. 로씨야는 1918년 1월 31일에 신력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로씨야에서 11월 7일은 구력으로 하면 10월 25일이였던것이다. 이로부터 11월 7일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을 10월혁명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쏘베트**-로씨야어로 《회의》, 《협의회》라는 뜻이였는데 1905년 로씨야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시기부터 프로레타리아정권형태로 되였다.

사회주의10월혁명을 전후하여 로씨야에는 레닌을 수반으로 하는 로동자병사대의원쏘베트가 존재하였다.

**로씨야에서 공민전쟁**-1918~1920년 기간에 외래제국주의무력간섭자들과 그들의 부추김을 받은 국내반혁명세력들을 반대하고 사회주의10월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쏘베트로씨야의 로동자,농민들이 진행한

혁명전쟁. 10월혁명에 의하여 전복된 로씨야의 국내반동들과 쏘베트로씨야를 적대시해온 외래제국주의자들은 청소한 쏘베트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치우려고 책동하였다. 이리하여 쏘베트로씨야를 반대하는 안팎의 반혁명세력의 련합이 이루어졌다. 제국주의자들은 로씨야 각지에 반동적백파군을 조직하고 그들에게 군사적 및 재정적원조를 주었다. 제국주의렬강들의 원조밑에 반동적인 백파도당은 쏘베트로씨야를 반대하는 대대적인 군사적공세를 벌리였다.

1918년 9월 쏘베트공화국은 전시상태를 선포하였으며 공화국혁명군사위원회가 조직되였다. 전쟁승리를 위하여《전시공산주의》정책이 실시되였다. 전선과 후방을 공고히 한 쏘베트로씨야는 원쑤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에로 넘어가 1918년말-1919년초에 에스또니야, 라뜨비야, 벨라루씨, 우크라이나에서 여러 도시들을 해방하고 쏘베트정권을 복구하였다.

붉은군대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씨에 침입한 뽈스까침략군을 몰아냈으며 1920년 11월 크림을 우랑겔도당의 통치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였다. 쏘베트원동지방에서는 1922년에 일제침략군을 몰아냈다. 일제의 잔당들이 완전히 쫓겨난것은 1925년이였다. 이와 같이 쏘베트로씨야인민은 볼쉐비크당의 령도밑에 1920년말까지 제국주의무력간섭자들과 국내반혁명세력의 침략책동을 기본적으로 물리치고 사회주의혁명의 전취물인 쏘베트정권을 수호하였다.

신해혁명 - 1911년 청나라봉건왕조를 뒤집어엎고 중화민국을 세운 부르죠아혁명을 말한다. 1911년이 신해년이였으므로 신해혁명이라고 한다.

1911년 4월 청나라봉건통치배들이 철도국유화의 기만적인 간판밑에 광한철도, 천한철도를 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넘긴 사건을 계기로 인민들의 반봉건투쟁이 더욱 앙양되였다. 대중의 혁명적진출이 강화되는 가운데 1911년 10월 10일 신해혁명의 시발점으로 되는 무창폭동이 일어났다. 11일 무창에는 혁명파와 보수적인 립헌파, 구관료파의 3파련립으로 된 호북군정부가 수립되였다. 군정부는 국호를《중화민국》으로 선포하고 각 성이 폭동에 호응궐기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폭동은 전국을 휩쓸었고 11월 하순에는 중국의 24개 성가운데서 14개 성이 청나라통치로부터 떨어져나와 독립을 선포하였다.

각 성 대표들은 남경에 모여 림시정부를 조직할것을 결정하였으며

이해 12월 손문이 해외에서 귀국하자 각 성 도독부대표회의에서는 손문을 림시대총통으로 선거하였다. 1912년 1월 1일 손문은 남경에서 중화민국림시정부의 창건을 정식 선포하였으며 부르죠아공화국헌법의 성격을 띤 《중화민국림시약법》을 발포하였다.

그러나 손문은 당시 베이징에서 청왕조의 실권을 가로챈 반동군벌 원세개에게 공화정치제도의 수립과 청나라황제의 퇴위를 조건부로 총통의 자리를 넘겨줄 용의가 있다는것을 선언하였다. 이것은 손문의 실책이였다.

오래전부터 개인독재수립을 꾀하여온 원세개는 2월에 청황제를 퇴위시키는 놀음을 하였으나 중화민국림시정부의 대통령으로서 혁명에서 달성한 성과들을 모조리 말살하였다. 결국 신해혁명은 실패하고말았다.

**9.18사변-** 1931년 9월 18일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에 대하여 감행한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사건을 말한다. 일명 《만주사변》이라고 한다.

일제침략자들은 9월 18일 밤 심양교외의 류조구(류조호)부근 남만주철도의 한 구간을 파괴하고 그 책임을 중국측에 넘겨씌우고는 《자위적조치》라는 명목밑에 북대영에 있던 중국군대의 병영을 불의에 습격하는 동시에 심양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9월 19일 일제침략자들은 장춘, 사평, 안산, 무순, 안동(오늘의 단동) 등 20여개 도시를 공격점령하였으며 1주일동안에 료녕성과 길림성을 완전히 강점하였다. 당시 장개석도당은 중국혁명을 교살하기 위한 국내전쟁에 몰두하면서 일제의 침략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투항주의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시 동북지방에 주둔하고있던 근 20만의 동북군은 《절대로 저항하지 말라》는 장개석도당의 명령에 따라 산해관이남지역으로 철수하였다. 1932년 2월초 일제침략자들이 할빈을 비롯한 흑룡강성일대를 점령함으로써 결국 3개월반동안에 전체 동북지방을 완전히 강점하였다. 1931년 3월 1일 장춘에 괴뢰《만주국》을 조작하고 전체 동북지방을 식민지군사기지로 만들었다.

**진주만사건-** 태평양전쟁의 시작으로 된 일제의 진주만에 대한 불의의 습격사건을 말한다.

1941년 12월 8일 아침 7시 55분부터 일제는 350대의 비행기를 실은 6척의 항공모함과 2척의 전함, 9척의 구축함, 여러척의 잠수함으로

편성된 기동부대로 진주만을 습격하였다. 이 습격에서 미제는 전함 4척이 침몰되고 4척이 파괴되였으며 230대의 비행기가 파괴되고 2 400여명이 죽고 1 62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일제는 29대의 비행기, 잠수함 1척, 소형특수잠수함 5척을 잃고 전사자 60여명을 냈을뿐이였다. 이 습격전에서 성과를 거둔 일제는 그것을 리용하여 전쟁초기 일시적우세를 차지할수 있었다.

**《국제려단》**-1936년-1938년 에스빠냐공민전쟁시기 인민전선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에스빠냐로 들어간 국제지원병부대였다.

국제공산당의 호소에 따라 세계 54개 나라에서 3만 5 000명의 국제주의전사들이 에스빠냐전선으로 달려갔다.

지원병들은 주로 민족별, 지역별로 7개의 국제려단을 조직하고 공군, 포병대, 기병대, 공병부대, 위생부대 등에서 용감히 싸웠다.

에스빠냐공민전쟁에서 5 000여명의 국제주의전사들이 세계혁명위업에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쳤다.

**《서안사변》**-1936년 12월 12일 중국국민당내 장학량의 동북군과 양호성의 서북군이 섬서성 서안에서 장개석을 억류하고 그에게 내전을 중지하고 련공항일할것을 요구한 사건이다. 《쌍십이사변》이라고도 한다.

중국공산당의 항일민족통일전선정책은 중국의 각계각층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으며 각지에서는 항일구국투쟁이 세차게 벌어졌다. 이것은 국민당과 그 군대안에 강한 영향을 주었다. 1936년 12월 4일 장개석은 동북군과 서북군을 홍군에 대한 공격에로 내몰기 위하여 비행기를 타고 서안에 나타났다. 서안의 1만여명 청년학생들은 시위를 벌려 장개석에게 항일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장학량과 양호성은 장개석의 투항, 학살정책을 반대하여 12월 12일 새벽 군사행동으로 넘어가 서안의 림동 화청지에서 그를 체포구금하였다. 이것을 중국력사에서 《서안사변》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새로운 대규모적인 국내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긴장한 정세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정세에 대처하여 중국공산당은 새로운 내전의 도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은래 등을 장학량과 양호성부대에 파견하여 국내전쟁을 즉시 중지하며 공산당과 련합하여 항일할것을 담보하는 조건에서 장개석을 석방할것을 권고하였다.

12월 24일 련공항일의 조건을 접수하고 그 이튿날에 석방되여 남경에 돌아간 장개석은 자기를 호송하여간 장학량을 체포하였으며 양호성을 추방하고 그들의 부대를 개편함으로써《서안사변》에 복수하였다. 그러나 장개석은 인민들의 강력한 압력에 못이겨 1937년에 국공합작에《동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로구교사건**-1937년 7월 7일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기 위하여 조작한 사건.《로구교사건》이라고도 한다.

일본침략자들은 동북지방을 강점한 후 중국대륙에 대한 침공을 개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조작하였다.

1937년 봄부터 중국 북평(베이징)서남쪽 완평지방에 주둔하고있던 일제침략군은 군사연습을 감행하면서 침략의 구실을 마련하려고 미쳐날뛰였다.

7월 7일 밤 일제는 군사연습도중 한명의 사병이《실종》되였다는것을 구실로 완평현성에 대한 수색을 강요하였으며 그것이 중국군대에 의하여 거절되자 완평현성을 포위공격하고 로구교를 폭격하였다. 이렇게 되자 중국수비군 제29군 제37사단의 관병들은 일제침략자들에게 항거해나섰다. 이것이 바로《로구교사건》이다.

이 사변이 발생한 후 일본정부는 중국 하북지방에 5개 사단의 무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개시함으로써 중일전쟁을 도발하였다.

**뮨헨공모**-1938년 9월말 도이칠란드의 뮨헨에서 미제의 지지밑에 진행된 영국, 도이칠란드, 프랑스, 이딸리아제국주의나라 두목들의 국제적공모를 말한다.

미제의 지지밑에 영, 프, 이딸리아제국주의 두목들은 이 회의에서 파쑈도이칠란드를 쏘련을 침공하는데로 내몰려는 목적밑에 자기 동맹국인 체스꼬슬로벤스꼬의 슈제트지방을 도이칠란드에 넘길데 대한《뮨헨협정》을 조작하였다.

이 협정에 의하여 총 한방 쏘지 않고 슈제트지방을 강점한 도이칠란드는 다음해 3월초까지 체스꼬슬로벤스꼬의 전 령토를 강점하였다.

결국 《뮨헨협정》은 제국주의렬강들이 도이췰란드로 하여금 제2차 세계대전을 도발케한 흉악한 음모책동이였다.

**파시즘**-제국주의시기 대독점자본가들의 가장 반동적이며 침략적인 정치적조류를 이르는 말이다.

파시즘은 온갖 민주주의의 말살과 파쑈테로독재의 수립,《반공》과 다른 민족에 대한 정복과 박멸을 추구한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대표적인 파시즘은 도이췰란드의 히틀러파시즘, 이딸리아의 무쏠리니파시즘, 일본의 《천황》제파시즘이였다.

**《대동아공영권》**- 1940년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강점지역에 대한 식민지적지배를 강화하며 더 많은 식민지들을 강탈하기 위하여 내놓은 독점적식민지《세력권》에 관한 침략적야망.

1938년 11월부터 이른바《동아신질서》를 제창해나선 일본반동들은 여러차례의 침략모의판을 벌리는 과정에 1943년에 정식 《대동아공영권》야망을 선포하였다. 포괄지역으로는 일본을 중심으로 조선, 만주, 중국, 쏘련 연해주지방 그리고 동부씨비리, 동남아시아반도 및 태평양 남부섬들,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인디아, 태평양의 여러 섬들이 속하였다. 그러나 《대동아공영권》야망은 조선인민을 비롯한 강점지역인민들의 강력한 반일민족해방투쟁에 의하여 수치스러운 파산을 면치 못하였다. 오늘 되살아난 일본반동들은 미제를 등에 업고 또다시《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지만 어리석은 망상은 결코 실현될수 없다.

**《포츠담회담》**-1945년 7월 17일 -8월 2일사이에 도이췰란드의 베를린부근에 있는 포츠담궁전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문제와 관련하여 쏘련수뇌자와 미영제국주의우두머리들간에 진행한 회담이다.

회담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전후 도이췰란드의 장래문제였다.

또한 회담에서는 도이췰란드-뽈스까국경문제, 오스트리아문제, 쏘련의 대일전쟁참가문제, 전범자문제 등 일련의 문제들이 토의결정되였다.

포츠담회담의 결정들은 2차대전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는데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였으나 그후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이 결정들을 전면적으로 파괴유린하였다.

**레닌그라드방위전투**-레닌그라드방위전투는 1941년 3월부터 1944년 1월까지 900여일간 진행되였다. 8월 8일 레닌그라드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한 도이췰란드《북방군 사령부》는 붉은군대와 레닌그라드인민들의 완강한 항전에 의하여 공격이 좌절되게 되자 도시에 있는 군대와 시민들을 질식시키기 위하여 레닌그라드시에 대한 봉쇄에 들어갔다.

그러나 히틀러도이췰란드군대는 레닌그라드봉쇄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심한 추위와 굶주림,폭탄이 비발처럼 쏟아지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레닌그라드방위자들은 빵을 구워냈고 땅크를 만들어냈으며 생산을 추켜올리였다.

온 세계의 부르죠아지들이 레닌그라드가 함락될것이라고 떠들던 1943년에 이 도시의 근로자들은 그전에 비해 더 높은 생산능률을 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레닌그라드방위자들의 불굴의 방위전투에 의하여 도이췰란드의 공격은 실패하고야말았다.

**크림회담**-1945년 2월 쏘련의 크림반도 얄따에서 도이췰란드의 전후처리 및 일본과의 전쟁을 마감짓는 문제와 관련하여 2차대전시기 두번째로 열린 쏘, 미, 영 3개국 수뇌자회담이다.

이 회담에는 쏘련의 쓰딸린,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쳐칠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토의되였다. 먼저 파쑈도이췰란드를 패망시킨 다음 도이췰란드에 쏘, 미, 영 3개국 점령지역을 설정하고 동쪽은 쏘련이, 서쪽은 영국이, 서남쪽은 미국이 각각 차지한다는것을 결정하였다.

전후 베를린도 쏘,미,영 3개국의 점령지역으로 나누고 프랑스까지 포함하여 4개국점령지역으로 만들었다.

다음으로 도이췰란드가 다시는 세계평화를 파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공업해체, 전범자처단, 모든 파쑈악법들을 페지할것을 규정하였으며 전승국들에 대하여 배상금을 물도록 하였다.

그러나 배상금문제는 심각한 의견상의로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뽈스까의 서부국경을 오데르-나이쎄강계선으로, 동부국경을 케르존선으로 토의결정하였으며 국제적조직으로서 국제련합기구(《유엔》)를 창설할것을 토의하였다.

다음으로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쏘련의 대일전쟁참전문제였다.

**유엔**-국제적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기구이다.

정식명칭은 국제련합기구이다.

1945년 6월 26일 미국의 쌘프랜씨스코에서 진행된 《련합국》회의에서 51개 나라가 헌장에 조인함으로써 발족하였다. 본부소재지는 뉴욕이다.

유엔은 지난 시기 많은 경우 미제의 독점적리용물로 되여왔다.

오늘 세계의 진보적나라들은 유엔을 대국들의 영향에서 벗어난 공정한 국제기구로 만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쎄브** -《경제호상원조리사회》, 일명 사회주의협동체를 말한다. 1949년 1월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모스크바에서 창설되였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 미제에 의하여 1949년 8월 24일에 워싱톤에서 조작되였다. 당시 12개의 나라가 망라되였는데 유럽을 지배하는 도구로서 침략적인 반공군사뿔럭이다.

미제는 《랭전》이 종식된 후에도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토를 동유럽나라들과 이전 쏘련의 가맹공화국들에로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1994년 나토 브류쎌수뇌자회의에서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가 제창된 이후 지금 나토에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유럽 아메리카자본주의국가들이 망라되고있다. 2006년 현재 26개 나라(미국, 카나다, 영국, 프랑스, 벨지끄, 네데를란드, 룩셈부르그, 이딸리아, 뽀르뚜갈, 노르웨이, 단마르크, 이슬란드, 그리스, 뛰르끼예, 도이췰란드, 뽈스까, 마쟈르, 체스꼬 등)가 망라되였다.

오늘 나토는 미제의 책동에 의하여 지역적인 제한이 없는 《국제헌병》으로 자처하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까리브해위기》**-까리브해위기는 쁠라야히론에서의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1962년 10월 까리브해상에서 미제가 감행한 꾸바에 대한 침략책동이다.

미국대통령이였던 케네디는 꾸바에 대한 무력침공계획을 강압적으로 통과시키고 군함, 비행기를 동원하여 꾸바에 대한 해상봉쇄를 한 다음 경계태세를 취할것과 해군병사들의 군대복무기간을 1년간 연장하며 꾸바에로 항행하는 모든 선박들의 검색을 진행하는 등 강도적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는 꾸바에 있는 쏘련의 일체 공격용무기들을 즉시 해체, 철수시킬것과 이를 감시하기 위하여 유엔《조사단》을 파견할데 대한 결정을 강압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렇게 되여 쏘련의 일체 공격용무기는 꾸바에서 해체, 철수되였으며 미국군함들과 직승기들의 《검색》을 받으며 자기 나라로 돌아왔다.

쏘련의 수정주의자 흐루쑈브의 변절행위로 하여 꾸바가 시련을 겪게 되였을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꾸바에 있는 대사관성원들은 물론 가족과 류학생들까지 총을 메고 지원병으로 나서서 싸워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꾸바인민의 용감한 투쟁과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인민들의 규탄에 의하여 미제는 한달후에 침략군함, 비행기들을 걷어가지고 물러가고야말았다. 이 사건을 《까리브해의 위기》라고 한다.

**《바크보만사건》**-미제는 1964년에 침략전쟁을 북부웰남에로 확대하기 위한 침략계획인 《계단식확대전략》이라는것을 내놓고 북부웰남에 대한 침략전쟁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하여《바크보만사건》을 조작하였다.

미제는 침략계획에 따라 《매독스》호를 비롯한 5척의 구축함을 웰남민주공화국의 령해인 바크보만에 불법침입시켰다.

8월 5일에는 북부웰남에 생트집을 걸었으며《보복》을 가한다고 하면서 수십대의 공중비적들을 출동시켜 북부웰남의 여러 지역에 기총사격과 폭격을 들이대였다.

미제는 남조선괴뢰군과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군대를 대대적으

로 끌어들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북부웰남인민들에게 전쟁전기간 아낌없는 원조를 제공해주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북부웰남인민들은 용감히 싸웠다.

북부웰남인민들의 투쟁에 크게 고무되여 남부웰남인민무장력과 인민은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의 거듭되는 대공세를 물리치고 1975년 4월 총공격에로 넘어가 호지명(원래 사이공)시를 해방하고 남부웰남을 완전히 해방하였다.

**아세안**- 1967년 8월 방코크에서 창립되였다. 동남아시아국가련합을 말한다.

**유럽동맹** - 미국의 독점적지배전략에 대처하여 《유럽을 위한 유럽건설》을 지향해나선 유럽나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유럽의 정치, 경제, 군사적통합을 목적으로 조직한 국가련합체를 말한다.

1993년 11월 이전까지는 유럽공동체라고 불렀는데 이후 통합을 더욱 발전시킬 목적밑에 유럽동맹으로 발전시키였다. 당시 가입한 나라는 15개 나라(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단마르크, 룩셈부르그, 벨지끄, 스웨리예, 핀란드, 그리스, 네데를란드, 뽀르뚜갈, 에스빠냐, 아일랜드, 오스트리아)였다.

본부는 벨지끄의 브류쎌에 있다.

유럽동맹이 창설된 날은 5월 9일이다. 그것은 1950년 5월 9일 당시 프랑스의 외무상이였던 슈낭이 처음으로 유럽공동체창설구상을 발표한데서 유래되였다.

기발은 진한 하늘색바탕에 12개의 노란색오각별이 새겨져있다. 이것은 각 민족들의 동맹과 단결을 상징하였다.

단일화페는 €(유로)이다. 2002년 1월 1일부터 영국, 스웨리예, 단마르크, 그리스의 제의로 11개 나라에서 현금으로 류통되였다.

최고지도기관은 유럽리사회이다. 이 기구는 유럽동맹성원국수뇌자회의로서 비상설기구이다. 의장직은 성원국수반들이 영어자모순에 따라 6개월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차지한다. 2001년 의장국은 상반년에 스웨리예가, 하반년에 벨지끄가 차지하였다.

동맹행정집행기관(정부와 같다.)은 유럽동맹위원회이다. 립법기관은 유럽의회(본부는 룩셈부르그)이며 사법기관은 유럽동맹재판소이다.

**《평양선언》**－사회주의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여러 나라 정당대표들이 주체81(1992)년 4월 평양에서 채택한 선언이다. 새로운 기초우에서 사회주의를 재건하려는 진보적인 정당, 단체들의 일치한 요구에 따라 선언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가 발표되였다. 이 선언에 서명한 정당수는 당시의 70여개로부터 270여개로 급격히 확대되였으며 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새세기에 들어와 더욱 뚜렷히 과시되고있다. 오늘 사회주의재생운동은 평양을 중심으로 자기의 확고한 강령을 가지고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제국주의의 멸망을 촉진시키고있다.

## 대학입학시험문제

### 주체86(1997)년

1. 우리 나라에 력사적으로 존재한 나라들의 이름과 그 존재시기를 쓰시오.

2. 다음의 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하여

① 단군 ② 고주몽 ③ 을지문덕 ④ 왕건 ⑤ 강감찬 ⑥ 리순신 ⑦ 김응서 ⑧ 김옥균 ⑨ 맑스 ⑩ 레닌

3. 다음의 력사적사변과 사건, 싸움은 언제 있었는가에 대하여

① 살수대첩 ② 구주싸움 ③ 한산도싸움 ④ 3.1운동 ⑤ 6.10만세운동 ⑥ 《셔먼》호사건 ⑦ 《운양》호사건 ⑧ 빠리꼼뮨수립 ⑨ 《피의 일요일》사건 ⑩ 사회주의10월혁명

### 주체87(1998)년

1. 수나라침략을 물리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2. 다음의 력사적사건들의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쓰시오.

① 구주싸움 ② 1882년(임오)군인폭동 ③ 워트 테일러농민폭동

3. 다음의 력사적인물에 대하여 간단히 쓰시오.(어느때, 어떤 사람인가?)

① 전봉준 ② 안중근 ③ 송병준 ④ 황소 ⑤ 마젤란

**주체88(1999)년**

1. 미국침략선 《쉐난도아》호의 침입에 대하여

2. 고려-거란전쟁시기에 있은 유명한 전투들에 대하여 그 시기와 내용을 간단히 쓰시오.

3. 다음의 력사적인물들과 력사적유적유물에 대하여 간단히 쓰시오.

① 을지문덕 ② 김삿갓 ③ 스파르타쿠스 ④ 고조선의 비파형단검

⑤ 묘향산의 보현사 ⑥ 스핑크스

4. 《십자군원정》에 대하여 쓰시오.

**주체89(2000)년**

1. 우리 나라에 존재한 봉건국가들은 언제 누구에 의하여 세워졌는가에 대하여

2. 우리 나라 애국명장들의 이름을 5명이상 들고 그들이 지휘한 중요전투에 대하여 쓰시오.

3. 미국침략자들의 남연군묘도굴만행에 대하여

4.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과 그의 특징

5. 제1국제당의 창건과 그 의의에 대하여

6. 다음의 력사적사실들의 내용을 간단히 쓰시오.

① 안시성싸움 ② 헤그밀사사건 ③ 빠리꼼뮨

**주체90(2001)년**

1. 발해의 성립에 대하여

2. 다음의 인물들이 어느때 어떤 활동을 한 사람들인가에 대하여 쓰시오.

① 리순신 ② 곽재우 ③ 김종서 ④ 김응서 ⑤ 남이

3. 고려에 의한 국토의 통일에 대하여

4. 일제의 교활한 《문화통치》에 대하여

5. 세계 3대종교에 대하여

## 주체92(2003)년

### 1안

1. 1884년 부르죠아개혁의 원인과 진행과정, 교훈에 대하여 쓰시오.

2. 고구려에 의한 국토통일의 추진정형에 대하여 쓰시오.

3. 《헤그밀사사건》과 그 교훈에 대하여 쓰시오.

4. 다음의 인물들에 대하여 간단히 쓰시오.

① 강감찬 ② 을지문덕 ③ 곽재우 ④ 박지원 ⑤ 한니발

5. 로-일전쟁에 대하여 쓰시오.

### 2안

1. 3.1인민봉기의 원인과 과정, 교훈에 대하여 쓰시오.

2. 신라통치배들의 사대매국행위에 대하여 쓰시오.

3. 1389년 쯔시마원정의 목적과 과정, 의의에 대하여 쓰시오.

4. 다음의 인물에 대하여 간단히 쓰시오.

① 서희 ② 남이 ③ 류린석 ④ 정약용 ⑤ 스파르타쿠스

5. 나뽈레옹의 침략전쟁에 대하여 쓰시오.

## 주체93(2004)년

### 1안

1. 수나라침략자들을 물리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쓰시오.

2. 리조시기의 문화유산에서 세계적으로 자랑할만 한것들을 3가지 이상 해설하시오.

3. 《을미사변》은 어떤 사건인지 해설하시오.

4. 고려에 의한 국토통일은 언제 실현되였으며 그 의의는 무엇인가?

5.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10월혁명은 언제 어떻게 수행되였으며 그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쏘련은 왜 붕괴되였는가?

**2안**

1. 당나라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고구려인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쓰시오.

2. 고려시기의 문화유산에서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것들에 대하여 세가지이상 해설하시오.

3. 《챠이나》호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해설하시오.(원인, 과정, 교훈을 쓸것)

4. 고구려의 상무적기풍에 대하여 쓰시오.

5. 제2차 세계대전후 아시아와 유럽에서 어떤 사회주의나라들이 섰으며 그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동유럽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주체94(2005)년**

1. 발해의 성립과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2. 《살수대첩》은 언제 있었으며 전투과정과 이 전투에서 이름 떨친 애국명장에 대하여

3. 빈칸에 알맞는 내용을 쓰시오.

| 번호 | 구 분 | 시기 | 대표적인 지휘자 | 주요전투장소 |
|---|---|---|---|---|
| 1 | 함경도농민전쟁 | | | |
| 2 | 평안도농민전쟁 | | | |
| 3 | 갑오농민전쟁 | | | |
| 4 | 임오군인폭동 | | | |

4. 문답

① 연개소문은 어느때 장군이며 왜 정변을 일으켰는가?

② 담징은 어느 시기 사람이며 그의 공적은 무엇인가?

③ 허균은 어느 시기 사람이며 무슨 책을 썼는가?

5. 빠리꼼뮨의 실패원인과 의의는 무엇인가?

**주체95(2006)년**

1. 우리 나라에 존재하였던 고대국가들의 성립년대와 수도, 건국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2. 고려-거란전쟁의 기간과 전쟁기간 있었던 주요전투와 그 시기, 이 전쟁에서 우리 인민이 승리할수 있었던 요인에 대하여 쓰시오.

3. 다음 력사적사건들의 시기와 지휘자를 쓰시오.

① 망이농민폭동 ② 안시성전투 ③ 평안도농민전쟁 ④ 임오군인폭동 ⑤ 살수대첩

4. 신해혁명은 언제 어디서 일어났으며 그 교훈과 의의는 무엇인가?

5. 다음의 력사적용어를 해설하시오.

① 립헌군주제 ② 대동법 ③《문화통치》④ 국채보상운동 ⑤ 명치유신

**주체96(2007)년**

1. 고구려, 백제는 언제 누구에 의하여 세워졌으며 령역은 최대로 어느 지역이였는가?

2. 다음의 년대들을 쓰시오.

① 진국의 성립(세기)　　⑥ 리조의 성립(년)

② 고구려-당전쟁(년~년)　　⑦ 측우기발명(년 월)

③ 고려에 의한 국토통일(년)
④ 병인양요(년 월)
⑤ 고려-거란전쟁(년~년)
⑧ 평안도농민전쟁(년~년)
⑨ 민비학살사건(년 월 일)
⑩ 10월혁명(년 월 일)

3. 셔먼호사건, 쉐난도아호사건에 대하여 쓰시오.

4. 홍범도와 그의 의병투쟁에 대하여 쓰시오.

5. 제2차 세계대전은 언제 왜 일어났으며 미제가 반파쑈진영에 가담한 속심은 무엇인가? 전후 국제무대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주체97(2008)년**

1. 부여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세워진 국가인가?

2. 임진조국전쟁시기 각지에서 벌어진 의병투쟁에 대하여 쓰시오.

3. 다음 인물들은 어느 시기의 장군이며 언제 어느 전투에서 어떤 공적을 세웠는가?

을지문덕, 최영

4.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 비파형단검을 통하여 무엇을 알수 있는가?
-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언제 나왔으며 부족점은 무엇인가
- 고려자기의 우수성은 무엇인가?

5. 《로구교사건》은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일으켰는가?

**주체98(2009)년**

1. 고구려는 언제 누구에 의하여 세워졌으며 고구려에서 상무기풍과 군사력에 대하여 쓰시오.

2. 《구주대첩》은 누가 지휘하였으며 전투과정을 쓰시오.

3. 다음 물음에 간단히 대답하시오.

① 화약은 언제 누가 발명하였으며 어떤 화약무기를 만들었는가?

② 우리 나라에 목화씨는 언제 누가 들여왔으며 그는 어떤 기술을 보급하였는가?

③ 《삼국사기》는 언제 누가 썼는가?

④ 《훈민정음》은 언제 창제되였으며 그 우수성은 어디에 있는가?

⑤ 《리조실록》은 어떤 력사책인가?

4. 대동강에서 미국침략선 《셔먼》호를 격멸시킨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쓰시오.

5.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대하여

**주체99(2010)년**

**1안**

1. 단군은 어떤 과정을 거쳐 나라를 세웠는가?

2. 《한산대첩》은 언제 누가 지휘하였으며 전투과정을 쓰시오.

3. 다음 물음에 간단히 대답하시오.

① 금속활자는 언제 발명되였으며 그 의의는 무엇인가?

② 《훈민정음》의 우수성은 무엇인가?

③ 《대동여지도》는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가?

④ 《리조실록》은 어떤 책인가?

⑤ 3.1인민봉기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4. 일제가 야만적인 《무단통치》를 실시하면서 조선인민에게서 민족의식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날뛴데 대하여

5. 뻘럭불가담운동의 발생에 대하여 쓰시오.

**2안**

1. 고구려는 언제 누구에 의하여 세워졌는가?

2. 《구주대첩》은 언제 누가 지휘하였으며 전투과정을 쓰시오.

3. 다음 물음에 간단히 대답하시오.

① 《훈민정음》은 언제 창제되였으며 그 력사적의의는 무엇인가?

② 고려자기의 우수성은 어디에 있는가?

③ 화약은 언제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졌는가?

④ 《고려사》는 어떤 책인가?

⑤ 3.1인민봉기의 실패원인과 교훈은 무엇인가?

4. 일제가 야만적인 《무단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경제적략탈을 더욱 강화한데 대하여

5. 뻘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에 대하여 쓰시오.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력사학습참고서**

| | | | |
|---|---|---|---|
| **집 필** | 박사, 부교수 한영찬, 부교수 김덕성, 리금옥, 안재명 | **심 사** | 박사 권승안, 박사 강세권, 박사 림호성, 부교수 주성철 |
| **편 집** | 김혁, 리명철 | **콤퓨터편성** | 김은아 |
| **장 정** | 류명심 | **교 정** | 강태선 |
| **낸 곳** | 교육도서출판사 | **인쇄소** | 고등교육도서인쇄공장 |
| **인 쇄** | 주체99(2010)년 12월 18일 | **발 행** | 주체99(2010)년 12월 28일 |

교—10-666-1 부 값 원